언론사: 한국일보-2-200.txt

제목: 하비 여파 텍사스주 유해물질 저장소 물에 잠겨  
날짜: 201709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903050410002  
ID: 01101101.20170903050410002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연기 유출 등 오염 확산 우려 커져<br/>트럼프, 145억달러 긴급 복구예산 요청<br/><br/><br/>초강력 허리케인 ‘하비’로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대형 유해물질 저장소들이 물에 잠겨 오염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br/>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휴스턴 인근 유해물질 저장소 5곳이 보트를 이용해야만 접근이 가능할 정도로 물에 완전히 잠겼다. 휴스턴은 미 정유화학 산업의 중심지로 공해 방지를 위한 대형자금, ‘슈퍼펀드’가 투입된 곳만 10여개에 이른다. 미국 내에서 오염이 가장 심한 시설들이다.<br/>그러나 미 환경보호청(EPA)은 허리케인이 잠잠해질 때까지 슈퍼펀드 투입 시설들이 입은 피해를 조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지역의 토양은 암을 유발하는 다이옥신에 오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1일 휴스턴 북동쪽 40㎞ 크로즈비 카운티에 위치한 프랑스 기업 ‘아케마’ 화학공장에서 저장시설 2개가 폭발해 연기가 대량 유출되는 등 유해 물질이 하비 여파에 따른 새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br/>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에 이어 2일 텍사스주 수해 현장을 다시 찾아?이재민들을 위로했다. 백악관은 하비가 강타한 텍사스주 피해 복구를 위해 145억5,000만달러의 긴급 예산편성을 의회에 요청했다. 미 뉴욕타임스는 2012년 미국 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샌디’ 복구기금으로 500억달러 이상이 소요된 점을 들어 하비 피해 복구에는 이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br/>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01.txt

제목: 장동민 측 "악플러 100명 고소, 선처 없이 강경 대응"(공식전문)  
날짜: 201709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901050927001  
ID: 01101101.20170901050927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개그맨 장동민이 도를 넘은 악플에 칼을 빼들었다.<br/><br/>장동민 소속사 코엔스타즈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span class='quot0'>저희 코엔스타즈는 2017년 9월 1일 법무법인 태일(담당 변호사 이조로)을 통해 장동민과 그의 가족, 지인들에 대한 심한 욕설 등의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100여명에 대하여 모욕죄로 서울강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span>"고 밝혔다.<br/><br/>소속사는 "일부 남성혐오 사이트에서 장동민을 '한남충'의 대명사로 지목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퍼트리고, 이런 악의적인 댓글들이 온라인상에서 대두되고 있는 남녀간 성대결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br/><br/>이어 "장동민은 자신의 방송 퇴출을 부추기거나 자살을 원한다는 댓글 등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았고 오랜 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병행했다"고 밝혔다.<br/><br/>소속사는 "오랜 논의 끝에 장동민을 설득하여 고소하기로 결정하였고, 악플러들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며 "장동민을 비롯하여 모든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악성 댓글 및 루머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법적대응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br/><br/>다음은 코엔스타즈 공식입장 전문이다.<br/><br/>안녕하세요<br/><br/>개그맨 장동민 소속사 코엔스타즈입니다<br/><br/>저희 코엔스타즈는 2017년 9월 1일 법무법인 태일(담당 변호사 이조로)을 통해 장동민과 그의 가족, 지인들에 대한 심한 욕설 등의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100여명에 대하여 모욕죄로 서울강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br/><br/>악플러들은 장동민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표현하는 수준을 넘어서 장동민 본인을 비롯한 부모님, 지인 등에 대한 인격 모독적인 댓글과 악의적인 비난의 글들을 게시하며 지속적으로 모욕하였습니다. 일례로 “\*\*\*로 도려내자”, “\*\*시름 느검마 \*\*에서 태어나지 말아야 했어”, “장동민 엄마 \*\*”, “\*\*\*는 그냥 혀랑 이빨을 죄다 뽑아버려야되”, “갸\*\*\*걸레\*\*\*협동민미친\*\*거”, “\*\*\*\*로찍어죽여버리고싶음”. “<span class='quot1'>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암에 걸려서 죽길 빌어</span>” 등 악플러들의 언사는 이미 수인하고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br/><br/>또한, 소속사는 일부 남성혐오 사이트에서 장동민을 “한남충”의 대명사로 지목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퍼트리고, 이런 악의적인 댓글들이 온라인상에서 대두되고 있는 남녀간 성대결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br/><br/>현재도 악플러들은 장동민의 방송활동에 관한 기사 링크를 걸어 공유하며(일명 ‘좌표찍기’) 기사마다 악의적인 댓글을 달고, 출연하는 프로그램 게시판에 욕설을 도배하고 있으며 이러한 악성 댓글 및 게시글들은 제작진에게 부담을 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장동민은 자신의 방송 퇴출을 부추기거나 자살을 원한다는 댓글 등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았고 오랜 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병행하였습니다.<br/><br/>이에 소속사에서는 오랜 논의 끝에 장동민을 설득하여 고소하기로 결정하였고, 악플러들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코엔스타즈는 장동민을 비롯하여 모든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악성 댓글 및 루머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법적대응 할 예정입니다.<br/><br/>이를 계기로 온라인상의 건전한 댓글 문화가 형성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br/><br/>감사합니다.<br/><br/><br/><br/>강희정 기자 hjk0706@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02.txt

제목: 문 정부 과학기술라인, 학계 드림팀 떴다  
날짜: 201708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831051247001  
ID: 01101101.20170831051247001  
카테고리: 정치>청와대  
본문: 박기영 사퇴 과기혁신본부장에<br/>분자세포생물학 분야 임대식<br/>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br/>文 캠프 자문위 출신 염한웅<br/>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엔 백경희<br/>생명과학 분야 대표적 여성 학자<br/>2013년 논문 오류로 철회 ‘오점’<br/><br/>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에 임대식(52)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과 교수가 31일 임명됐다. 황우석 박사 논문조작 사태에 연루된 ‘주홍글씨’를 극복하지 못하고 박기영 전 본부장이 스스로 물러난 지 20일 만이다.<br/>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임 과기혁신본부장을 임명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염한웅(51) 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에 백경희(61) 고려대 생명과학부 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모두 학계에서 널리 인정받는 실력자들로, 내정은 행정적 절차라 임명과 큰 차이가 없다. 이로써 문재인정부 출범 113일 만에 정책 수립과 심의, 대통령 자문까지 아우르는 과학기술정책 추진을 위한 큰 틀이 갖춰졌다.<br/>임 신임 본부장은 암 원인 연구 등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실적을 쌓은 분자세포생물학 분야 권위자다. 서울에서 태어나 영일고와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텍사스주립대에서 생화학ㆍ분자유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려대를 거쳐 2002년부터 카이스트 교수를 지냈고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학술위원장 등을 역임했다.<br/>과기혁신본부는 문재인정부에서 차관급 조직으로 격상시킨 명실상부 과학기술정책 컨트롤타워다. 범부처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고, 20조원에 이르는 연구개발사업 예산 심의ㆍ조정 및 성과평가까지 담당한다. 본부장은 국무회의에도 배석한다.<br/>염 부의장 내정자는 국내 대표 기초과학자다. 서울에서 태어나 서라벌고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포항공대에서 물리학 석사, 일본 도호쿠(東北)대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0년 연세대 물리학과 교수로 임용됐고, 2013년부터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자제어저차원전자계연구단 단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올해 3월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 영입돼 과학기술 분야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br/>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구다. 의장은 대통령으로, 부의장이 과기정통부의 업무지원을 받아 실질적으로 이끌게 된다.<br/>백 위원장 내정자는 질병이나 극한 환경을 견딜 수 있는 식물 유전자를 발굴해 작물의 생산성을 높이는 분야에서 손꼽히는 생명과학자다. 서울대 미생물학과에서 학부와 석사과정을 마친 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분자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버드대 연구원으로 일하다 귀국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거쳐 고려대 교수로 재직했다.<br/>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범부처의 과학기술 관련 중요 정책과 중장기 연구개발사업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 인사가 국무총리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br/>백 내정자는 여성 과학인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이지만 교신저자로 2004년 ‘식물과 세포생리학’ 저널에 게재한 논문에서 사진 조작 및 반복 사용 사실이 지적되자 2013년 논문을 철회한 게 오점으로 남았다.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백 내정자는 “<span class='quot0'>학생들의 실험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을 확인해 오류를 찾아냈고, 교신저자인 내가 몰랐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철회를 결정한 것</span>”이라고 해명했다.<br/>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03.txt

제목: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대식 KAIST 교수 임명  
날짜: 201708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831051108002  
ID: 01101101.20170831051108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황우석 연루’ 박기영 전 본부장 사퇴 20일 만에<br/>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캠프 인사’ 염한웅<br/>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에 ‘여성 과학자’ 백경희<br/><br/><br/>문재인 대통령은 31일 ‘황우석 사태’ 연루로 사퇴한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후임에 임대식(52)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염한웅(51) 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에 백경희(61) 고려대 생명과학부 교수를 내정했다.<br/> 임대식 신임 본부장은 암 원인 연구 등에 대한 업적을 인정받아 2014년부터 KAIST 지정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분자세포생물학 분야 권위자다.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학술위원장, KAIST 히포(Hippo) 세포분열ㆍ분화창의연구단 단장을 역임하는 등 연구역량뿐 아니라 관리역량까지 겸비했다는 게 청와대의 평가다.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포럼’ 과학기술분과에서 활동했고, 지난 대선 기간에는 경선캠프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의 과학기술 자문을 맡기도 했다.<br/>염한웅 부의장은 2000년 일본방사광과학회 ‘젊은 과학자상’ 수상을 시작으로, 한국물리학회 학술상(2007년), 미국 물리학회 최우수 논문심사위원(2010년), 한국의 선도과학자(2012년ㆍ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과학상(2015년ㆍ대통령), 인촌상(2016년) 등을 받은 국내 기초과학 분야 대표 물리학자다. 지난 3월 문재인 캠프에 영입돼 과학기술분야를 자문했다. 특히 과학기술자문위는 이번 정부에서 위상이 대폭 강화된 과학기술계 최고 자문기구다. 염 부의장은 의장인 문 대통령을 도와 국가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정책 수립에 역할을 할 전망이다.<br/>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과학기술 정책ㆍ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과 조정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백경희 위원장이 이끌게 됐다.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에서 분자생물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식물 성장과 생존 메커니즘을 연구해 왔다. 국내를 대표하는 여성 과학자로 왕성한 연구활동 외에 신진 과학자 양성에도 힘써 온 것으로 평가된다. <br/>다만 2004년 생물과학의학 분야 학술지에 교신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이 데이터 중복 사용이라는 점이 드러나 2013년 게재를 철회한 적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논문을 본인이 철회한 사실은 검증 과정에서 알았지만 여러 덕목 때문에 발탁하게 됐다"고 말했다.<br/><br/>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br/><br/>◆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br/>▦서울(52) ▦서울대 미생물학과, 미국 텍사스주립대 생화학 및 분자유전학 박사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학술위원장, KAIST 생명과학과 지정 석좌교수, KAIST 히포(Hippo) 세포분열?분화창의연구단 단장<br/><br/>◆염한웅 과기자문회의 부의장<br/>▦서울(51) ▦서울대 물리학과, 일본 도호쿠(東北)대 박사 ▦연세대 물리학과 교수, 과기자문회 과학기술기반분과 자문위원, 기초과학연구원 원자제어저차원전자계연구단 단장, 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br/><br/>◆백경희<br/>▦서울(51) ▦서울대 미생물학과, 미국 MIT 분자생물학 박사 ▦한국식물학회 및 한국식물병리학회 이사, 고려대 식물신호네트워크연구센터장, 고려대 생명과학부 교수

언론사: 한국일보-2-204.txt

제목: [석면, 또 다른 이야기] “1년 남았다는데…” 영문 모를 시한부 선고  
날짜: 201708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830051344001  
ID: 01101101.201708300513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30년 가까이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살아<br/>“고향집 지붕, 슬레이트 위에 기와 씌워<br/>동네 폐암 환자들… 학교 선배도 죽어”<br/><br/>지난 7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 본사를 찾은 악성중피종 환자 홍지영(가명ㆍ52)씨는 지난해 10월 길어야 1년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br/>홍씨가 처음 병원을 찾은 것은 밤새도록 멎을 줄 모르는 기침 때문이었다. 감기 증세가 조금 심한 것 같다고 느끼며 간 동네 병원에서 찍은 흉부 엑스레이에는 폐 아랫부분에 까만 음영이 보였다고 한다. 의사의 권유에 따라 찾은 대학병원 교수가 CT촬영 끝에 알려준 병명은 흉막암, 무슨 병인지 몰라 한참을 묻고서야 석면 때문에 생긴 악성중피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병원을 찾은 지 한달 쯤 지난 무렵이었다.<br/>의사로부터 원인을 듣고서도 홍씨는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 석면 병에 걸렸다는 다른 사람들처럼 석면 광산이나 공장 근처에 살지도 않았고 직업도 전혀 연관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30년 가까이 신부화장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의 삶을 살아온 그는 “매일 들이마시던 화장품 가루나 스프레이 때문인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고 말했다.<br/>40년 전 기억을 더듬어 떠올린 그의 고향은 전남 구례에서도 한참을 들어가야 하는 지리산 산기슭, 봄이면 노란 산수유가 흐드러진 마을이었다. 슬레이트 위에 기와를 덧씌운 고향집의 모습이 그려졌지만 그것 때문인지 확실치는 않았다. 홍씨는 “<span class='quot0'>지붕 보수를 하면서 슬레이트를 철거하려고 하다가도 부모님이 슬레이트가 아깝다며 그 위에다 기와를 씌웠던 기억이 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동네에서도 폐암 환자가 몇몇 있었고 재작년엔가는 학교 선배가 폐암으로 죽기도 했는데 돌이켜보면 석면의 영향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span>”고 말했다.<br/>종양내과로 옮긴 홍씨의 눈에 비친 환자들의 모습은 수 개월 이내에 죽음이 닥칠지도 모르는 삶의 끝자락에 서 있는 모습이었다. 이따금씩 들리는 옆 병실 환자의 보호자와 의사의 대화 속에는 “이제 준비하셔야 한다”는 말이 귀에 박혔다. 얼마나 남았냐는 홍씨의 물음에 의사는 “<span class='quot1'>항암치료를 받으면 1년, 받지 않으면 3개월인데 경과가 좋아질 수 있으니 희망을 갖고 (치료를) 해 봅시다</span>”고 했다고 한다. 그 때부터 홍씨의 남은 삶은 1년짜리 시한부가 됐다.<br/>수술 과정에서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의사의 판단에 6차례의 항암 치료를 받은 뒤 30차례 방사선을 쐬는 것으로 치료를 대신했다. 처음 세 차례 항암치료를 받은 뒤 암 세포가 줄었다는 결과를 받아봤지만 이후에는 차도가 없었다. 병원에서 할 수 있다는 치료를 다 마친 홍씨는 “<span class='quot0'>공기 좋은 데 가서 혼자 사느니 하루하루를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제일 나은 것 같다</span>”며 집에서의 생활을 선택했다.<br/>이따금 남편이 떠 준 물을 마시며 담담하게 이야기하던 홍씨는 주치의가 이야기했던 1년이라는 기간을 머릿속에서 떨쳐내지 못하는 듯 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인터넷 카페를 찾아봐도 3개월에서 1년 정도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글, 진단 후 1~2년 이내에 죽은 사람들의 글 밖에 눈에 안들어 온다</span>”며 안타까워했다.<br/>그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평소에는 멀쩡하다가도 혼자 있는 순간이 오면 ‘좀 있으면 진단받은 지 1년이 돼 가네… 벌써 1년이네’하는 생각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건 어쩔 수 없는가봐.“<br/>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br/>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05.txt

제목: “당신은 행복한 사람” ‘음유시인’ 조동진 영면하다  
날짜: 201708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830051339001  
ID: 01101101.20170830051339001  
카테고리: 문화>음악  
본문: “<span class='quot0'>울고 있나요 당신은 울고 있나요, 아아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span>” 3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방광암으로 투병하다 28일 세상을 떠난 가수 조동진의 빈소에는 그의 노래 ‘행복한 사람’이 나지막하게 흘렀다. 망자가 남은 이들을 위로하듯, 사려 깊고 따뜻한 목소리. 고인의 영정 사진 아래 놓인 작은 촛불 전등이 그의 얼굴을 은은하게 밝혔다. <br/>조동진의 발인식이 이날 열렸다. 가수인 동생 조동익, 조동희 등 유족은 고인의 마지막 길을 눈물로 배웅했다. 고인의 마지막 길은 외롭지 않았다. 밴드 산울림의 김창완을 비롯해 가수 양희은, 한영애, 윤종신 등이 빈소를 찾아 애도했다. 1980~1990년대 포크 음악 공동체인 동아기획과 하나음악에서 조동진과 음악적 교류를 이어온 가수 장필순과 김현철, 유희열 등 동료 및 후배 음악인의 추모 발길도 이어졌다. 유희열은 “<span class='quot1'>하나음악 시절부터 지금까지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 음악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던 분</span>”이라며 고인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조동희는 발인을 마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지운 영화감독 등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 한 이들의 다정한 위로에 고마워했다. <br/><br/>조동진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음악은 당분간 멈추지 않는다. 고인이 암 투병 중에 기획한 공연 ‘조동진 ‘꿈의 작업 2017-우리 같이 있을 동안에’가 9월16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다. 후배 음악인들이 고인을 기리는 추모 공연이 될 예정이다. <br/>1979년 1집 ‘조동진’으로 데뷔한 조동진은 사색적 가사와 서정적 통기타 음악으로 사랑 받았다. ‘나뭇잎 사이로’ ‘제비꽃’ ‘겨울비’ 등 묵직한 명곡을 남겼다. 고인은 경기 벽제승화원에 영면했다.<br/><br/>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06.txt

제목: 시골 70대, 의료봉사단에 췌장암 발견 ‘구사일생’  
날짜: 201708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829051112001  
ID: 01101101.20170829051112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칠곡경북대병원 경북 청송서 의료봉사<br/>70대 대상 초음파 검사 중 이상소견 발견<br/>정밀검사 결과 ‘췌장암’ 초기 확인<br/>최근 성공리에 수술 받고 퇴원<br/><br/><br/>경북 청송군에 사는 70대 후반 어르신이 칠곡경북대병원의 의료봉사단으로부터 초음파검사를 받던 도중 췌장암이 발견돼 성공리에 수술을 마쳤다.<br/>칠곡경북대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청송군 안덕면 노인대학을 방문, 초음파 장비 등을 이용해 의료봉사를 진행하던 중 김갑철 영상의학과 교수가 A(78)씨의 뱃속에서 이상소견을 발견했다. A씨는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칠곡경북대병원을 찾아 정밀검사를 실시했고, 췌장암 판명을 받고 지난 19일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조만간 퇴원할 예정이다.<br/>수술을 집도한 권형준 간담도췌장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췌장암은 초기증상이 거의 없고 병의 진행 속도가 빨라 조기발견이 중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A씨는 조직검사를 통해 췌장암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초기에 발견됐다</span>”고 말했다.<br/>A씨는 “평소 전혀 이상을 느끼지 못했는데, 암 중에서도 가장 무섭다는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 여생을 보다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 됐다”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br/>칠곡경북대학교병원은 찾아가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일환으로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마을을 방문해 지속적인 의료봉사를 해 오고 있다.<br/>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07.txt

제목: (유) (무) (갱신형) (비갱신형)… 암호 같은 보험용어 정체는…  
날짜: 201708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829051339001  
ID: 01101101.20170829051339001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보험 상품이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용어들이 있다. 상품마다 앞뒤로 붙은 (유), (무), (갱신형), (비갱신형) 등이 대표적인데,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좀 더 현명하게 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br/>보험상품은 유배당과 무배당으로 구분된다. 상품에 ‘(유)’ 표시가 붙는 유배당 보험은 보험사가 고객이 낸 보험료를 운용해 생긴 이익을 고객에게 나눠 주는 것이고, ‘(무)’가 붙는 무배당 보험은 운용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는다. 보험사는 애초 보험료를 산정할 때 해당 상품의 사업비, 예상 운용 수익률, 사고위험률 등을 고려한다. 유배당 보험은 예상보다 보험금이 적게 나가거나 사업비가 덜 쓰였을 때 생기는 잉여자금의 일부를 배당금 형태로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br/>그렇다면 유배당 상품이 무조건 유리한 걸까. 꼭 그렇지는 않다. 유배당 상품은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보험료는 무배당보다 비싸다. 비싼 보험료를 내고 실제론 배당금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반대로 보험료를 낮게 책정하는 무배당 상품은 추가 수익은 없지만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br/>유배당 보험은 금리가 높고, 주식 시장이 활황일 때 보험사가 보험료 운용을 잘하면 가입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유리하다. 반대로 금리가 낮거나 주식시장이 불황이면 무배당 상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낮추는 게 낫다. 최근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보험사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게 되자 무배당 보험 출시를 늘리는 추세다. <br/>보험에 가입할 때 꼭 확인해야 할 것으로 ‘(갱신형)’과 ‘(비갱신형)’ 구분이 있다. 갱신형은 초기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3년이나 5년 등 일정 기간마다 나이와 위험률을 재산정해 보험료가 조정되는 보험이다. 또 만기까지 보험료를 납입해야 보장이 유지된다. 반면 비갱신형은 초기 보험료는 비싼 대신 중간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10년, 20년 등 정해진 납입기간만 내면 만기까지 쭉 보장 받을 수 있다.<br/>예를 들어 30세 가입자가 100세 만기 암보험에 가입한다고 치자. 갱신형이라면 암 진단을 받거나 만기인 100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비갱신형은 10년 또는 20년간 보험료를 내면, 이후 만기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만약 50세 가입자가 70세에 암에 걸린다고 가정하면 초기 보험료가 낮은 갱신형이 더 유리하다.<br/>대체로 젊을수록 비갱신형, 나이가 들수록 갱신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편이다. 또 평생 보장이 필요한 보험은 비갱신형, 특정기간 보장만 챙기려면 갱신형이 낫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하나의 주계약과 몇 개의 특약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계약은 비갱신형으로 가입해 평생 보장하고, 일부 특약은 갱신형으로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권재희 기자 ludens@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08.txt

제목: 희망! 코리아 - 아모레퍼시픽  
날짜: 201708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828051330004  
ID: 01101101.20170828051330004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아모레퍼시픽은 ‘A MORE Beautiful World’라는 비전 아래, 모든 여성들이 저마다 꿈꾸는 삶을 누리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이바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로도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0만 명 여성의 건강과 웰빙, 경제적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전 세계 여성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br/>아모레퍼시픽그룹은 지난해 사회공헌활동에 240억원을 집행했으며, 매년 그 규모를 확대해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확고한 실천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br/>우선, ‘여성’의 건강과 웰빙,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여성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핑크리본캠페인,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 희망가게, 뷰티풀 라이프 등을 통해 여성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br/>또한, 그린사이클 캠페인, 라네즈 리필미 캠페인, 이니스프리 숲 캠페인 등 ‘자연생태’를 보전하기 위한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 아름다운 자연과의 공존에 힘쓰고 있다. <br/>아모레퍼시픽은 아시안 뷰티(Asian Beauty)로 세상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원대한 기업(Great Company)’으로의 도약을 꿈꾼다. 그 일환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A MORE Beautiful World’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의지와 약속인 ’20 by 20’를 발표했다. <br/>2008년부터 시작된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은 여성 암 환자들에게 메이크업, 피부관리 등 스스로 아름답게 가꾸는 노하우를 전수하는 캠페인이다. 2016년까지 총 11,078명 여성 암환자 및 4,033명 아모레 카운셀러 자원봉사자가 참가, 아모레퍼시픽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잡았다.<br/>아모레퍼시픽이 후원하고 아름다운재단이 운영하는 ‘희망가게’는 한부모 여성의 자립을 위한 창업 대출을 지원하고, 창업주와 그 가족들이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마이크로 크레디트(Micro Credit)’ 사업이다. 희망가게는 2004년 1호점 개점 이후 100호점(2011년), 200호점(2013년)을 거쳐 현재까지 307개점(2017년 7월 기준)이 문을 열었다. <br/>한편 ‘희망가게’는 맏자녀 기준 25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가장이 지원 대상이며, 올해 희망가게 공모는 9월 8일까지 3차 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정보는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www.beautifulfund.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언론사: 한국일보-2-209.txt

제목: [헬스 프리즘] 암 통증, 마약성 진통제만 의존 말고 중재적 치료 등 활용을  
날짜: 201708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828051321002  
ID: 01101101.20170828051321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조대현 대한통증학회 회장(대전성모병원 통증센터 교수)<br/><br/> 암환자 가운데 통증으로 고통 받는 사람은 64%나 된다. 이 가운데 43%는 통증도 제대로 조절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암으로 인한 통증인 ‘암성 통증’을 관리하는 것은 환자의 남은 생애 동안 존엄한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br/>현재 이뤄지고 있는 암성 통증 치료는 마약성 진통제 사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용량을 늘릴수록 진통효과가 커진다는 점, 부작용이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호전된다는 점 등이 그 배경이다. 암성 통증 치료 캠페인도 대부분 마약성 진통제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다는 논지로 전개되고 있다. <br/>최근 모르핀 외에 다양한 마약성 진통제가 나와 효과적인 통증 치료가 가능해졌고, 통증 조절도 쉬워졌다. 하지만 마약성 진통제의 고용량 사용에 따른 문제점과 다른 유용한 통증 치료 수단이 간과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성 진통제만 의존하면 이를 과다 사용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환자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 고용량 마약성 진통제는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섬망(?妄) 증상을 일으키는 주 위험인자다.<br/>특히 통증 범위가 국한됐다면 적절한 중재적 치료로 통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중재적 치료는 신경치료의 일종으로 바늘을 통해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에 약물을 넣어 통증 전달을 억제하거나 척수강이나 신경총에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여해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상복부 통증에는 복강신경총 차단술, 하복부나 골반 통증은 상하복 신경총 차단술, 항문과 회음부 통증은 외톨이 신경절 차단술, 안면 부위 통증은 삼차신경절 차단술, 뼈 전이로 인한 통증에는 해당 뼈 부위 골성형술 등이 암성 통증에 쓰이는 대표적인 시술법이다.<br/>췌장암 환자는 거의 모두 극심한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데 복부 신경총 차단이나 파괴 시술로 통증 치료가 가능하다. 이밖에 미량의 마약성 진통제를 척수강 내에 펌프로 넣어도 진통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중재적 치료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지면 진통제 증량에 따른 부작용 감소 효과와 효과적인 통증 조절로 환자가 존엄을 유지하면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br/>최근 통증 치료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는 세계보건기구(WHO) 3단계 진통제 가운데 마지막 3단계인 강한 마약성 진통제와 보조약으로도 통증 조절이 충분하지 않으면 중재적 치료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더 적절한 통증 관리를 하려면 중재적 치료를 마약성 진통제 등을 이용한 약물 치료로 해결이 안될 때 쓰는 최후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통증 치료 첫 단계부터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br/>암 통증 치료의 궁극적 목적은 환자가 생의 마지막까지 존엄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에서 공동으로 발행한 암성 통증 관리지침 권고안(6판)에서도 암성 통증 치료 시 약물 치료 외에 심리사회적 지지, 중재적 통증 치료, 방사선 치료 등을 포괄한 다학제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또한 인지행동 치료도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할 치료법이다. 의료진과 환자와 가족 모두 다양한 암성 통증 치료법이 있음을 이해하고, 충분한 대화로 환자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통증 치료법을 찾아 행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다.

언론사: 한국일보-2-210.txt

제목: 희망! 코리아 ? 삼성화재  
날짜: 201708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828051303001  
ID: 01101101.20170828051303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얼마나 잘 사느냐’가 중요해진 100세 시대. 건강관리 및 자금마련 등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단연코 보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삼성화재에서는 건강·상해·비용 등 다양한 위험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장하는 통합보험, 자동차보험으로는 부족한 법률적 손해를 보장해 주는 운전자보험, 한국인의 3대 질병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건강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br/>1인가구 통합보험?‘모두모아…’ 삼성화재 통합보험 ‘모두모아 건강하게’는 상품 하나로 사망, 장해, 진단비, 실손의료비 등 건강보험 외 배상·화재 위험까지 모든 보장이 가능한 종합선물세트이다. 또한 15년마다 보장내역 재점검을 통한 고객의 상황별 재무설계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br/>기본적으로 사망/장해/진단비 등은 한 번 가입으로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고, 경제활동이 왕성한 시기의 집중적인 보장을 원하는 고객은 60/65세 만기 담보를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15년 동안 보험료 인상 없이 계약 유지가 가능하다. <br/>삼성화재 통합보험만의 기능 및 혜택도 있다. 고객이 납입기간 동안 쌓은 적립금을 저축성 보험으로 계약 전환하여 만기 또는 해지 시 매년 또는 매월 분할하여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장례용품 서비스, 홈케어 서비스 및 카케어 서비스 등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추가적인 서비스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br/>운전자보험?‘안전운전 파트너’ 운전자보험은 사고에 따른 형사적 책임을 보완하는 보험. 운전자가 신호위반, 속도위반, 횡단보도 사고, 스쿨존 사고 등 11대 중과실 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 혹은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발생되는 벌금,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은 운전자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전운전 파트너’는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 및 비용손해를 보장하며 운전자 가족의 위험까지 보장한다. <br/>암·뇌·심장질환 보장 ‘태평삼대’ 삼성화재는 대표적인 3대 질병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에 대해 진단, 치료, 장애, 사망까지 집중 보장하는 ‘태평삼대’를 올해 2월 출시했다. 15세부터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1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3대 질병으로 인해 뇌병변, 심장·언어장애 등 1~3급 장애 판정을 받으면 5년간 매월 생활자금을 지급, 간병비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언론사: 한국일보-2-211.txt

제목: [이 상품 어때요] KB든든한차이나고배당 목표전환형펀드 외  
날짜: 201708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828051110001  
ID: 01101101.20170828051110001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KB자산운용, 중국 고배당주 투자 목표전환펀드 <br/>KB자산운용은 배당수익률이 높고 성장이 기대되는 중국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KB든든한차이나고배당 목표전환펀드'를 출시했다. 목표수익률 5%를 달성하면 보유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채권형으로 전환된다. 판매보수는 설정 후 6개월까지 목표수익률에 도달하지 못하면 50% 인하하고, 1년 이후부터는 50%를 추가로 인하한다. 운용보수도 1년 이후 목표수익률에 미달하면 50%를 인하한다. A클래스의 경우 납입금액의 1%를 선취수수료로 부과한다. KB국민ㆍ우리ㆍ부산은행에서 이달 30일, 경남은행ㆍ현대차투자증권ㆍKB증권에서 31일까지 모집한다.<br/><br/>JT친애저축은행 연 2.5% 금리 정기예금 특판<br/>JT친애저축은행이 지난 25일부터 영업점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연 2.5%(세전ㆍ단리 기준)의 정기예금 특별판매를 시작했다. 12개월 이상 만기로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이 대상이다. 12ㆍ18개월 만기 상품의 경우 기존 금리(연 2.3%)보다 0.2%포인트 인상됐다. 24개월 이상 만기 상품 기준으로는 기존 금리(연 2.4%)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특판 한도는 총 500억원이다. JT친애저축은행 영업점 창구와 인터넷뱅킹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번 특판 상품은 대면채널 가입 기준 업계 최고 수준의 금리라는 게 JT친애저축은행측 설명이다.<br/><br/>동양생명, 온라인전용 무해지환급형 암보험 <br/>동양생명은 온라인전용 '(무)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암보험'을 출시했다. 해지 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20%가 싼 무해지환급형과 순수보장형 등 2종으로 구성됐다. 기존에 소액 암으로 분류되던 유방암과 전립선암을 일반 암과 동등하게 보장해준다. 가입금액 500만원을 기준으로 고액치료비 관련 암 진단시 5,000만원을 지급하고, 유방암ㆍ전립선암과 일반 암은 1,000만원, 갑상선암ㆍ경계선종양ㆍ기타피부암 등은 200만원을 준다. 질병이나 재해로 50% 이상 장해를 입거나 암 진단으로 확정 받으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언론사: 한국일보-2-212.txt

제목: [단독]잠복기 30년인데.. 갓 스무 살 청년 발병 ‘석면암 미스터리’  
날짜: 201708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828050642001  
ID: 01101101.20170828050642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역학조사 411명 중 5명 20대<br/>“유전적 요인 분석 필요” 목소리<br/><br/><br/>충남 아산에 거주하는 A(26)씨는 갓 스무살이 된 2010년 악성중피종을 진단받았다. 30년 이상으로 알려진 악성중피종의 잠복기를 상당히 앞선 나이였다. 학생인 A씨 본인은 물론 택시기사인 아버지, 회사원인 어머니 역시 석면과 직접적 연결고리는 전혀 없었다. 광범위한 주변 조사 끝에 노출 이력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1996년쯤 한 달 남짓 진행되던 자택 공사 현장을 드나들었던 사실뿐. 역학 보고서 연구를 이끈 이용진 천안순천향대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장은 “<span class='quot0'>적은 양의 석면 노출에도 악성중피종 발병이 가능하긴 하지만 만 19세에 진단을 받은 점은 매우 드문 일</span>”이라고 말했다. <br/>잠복기가 30년 이상인 악성중피종 발병 사례가 20대에서도 발견되면서, 석면의 직업ㆍ환경적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는 물론 유전적 요인에 대한 꾸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br/>27일 천안순천향대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연구팀의 ‘석면노출 설문지 개발 및 국내 악성중피종 환자의 역학적 특성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악성중피종 환자 411명 중 석면 노출원이 확인된 375명의 평균 잠복기는 34.2년이었다. 악성중피종을 진단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환자의 연령 분포를 구분해보면 60대가 119명(29.0%)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117명(28.5%), 50대 97명(23.6%), 40대 35명(8.5%), 30대 19명(4.6%), 80대 17명(4.1%), 20대 5명(1.2%), 90대 이상 2명(0.5%) 순이었다. <br/>주목할 점은 평균 잠복기를 앞서는 20대 환자가 5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5명 중 3명은 ▦가족의 오염된 작업복 세탁 ▦자택 건축물 철거 및 신축 작업 ▦선박수리 조선소 인근 7년 거주 등 석면 노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2명의 석면 노출원은 불분명하다. 1명은 재개발이 이뤄진 지역에서 850m 인근에 4년, 재개발 지역 1,200m 인근에서 6년 거주했다는 간접적 노출 이력밖에 없고 나머지 1명은 석면 관련 요인이 전혀 없다. 이 센터장은 “<span class='quot0'>어린 나이에 악성중피종을 진단 받은 사례자들도 있어 직업ㆍ환경적 노출뿐만 아니라 유전적 특성에 따른 발병 가능성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예후가 좋지 않은 악성중피종 환자의 생존률은 20%에도 못 미친다. 411명의 환자 가운데 연구팀의 조사 시점(2015년~지난해)에 살아있던 환자는 71명(17.3%) 뿐. 평균 생존기간은 2년도 채 안 되는 19.1개월 정도였다. 다만, 411명 가운데 악성중피종 수술을 한 144명 환자의 평균 생존기간은 34.3개월로 수술을 하지 않은 267명(11.1개월 생존)보다 3배 이상 오래 생존했다. 이 센터장은 “<span class='quot0'>악성중피종 환자들의 생존기간이 워낙 짧지만 조기 발견과 수술 등으로 10년 이상 생존하는 이들도 없진 않다</span>”며 “<span class='quot0'>적극적 환자 발굴과 사후 관리를 위한 연구가 꾸준히 지속돼야 하는 이유</span>”라고 말했다.<br/><br/>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13.txt

제목: [삶과 문화] 죽음의 진단명  
날짜: 201708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827050500002  
ID: 01101101.20170827050500002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여느 날처럼 지루한 강의 시간이었다. 나이 지긋한 교수님은 국제질병분류표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셨다. 왠지 듣지 않아도 다 알 것 같은, 사무적이고 형식적인 내용이었다.<br/>“ICD-10은 질병 및 관련 건강 문제의 국제 통계 분류 10차 개정판입니다. 세계 보건 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일원화된 체계로 환자를 분류하기 위해 매번 개정판을 발표합니다. 여러분은 환자를 진료하고 이 체계에서 맞는 진단명을 찾아서 기입하면 됩니다. ICD-10은 세계적으로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22개의 다양한 카테고리로 되어 있으므로, ICD-10에는 ‘감기’나 ‘복통’ 같은 흔한 진단명부터, ‘전쟁행위’나, ‘핵폭발’, ‘아르마딜로에게 물림’ 같은 다소 의외의 진단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br/>갑자기 환자에게 ‘전쟁’이라는 진단명을 붙인다는 말에 학생들은 교수님을 잠시 바라보았다. 강의실이 느슨한 분위기에서 조금 긴장된 분위기로 바뀌었다. 시선이 모이는 기색을 느낀 교수님은 약간 힘을 주어 그 다음 말을 이었다.<br/>“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의사가 ICD-10을 기준으로 자신이 진료한 모든 환자에게 진단명을 붙입니다. 그렇다면, 통계를 냈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환자를 죽음으로 이끄는 진단명 하나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 진단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참고로, 여러분의 선배 중에서 이 질문의 답을 맞힌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진단명을 맞히는 학생에게는 특별히 가산점을 주겠습니다.”<br/>교실이 웅성거렸다. 가산점이라는 말 때문인지, 한 학생이 손을 들어 분명 틀려 보이는 답을 외쳤다.<br/>“암입니다.”<br/>“아닙니다.“<br/>다른 학생이 손을 들고 외쳤다.<br/>“고혈압입니다.”<br/>“아닙니다.”<br/>“교통사고입니다.”<br/>“당뇨입니다.”<br/>“전부 아닙니다.”<br/>우리는 이 질문이 우리가 스스로 맞힐 수 없는 질문임을 깨달았다. 우리는 질문을 낸 교수님이 답을 먼저 제시해주기를 침묵으로 기다렸다. 교수님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br/>“그것은 바로, Extreme poverty, 극도의 빈곤. 한 마디로 가난입니다.”<br/>우리는 순간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다.<br/>“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고통 받는 일을 이해해야 합니다. 암, 고혈압, 당뇨, 전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세계에는 그런 질환을 앓을 나이까지 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의 진단명은 뭐라고 붙여야 할까요. 이 사람들을 전부 우리가 의학에서 정해놓은 잘난 진단명으로 죽었다고 분류할 건가요. 아니죠. 이 사람들은 가난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br/>우리는 이어지는 교수님의 말을 침도 못 삼키고 듣고 있었다. 교수님은 격양되어 말을 이었다.<br/>“여러분들은 이제 의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암도 치료하고 싶고, 고혈압도, 당뇨도 치료하고 싶겠지요. 사람들의 생명을 연장하는, 그게 멋있는 의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많은 인류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그런 병이나 질환이 아닙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살 곳이 없어서 인간들은 죽어갑니다. 그런 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죽는단 말입니다. 의사는 생명을 연장하기에 앞서 인간을 돌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이 진단명을 일생 쓸 일이 없더라도,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다수의 고통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의 진단명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는 일이, 이 복잡한 학문을 떠나, 인간을 이해하는 한 명의 인간이 되기 위한 마음가짐이라고 믿습니다.”<br/>남궁인 응급의학과 전문의

언론사: 한국일보-2-214.txt

제목: “온 힘 다해 도왔는데… 방사능 위험성 알려주지 않아”  
날짜: 201708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825051107003  
ID: 01101101.20170825051107003  
카테고리: 국제>일본  
본문: 도호쿠 대지진 구조 나섰던<br/>미군 150명 각종 암 시달려<br/>도쿄전력 상대 5조원대 소송<br/><br/><br/> “2011년 도호쿠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일본을 위해 온 힘을 다한 미군들이 무척이나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다. 더 이상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br/>원전찬성론자에서 탈(脫)원전 운동가로 변신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일본 총리는 지난 해 5월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도호쿠 대지진 당시 구조작전에 참여했다가 방사성물질에 노출된 퇴역 미 해군들에게 일본 기업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br/>당시 사상초유의 재난현장에서 구호에 큰 역할을 한 병사들이 20대에게 흔치 않은 갑상샘암, 고환암, 뇌종양, 자궁출혈, 백혈병 등에 시달리며 고통을 겪고 있다. 한 병사는 백혈병으로 시력을 잃었고, 또 다른 해군 병사의 부인은 뇌ㆍ척추암 진단을 받은 아기를 출산하는 등 참혹한 삶을 살고 있다. 심지어 작전에 투입된 한 해군 병사는 부갑상선 암 판정을 받은 뒤 3년 전 끝내 세상을 떠났다. <br/>이들 병사들은 2011년 3월 도호쿠 대지진이 발생하자 원자력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호 등 함대에 탑승, 후쿠시마(福島) 앞바다 등에서 지원활동을 펼쳤다. 한때는 적이었지만 지금은 둘도 없는 혈맹을 돕는다는 의미로 도모다치(友達ㆍ친구)작전으로 불렀다. 이들은 함상에서 식량ㆍ옷ㆍ담요를 실어 날랐고, 관측항공기를 이용해 피해 정도를 조사했다. 해병대는 인명 구조와 제염 작업을 위해 재해현장에 몸을 던졌다.<br/>그렇게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6년이 흘렀지만, 이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고 있다. <br/>사고 이후 생각지도 못했던 병마에 시달리는 병사들이 늘어나면서 방사능 노출이 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결국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시 원전운영사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폭발에 따른 방사성 물질 유출과 관련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방사성 물질 유출 위험사실을 모른 채 구조활동을 펼쳤음에도 지금도 도쿄전력은 피폭량이 인체에 해롭지 않은 수준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br/>이에 병사들은 최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피폭됐다면서 도쿄전력에 50억달러(약 5조6,440억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교도통신이 25일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원고는 동일본대지진 당시 현장 구조 활동에 나섰던 미군 150명이다.<br/>이들은 지난 1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소장을 내고 의료비 등에 충당하도록 50억달러 이상의 기금 창설을 요구했다. 원고들은 원전 폭발사고가 도쿄전력 측의 부적절한 원전 설계 및 관리에 따라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기금 창설 이외에도 피폭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요구한 상태다.<br/>도호쿠 대지진 당시 구조지원을 나왔던 미군 중 그 동안 암과 뇌종양 등의 질병으로 현재까지 최소한 7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br/>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15.txt

제목: “건보 확대돼도 암ㆍCI보험 유지해야”  
날짜: 201708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824051201002  
ID: 01101101.20170824051201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문재인케어 발표후 해지문의 급증<br/>보장 늘어나도 치료비에 그쳐<br/>일 못할 때 생계비 고려 필요<br/><br/><br/>지난해 뇌졸중으로 쓰러진 김기철(66)씨는 입원 두 달간 치료비와 간병비로 2,000여만원을 썼다. 퇴원 후에도 재활치료로 매달 30만~100만원이 나간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생계다. 30년간 철물점을 운영해왔는데, 이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걷기조차 힘들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씨는 24일 “<span class='quot0'>몸이 불편한 것보다 가족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사실이 더 큰 고통</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병원비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였다</span>”고 한숨을 내쉬었다.<br/>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이른바 ‘문재인케어’ 발표 이후 중대질병(CIㆍCritical Illness) 진단시 보장받는 암보험과 CI보험 등 정액형 건강보험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br/>암ㆍCI보험은 질병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실손보험과 달리 암이나 뇌졸중처럼 ‘치명적 질병’을 진단받았을 때 일정액의 보험금과 생활비, 간병비를 지급한다. 장기간 간병 생활이 불가피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도 받아 쓸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들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최소 1,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br/>그러나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확대 발표 이후 이를 해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의가 각 보험사에 잇따르고 있다. 한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어차피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합치면 웬만한 치료비가 해결되는데 굳이 암이나 CI보험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전화가 크게 늘었다</span>”고 말했다.<br/>전문가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치료 후 필요한 비용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닌 만큼 암이나 CI보험 해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사고나 병으로 일할 수 없게 될 경우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이 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순 있지만 어려워진 생계까지 보장해 주진 않기 때문이다. 2013년 국립암센터가 환자 9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84.1%는 암 진단 후 실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의 발병과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워질 경우 온 가족이 사회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br/>정부가 2022년까지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을 전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10만 병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도 밝혔지만 간호 인력난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시행까진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장은 “<span class='quot2'>암이나 중대질병을 진단받은 환자의 경우 치료비도 필요하지만 소득보전 부분도 중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2'>건강보험 보장률이 87%에 달하는 일본도 실손보험 시장은 점차 축소된 반면 정액형 건강보험은 오히려 활성화됐다</span>”고 말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16.txt

제목: [영상] CG가 아니라고? 켄 블록의 아찔한 ‘테라카나’  
날짜: 201708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823051142002  
ID: 01101101.20170823051142002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켄 블록의 아홉 번째 짐카나 영상이 지난 22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br/>이번 시리즈의 이름은 ‘테라카나(Terrakhana)’로 대지(Terra)와 짐카나(Gymkhana)를 조합했다. 엔진오일 제조사인 펜조일이 스폰서로 참여했다.<br/>‘테라카나’는 미국 유타주의 스윙 암 시티(Swing arm city)에서 촬영됐다. 이곳은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으로 모래로 덮여 있는 암석이 많아 오프로드 꾼들이 자주 찾는다.<br/>켄 블록은 포드 피에스타 RX43 랠리카로 거대한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망설임 없이 질주한다. 아슬아슬하게 암석을 비껴가기도 하고, 높은 봉우리를 순식간에 돌아 내려오기도 하는 등 영화에서나 볼 법한 진기한 묘기를 선사한다.<br/>한편, 켄 블록은 DC 슈즈의 공동 창업자이자 랠리 전문 드라이버다. 2008년에 처음 공개한 짐카나 영상은 한 달 만에 1,000만 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됐다. 지난 2013년엔 한국에 방문해 짐카나 데모 쇼를 보여주기도 했다.<br/><br/><br/><br/><br/>조두현 기자 joecho@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17.txt

제목: 우유를 마시면 암을 유발한다?  
날짜: 201708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821051100001  
ID: 01101101.20170821051100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우유 함유 성장호르몬이 암 발병’ VS ‘암 발병 위험 오히려 낮춰’ 주장 맞서 <br/><br/>‘우유가 암을 유발한다?’ 우유에 함유된 성장호르몬인 ‘인슐린유사성장인자-1(IGF-1)’이 암세포 성장을 촉진한다는 연구결과를 내세워 우유가 암을 유발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IGF-1은 뼈ㆍ근육 같은 성장세포를 증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br/> 이의철 베지닥터 사무국장(작업환경의학 전문의)은 “<span class='quot0'>인체 내에서 IGF-1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가 마신 우유에 함유된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IGF-1 합성을 촉진하기 때문</span>”이라고 했다. 카제인이 IGF-1 분비를 촉진해 암세포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span class='quot1'>혈중 IGF-1 농도가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대장암(2.5~4배)과 유방암(2배), 전립선암(4배) 등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미국 하버드대는 권장식단에서 우유나 유제품을 하루 1~2회분으로 제한하고 대신 물을 마시라고 권하고 있다</span>”고 했다. 그는 “<span class='quot1'>우유 옹호자들은 하버드대 권장식단을 근거로 하루 우유 1~2잔을 마시는 것은 안전하다는 주장을 펴지만 하버드대 권장식단의 핵심은 우유가 권장식품이 아닌 제한식품으로 분류한 것</span>”이라고 했다.<br/> 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span class='quot2'>서울대 보건대학원과 삼성서울병원 연구팀이 2009년 한국인 80만명을 분석한 결과, 키가 5㎝ 자랄 때마다 암 발생 위험이 5~7% 증가했다</span>”며 “<span class='quot2'>어려서부터 IGF-1이 많은 음식을 즐기면 성인기에 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span>”고 말했다.<br/> 반면 우유가 암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며 오히려 암을 억제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홍구 건국대 동물자원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3'>우유에 세포성장에 도움 주는 IGF-1 성분이 들어 있지만 극히 미량인 데다 IGF-1이 반드시 암세포 성장을 촉진한다고 볼 수 있는 연구결과는 없다</span>”고 했다.<br/>이해정 가천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4'>유제품과 암의 관계는 오랫동안 찬반 논쟁이 있지만 아직까지 암과 우유 섭취의 상관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4'>우유를 마시면 오히려 암 발생 위험이 낮아진다는 게 학계의 중론</span>”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3'>우유는 영양소가 114가지가 들어 있는 완전 식품인 만큼 미약한 근거로 우유 섭취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span>”고 했다.<br/>김치중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2-218.txt

제목: [헬스 파일]  
날짜: 201708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821051059002  
ID: 01101101.20170821051059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분당서울대, 트리플 내시경 검사<br/>분당서울대병원은 소아소화기과 소아호흡기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간호팀이 함께 소아소화기호흡기팀을 구성하고 세 가지 질환 내시경 검사를 한 번에 하는 ‘트리플 내시경’ 검사를 도입했다. 그동안 기도폐쇄나 미숙아의 기관지폐이형성증과 같은 폐질환, 위식도역류질환 등의 소화기 질환을 함께 앓는 어린이 환자들은 각각의 전문의에게 별도 예약하고, 지정된 날짜에 질환 별로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했다. 트리플 내시경은 같은 검사실에서 같은 시간에 세 가지 분야 전문의가 돌아가면서 내시경을 함으로써 하루 만에 검사를 끝낼 수 있다.<br/><br/>고대안암병원, 심방세동의 날 강좌<br/>고대안암병원이 다음달 8일 오후 2시 고려대 의대 신의학관 2층 유광사홀에서 ‘심방세동의 날’ 건강강좌를 연다. 강좌에서는 ▦우연히 발견된 심방세동, 왜 치료해야 하나?(순환기내과 최종일 교수) ▦심방세동 환자의 생활습관,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순환기내과 이광노 교수) ▦시술 후 재발한 심방세동, 어떻게 치료하나?(순환기내과 심재민 교수)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정신건강의학과 이헌정 교수) ▦심방세동의 수술적 치료(흉부외과 정재승 교수) 등 다양한 강연이 이어진다. <br/><br/>서바릭스, 항문암 적응증 확대<br/>GSK 한국법인은 자사의 자궁경부암 백신 ‘서바릭스’가 항문암에 대한 적응증을 확대 승인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바릭스의 여성 및 남성에서 HPV 16, 18형에 의한 항문암 및 항문 상피내 종양 예방에 대한 적응증 확대를 허가함에 따라, 서바릭스는 남녀 모두에 접종할 수 있는 HPV 관련 암에 최적화된 백신이 됐다.

언론사: 한국일보-2-219.txt

제목: [갑상선암도 암이다] 갑상선암 사망률 절반으로 줄어  
날짜: 201708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821051058002  
ID: 01101101.20170821051058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김원배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br/><br/>“<span class='quot0'>갑상선암으로 죽지 않을 겁니다!</span>” 이 60대 환자는 5년 전 갑상선암을 진단받았으나 수술을 미뤄오다 가족들의 권유로 6개월 전에야 수술을 받고 정기 내원하고 있다. 진단 당시에는 작은 암이었는데 수술 당시에는 암 크기도 커졌고 림프절 전이도 발견됐다. 환자는 수술 후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가 우연히 살게 된 기분이란다. 그 후로 그의 생활은 180도 달라졌다. <br/>모든 암 환자들이 그렇겠지만, 진료실에서는 갑상선암으로 투병하는 환자들이 암 투병 이후 삶에 대한 태도가 변하는 것을 많이 목격한다. 환자들은 건강이 자신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었다고 고백하기도 한다. 그러니 갑상선암으로 죽지 않겠다는 것은 환자들의 강한 다짐이자 의지일 것이다.<br/>간혹 이러한 다짐이 ‘죽지 않는 갑상선암’으로 곡해되는 때가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우선 갑상선암 환자들이 많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연간 우리나라 갑상선암 발생 환자수는 1999년 3,325명에 불과하다가 15년이 지난 2014년에는 10배 증가한 3만806명이 됐다. 갑상선암 중 가장 흔한 종류인 유두암은 진행이 느리고 예후가 좋다. 이처럼 환자는 많고, 예후가 좋아 사망률이 낮으니 갑상선암은 걸려도 ‘죽지 않는 암’으로 오해 받기 십상이다. 몇 해 전 논란이 됐던 갑상선암 과잉진단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될 법하다.<br/>최근 필자가 발표한 연구결과가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을 듯 하다. 필자는 우리나라에서 갑상선암으로 인한 연령 표준화 사망률의 변화를 세계표준인구에 기반해 조사했다. 그 결과 인구 10만명 당 사망률이 1985년에서 2004년까지 0.17명에서 0.85명으로 큰 폭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에는 사망률이 절반인 0.42명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추이는 남성과 여성, 고령자 모두에서 유사했다.<br/>일정 기간 동안 암의 진단은 늘어나는데 암 사망률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암의 과잉 진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갑상선암이 과잉 진단됐다는 가설이 들어맞기 위해서는 갑상선암의 진단율이 높은 시기에 갑상선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변화가 없었어야 할 것이다. 2004년의 사망률 0.85명이 2004년부터 2015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유지됐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망률이 현저히 감소했다. 갑상선암에 대한 치료 표준화가 사망률 감소에 약간 기여했을 수도 있겠지만, 2000년도 이후 초음파가 많이 사용되면서 갑상선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한 것이 사망률 감소의 주 원인으로 추정된다. <br/>과잉 진단이라는 논쟁 안에서 ‘갑상선암은 착한 암이라 괜찮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이 생겨났다. 갑상선암으로 죽지 않겠다는 환자들의 강한 의지도 이러한 사회적 인식 속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이제는 진정 환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무엇이 국민보건상 유익한지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다.

언론사: 한국일보-2-220.txt

제목: ‘조기 위암’ 치료 안 하면 34개월 만에 악화  
날짜: 201708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818050927001  
ID: 01101101.20170818050927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이혁준 서울대병원 교수, 위암환자 101명 대상 연구<br/>2기→3기 19개월, 3기→4기 2개월… 암 진행속도 빨라져<br/>‘노인, 암 느리게 진행한다’ 속설도 연구결과 근거 없어<br/><br/>위암 진단을 받고도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다른 장기로 암세포가 전이되는 진행위암으로 악화되는데 34개월이 걸린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br/> 이혁준 서울대병원 위장관외과 교수 연구팀은 18일 위암 진행속도와 사망에 걸리는 기간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위암 진행속도와 사망기간과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br/> 연구팀은 1988년에서 2015년까지 위암으로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을 방문한 10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들 환자들은 합병증 치료걱정 대체요법 경제적 문제 등 이유로 위암 진단을 받고도 수술 등 적극적인 암 치료를 하지 않았다.<br/> 연구결과, 조기위암(1기) 환자가 전이가 시작되는 진행위암(2기)으로 악화되기까지 34개월이 걸렸다. 2기에서 3기까지는 19개월, 3기에서 4기까지는 2개월이 소요됐다. 사망까지 암 치료를 전혀 받지 않은 72명 환자 중 1기 위암 환자는 63개월, 2기 환자는 25개월, 3기 환자는 13개월, 4기 환자는 10개월 후 사망했다.<br/> 암 진행속도는 나이와 관계가 없었다. 연구팀은 “75세 이상 고령환자와 74세 이하 환자를 비교한 결과 암 진행속도에 차이가 없었다”며 “노인은 암이 느리게 자란다는 속설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br/> 이혁준 교수는 “<span class='quot0'>일반적 위암 완치율이 1기 90%(2기: 75%, 3기: 45%)에 달하고, 4기라도 치료 시 평균 생존기간이 1년 6개월이 넘는다</span>”며 “<span class='quot0'>조기진단과 적절한 치료만이 위암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span>”이라고 강조했다..<br/><br/>김치중 의학전문기자 cjkim@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21.txt

제목: [메아리] 공범자들, 방조자들, 방관자들  
날짜: 201708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818050926002  
ID: 01101101.20170818050926002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지난 9년 처참히 무너진 공영방송<br/>투쟁기록 담은 다큐 계기로 재조명<br/>지금도 싸우는 언론인들에 연대를 <br/><br/>기자란 무엇인가. 한자(記者) 그대로 풀면 기록하는 사람, 더 깊게 업의 본질을 밝혀 정의하자면 ‘질문하는 사람’이겠다. PD 아나운서 등 언론 종사자들로 범주를 넓혀도 이 정의는 유효하다. 숱한 직업들의 불투명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이 직종들이 살아남는다면, 아니 살아남기를 바란다면, “기어코, 제대로, 끈질기게, 묻고 따지고 기록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br/>17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오래 억눌리고 비틀렸던 그 정의가 비로소 숨통을 튼 자리였다. 그러기에 대통령의 답변 못지않게 기자들의 질문 수준과 태도에도 큰 관심이 쏠렸다. 한 기자는 마이크 든 손을 바들바들 떨었고, 다른 기자는 “대통령님, 떨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기회가 많지 않아 지금도 떨리고 있는데”라고 털어놓았다. 첫 걸음에 천리를 내달릴 수 없는 법. 치열한 취재경쟁 속에 “열 번 넘게 손을 들었는데 기회가 없었다”는 불평이 쏟아졌고, 낯뜨겁게도 자칭 ‘주류 언론’에는 질문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어쨌거나 반갑다. 재갈도, 핑계도 사라졌다. 집요함과 실력으로 마땅히 물어야 할 것을 묻고 따지고 기록하는 일, 이제는 언론인들의 몫이다. <br/>바로 이날 한국영화사상 가장 화려한 캐스팅을 자랑하는 다큐멘터리 한 편이 개봉했다. MBC 해직PD이자 독립언론 뉴스타파의 앵커인 최승호 감독이 만든 ‘공범자들’이다. 지난 9년 간 상식에 기반한 당연한 질문조차 철저히 짓밟혔던 공영방송의 흑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묻고 싸워 온 언론인들의 처절한 투쟁을 기록한 작품이다. 그래서 자칫 무겁고 어둡기만 할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절절한 드라마, 황당한 코미디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영화는 권력의 ‘공영방송 장악’ 욕심을 충실히 받들었던 ‘공범자들’에게 물어야 할 것을 묻기 위해 숨가쁘게 추격하는 장면에서 액션스릴러로 돌변하기도 한다. <br/>공범자들을 쫓던 카메라는 마침내 ‘주범’을 향한다. 최 감독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김재철 전 MBC 사장을 낙하산으로 보내 공영방송을 망치지 않았느냐고 돌직구를 날린다. 이어진 MB의 답변. “<span class='quot0'>그건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span>” 객석 여기저기서 헛웃음이 터져 나온다. 영화가 끝나고 지난 9년 간 해고되고 징계받은 언론인 300여명의 이름이 스크린에 흐를 때까지, 관객들은 자리를 뜨지 못한다. 때마침 공개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회의록에선 노조원 기자ㆍPD의 업무배제를 작당하는 공범자들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 <br/>관객들의 감상평에는 “이 정도일 줄 몰랐다”는 얘기가 많다. “<span class='quot0'>방송을 하는 사람인데… 몰랐던 것도 잘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span>” SNS에서 접한 한 방송인의 울먹임이 깊고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공영방송 KBS와 MBC를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뜨린 것이 ‘주범과 공범자들’만일까. 알고도 침묵했거나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방조자들, 혹은 방관자들은 잘못이 없는 걸까. 무게는 다를지언정 적어도 두 부류는 이 질문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동시대를 호흡했던 언론인들, 그리고 ‘방송의 공정성’을 설파해 온 언론학자들 말이다. <br/>암 투병 중인 해직기자 이용마는 영화 말미에 이렇게 읊조린다. “싸움은 기록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우린 암흑의 시대에 침묵하지 않았다. 10년의 청춘과 인생이 다 날아갔지만,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다. 하지만 적어도 그 기간에 우린 침묵하지 않았다.” 정의를 말하고 절규하는 것보다 더 큰 울림을 주는 이 말에 한마디 보탠다. “<span class='quot0'>그들은 지금도 싸우고 있다.</span>” <br/>우리는 지난 9년, 언론이 마땅히 물어야 할 것을 묻지 않거나 묻지 못할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 처절하게 겪었다. 그러기에 언론을 언론답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힘든 일인지도 안다. 공영방송의 제자리 찾기는 우리 모두의 싸움이어야 한다. 주범과 공범자들에게는 합당한 벌을, 방조자들은 뼈아픈 반성을, 그리고 방관자들은 연대의 손길을~. <br/><br/>이희정 미디어전략실장 jaylee@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22.txt

제목: [낄낄낄] 北 아리랑 매스게임은 南의 입시학원이다  
날짜: 201708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817051023002  
ID: 01101101.20170817051023002  
카테고리: 정치>북한  
본문: ‘북한 대동강맥주가 남한 맥주보다 더 맛있다’는 발언을 보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주리를 틀어 마땅하지만 ‘안보 무능’ 문재인 정부에 무려 ‘해외언론 정책자문’이라는 타이틀까지 달고 청와대에까지 침투한 이코노미스트 기자 출신 대니얼 튜더. 그리고 로이터 서울 주재 특파원인 제임스 피어슨이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상에 대한 취재 내용을 함께 풀어 썼다.<br/>‘조선자본주의공화국’의 영문판 원제는 ‘노스 코리아 컨피덴셜(North Korea Confidential)’. 저자들도 솔직히 인정하듯, 김정은과 그의 일당들을 북쪽에 이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2013년 장성택 숙청 당시 쏟아진 온갖 ‘궁정 암투 시나리오’를 접해온 우리에겐 엄청나게 ‘컨피덴셜’한 내용은 없다. 다만 ‘김정은 체제’에 대해 ‘차분한’ 정리ㆍ요약 리포트라는 점에서 일독할 만한 가치가 있다.<br/><br/>저자들의 의도는 한국어판 제목으로 ‘조선자본주의공화국’을 택한 데서 잘 드러난다. 맞다. 북한에도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 산다. 3대 세습 김씨 왕조를 들여다보니 자본주의적 욕망이 들끓고 있더라는 얘기를 “<span class='quot0'>빅토리아 시대 섹스처럼 모두가 다 그걸 하지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span>”는 다소 진부한 영국식 농담에 버무려놓는다 한들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다.<br/><br/>다만 방점은, 이 일촉즉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대에도 굴하지 않고 “그래도 김씨 왕조는 계속 된다”는 데 찍혀 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자본주의 요소가 대거 유입됐고, 지금 이를 제거하려다간 혹독한 역풍이 분다는 사실을 북한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 경제제재에도 고급제품이 넘쳐나고 시장거래도 확산되고 있다. 저자들은 그래서 ‘암(Dark)시장’ 대신 ‘회색(Grey)시장’이란 표현을 쓴다. 공화국 인민에게 자본주의는 더 이상 음지의 것이 아니다.<br/>동시에 북한이 이런 자세를 보이는 건, 정치적으로 통제할 자신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고위직 인사권과 각급 정부기관에 대한 지도권한을 보유한, 300여명으로 구성된, 그 전모가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노동당 조직지도부’ 얘기다. 김정일은 조직지도부를 통해 김일성까지 제어했다. 장성택 처형은 김정은 시대에도 여전한 조직지도부의 힘을 보여준 사건이다.<br/>또 한가지는 인민의 태도다. 북한의 참상을 듣노라면 내일 당장 혁명이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할 지경이다. 허나 비틀대면서도 지속되는 체제의 관성이란 그리 호락호락한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저자들이 보기에 북한 주민들의 비교대상은 남한이라기보다 중국이다. 체제변화보다 개혁개방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얘기다.<br/>책의 묘미는 다른 곳에 있다. 저자들이 꼽는 남북의 공통점이다. 가령 10만 군중이 장엄한 카드섹션을 연출하는 지상 최대 매스게임 ‘아리랑’을 두고 이런 설명을 달아뒀다. “아리랑 매스게임을 준비하는 데는 참가자의 오랜 야간 훈련과 노동이 요구된다. 이때 북한 아이들에게 부과되는 수업 외 요구사항은 한국 입시학원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매스게임과 한국의 입시학원은 몸부림을 치면서도 그 안에서 공통의 목적과 공동체를 발견하게 된다는 점이 서로 유사하다.” 미제를 박살내건, 4차 산업혁명을 박살내건 남북 아이들은 모두 제 한 몸 ‘총폭탄’이 되어야 할 운명이다.<br/>“김치 맛있어요” “싸이 알아요” 같은 덕담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갈망하는 선진국의 시선이 이러하니, 민족 이질화 걱정일랑은 접어두는 게 좋겠다.<br/>조태성 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23.txt

제목: 기장군 “중입자가속기 개발 정상 추진을”  
날짜: 201708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816051040003  
ID: 01101101.20170816051040003  
카테고리: 지역>전남  
본문: 부산 기장군은 오규석 군수(사진)가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16일 오후 2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지난달 13일에도 과기부를 방문했다.<br/>기장군에 도입 예정인 이 개발사업은 동남권산단에 국ㆍ시비 등 1,950억원을 투입, 올해부터 치료센터를 통해 상용화 치료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원자력의학원 측이 750억원의 분담금을 확보하지 못해 장기 표류했다. 그러다 최근 모집공고를 통해 서울대병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br/>하지만 추가 사업비 문제와 서울대병원 측의 투자검토와 관련, 사업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는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br/>오 군수는 이날 과기부 관계자를 만나 “<span class='quot0'>일부 언론에서는 중입자가속기의 기장군 도입 계획이 물거품 될 위기에 놓였다가 최근 부활의 청신호가 커졌다고 하지만 현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향후 사업 전망도 불투명한 게 사실</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중입자가속기 사업의 여러 문제들을 다음달 초까지 조속히 매듭짓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span>”고 촉구했다. <br/>부산시와 기장군은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자체 분담금 500억원(시비 250억원, 군비 250억원) 지원을 완료했으며, 그 재원으로 부지매입과 중입자치료센터 건물을 준공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책임 질 중입자가속기 도입 및 설치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br/>오 군수는 “<span class='quot0'>국책사업인 만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 주길 바란다</span>”고 당부했다. <br/>한편 중입자가속기가 들어서는 ‘동남권 방사선 의ㆍ과학 일반산업단지’는 기장군이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이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24.txt

제목: 세포 속 빛 나오는 산화철 광열제 개발  
날짜: 201708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815050741002  
ID: 01101101.20170815050741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김영근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연구팀<br/>형광 물질로 암 광열 치료 실시간 추적 가능<br/><br/><br/> 국내 연구진이 세포 속에서 빛이 나오는 산화철 광열제를 개발해 암 광열 치료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br/> 한국연구재단은 김영근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이 같은 연구 성과를 거뒀다고 15일 밝혔다.<br/> 이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나노ㆍ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국제학술지인 ‘스몰(Small)’ 지난달 27일자에 실렸다.<br/> 광열치료는 암 부위에 나노입자를 전달한 뒤 근적외전 레이저를 쬘 때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암세포를 태워 죽이는 치료법이다. 탈모나 구토 등의 기존 암 치료법의 부작용이 적어 차세대 치료 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br/> 기존 광열치료에 이용하는 금(Au) 나노입자는 가시광ㆍ근적외선 빛을 흡수하면 열이 쉽게 나지만 낮은 조도에선 효과가 낮다. 또 표면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는데 사용되는 결합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안정성도 떨어진다.<br/><br/><br/>연구팀은 최근 광열제로 부각되는 산화철 나노입자에 주목했다. 근적외선 파장의 레이저를 쬐어 광열효과를 유도해 보니 발생한 열이 나노입자 주변 고분자 탄소 사슬 구조를 변형시켜 새로운 공액 고분자 구조를 형성, 강한 형광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나노입자를 세포에 흡수시켜 광열효과를 유도한 경우에도 형광이 나타났다. 연구팀은 나노입자의 크기가 크고 농도가 높을수록 형광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br/> 김영근 교수는 “<span class='quot0'>산화철 나노입자를 광열치료에 응용하면 부분적으로 치료가 이뤄지는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는 비수술 방식의 새로운 광열 치료 기술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span>”고 말했다.<br/>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25.txt

제목: 암 투병 소프라노 “암 환자들에 용기를” 병원 콘서트  
날짜: 201708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815051143002  
ID: 01101101.20170815051143002  
카테고리: 문화>음악  
본문: 유방암 투병 중인 지정윤씨<br/>“<span class='quot0'>환자분들 좌절 않고 이겨내시길</span>”<br/> 성악가·피아니스트 등 동료들과 <br/> 유성선병원서 특별한 콘서트<br/><br/>“저 역시 암 투병 중인 환자입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분, 그리고 그 가족들이 잠시나마 아픔을 잊고 치유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br/> 암으로 투병 중인 소프라노의 제안으로 마련된 암 환자를 위한 음악회 ‘한여름밤의 꿈’이 대전 유성선병원에서 14일 열렸다.<br/> 음악회는 이 병원에서 암 치료 중인 소프라노 겸 뮤지컬 배우 지정윤(36ㆍ사진)씨의 제안을 병원 측이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마련됐다. <br/>그는 지난해 말 유방암 진단을 받아 올 초 수술을 받았다. 이탈리아와 미국 등 해외에서 유학한 뒤 열심히 공연을 하고, 어린이 뮤지컬합창단 지휘자로도 활동하며 음악가로서 전성기를 맞았던 그는 순식간에 환자복 신세가 됐다.<br/>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소프라노라는 것을 알게 된 같은 병실 환자들이 아픔을 잠시라도 잊기 위해 노래를 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몸이 성치 않아 쉽지 않았다.<br/> 마침 이탈리아 유학 시절 인연을 맺은 친구 강수정(소프라노)씨가 병문안을 온다고 했다. 다른 환자에게 미안한 마음에 처음엔 강씨에게 ‘나는 당장 노래를 부를 상황이 못 되니 대신 환자들을 위해 노래를 불러달라’고 부탁했다. 상의 과정에서 그와 강씨는 피아노가 있으면 제대로 된 음악회를 열자는 얘기까지 나눴다. 강씨는 자신의 동료들도 섭외해 함께 오겠다고도 했다. 지씨는 이를 병원 측에 제안했고, 흔쾌히 공연장소와 시설 제공을 약속 받았다.<br/><br/><br/> 음악회에선 강씨를 비롯해, 테너 장보광, 피아니스트 한누리씨가 가곡과 샹송, 팝 등 일반인들에게도 친숙하고, 다양한 레퍼토리로 투병 중인 환자들을 위로했다.<br/> 강씨와 장씨는 ‘O sole mio’ 등 솔로곡에 이어 듀엣으로 ‘The prayer’, ‘Brindist(축배의 노래)’ 등을 들려줬다. 한씨는 ‘La vien en rose’와 ‘Libero tango’ 등 아름다운 피아노 독주로 암 환자들의 마음을 달랬다.<br/> 지씨도 이날 오전 항암 치료를 받아 힘든 몸을 이끌고 ‘거위의 꿈’을 열창하며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선사했다.<br/> 그는 “<span class='quot0'>큰 병을 앓고 보니 세상을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됐다</span>”며 “<span class='quot0'>모든 등장인물들이 어려움을 극복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처럼 환자들이 좌절하지 않고 암을 이겨내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길 바라는 마음</span>”이라고 말했다.<br/> 남편 조영호(41)씨는 “<span class='quot1'>아내가 음악회 얘기를 꺼냈을 때 조금 걱정됐지만, 너무 좋은 취지였고, 아내의 친구들이 함께 한다고 해 승낙했다</span>”고 말했다.<br/> 음악회를 본 암센터 한 환자는 “본인도 힘들고 어려울 텐데 이렇게 음악회를 열어줘 너무 고맙다. 병원 밖 공연장에서 하는 어떤 음악회보다도 좋았다”고 말했다.<br/> 이규은 선병원 경영총괄원장은 “<span class='quot2'>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한 음악회 등의 행사를 꾸준히 열고 있지만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음악회라 더 의미가 남다르다</span>”고 말했다.<br/>대전=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26.txt

제목: [삼성서울병원과 함께 하는 건강 Tip] 염증성 장질환  
날짜: 201708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814051126003  
ID: 01101101.2017081405112600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염증성 장질환은 장에 염증이 생겨 증상이 없는 관해기(寬解期)와 악화되는 활동기가 반복되는 만성 질환이다. 급증하고 있는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이 대표적이다.<br/><br/>Q. 염증성 장질환이 최근 급증한 이유는.<br/>“발병 메커니즘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몸 속 장내 미생물에 유전적으로 과도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발병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구식 식생활이 늘면서 장내 미생물에 변화가 생기고, 약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염증이 생기기에 젊은 층에서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br/><br/>Q. 종류와 증상은.<br/>“증상과 경과, 진단, 치료법이 유사하므로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을 함께 염증성 장질환이라 부른다. 6주 이상 설사, 혈변, 복통 및 체중감소 등이 생긴다. 이 가운데 궤양성 대장염은 직장에서 시작된 염증이 장벽 표면을 침범하기에 설사와 점액이 섞인 혈변이 주 증상일 때가 대부분이다. 크론병은 구강에서 항문까지 위장관 전체에서 생긴다. 특히 소장과 대장이 연결되는 부위에 장벽 전층을 투과하는 염증이 특징이므로 복통, 설사, 체중 감소나 항문 통증을 많이 호소한다. 심하면 장관 협착, 천공(장 구멍), 농양(고름), 누공(고름 구멍)등이 생기며 염증이 조절되지 않고 만성화되면 위장관 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br/><br/>Q. 진단은 어떻게 하나.<br/>“한 가지 방식으로 정확히 진단할 수 없다. 임상 증상, 내시경ㆍ조직병리, 혈액검사, 영상의학검사 의견을 종합해 진단한다. 급성 감염성 장염, 장결핵, 과민성 장증후군 등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기본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해 병변의 침범 부위와 중증도를 평가하고 조직검사로 정확한 진단한다.”<br/><br/>Q. 치료법은.<br/> “다른 만성질환과 마찬가지로 완치보다 증상 조절과 합병증 예방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주 목적이다. 5-ASA 제제, 스테로이드 제제, 아자티오프린 같은 면역억제제가 사용되다가 최근 항TNF제제나 백혈구 수송 억제제 같은 생물학적 제제가 관해(무증상) 유도 및 유지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약물 치료가 효과가 없으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br/><도움말= 홍성노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언론사: 한국일보-2-227.txt

제목: [이 상품 어때요]신한은행 ‘신성장 선도기업 대출’ 외  
날짜: 201708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814050931002  
ID: 01101101.20170814050931002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신한은행 ‘신성장 선도기업 대출’<br/>신한은행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우수 기술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신성장 선도기업 대출'을 출시했다. 전체 대출 규모는 1조원 수준으로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드론 등 신성장산업 관련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고정금리 기간을 확대해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이고 기술등급에 따라 금리를 추가로 우대한다. 신한은행은 전환사채(CB)ㆍ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나 사업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부가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br/><br/>동양생명 ‘엔젤생활비주는암보험’ <br/>동양생명은 암 진단 시 진단비와 함께 매달 생활비를 확정 지급하는 ‘(무)엔젤생활비주는암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암 진단 시 최대 5,000만원(유방암ㆍ전립선암은 2,000만원)과 매달 100만원씩 5년간 총 6,00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한다. 만기보험금 지급금에 따라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50%를 지급하는 1형과 100%를 지급하는 2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만 15~60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질병 및 재해로 장해를 입거나 암 진단 확정 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br/><br/>국민카드 ‘H.Point KB국민카드’ <br/>KB국민카드는 현대백화점그룹 통합 멤버십 포인트인 H.Point가 최대 2% 적립되는 ‘H.Point KB국민카드’를 출시했다. 이 카드는 전월 실적에 상관없이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이용금액의 0.5%가 H.Point로 기본 적립된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에서 사용하면 최대 2%를 포인트로 쌓을 수 있다. 전월 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편의점, 약국, 카페 등 생활밀착 업종 할인과 놀이공원 할인혜택도 누릴 수 있다. 연회비는 1만2,000원이다.

언론사: 한국일보-2-228.txt

제목: 법원 “한국타이어, 폐암으로 사망한 직원 유족에 배상”판결  
날짜: 201708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810051108001  
ID: 01101101.20170810051108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업무상 재해 사측 책임 부분 인정<br/><br/><br/>한국타이어에 근무하던 2015년 폐암으로 사망한 직원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사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br/>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정재욱 판사는 10일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안모씨 유족들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2억8,3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국타이어가 아내 오모씨에게 1,466만원을, 세 자녀에게 각각 2,940만원 등 총 1억2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br/>안씨는 1993년 12월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생산관리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9년 9월 유해물질 중독으로 인해 폐암에 걸렸다. 안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요양하다 병세가 악화돼 2015년 1월 사망했다. 안씨는 16년 가까이 근무를 하면서 2년을 제외하곤 가류공정을 주로 맡았다. 타이어를 틀에 쪄내는 작업인 가류공정은 천연고무와 합성고무를 섞는 정련공정보다 고무흄(타이어를 틀로 찔 때 나오는 수증기)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br/>정 판사는 “<span class='quot0'>한국타이어가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배기ㆍ냉각 장치를 설치한 점은 인정되지만 해당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역학 조사에 의하면 가류공정의 경우 더 많은 공해 물질에 노출되고, 작업 중 노출이 많이 된 고무흄 등이 폐암 원인 됐다고 볼 수 있다</span>”고 판단했다. 안씨가 비흡연자이고 과거 병력 등 다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안씨가 다른 근로자들과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작업한 점 등을 고려해 한국타이어 책임을 50%로 제한했다.<br/>최근 고용노동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암이나 순환기질환 등으로 근로자 46명이 숨졌다. <br/><br/>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29.txt

제목: [책 리뷰] 괴기한 시대의 이상한 이야기  
날짜: 201708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810051046002  
ID: 01101101.20170810051046002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폭식 광대 <br/>권리 지음<br/>산지니 발행·176쪽·1만2,000원<br/><br/><br/>소설을 ‘언어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독자는 이 책을 읽고 실망할지 모른다. 2004년 등단 후 꾸준히 장편소설을 써온 작가 권리의 첫 소설집은 장편소설과 시에 절반씩 걸친 밀도 높은 문장을 단편소설 완성도의 기준으로 삼는 국내 문단에서, 썩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br/>소설의 알파와 오메가는 재미라고 생각하는 독자도 이 책을 읽고 실망할지 모른다. 누가 봐도 소설 같은 이야기들은 너무 유명해서 뻔한 고전에 기대어 탄생했다. 표제작 ‘폭식 광대’가 프란츠 카프카의 단편 ‘단식 광대’에 빚지고 있는 것처럼.<br/>실제로 일어날 리 만무하다는 확신을 주는 이야기들은, 다만 영화 ‘옥자’처럼 현실을 밀도 높게 은유하고 예측한다. 동시대의 상징과 삐딱한 아이디어로 충만한 이야기들은, 읽는 내내 무수히 상상력을 자극한다. 소설 속 장면이 애니메이션처럼 머릿속에 그려지는 부수 효과는 보너스다.<br/>이 책의 가장 빼어난 소설 ‘폭식 광대’는 폭식을 업으로 삼아 사는 남자의 이야기다. ‘키 150㎝의 자그마한 체구’인 그는 폭식으로 일약 유명인사가 되면서 계속해서 더 많이 먹어야 하는 삶을 살게 된다. “<span class='quot0'>여러분을 위한 탐욕의 악마가 되겠다</span>”는 약속을 무대에서 지키다 끝내 “<span class='quot0'>몸에 있는 구멍 여기 저기에서 온갖 배설물들이 나오기 시작</span>”한 이후, “<span class='quot0'>체내 조직들이 이상적인 세포 분열을 하며 폭발적으로 성장</span>”하며 몸이 아파트 벽을 뚫어버리면서 폭식 광대는 사회 암적인 존재로 각인된다. <br/>“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는 인간 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암을 죽여도, 다른 곳에서 또 암은 생겨납니다. 이것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저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 냈습니다. 바로 그의 몸에 콘크리트를 부어버리는 것입니다.”<br/>단편 ‘구멍’은 가상의 빈촌인 게딱지 마을을 통해 강남 도곡동 타워 팰리스와 판자촌이 공존하는 현실을 냉소한다. 서울 최대 부촌인 백년구 한 중앙, 1,400가구 사는 무허가 판자촌 게딱지 마을에 밧줄을 가방에 넣은 정체 모를 노인이 출현한 후 곳곳에 싱크홀이 생긴다. 새 구청장 불도저는 재임기간 최대 과업으로 게딱지 마을을 없애고 마을 밑으로 흐르는 천연 지하수를 식수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그 사이 싱크홀은 늘어 50가구를 제외하고 모든 집이 무너진다. 부촌과 빈촌 사이 십자가 한복판에 구멍이 뻥뻥 뚫리면서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와 폭스바겐과 미니쿠퍼가 희생 제물이 된다. <br/>“구멍은 위아래를 구분하지 않았다. 거식증 환자처럼 속이 메워지면 다시 토해내고 메워지면 또 토해내기를 반복했다. 이렇게 구멍은 새로 땅을 찾아 멈추지 않고 나아가고 있었다.”<br/>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예술의 허상을 고발하는 ‘광인을 위한 해학곡’, 막연하게 불안한 현대사회를 은유한 ‘해파리 medusa’ 역시 예의 독특한 상상력과 건조한 문체로 우리 시대 민낯을 그린다.<br/>소설집의 마지막, 작가는 “<span class='quot1'>‘여기 사람이 있어요.’ 재개발 아파트 건설로 인해 터전을 빼앗긴 어느 소시민의 인터뷰 한 마디가 이 책을 탄생시켰다</span>”고 밝혔다. 블랙코미디와 공포영화의 교집합 같은, 한편 당 40쪽 안팎의 짧은 이야기들은 ‘헬조선’의 독자라면 누구나 공감할만한 소재로 시작된다. 읽는 것보다 읽은 소감을 타인에게 전할 때 할애할 시간이 더 많을 만큼 다양한 문제의식들을 독자에게 던져준다.<br/><br/>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30.txt

제목: [기억할 오늘] 에이전트 오렌지(8월 10일)  
날짜: 201708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810051313002  
ID: 01101101.20170810051313002  
카테고리: 국제>아시아  
본문: 영어 ‘agent’는 대리인, 중개인, 요원, 행위자, 행위체 등의 뜻을 지닌다. 베트남 전의 고엽제가 ‘에이전트 오렌지(Agent Orange)’로 불린 것은, 약물이 담겼던 드럼통이 오렌지 색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무심하고 기능적인 이름은 원래 미국의 베트남 정글 고사작전 ‘랜치 핸드 작전(Operation Ranch Hand)’의 주역이던 고엽제의 암호명이었다. <br/>네이팜탄과 함께 베트남전의 가장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무기로 꼽히는 에이전트 오렌지가 1961년 8월 10일 무렵 최초로 살포됐다고 한다. 미군이 베트남전에 본격적으로 개입한 것은 1964년 통킹만 사건 직후였지만, 50년대 중반 경제원조 및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무렵부터 군사고문단 등의 형태로 전쟁에 발을 담그고 있었다. 미국은 자신들이 치러야 할 전쟁의 최대 변수가 베트남의 정글임을 일찌감치 파악했을 것이다. <br/>에이전트 오렌지는 맹독성 다이옥신 화합물로, 일반적 제초제와 달리 미 국방부가 화학업체 다우케미컬과 몬산토를 통해 처음부터 군수품으로 납품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미군은 1962년부터 71년까지 약 10년간 6,542회 작전으로 2,000만 갤런(8,000만 리터)의 제초제와 고엽제를 살포했다. 주로 헬기나 프로바이더 저공비행 항공기 살포였고, 트럭이나 보트, 어떨 땐 농부가 농약 뿌리듯 군인이 분사통으로 작업하기도 했다. 에이전트 오렌지가 주로 쓰였지만, 화이트 퍼플 핑크 그린 블루 등 용도별로 다양한 화학물질도 있었다. 62년부터 살포된 ‘에이전트 블루’는 벼 등 농작물을 말려 죽이는 거였다.<br/>에이전트 오렌지는 직접적 살상무기는 아니었지만, 심각한 후유증을 낳았다. 베트남 숲과 농지 등 310만 헥타르가 황폐화했다. 최소 400만 명이 독성에 노출돼 최대 100만 명이 암, 신경계 장애 등 다양한 질병과 장해, 기형아 출산 등 피해를 입었다. 미군과 한국군 피해도 적지 않았다.<br/>다이옥신의 인체 독성 실험은 전쟁 직후 이뤄져 70년대 말에야 사용이 중단됐다. 에이전트 오렌지는 베트남과 인근 인도차이나뿐 아니라 남미와 동남아시아, 한국 등 미군이 주둔하거나 작전을 한 태평양지역 여러 나라에서 쓰였고, 사용이 중지된 뒤 석연찮은 방식으로 폐기됐다는 의혹도 있다.<br/>최윤필 기자

언론사: 한국일보-2-231.txt

제목: [건보 대수술] 치매노인 부담금 1,346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날짜: 201708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810051302002  
ID: 01101101.20170810051302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Q&A] 건강보험 어떻게 달라지나<br/><br/> 정부가 지금껏 건강보험 제도 울타리 밖에 있던 비급여 치료를 모두 급여화하기로 했다.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초음파 검사는 횟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치매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늘린다. 정부가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가져올 변화를 문답으로 살펴봤다. <br/><br/>- 모든 비급여 치료가 급여화되나. <br/>“미용ㆍ성형ㆍ라식수술 등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만 남는다. 치료에 필수적인 나머지 3,800여개 비급여는 모두 급여화 대상이다. 투입되는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비급여에는 예비적으로 일정 비율 급여화를 하는 예비급여제를 도입한다. 3~5년 뒤 평가 뒤 완전 급여화 여부를 결정한다.“<br/>- MRI, 초음파도 당장 다 보험 적용이 되나. <br/>“MRI는 현재 암, 뇌혈관질환, 척수질환 등 진단 시 1회, 초음파는 4대 중증질환자와 임산부에 대해서만 현재 보험이 적용된다. 앞으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모두 보험 적용을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간, 심장, 부인과 초음파와 척추 및 근골격계 질환 MRI 등 체감도가 높은 항목은 내년까지 우선 적용하고, 2020년까지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br/>- 선택진료제가 폐지되면 의사 경력과 무관하게 진료비가 동일해지나. <br/>“그렇다.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춘 선택진료의사는 전국에 4,600여명(2월 기준)에 달하는데 내년부터는 선택진료의사란 분류가 아예 없어진다. 이들에게 진료받을 경우 15~50% 추가로 부담하던 선택진료비 역시 당연이 사라진다.” <br/>- 선택진료제가 사라지면 병원 수익이 줄어들 텐데. <br/>“환자 부담이 사라진 대신, 의료기관의 손실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대신 지원한다. 의료 질 제고를 위해 수가를 신설하고 조정해 보상을 할 예정인데, 현재 병원협회를 통해 신설 수가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제도가 폐지되는 시점이 내년이므로 올해 말 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br/>- 앞으로는 상급병실과 일반병실의 부담이 같아지나. <br/>“완전히 똑같아지지는 않는다. 내년에는 2, 3인실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1인실의 경우 중증호흡기질환자, 출산 직후 산모 등 필요한 경우 내후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상급병원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일반병실은 20%이지만, 상급병실은 최대 50%에 달할 전망이다.” <br/>- 고가 항암제도 건강보험 지원 대상인가. <br/>“경우에 따라 다르다. 약제는 약가협상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급여화하기 때문에 전면 급여화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비급여인 고가 항암제라도 가격 대비 효과성이 입증되면 본인부담률을 현행 환자부담 100%에서 30~90%로 완화할 계획이다.”<br/>- 간병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간병인을 고용해 지불한 간병비도 보험 적용을 받나. <br/>“그렇지는 않다. 전문 간호인력 등이 간호와 간병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시행 병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7월 현재 353개 의료기관이 참여해 2만3,460병상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를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br/>- 저소득층(소득 하위 60~70%ㆍ4분위) 노인성 중증 치매 환자다. 뇌경색, 편측 마비, 욕창 궤양 등 합병증도 있다. 의료비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 <br/> “이 환자가 종합병원에 162일간 입원해 간병인을 고용했을 경우 총 진료비는 2,925만원, 본인부담금은 1,559만원이다. 간병인 고용, 어쩔 수 없는 상급병실 이용 등으로 인한 비급여가 1,141만원으로 비중이 크다. 급여비는 458만원인데 이중 올해 4분위 본인부담상한액(205만원)까지 부담하면 환자가 내야 할 총비용은 1,346만원이다. <br/>2022년이 되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돼 종합병원에서도 간병인 고용이 필요 없고 상급병실(2,3인실) 이용 시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비급여는 단 한 푼도 없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인하(4ㆍ5분위 150만원)돼 상한액인 150만원만 내면 된다.“ <br/>- 37세 난임 여성인데 체외수정 시술을 받고 싶다. 건강보험 혜택 받을 수 있나. <br/>“오는 10월부터 가능하다. 그 동안 정부가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 난임 시술을 할 때 소득 수준에 따라 100만~300만원을 차등 지원해왔다. 그래도 횟수 제한이 있고 기관마다 진료비 편차가 커 비용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출산을 원하는 부부를 위해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시술 등 필수 시술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다만 기관별 진료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시술기관별로 다른 보조 생식술 항목을 먼저 표준화할 계획이다.”<br/><br/>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32.txt

제목: [건보 대수술] ‘문재인 케어’ 본격 시동.. 모든 치료 건보로 보장한다  
날짜: 201708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809051224001  
ID: 01101101.2017080905122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지금까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던 3,800여개 비급여 치료가 앞으로 모두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미용과 성형 목적 치료를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치료가 건강보험의 틀 안에 들어온다.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가 도입 된 이후 근 30년 만의 대수술이다. 국민들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향후 5년간 31조원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향후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도 만만찮다. <br/>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환자들과 환담을 나눈 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span class='quot0'>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6만명에 달하는 등 의료비가 가정 파탄의 원인</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아픈 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span>”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span class='quot0'>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span>”며 ▦의료 목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질환)에 한정된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등 세부방안을 내놓았다. <br/>치료용 비급여 3,800여개 항목은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급여화된다. 효과는 있지만 가격이 높아 비급여로 분류됐던 MRI, 초음파 등은 2020년까지 우선 급여화하고, 비용ㆍ효과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예비급여’로 본인부담률을 30~90%로 차등해 관리한다. <br/>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아예 없애거나 줄인다. 일정 경력 이상의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경우 최대 50% 진료비를 더 부담하는 선택진료제는 내년부터 완전 폐지된다.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부담이 컸던 2, 3인실 병실입원료는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된다. 전문 인력이 입원 환자의 간병까지 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은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늘린다. <br/>노인, 아동, 여성 등 경제적ㆍ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도 완화된다. 중증치매환자는 올해 10월부터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이 20~60%에서 10%로 대폭 인하된다.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임플란트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현재 50%에서 30%로 낮춘다. 아동ㆍ청소년 입원 진료비는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본인부담을 10%로 적용하던 것을 15세 이하 5%로 대상은 넓히고 부담은 줄였다.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br/>저소득층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낮춘다. 소득하위 50% 가구의 상한액은 올해 122만~205만원에서 내년에는 80만~15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4대 중증질환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소득 하위 50%에게 모든 질환이 적용되도록 했다. 의료비가 소득의 일정액을 넘는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br/>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63% 수준에서 정체된 건강보험 보장율을 70%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데 일각에선 건강보험 재정 악화, 건강보험료 인상의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span class='quot1'>보험료는 10년간 평균 인상률인 3% 수준에서 관리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33.txt

제목: [건보 대수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상시화… 메디푸어 없어질까  
날짜: 201708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809051142002  
ID: 01101101.20170809051142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뭉칫돈으로 빠져나가는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한 서민들이 가계 파탄으로 내몰리는 이른바 메디푸어(Medi-Poor) 방지대책도 나왔다. 소득하위 10%의 건강보험 의료비(본인부담금) 상한액이 내년 80만원으로 대폭 낮아지는 등 소득하위층에 혜택이 집중된다. <br/>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연 소득 10% 수준으로 낮추고,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대상을 늘려 상시화된다. 우리나라는 재난적 의료비(가처분 소득 4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 발생 가구 비율이 2010년 3.68%에서 2014년 4.49%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br/>정부는 내년부터 가구 소득 별로 적용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저소득층(소득하위 50%) 가구에 한해 대폭 낮춘다.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으면서 환자가 낸 비용(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기준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내주는 제도이다. 상한액이 낮을수록 그만큼 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줄어든다. 소득하위 10%(1분위)의 경우 올해 122만원(연 소득의 19.8%)에서 내년 80만원으로, 2ㆍ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ㆍ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진다. 소득상위 50%에 해당하는 6분위 이상의 상한액에는 변동이 없다. <br/>이로 인해 향후 5년간 335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보고, 기존 상한제 대상자들 중에서 소득하위 50% 이하에서 연간 40만~50만원의 추가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될 전망된다. <br/>또 의료비가 연 소득의 10~40%를 넘으면, 비급여까지 포함해 본인 부담의 50~60%(연 최대 2,000만원)를 지원해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것을 상시 체제로 전환하고 지원대상도 대폭 늘린다. 암이나 심장, 뇌, 희귀난치성 질환 같은 4대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어떤 질환이든 상관없이 소득 하위 50% 가구는 모두 지원받게 된다. 또 소득기준에서 다소 벗어나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심사를 통해 구제하는 방안도 추가됐다.<br/>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34.txt

제목: '구해줘' 조성하, 美친 열연이 불러온 나비효과  
날짜: 201708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808051022002  
ID: 01101101.20170808051022002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구해줘' 조성하가 방송 첫 주 상승세를 이끄는 주역이 됐다. <br/><br/>조성하는 지난 5일 첫 방송된 OCN 새 오리지널 드라마 ‘구해줘’(극본 정이도/ 연출 김성수/ )에서 사이비 교주 ‘구선원’의 교주이자 영의 아버지 백정기 역을 맡아 방송 2회 만에 묵직한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작은 시골 마을인 무지군에서 신도들을 홀리며 사리사욕을 채우는 극악무도한 악역 캐릭터로, 한 없이 인자한 미소 속 검은 속내를 은근히 드러내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소름을 정조준한 것.<br/><br/>특히 ‘구해줘’ 1회와 2회에서는 조성하가 구선원의 교주로서 교인들을 완전히 빠져들게 만드는 설교 신이 여러 차례 등장, 시청자들이 실제 사이비 종교 부흥회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강한 몰입감을 선사했다. 극중 백정기는 위암 말기 환자의 암 치료를 간증하고, “<span class='quot0'>악의 세상에서 구원의 배에 오르려면 새하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span>”는 언변으로 사람들을 자신에게 완전히 빠지게 만들었다.<br/><br/>그중 백정기의 놀라운 언변이 가장 돋보였던 신은 임상미(서예지)의 쌍둥이 오빠 임상진(장유상)의 장례식장에 나타나 울부짖었던 2부 엔딩 장면이다. 백정기는 “이 순간만큼은 성직자가 아닌 한 인간으로 서고 싶다. 새하늘님께 묻고 싶다. 왜 도대체 귀한 아들의 영혼을 지켜주지 못했던 거냐. 당신의 아들을 구원해주라 말씀하셨으면서 왜 저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나”라며 “당신은 정녕 이 아이가 당신께 구해달라고 했던 그 간절한 외침을 외면했던 거냐”고 가슴을 내리치며 오열해 임상미의 가족은 물론 장례식장에 함께 자리한 구선원 신도들을 압도했다.<br/><br/> <br/><br/>무엇보다 무려 3분에 걸친 독백 장면을 위해 대본을 탐독하며 연구를 거듭한 조성하는 슛이 들어가자 주어진 대사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소화하며 배역에 완전히 몰입해, 현장 스태프들까지 숙연하게 만들었다. 눈까지 빨개질 정도로 온 몸을 바친 열연에 “컷” 소리 후 박수갈채가 쏟아졌다는 후문이다. 더욱이 드라마 촬영 특성상 다양한 각도에서 백정기의 카리스마를 담아내기 위해 여러 번의 슛이 진행됐던 상태. 매번 촬영이 이어질 때마다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강렬한 에너지를 쏟아 붓던 조성하는 결국 촬영이 끝난 후 “목이 아프다”며 ‘성대 후유증’을 호소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br/><br/> <br/><br/>이러한 조성하의 열연이 대중에게 눈도장을 찍으면서 ‘구해줘’ 2회 시청률은 첫 회보다 큰 폭으로 오르며 상승세를 탔다. 나아가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호평 역시 끊이질 않고 있다. <br/><br/><br/><br/>명희숙 기자 aud66@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35.txt

제목: [헬스프리즘] 병마와 싸우며 공부도 해야 하는 소아암환자에게 희망을…  
날짜: 201708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807051233001  
ID: 01101101.20170807051233001  
카테고리: 사회>교육\_시험  
본문: 구홍회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br/><br/>소아청소년암은 매년 1,500여명이 진단받고 있다. 소아청소년 질환 중 매우 드물고, 중한 병이지만 완치율 70% 이상, 생존율은 85%라 대부분이 1~3년 간 치료받고 건강하게 자란다. 5,000명이 근무하는 회사라면 1~2명의 소아암 생존자가 근무할 정도로 소아청소년암 경험자는 내 가족, 친구, 선ㆍ후배, 이웃으로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다. <br/>부푼 꿈을 안고 중학교에 진학한 13살의 어린이의 설렘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다. 코피가 멈추질 않고 고열이 계속돼 엄마 손을 잡고 찾아간 병원에서 소아백혈병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다. 학업을 미뤄놓고 치료에 전념해야 했다. 항암제 투여를 받으며 병마와 싸우며 한 달을 보내고 나니 학교와 친구들 생각이 났다. 그런데 이어지는 치료를 받아가며 친구들 소식이 들려 올 때마다 암치료가 잘 될까 하는 걱정보다 ‘항암제로 인한 달라진 내 모습을 친구들이 놀리지 않을까?’, ‘이대로 뒤처지는 것인가?’하는 걱정이 앞섰다. 지금은 완치돼 성인이 된 환자의 이야기이다.<br/>소아청소년에겐 치료 어려움뿐만 아니라 학교와 사회 복귀도 걸림돌이다. 특히 치료 급성기가 지나면 치료와 공부를 병행해야 하므로 학교 복귀가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온다.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도 학교 복귀 지침서로 ‘다시 만나 반가워!’를 출간해 소아청소년암 경험자들을 돕고 있다.<br/>병원학교 교사도 대부분 자원봉사자다. 현직교사가 근무시간 중에 출장 처리해 봉사하는 것도 막혀 있다. 서울에 10개, 다른 지역에 23개 병원학교가 운영되지만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는 협력학교가 있어 수업에 많은 도움이 된다. 하지만 서울지역은 가장 많은 학생을 교육하면서도 협력학교 없이 자원봉사자로 교육하는 실정이다. <br/>병원학교 주변 학교 중 협력학교를 지정해 교육을 돕는 방안과 퇴직 교원의 자발적 봉사 같은 도움이 절실하다. 외국에서는 아이들에게 특례 입학을 허용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대학, 몇 개 과만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가 확대된다면 소아청소년암 경험자에게 커다란 희망이 될 것이다. 이들은 우리 아이들보다 큰 시련을 이겨낸, 우리 가족이요, 이웃으로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배려하고 응원해야 할 사회의 자산이다. 어른도 받기 어렵다는 항암치료를 훌륭히 이겨내며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려는 아이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차별없는 교육현장을 만드는 등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언론사: 한국일보-2-236.txt

제목: [태블릿+] 고용량 철분주사제 ‘페린젝트’, 암수술 후 빈혈 개선  
날짜: 201708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807051232001  
ID: 01101101.20170807051232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국내 6개 병원 논문, 미국의학협회지(JAMA) 게재…수혈 최소화로 92% 증상 개선<br/>위암수술 후 환자가 겪는 빈혈은 가장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이다. 수술 중 출혈로 인한 전해질, 수분 등의 손실을 수액으로 보충할 때 급성 빈혈이 생긴다. 치료법은 수혈ㆍ철분 복용ㆍ자연 치유 등 3가지 방법밖에 없다. <br/>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기존 방법이 수술 후 빈혈 치유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수혈은 혈색소(헤모글로빈 단백질) 수치가 7g/ℓ 이하일 때만 권고되고 있지만,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암수술 환자에 대한 무분별한 수혈은 오히려 감염과 면역반응 등의 부작용을 일으켜 생존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r/>국내 연구진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해 최근 그 결과를 저명한 국제학술지인 미국의학협회지(JAMA)에 게재하는 성과를 내놨다. 김영우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팀은 삼성서울병원 등 국내 7개 대형병원 위암치료 외과 의사들과 공동으로 위암 수술 후 생긴 급성 빈혈을 치료하는데 '고용량 정맥철분제 정맥주사'가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br/>이번 연구는 위암 수술 후 5~7일에 혈액 내 혈색소 수치가 7∼10g/㎗ 사이의 빈혈이 있었던 454명(평균 나이 61.1세)에게 '페린젝트'(성분명: 페릭 카르복시 말토즈)를 정맥 주사하는 방식으로 7년에 걸쳐 이뤄졌다. 그 결과, 철분제를 정맥에 주사한 빈혈 환자 중 92.2%가 12주 후 헤모글로빈 수치가 이 연구의 1차 목표인 혈색소 반응(혈중 혈색소 반응 등재 당시 보다 2g/㎗ 이상 증가한 경우 및/또는 혈중 혈색소 수치가 11g/㎗ 이상인 경우)을 보였다. 평균 혈중 혈색소 수치는 9.0g/㎗ 에서 12.3g/㎗로 수치가 정상치에 가깝게 개선됐다. 정맥 철분주사제만으로 헤모글로빈 수치를 높여 빈혈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부적절하게 시행되던 수혈을 크게 줄일 것으로 보인다.<br/>공동연구자인 배재문 삼성서울병원 소화기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0'>고용량 철분주사제인 페린젝트가 향후 부작용이 많은 수혈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는 위암 환자가 많은 국내 의료 환경에 꼭 필요한 연구과제</span>”라고 강조했다.<br/>JW중외제약의 ‘페린젝트’는 철로써 500㎎ 함량으로 국내 유일의 고용량 철분주사제다. 암을 비롯해 인공관절, 제왕절개, 심뇌혈관질환 등 다양한 수술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수혈을 최소화하는데 간편하고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br/>임신부의 빈혈이나 산모의 철 결핍 관리에도 효과적이다. 최근 여성의 임신 연령이 노령화되고 다이어트가 일상화되면서 빈혈을 겪는 임산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임신 초기에 먹는 경구용 철분제는 소화기 부작용으로 입덧을 더욱 심하게 할 수 있어 꾸준한 섭취가 힘들다. 이처럼 경구용 철분제 복용이 어려운 임산부에겐 정맥 철분주사제가 권장된다. 특히 주사용 철분제는 자궁근종 등 부인과 질환 수술 전후 신속하게 빈혈 교정이 가능하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2-237.txt

제목: [삼성서울병원과 함께 하는 건강 Tip] 림프절이 1㎝ 이상 이라면 림프종?  
날짜: 201708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807051230001  
ID: 01101101.20170807051230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림프종은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암이다. 하지만 림프종은 2014년 국가 암등록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당 10명 정도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혈액암 가운데 발생 빈도가 가장 높다. 나이가 들면서 발생 빈도가 늘어나기에 점점 더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br/><br/>Q. 림프종이란.<br/>“우리 몸에는 면역에 관여하는 림프계를 구성하는 림프조직이 있는데 간혹 과로하거나 염증이 생겼을 때 목이 붓거나 사타구니에 멍울이 만져지는 것은 림프조직의 하나인 림프절이 커져서다. 림프절이 일시적으로 커지는 것은 정상적인 면역반응이므로 대부분 자연히 회복된다. 하지만 림프조직 세포가 암 세포로 바뀌었을 때는 계속 커지고 주변 림프절이나 다른 장기로 전이된다.”<br/><br/>Q. 어떨 때 의심해야 하나.<br/>“림프절은 온 몸에 분포하기에 목이나 겨드랑이 등 어느 곳에서든지 아프지 않고 림프절이 커질 수 있다. 심한 통증을 동반하면서 림프절이 커진다면 염증 등에 의한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림프절이 커지는 원인은 원인이 다양하다. 림프절이 커졌다고 무조건 림프종부터 의심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며칠 지나도 작아지지 않으면 의심해야 한다. 1㎝ 이상으로 계속 커지면 주의해야 한다. 발열이나 오한, 밤에 식은 땀 등의 증상이나 체중 감소, 가려움증 등이 동반되면 더 주의해야 한다. 림프종의 전신 장기 침범에 따라 뇌에서 폐, 간, 위, 장, 콩팥에 이르기까지 모두 생길 수 있어 첫 진단이 쉽지 않다.” <br/><br/>Q. 어떻게 진단하나.<br/>“해당 부위에서 외과적 조직검사가 진단에 가장 중요하다. 크기가 간혹 커진 림프절에서 세침검사를 먼저 하기도 하지만 일반 염증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권고되고 있지 않다. 림프종이 간이나 폐, 위 등에서 발생하면 해당 부위에서 조직검사로 진단되기도 한다.” <br/><br/>Q. 치료와 예후는.<br/>“림프종은 호지킨림프종과 비호지킨림프종으로 나뉜다. 호지킨림프종은 젊은 나이에 비교적 많다. 항암치료에다 방사선치료로 완치율도 높다.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비호지킨림프종이 대부분이다. 비호지킨림프종도 B세포 림프종과 T나 NK세포 림프종으로 나뉜다. 세부 아형까지 포함하면 종류는 수십 가지다. 전신 항암치료를 원칙으로 4가지 이상 약제를 병합 투약한다. 치료반응률은 다른 악성 종양보다 월등히 좋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많은 T나 NK세포 림프종의 치료성적이 B세포 림프종보다 나쁘다. 경우에 따라 방사선이나 조혈모세포 이식 등의 치료도 할 수 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br/><도움말: 김석진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언론사: 한국일보-2-238.txt

제목: [사설] 9년 만의 YTN 해직기자 복직, MBC도 뒤따르길  
날짜: 201708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806050711002  
ID: 01101101.20170806050711002  
카테고리: 사회>미디어  
본문: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하다가 YTN에서 해직된 노종면ㆍ조승호ㆍ현덕수 기자의 복직이 결정됐다. 이들은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이달 중 출근할 것이라 한다. 세 사람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 무려 9년이 걸렸다. 그 긴 세월 동안 언론 현장에서 배제됨으로써 이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지는 불문가지다.<br/>이들이 쫓겨난 것은 MB 측근인 구본홍씨가 낙하산 사장으로 내려오는 데 반대한 때문이다. 보도전문 채널인 YTN은 한전KDN, 한국인삼공사, 한국마사회 등의 지분이 많아 소유구조로 보면 공영의 성격이 짙은데 YTN 이사회가 이런 구조를 이용, 직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낙하산 사장을 앉히려 한 게 발단이었다. 당시 반대 투쟁에 나섰던 기자 여섯 명이 해직됐는데 그 중 셋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복직했지만 나머지는 하염없는 해직 상태에 있다가 이번에 복직이 결정됐다.<br/>역시 낙하산 인사라는 평을 받았던 조준희 사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자진 사퇴한 것을 떠올리면 이번 복직 결정은 YTN이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복직 결정은 좁게는 해직기자들에게 일할 기회를 다시 제공하는 것이지만 넓게는 새로운 방송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과 다름없다. YTN의 그런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br/>주목할 것은 복직이 결정된 YTN 기자들이 KBS와 MBC의 정상화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는 점이다. 양대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권력에는 순응하면서도 반발하는 직원에게 각종 불이익을 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MBC는 직원들이 2012년 공공성 회복 등을 이유로 파업에 나서자 대량 징계에 나섰고, 기자, PD 등 여섯 명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br/>MBC는 지금도 ‘PD수첩’ ‘시사매거진2580’ 등을 제작하는 시사제작국 소속 PD와 기자들이 공정방송을 촉구하며 제작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경영진은 또다시 대기발령을 내는 등 징계로 맞서고 있다. 일반 민간기업이라면 모를까, 공영방송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는 믿기 어렵고, 누가 봐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다.<br/>이미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암 투병 중인 이용마 MBC 해직기자의 자택을 방문하는 등 공영방송 정상화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이런 흐름에 이은 이번 YTN 해직기자 복직이 MBC 해직자의 복직을 포함한 방송정상화를 앞당기는 분명한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언론사: 한국일보-2-239.txt

제목: 간암 정기검진…사망위험 24% 낮춘다  
날짜: 201708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806050611002  
ID: 01101101.20170806050611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정기적으로 국가암검진을 받은 간암 고위험군은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 간암 조기발견 가능성은 최대 2.6배 높고, 사망 위험은 24%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br/>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6일 2003년부터 실시 중인 국가 간암 검진의 효과를 평가한 ‘국가간암감시검사가 간암 조기발견, 사망, 의료비용에 미치는 영향’(경북대 권진원 교수, NECA 신상진 연구위원) 보고서를 발표했다. <br/>보고서에 따르면 2006∼2010년에 간암으로 확진된 환자의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기적인 간암 검진은 암 조기발견율을 크게 높였다. 간암 진단 전 2년간 한 번도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은 ‘미검진군’에 비해 검진을 한 번이라도 받은 ‘검진군’은 조기에 간암을 발견할 확률이 1.82배 높았고, 2번 이상 검진을 받은 그룹에서는 그 확률이 2.58배 높았다. <br/>사망위험도는 검진군이 훨씬 낮았다. 간암 확진 시점부터 2015년까지 추적 조사한 결과 검진군은 비검진군에 비해 사망위험도가 18.5% 낮았고, 2번 이상 검진을 받은 그룹에서는 23.8% 낮았다. 검진 여부에 따라 의료비용도 차이가 났다. 확진 시점부터 2015년까지 비검진군의 총 의료비용은 평균 3,212만원, 검진군은 평균 3,826만원으로 검진군이 더 많았다. <br/>하지만 성별, 연령 등 다른 요인의 영향을 통제한 뒤 검진 여부가 1일 평균 의료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을 때는 1회 이상 검진군과 2회 이상 검진군의 1일 의료비는 미검진군보다 각각 25%, 30% 낮았다. 연구책임자인 권진원 경북대 약학대 교수는 “<span class='quot0'>간암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간암을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사망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span>”며 “<span class='quot0'>수검군에서 총 의료비용이 높게 나타났지만, 이는 검진군이 조기 간암으로 진단돼 치료를 받으면서 더 오래 생존하기 때문</span>”이라고 설명했다.<br/>현재 정부는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간경화증이나 B형 간염바이러스 항원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양성으로 확인된 자)을 대상으로 6개월 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 간암검진 수검률은 2004년 2.41%에서 2009년 18.03%, 2014년 41.1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남성, 고연령층, 저소득층, 동반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집단은 수검률이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에서 간암은 폐암에 이어 2번째로 사망률이 높은 암종으로 특히 40∼50대에서는 사망원인 1위 질환이다.<br/>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40.txt

제목: '구해줘' 암 치료에 지하실 폭행까지..소름끼치는 사이비 묘사  
날짜: 201708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806050608001  
ID: 01101101.20170806050608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구해줘'가 강렬한 몰입감을 선사하며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br/><br/>지난 5일 첫방송된 OCN 새 오리지널 드라마 '구해줘'에서는 무지군으로 이사를 가던 임상미(서예지 분) 가족의 모습과 함께 사이비 종교 구선원의 열광적인 부흥회 장면이 교차했다.<br/><br/>임상미 가족이 타고 가던 용달차의 타이어가 터지는 불길한 장면이 펼쳐진데 이어 구선원 교주인 영부 백정기(조성하 분)가 위암 말기 환자의 몸에서 검붉은 액체 덩어리를 꺼내며 암 치료를 간증하는 모습이 담겼다. 신도들이 노래와 춤을 추며 반응하는 모습이 리얼하게 묘사되면서 충격을 선사했다.<br/><br/>일반 종교와는 다른 사이비 구선원의 미스터리하고도 이중적인 면모가 낱낱이 드러나며 긴박감을 안겼다. '새하늘님'의 구원을 믿는 교단 핵심 인물 강은실(박지영 분)은 말끝마다 자동적으로 "될 지어다"를 읊으며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마을 사람들에게 친절한 웃음과 도움을 주던 조완태(조재윤 분)는 구선원으로 끌려온 부랑자가 호의를 거부하자 180도 돌변해 지하 화장실에서 폭력을 자행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냈다.<br/><br/>무지군 촌놈 4인방 한상환(옥택연 분), 석동철(우도환 분), 우정훈(이다윗 분), 최만희(하회정 분)는 검은 우비를 쓴 채 폭우 속에서 타이어가 터진 임상미 가족을 구해주러 나타났다. 어둠 속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나 상미 가족을 긴장하게 했지만 이내 순수한 얼굴과 구수한 사투리로 동네 카센터를 연결해 반전되는 웃음을 안겼다. 자기들끼리만 있는 자리에서는 상미가 서로 본인에게 반했다고 주장하며 투닥거리는가 하면 찜질방에서 물싸움을 하고, 불량써클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나서는 해맑고도 패기 넘치는 17세 소년의 모습을 보였다.<br/><br/>임상미 가족은 임주호(정해균 분)가 지인에게 사기까지 당하면서 더 큰 난관에 처해지는 모습으로 안타까움을 돋웠다. 아울러 허름한 집에서 이삿짐을 푼 임상미 가족을 목격한 백정기가 이들 가족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심상치 않은 전조를 드리웠다. 특히 기도를 대신 해주겠다는 백정기가 은근슬쩍 임상미 다리를 매만지고, 당황한 임상미가 눈을 번쩍 뜨는 장면이 담기면서 백정기의 검은 속내가 예고됐다.<br/><br/><br/><br/>권수빈 기자 ppbn@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41.txt

제목: [TV오프닝]'구해줘' 서예지, 어색하고 미숙하다  
날짜: 201708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806050603002  
ID: 01101101.20170806050603002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배우 서예지가 극을 중심에서 이끌어야하는 주연임에도 어색한 연기를 보여줬다.<br/><br/>지난 5일 첫 방송된 OCN 새 토일드라마 '구해줘'(극본 정이도/연출 김성수) 1회에서는 무지군으로 이사 온 임상미(서예지 분) 가족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br/><br/>임상미 가족은 비오는 날 무지군으로 오던 중 차가 고장 나 멈추게 됐다. 그때 낯선 그림자가 다가왔고 가족들은 긴장했다. <br/><br/>그들은 한상환(옥택연 분)과 그의 친구들이었고, 한상환은 카센터에 전화를 걸어주며 임상미 가족을 도왔다. <br/><br/>무지군에는 사이비 교도인 영부 백정기(조성하 분)이 있었다. 그는 암을 치료해준다며 신도들 앞에서 알 수 없는 의식을 행하기도 했다. <br/><br/>임주호(정해균 분)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다. 무지군에 왔지만 제대로 된 집 한칸 마련하지 못해 찜질방에 가족들을 둬야 했다. <br/><br/>이후 백정기가 임주호의 가족들을 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고, 본격적인 마수를 뻗칠 마음을 먹었다. <br/><br/>이날 '구해줘'는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한 가족의 비극의 시작을 그려냈다. 조성하, 박지영, 조재윤을 중심으로 사이비 종교의 날선 이면을 그려내며 긴장감을 조성했다. 배우들의 연기는 촘촘했고, 비극의 시작을 알리며 몰입도를 높였다.<br/><br/>젊은 배우들의 활약 역시 이후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실었다. 옥택연, 우도환, 이다윗 등은 사투리 연기를 안정적으로 소화하며 스토리의 한 축을 담당했다.<br/><br/>문제는 서예지였다. 짧은 분량이었지만 시종일관 같은 표정과 어색한 톤으로 극의 몰입을 방해했다. 낮은 톤의 보이스는 시청자들이 대사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정도였고, 배우로서 가장 기본적인 발성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br/><br/>이제 막 서막을 연 '구해줘'는 흥미로운 소재와 배우들의 호흡이 기대감을 자아냈다. 서예지의 미숙함이 드라마의 오점이 되는 건 아닐지 씁쓸함이 든다. <br/><br/><br/><br/>명희숙 기자 aud66@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42.txt

제목: 사무장병원 가짜 처방전으로 1억 챙긴 나이롱 환자  
날짜: 201708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803050911002  
ID: 01101101.20170803050911002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무자격자가 의사 등 고용해 병원 차린 뒤<br/>진료비ㆍ입원일수 부풀리기 수법으로<br/>4년간 실손보험금 등 47억 가로채<br/>경북경찰, 2명 구속 35명 불구속 입건<br/><br/><br/>환자들과 짜고 진료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사무장병원’ 운영자와 ‘나이롱’ 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br/>경북경찰청은 3일 고용한 의사 명의로 병원을 설립한 뒤 간호사 등 의료진을 채용해 입원일수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민간보험사를 상대로 실손보험금 등 47억 원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경북 경주시 A의원 운영자 B(56)씨와 의사 C(56)씨를 구속했다. 또 병원 측과 짜고 허위 진료ㆍ입원확인서 등으로 보험금을 타 낸 수백 명의 환자 중 액수가 큰 35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br/>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12년 8월 경북 경주시 외곽 지역에 암 전문을 표방하는 내과의원을 차린 뒤 지난해 8월까지 4년간 허위처방전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18개 민간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 47억 원을 받아 챙겼다. 47억 원 중 병원 측이 진료비와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34억 원을 챙기고 환자들도 13억 원을 따로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br/>경찰 조사 결과 B씨는 고주파치료를 한 번만 실시하고는 2회 한 것처럼 하는 등 진료 횟수와 입원 일수를 부풀려 환자들에게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거액의 실손보험금을 타내도록 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급여 항목도 건강보험공단에 한번도 청구하지 않았다.<br/>실수령액 기준 매달 2,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고용된 의상 C씨는 제대로 출근하지도 않으면서 거액의 월급을 받았다. 환자 진료나 확인서 발급은 병원 측이 임의로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뻥튀기 확인서를 잘 끊어준다는 소문이 나면서 환자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300명 이상의 만성 질환자들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이상 실손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br/>경북경찰청은 보험사기 내역을 해당 보험사 등에 통보, 피해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사무장 병원과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br/>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43.txt

제목: [삶과 문화] 안(安)과 정(定)에 대해서  
날짜: 201708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802051114001  
ID: 01101101.20170802051114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지난 글에서 말씀 드린 대로 저는 열 이틀간 “생명평화, 신 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 탈 원전과 화석 에너지 사용 축소, 에너지 절약”을 구호로 행진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와 행진단이 이런 행진을 매년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타성과 안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br/>그런데 우리가 타성에 빠지고 우리의 삶에 안주하게 되는 것은 편안함과 안정을 너무도 좋아하고, 반대로 불안정이나 불안을 너무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安)을 너무도 좋아합니다. 안전(安全)도 좋아하고, 안정(安定)도 좋아하며, 편안(便安)도 좋아하고, 안락(安樂)함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안주(安住)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요. 안정과 안주는 한 글자 차이일 뿐인데 안주는 나쁘지만 안정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한 글자 차이로 이렇게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갈리는 것일까요?<br/>우리는 자유도 좋아하고, 자유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사랑을 사랑답게 하며, 순종을 순종답게 하고, 일치를 일치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또 동시에 정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고, 정해진 대로만 하라고 하면 자유가 억압당하거나 제한되는 것처럼 느끼면서도 정해지는 것을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저와 행진단이 행진을 할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출발지와 목적지 외에는 아무 정해진 것이 없이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먹을지 하나도 정하지 않고, 목적지 어디에 어떻게 머물지 하나도 정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과 머물 곳을 다 구걸하여 해결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돈도 없이 간다는 것, 그것도 단체로 어디를 간다는 것은 대단한 불안입니다.<br/>이렇게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으면 매이는 것이 없으니 우리 인간이 자유로울 것 같지만 불안하기에 정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밥 먹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하여 다른 것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디 간 사이에 밥 먹고 치워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사람들 간에는 같이 밥을 먹는 시간을 정하고, 다른 중요한 것도 시간표를 짜서 정해야 불안하지 않고 편안합니다.<br/>심지어는 운명이나 병조차도 그러합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간단한 건강검진 차원에서 갔는데 뭔가 이상한 것이 있다며 정밀검사를 하자고 하여 그리 하고 돌아왔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 기간 무지 불안합니다. 그러다가 암이라는 판정(判定)을 받으면 결과를 모를 때보다 숫제 낫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決定)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해지기 전까지는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반대로 정해지거나 결정이 나면 그 나름으로 안정이 됩니다. 사실 불안이란 정해지지 않은 불안이고, 안정이란 정해진 안정인 것입니다. <br/>우리의 운명도 누구에 의해 정해지거나, 정해진 것에 대해 우리는 거부하고 싶지만,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면 정해진 운명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마음이 편하고 안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정하건 누구에 의해서 정해지건 우리는 정해져야 정해진 것에 안착(安着)하고, 안심을 하고, 안정을 누리게 되는데 문제는 안정은 안주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점입니다.<br/>누군들 안정을 마다하고 불안정과 불안을 스스로 택하고 싶겠습니까? 깨달은 자, 안주가 얼마나 우리를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것인지를 깨달은 자만이 살기 위해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짓 삶이 아니라 참 삶을 살기 위해서 불안정과 불안을 스스로 선택하고, 대 자유를 살고 싶은 사람만이 불안정과 불안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안정에 안주할 것인가? 대 자유를 살 것인가? <br/>김찬선 신부

언론사: 한국일보-2-244.txt

제목: [최문선의 욜로 라이프] 브래지어가 불편하다고? 당신 가슴에 답이 있다!  
날짜: 201708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802052014001  
ID: 01101101.20170802052014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37만3,800시간. 한국 여성이 평생 브래지어를 입고 있는 시간이다. 평균 수명(86세)의 여성이 13세부터 매일 14시간씩 착용한다고 치면 그렇게 엄청난 숫자가 나온다. 그런데도 우리는 브래지어를 모른다. “<span class='quot0'>대체 왜 이렇게 불편한 거야?</span>” 아무도 제대로 알려 주지 않는다. ‘여자니까 입어야 한다’는 통념이 있을 뿐. <br/>한국일보 기자ㆍ직원 14명이 브래지어 사이즈를 재 봤다. 22년 동안 브래지어를 만든 강지영(46) 비비안 디자인팀장의 도움을 받았다. 자기 사이즈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겨우 다섯 명이었다. “<span class='quot0'>저는 말랐으니까 당연히 75A 아닌가요?</span>” “<span class='quot0'>뚱뚱해서 눌리고 조이는 줄 알았어요.</span>” “<span class='quot0'>백화점 직원이 추천한 사이즈라 믿었는데요.</span>” “<span class='quot0'>늘 답답했지만 여자로 태어난 죄다, 견디자 했죠.</span>” 강 팀장은 “<span class='quot0'>속옷 회사들이 ‘사이즈 알기’ 캠페인을 오래 했는데, 이 정도로 모르는 건 충격적이다</span>”고 했다. <br/>그래서 강 팀장과 맞춤형 브래지어 스타트업 소울부스터의 박수영(31) 대표가 궁금증 해결에 나섰다. 회계사 출신의 박 대표는 데이터와 이론으로 무장한 전문가다. <br/><br/>“우리는 가슴에 무지했다”<br/><br/><br/>\_한국 여성 가슴의 특징은.<br/>박수영(박)=“서양 여성에 비해 퍼진 모양이고, 다른 아시아 여성보다 올라 붙었다. 이전보다 가슴 둘레는 작아졌지만, 가슴 용량이 엄청 커진 건 아니다.” <br/>강지영(강)=“A, B컵이 여전히 절대 다수다. 소수 소비자를 위해 C, D컵을 만들지만 늘 재고가 남는다.”<br/>\_많은 여성이 귀가하면 브래지어부터 벗는다. 왜 이렇게 불편한가?<br/>강=“브래지어 탓만은 아니다. 사이즈와 스타일을 제대로 고르지 못하는 게 문제다. 매장 직원이 눈대중으로 보고 권하는 대로 입는 경우가 많다. 가격부터 따지기도 하고.”<br/>박=“브래지어 구조가 중요하다는 것도 잘 모른다. 크기와 가슴 둘레 말고도 알아야 할 게 양쪽 와이어가 연결된 위치, 즉 ‘중심’이다. 중심이 높은 고중심 브래지어는 큰 가슴을 튼튼하게 받쳐 준다. 빈약한 체형, 특히 가슴 윗부분이 없는 여성이 입으면 컵이 뜬다. 가슴이 커도 운동을 많이 해 흉곽이 벌어진 체형이라면 답답하게 느끼는 게 고중심 디자인이다. 저중심 브래지어는 작은 가슴을 힘껏 모아 클리비지를 만들어 주지만, 처진 가슴엔 불편하다. 옆에서 보면 가슴이 납작하게 눌린 모양이 되기도 한다. ‘고중심=큰 가슴, 저중심=작은 가슴’이 진리는 아니라는 얘기다. 결국 자기 가슴에 무관심한 게 문제다.”<br/>\_왜 무관심한가. <br/>박=“2차 성징이 나타나면 대개 엄마가 브래지어를 사다 준다. 엄마가 어릴 때 입은 사이즈를 사 주고, 아이가 자라면 엄마들 평균 사이즈인 80A를 사 준다. 아이는 불편해도 ‘엄마가 사 줬으니 맞겠지, 브래지어가 원래 이런 건가 보다’하고 꾹 참는다. 성인이 되면 귀찮아서 또 참는다.”<br/>강=“아이를 상점에 데려가 사이즈를 재고 브래지어를 사 주는 부모는 거의 없다. 그냥 제일 작은 걸 사 준다. 시작부터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홈쇼핑에서 사이즈별로 몇 개씩 묶어 파는 저가 브래지어가 잘 팔리는 걸 보면, ‘브래지어는 몸을 가리면 그만인 도구’라는 인식이 여전한 것 같다.”<br/>\_딱 맞는 사이즈는 어떻게 확인하나. <br/>강=“전문 매장에서 윗옷을 다 벗고 재고 상담하는 게 최선이다. 부끄러우면 줄자로 스로 재도 괜찮다. 국내 브랜드의 경우, 가슴 바로 아래 흉골 둘레가 75, 80, 85 사이즈 순으로 커지는 밑가슴 둘레다. 유두를 지나는 둘레는 윗가슴 둘레다. 윗가슴과 밑가슴 둘레 차이가 컵 크기다. 차이가 10㎝면 A컵, 12.5㎝면 B컵 식으로 2.5㎝를 기준으로 커지거나 작아진다. 등 뒤에 거울을 놓고 줄자가 수평인지 확인하며 재는 게 요령이다. 잰 사이즈를 덜컥 사지 말고, 한 치수씩 크거나 작은 사이즈를 다양하게 입어 봐야 한다. 청바지는 입어 보고 사면서, 왜 브래지어는 그냥 사나.”<br/>박=“매장 점원을 너무 믿는 건 위험하다. 백화점 8곳을 다니며 사이즈를 재 봤는데, 엉터리인 곳도 있었다. ‘가슴이 어떻게 생겼어요?’ 대신 ‘어떤 디자인이 좋아요?’라고 묻는 것도 여전하다.”<br/>강=“요즘 판매 직원은 가슴 사이즈 측정 교육을 꼼꼼하게 받는다. 그럴 리 없다(웃음).”<br/><br/>“와이어, 유죄일까?”<br/><br/> <br/>\_브래지어가 불편한 건 결국 와이어 때문인가.<br/>강=“와이어 없이 컵 모양이나 패턴만으로 가슴을 지지하고 모으는 건 한계가 있다. 그런 기능을 포기할 수 없다면, 조금 불편해도 어쩔 수 없다. 요즘 쓰는 하이플렉스 와이어는 탄성이 좋아 그나마 착용감이 괜찮은 편이다. 와이어를 쓰기 시작한 1970년대에는 딱딱한 철 와이어였다. 대안으로 나온 게 체온에 따라 모양이 바뀌는 형상기억합금 와이어인데, 비싼 게 단점이다. 하이플렉스 와이어는 소프트, 스트롱 타입이 있으니 입어 보고 사자.”<br/>박=“와이어엔 죄가 없다. 가슴 사이즈와 구조가 문제인데도 와이어만 탓하면 평생 편안한 브래지어를 만날 수 없다. 와이어 없는 노와이어 브래지어는 제조 공정이 간단하고 단가가 싸다. 어느 정도는 상술이라는 얘기다. ‘와이어에서 가슴을 해방시켜라’는 마케팅이 먹히는 면도 있다.”<br/>\_와이어 때문에 유방암에 걸린다고 하는데. <br/>박=“금속 와이어가 림프액의 흐름을 막아 암을 유발한다는 설이다. 2009년 미국에서 나와 확 퍼진 주장인데, 과학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안다. 전문 학술지에 실린 연구 결과도 아니다. 유방암의 원인은 호르몬, 유전, 생활 습관 등 복합적이다.”<br/>\_브라렛(와이어, 몰드가 없고 가슴을 넓게 감싸는 브래지어)이 대안인가.<br/>강=“예전엔 와이어 없는 브래지어를 아줌마ㆍ할머니용이라고 했는데, 인식이 바뀌었다. 자기 몸 긍정주의와 맞물린 트렌드다. 브라렛은 착용감이 좋고 유두 노출을 피할 수 있는 게 장점이지만, 모으고 받쳐 주는 기능은 미미하다. 와이어 브래지어와 브라렛의 장점을 접목하는 게 요즘 고민이다. ”<br/>박=“브라렛을 택한다면 옷 맵시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 대세가 되긴 어려울 것이다.”<br/>\_노브라 패션도 괜찮은가. <br/>강=“말리고 싶진 않다. 자신감과 철학의 문제다.”<br/>박=“유두 노출은 그래도 부담스럽다. ‘우리 속 원숭이’가 되는 느낌을 감수할 자신이 없다(웃음).”<br/>\_브래지어를 안 입으면 가슴이 처지나.<br/>박=“가슴은 그물 같은 조직이다. 운동 등으로 크게 흔들려 조직이 끊어지면, 다른 신체 조직과 달리 재생되지 않는다. 자세가 나쁘면 체형이 서서히 바뀌듯, 가슴도 마찬가지다.” <br/>강=“얼마나 과격한 운동이냐, 가슴이 얼마나 크냐에 달렸다. 요즘 스포츠 브래지어는 소프트ㆍ하드 타입으로 나뉘니 운동 강도에 따라 골라 입는 게 좋다.”<br/><br/><br/>\_끈 없는 브래지어는 왜 흘러내리나. <br/>강=“끈 없는 스타일의 수요가 있어 만들긴 하는데, 잘 맞는다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다. 컵과 밴드만으로 브래지어를 고정시키는 건 어렵다. 컵이 작으면 가슴이 눌리고, 밴드가 작으면 불편하다.”<br/>박=“그냥 투명 끈 브래지어를 입는 게 낫다.”<br/>\_브래지어를 노출하는 ‘시스루 패션’은 어떤가.<br/>강=“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한, 개인 취향의 문제다. 예전엔 하얀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브래지어를 입어 비치지 않게 하라고 권했지만, 세상이 바뀌었다. 중요한 건 자기 만족이다. 브래지어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패션 아이템이다.”<br/>박=“보일 듯 안 보일 듯 브래지어를 노출하는 게 고혹적으로 보이기도 한다.”<br/>\_브래지어 해외 직구는 모험인가.<br/>박=“시행착오를 감수한다면 도전해도 괜찮다. 한국 여성에게 한국 브랜드가 최선인 건 아니다. 딱 맞는 운명의 브래지어가 해외에 있을 수 있다(웃음).”<br/>\_브래지어 관리법은.<br/>강=“중성세제로 조물조물 손으로 눌러 빠는 게 원칙이다. 뜨거운 물에 빨거나 삶는 건 금물이다. 손빨래가 귀찮으면 전용 세탁망이라도 써야 한다. 세탁망엔 브래지어 2, 3개만 넣자. 세탁기에 탈수하거나 비틀어 짜면 안 된다. 모양을 잡아 그늘에서 말린다.”<br/><br/><br/>최문선 기자 moonsun@hankookilbo.com 김도엽(경희대 정치외교 3) 인턴기자

언론사: 한국일보-2-245.txt

제목: [갑상선암도 암이다] 갑상선암 ‘재발’, 혈액검사로 알려면  
날짜: 201707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31051107001  
ID: 01101101.20170731051107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이번에도 재발인가요?” 환자와 가족들 모두 걱정스런 낯빛이었다. 진료실 안은 긴장감이 돌았다. 갑상선암 수술 후 한 차례 재발을 경험한 환자로 진료실에서 드물지 않게 보이는 안타까운 모습이다.<br/>갑상선암은 대체로 진행이 느려 ‘거북이 암’, 혹은 예후가 좋고 생존율이 높아 ‘착한 암’이라고 불리지만, 수술 받은 환자의 5~15%는 재발하게 된다. 재발률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갑상선암 재발로 고통을 겪는 환자를 생각하면 결코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환자에게는 확률이 아니라 ‘재발이냐? 아니냐?’라는 둘 중 하나의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br/>또 재발한 갑상선암은 처음 진단 때보다 치료가 어려울 수 있고 재발 진단이 늦어지면 완치하기 어려울 수 있다. 수술 후에도 재발평가를 위한 정기적인 추적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br/>갑상선암 재발검사에는 일반적으로 혈액검사와 목 부위 초음파 검사가 가장 흔히 시행되며, 핵의학 전신스캔검사가 필요하기도 하다. 초음파는 수술 부위 재발, 림프절 전이가 있으면 확인할 수 있다. <br/>혈액검사는 갑상선암의 중요 표지자인 갑상선글로불린이라는 단백질 수치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갑상선글로불린은 체내 갑상선조직에서만 생산되므로, 혈액 내 이 수치가 늘면 갑상선암 재발을 예상할 수 있다. 수치가 애매하면 갑상선자극호르몬을 높인 상태에서 갑상선글로불린을 다시 측정하면 재발여부를 더 정확히 추정할 수 있다.<br/>과거에는 갑상선자극호르몬을 높이려고 갑상선기능저하 부작용을 감수하고 갑상선호르몬을 중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최근 재조합인간갑상선자극호르몬이 개발돼 갑상선호르몬 투여를 중지하지 않고 두 번 주사로 기능저하 부작용없이 정확한 검사가 가능해졌다. <br/>특히 보험이 적용돼 경제 부담도 크지 않으면서 영상검사로 발견되지 않는 매우 작은 갑상선암 재발도 조기에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 원격전이로 재발도 찾을 수 있는 전신스캔검사를 위해서도 혈액 내 높은 갑상선자극호르몬 수치가 필수적이다. 이 역시 재조합인간갑상선자극호르몬 투여로 쉽게 검사할 수 있다.<br/>환자 상태와 의료진 판단에 따라 재발검사 주기가 다를 수 있으나, 수술 후 1년 내 목 부위 초음파를 포함한 세심한 재발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 혈액 내 갑상선글로불린 검사는 정확할 뿐만 아니라 편리하고 비용도 적어 더 자주 시행되는 편이다. <br/>갑상선암 재발의 대부분이 수술 후 5년 이내 생긴다는 통계가 있어, 첫 5년 동안 재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한국갑상선학회, 미국갑상선학회(ATA),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의 권고안에 따르면, 비록 개별 환자의 재발 위험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수술 후 초기에는 6~12개월 간격으로 혈액 내 갑상선글로불린 검사를 하고, 장기간 재발과 전이가 없으면 1~2년 간격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br/>갑상선암도 다른 암처럼 재발하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될 수 있고, 난치성암으로 진행할 수 있다. 수술 후 정기적으로 추적검사를 받으면 막연한 재발 불안감과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

언론사: 한국일보-2-246.txt

제목: 제철 과일이 건강 지키는 보약  
날짜: 201707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31051106001  
ID: 01101101.20170731051106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연일 무더위에다 불쾌지수까지 높아 짜증이 사라지지 않는 계절이다. 쉽게 피로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져 보양식을 찾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영양이 풍부한 제철 과일만으로도 건강에 충분히 도움될 수 있다. 제철 과일은 계절에 맞는 항산화ㆍ항균 물질을 생산해 면역력을 높여주기에 제철 과일을 먹는 것만으로 더 없이 좋은 보약이다. 하지만 과유불급(過猶不及), 과하게 먹다가 탈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여름을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제철 과일의 효능을 알아본다.<br/>갈증해소와 혈압조절에 좋은 ‘수박’<br/>여름철 대표 과일인 수박은 90% 이상이 수분이라 몸에 부족한 물을 보충해 주고 이뇨작용을 돕는다. 또 식이섬유를 많이 함유해 소화에 좋고 칼륨이 많아 근육 이완과 혈압 조절에 도움된다. 몸이 자주 붓는 사람에게 좋다. 뿐만 아니라 신체 리듬을 원활히 해 주는 두뇌 신경전달물질 ‘콜린’이 함유돼 불면증에도 효과적이다. 라미용 삼성서울병원 임상영양파트장은 “<span class='quot0'>수박에는 특히 비타민 B1, B2, C, 칼륨, 인, 아미노산 등이 풍부해 더위로 인한 피로를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준다</span>”고 해다.<br/>수박의 빨간 속에는 혈당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라이코펜 성분이 들어 있어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하고 면역체계를 무너뜨리는 유해산소를 막는다. 과즙에 포함된 베타카로틴 성분은 피부의 콜라겐과 단백질을 보호하므로 꾸준히 먹으면 피부에 탄력이 생겨 노화를 막을 수 있다. 다만 찬 성질의 과일이라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할 수 있다.<br/>피부에 영양분 양보하는 ‘복숭아’<br/> 복숭아는 비타민과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멜라닌 색소 형성을 억제하고, 피로 회복과 피부 미용에도 좋다. 특히 자외선에 손상된 피부를 회복하거나 노화 방지에 좋다.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에 좋다. 포도당과 과당, 수분이 풍부하고 유기산은 적다. <br/>여름철에 시원하게 먹지만 열매는 본래 따뜻한 성질이라 여성의 생리불순, 가슴앓이에 효과가 있다. 또 기침ㆍ가래 해소에 효과가 있어 천식 등 폐질환에 쓰기도 한다. 유기산 성분이 풍부해 혈액순환과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br/>체내 니코틴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어 흡연자에게 좋고 아스파라긴산 성분도 풍부해 숙취해소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혈당을 잘 올리므로 당뇨병 환자는 주의해야 한다.<br/>심장질환에 좋은 ‘포도’, 껍질ㆍ씨도 먹어야<br/>포도에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포함돼 있어 ‘신이 내린 과일’로 불린다. 껍질에 함유돼 보라색을 띠게 하는 라스베라트롤은 노화방지와 항암 효과가 있다. 또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시력이 떨어지는 증상과 암 세포 증식을 억제한다. 씨에는 불포화지방산이 많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줄 수 있다. 안토시아닌은 심장질환과 뇌졸중 예방에 좋고, 폴리페놀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다. 과육에는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를 회복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준다.<br/>한의학에서는 포도가 혈을 보충해 심장을 강화하고 진액을 보충해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형철 자생한방병원 원장은 “<span class='quot1'>포도 한 송이에 열량이 180㎉로 비교적 칼로리가 높아 적당히 먹어야 하며, 특히 당뇨병이 있다면 껍질째 한 송이 정도만 먹는 게 적당하다</span>”고 했다.<br/>혈액순환과 빈혈에 좋은 ‘자두’<br/> 새콤달콤한 자두는 칼륨과 철분이 풍부해 혈액순환, 빈혈, 각종 심혈관 질환에 좋다. 한방에서는 성질이 평이해 누구나 먹어도 큰 탈이 없고 간의 열을 내리는데 효과가 있다고 본다. <br/>식이섬유가 많아 장 운동을 향상시키고 변비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다. 비타민 AㆍC가 풍부해 여름철 무기력하고 피로가 심할 때 먹으면 기력회복에 좋고, 거칠고 칙칙해진 피부를 깨끗하고 탄력있게 만들어 준다. 혈액 순환을 촉진해 어지럼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 여름에 장시간 야외 활동하다가 어지럼증을 느끼는 사람에게 좋다. 여름철 갑작스러운 운동으로 팔다리가 쑤실 때도 효과를 볼 수 있다.<br/>수분과 비타민 채워 주는 ‘블루베리’<br/> ‘보라색 푸드’의 대명사인 블루베리는 껍질과 씨가 없는 통과일로 항암, 노화방지, 다이어트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블루베리의 파란색을 구성하는 안토시아닌은 대표적인 항산화물질로 눈 건강은 물론 세포 노화를 막아 두뇌 건강과 노화방지에 탁월하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 함유량이 포도보다 30배 가량 높다. <br/>또 비타민 C와 E, 칼슘, 철, 망간 등 비타민과 미네랄이 18종이나 들어 있다. 이밖에 혈액 내 노폐물을 제거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려준다. 혈관응고를 억제하고 피를 맑게 해 뇌졸중, 심혈관 질환 등 성인병 예방에 좋다. 한방에서는 차가운 성질의 음식이어서 한 번에 과하게 먹기보다 조금씩 자주 섭취하는 게 좋다.<br/>콜레스테롤 줄이는 ‘체리’<br/>빨간 체리는 보는 것만으로도 군침이 돈다. 각종 디저트나 샐러드에서 유독 두드러지는 존재감만큼 그 속에 숨어 있는 ‘젊음’은 남다르다. 체리에는 케르세틴이 풍부해 폐암 발병을 억제한다. 붉은 색을 내는 안토시아닌이 씨를 빼낸 체리 100g당 80~300㎎ 정도 들어 있어 면역반응을 조절하고 항염 효능을 높여준다. 체리에 든 식이섬유는 체리 무게의 2.29% 정도로 수용성 식이섬유다.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데도 탁월하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2-247.txt

제목: [경희의료원과 함께 하는 건강 Tip] 췌장암ㆍ담도암  
날짜: 201707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31051104001  
ID: 01101101.2017073105110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췌장암과 담도암은 다른 암보다 발병률은 높지 않다. 하지만 국내 10대 암 가운데 가장 예후가 좋지 못한 암이다. 이들 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고, 인체 깊숙이 위치해 있어 조기 발견도 어렵고 발견해도 수술하기도 어렵다.<br/><br/>Q. 증상과 원인은. <br/>“췌장암과 담낭암은 주요 증상은 간헐적인 복통과 진한 갈색 소변, 회색 대변, 가려움증 등의 황달 증상, 통증으로 인한 음식물 섭취 저하, 구토, 구역질 등 소화장애, 식욕부진으로 인한 체중감소 등이다. 발병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만성 췌장염과 일부 유전질환에서 췌장암 발병률이 늘고 있다. 담관암을 일으키는 인자로 담관 정체, 만성 염증, 만성 감염, 발암물질 노출 등이다.”<br/><br/>Q. 어떤 검사를 받나. <br/>“복부 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단층촬영(PET)-CT 등의 영상진단 검사가 있다. 그리고 췌장암 예후와 치료 후 추적검사로 혈청종양표지자 검사(CA19-9) 등을 들 수 있다.”<br/><br/>Q. 치료법은. <br/>“수술적 절제가 가장 좋은 치료법이다. 개복수술과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등이 있다. 최근 주목 받고 있는 로봇수술을 통한 정밀치료는 절개를 최소화해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 정교하고 안전한 수술로 합병증이 적어 우수한 치료효과를 보이고 있다.”<br/><br/>Q. 췌십이지장절제술이란.<br/>“췌십이지장절제술은 복강경과 로봇수술을 이용한 고난도 수술법이다. 고해상도의 확대된 시야 속에서 로봇을 이용해 십이지장과 췌장, 담관을 정교히 잘라낸다. 췌십이지장절제술은 여러 장기를 광범위하게 잘라내므로 출혈 등 수술 후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높다. 다만, 외과 영역에서 난이도 높은 수술이어서 경험 많은 의료진이 시행해야 한다.”<br/><br/>Q. 수술 후 건강관리는. <br/>“췌장암과 담도암은 재발률이 높아 치료 전후 환자 상태에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해야 한다. 또한 고지방,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를 피한다. 충분한 열량과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을 공급하도록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한다. 스트레스와 음주는 삼가고 금연은 필수다.” <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br/><도움말= 박민수 경희대병원 간담췌외과 교수>

언론사: 한국일보-2-248.txt

제목: 암 위험 높은 췌장 물혹, 수술 않고 내시경으로 제거  
날짜: 201707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31051104002  
ID: 01101101.20170731051104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내시경 초음파로 에탄올 주입…10명 중 9명 효과<br/><br/>췌장에 생긴 주머니 모양의 물혹(낭성 종양)은 대부분 양성이다. 하지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암으로 악화할 수 있다. 따라서 물혹이 생겼다면 췌장 일부를 조기에 수술로 잘라낸다. <br/>그런데 최근 물혹을 수술하지 않고도 내시경으로 없애는 치료법이 효과가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췌장은 일부를 수술로 잘라내면 당뇨병, 소화기능 장애 등의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내시경 치료법은 물혹만 제거하므로 당뇨병이 생기지 않고 수술로 인한 다른 부작용 발생 위험도 적다.<br/> 서동완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팀이 내시경 초음파로 췌장 물혹 환자 158명을 치료한 뒤 평균 6년 동안 장기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총 141명(89.2%)에게서 물혹이 없어지거나 관찰만해도 될 정도로 크게 줄었다. 연구결과는 '유럽소화기내시경학회지'에 최근 실렸다.<br/>서 교수팀이 2005년 국내 처음으로 시행한 이 시술법은 입 안으로 내시경 초음파를 넣어 췌장 물혹에 미세한 침을 꽂아 안에 든 물을 빼낸 뒤 에탄올을 넣거나, 소량의 항암제까지 집어 넣어 물혹 세포를 죽이는 방법이다. <br/>서 교수팀은 내시경 초음파 췌장 물혹 제거술 효과를 알아내기 위해 2005년 7월 이후 췌장 물혹 내시경 초음파 제거술을 시행한 환자 가운데 158명을 50~85개월 장기 추적 관찰했다. 114명(72.1%)에게서는 종양이 완전히 없어졌고, 27명(17.1%)은 추적 관찰만 해도 될 만큼 물혹이 줄어 141명(89.2%), 즉 췌장 물혹 환자 10명 중 9명에게서 효과가 우수했다.<br/>또한, 내시경 초음파 시술법으로 췌장 물혹이 완전히 없어진 114명을 평균 6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2명에게서만 췌장 물혹이 재발했으며 모두 양성이었다. <br/>초음파 내시경으로 췌장 물혹 제거술을 받은 158명 가운데 16명(10.1%)에게만 합병증이 생겨 기존 수술법보다 합병증 위험이 3분의 1로 줄었다. 이 가운데 15명은 가벼운 복통 등 증상이 매우 경미하거나 적절히 치료하면 회복이 가능했다.<br/>서 교수는 "내시경 초음파로 췌장 물혹을 없애면 췌장을 잘라내지 않아도 되므로 시술 후에도 췌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해 당뇨병 등 합병증 위험이 크게 줄고, 흉터가 남지 않아 회복 속도가 매우 빨라 환자 만족도가 높다”고 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2-249.txt

제목: 간암 환자, 다른 장기도 동시에 이식받아 삶의 질 높여요  
날짜: 201707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31051103001  
ID: 01101101.20170731051103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장기이식은 첨단 의료기술이 집약된 정수다. 전문의료진의 긴밀한 네트워크와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세브란스병원 간이식클리닉은 최근 기존 이식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간암 환자와 간과 함께 콩팥, 심장, 폐 등의 다른 장기도 동시에 이식하는 다장기 이식술을 시행하고 있다. 김명수(54) 세브란스병원 장기이식센터 교수(이식외과장)에게 국내 간이식 현황과 미래 방향을 들었다.<br/><br/>-간 이식이란.<br/>“병든 간을 모두 잘라낸 뒤 살아 있는 사람이나 뇌사자에게서 간 일부나 전체를 기증 받아 주변 혈관과 담도를 연결해 간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수술이다. 간 이식은 간경변이나 간암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라는 사실은 세계적으로 정립돼 있다. <br/>국내 간 이식 대기자는 4,774명(2016년)이지만, 이식 받은 환자는 뇌사자 이식환자 508명, 생체 공여 이식 964명 등 4분의 1 정도(1,472명)에 그쳤다. 사회적으로 뇌사기증에 대한 관심 부족이 가장 큰 문제다. 인구 100만명당 스페인은 39.7명, 미국은 28.5명 꼴로 매년 뇌사 장기기증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1.2명에 그쳐 하루 3.17명꼴로 이식대기환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br/><br/>-간 이식에 제한 사항은.<br/>“장기 이식에 기증자와 수혜자 간에 적합성을 판단하는 조건이 여러 개 있다. 장기마다 조건이 약간 다른데, 간 이식은 혈액형, 간 크기와 모양이 매우 중요하다. 간은 면역학적으로 콩팥보다 덜 민감해 조직형(인체조직적합성)을 맞추지 않아도 이식할 수 있다. 하지만 혈액형은 반드시 수혈조건에 맞춰야 한다. 혈액형이 적합한 기증자를 찾지 못해 적절한 시기에 간 이식하지 못하는 환자가 많아 안타까웠다.<br/>최근 혈액형 불일치 기증자의 간 이식법이 개발돼 많이 활용되고 있다. 우리 간이식클리닉은 2012년 혈액형이 다른 기증자의 간을 첫 이식한 이래 간 이식 환자 중 20% 정도가 혈액형이 다른 기증자 간을 이식 받고 있다. 환자는 이를 위해 이식 받는 간에 거부반응이 생기지 않도록 항체를 미리 걸러 내는 혈장교환술과 항체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약물치료(리툭시맙) 등을 받는다. 특히 혈액형이 같은 기증자의 간 이식 성공률과 차이가 크지 않다.”<br/><br/>-간암 환자도 이식 받을 수 있나.<br/> “‘밀란 기준’(국제 기준)으로 이식 여부를 정한다. 암세포가 간 일부에만 생겼고 주변 침범이 없을 때만 이식할 수 있다. 간암 환자 대부분은 암 덩어리가 커졌거나, 간 여러 곳에 퍼졌거나, 주변 혈관에 암세포가 번져 이식 기준이 되지 않는다. 우리 간이식클리닉팀은 간암센터 소화기내과와 방사선종양학과 의료진과 협력해 방사선과 항암약물 치료로 이식 가능한 수준으로 암을 줄인 뒤 간 이식한다. 특히 가장 큰 간 혈관인 주문맥에 암세포가 침범한 진행성 간암이면 치료법이 거의 없지만 우리 클리닉은 여러 차례 이식에 성공했다.”<br/><br/>-다장기이식이 늘고 있는데.<br/>“다장기이식은 두 장기 이상을 동시 이식하는 수술이다. 간질환이 있으면 합병증이나 당뇨병ㆍ고혈압 등 다른 원인 질환으로 주변 장기도 문제될 수 있어 간 이식만으론 건강을 회복하기 어렵다. 우리 간이식클리닉은 최근 5년간 간과 콩팥을 동시 이식하는 수술을 10건이나 성공했다. 2015년엔 세계 최초로 뇌사자 폐와 생체 기증자 간을 동시 이식했다. 다장기이식 성공을 위해 우리 병원 각 장기이식팀은 긴밀한 협조와 세심한 수술계획을 만들고 있다.”<br/><br/>-간 기증자 수술은.<br/>“생체 공여자 장기이식은 기증자와 수혜자 2명을 동시 수술한다. 환자로서는 긴 입원생활과 수술흉터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기증자에겐 숭고한 희생이 없다면 힘든 과정이다. 따라서 기증자에게 가장 큰 부담되는 수술흉터와 입원기간을 줄이려고 몇 개의 구멍을 배에 뚫어 하는 복강경 간절제술이 몇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2차원 영상으로 하는 복강경수술은 정교한 간 절제에 다소 아쉬움이 있어 널리 확대되지 못했다. <br/>그러다 암수술에 주로 쓰이는 로봇수술 술기(術技)를 기증자 수술에도 시행해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와 지난해 4월 국내 최초로 로봇수술기를 이용한 공여자 간절제술에 성공했다. 아버지에게 간을 내준 아들은 수술 9일째 퇴원해 입원기간을 개복수술보다 절반이나 줄였으며 흉터도 거의 남지 않았다. 이후 기증자 간절제에 로봇수술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기증자는 물론 간이식환자의 부담감도 줄여 호응도가 높다. 다만 로봇수술기를 사용한 간절제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아쉽다.”<br/><br/>-간 기증자 케어 프로그램이 있다는데.<br/> “간의 60~70%를 떼주는 기증자는 3~6개월 이내 원래 간의 80~100%까지 회복한다. 우리 간이식클리닉은 별도 진료프로그램을 만들어 간 기증자를 수술 후 6~12개월 동안 잘라낸 간이 잘 커지고 기능이 잘 되고 있는지 체크한다. 이를 통해 기증자 건강은 물론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해 치료하고 있다. 특히 간 기증자가 주로 젊은 층임을 감안해 흉터 관리에 많이 신경 쓰고 있다. 현재 국내 유일의 우리 병원 흉터성형센터에서는 기증자와 이식환자의 수술흉터를 피부과ㆍ성형외과 의료진이 전문 치료하고 있다.”<br/><br/>-세브란스병원 간이식클리닉 강점이라면.<br/> “간 이식을 담당하는 이식외과ㆍ간담췌외과 전문의는 나를 포함해 7명이나 된다. 또 장기이식코디네이터가 환자ㆍ기증자의 궁금점과 진료일정을 상담해 안심하고 이식과정을 이겨내도록 돕고 있다. 또한 소화기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마취과 등과 긴밀한 협진과 정례회의를 통해 우리 의료기술을 다 쏟아 첨단적이고 안전한 간이식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꼭 알리고 싶다. <br/>이를 바탕으로 다른 개복수술과 이미 한 차례 간 이식으로 내부 장기유착이 생겨 수술위험이 높은 환자의 이식수술을 선도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또한 면역억제제 복용으로 면역력이 약한 이식환자가 병원에 올 때 다른 환자와 접촉해 감기라도 옮지 않도록 아침 7시부터 진료를 하는 환자중심 진료시스템을 만들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2-250.txt

제목: [브리핑]삼성화재, 상반기 당기순이익 7,798억원 外  
날짜: 201707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31051046002  
ID: 01101101.20170731051046002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현대차그룹, 제네시스 전담 사업부 조직 확대<br/>현대자동차그룹은 제네시스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4실 7팀 체제의 전담 사업부 조직을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 제네시스 사업부는 마케팅과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제네시스고객경험실, 상품전략과 상품기획 업무를 맡는 제네시스상품실, 사업계획과 중장기 브랜드전략을 전담하는 제네시스브랜드전략실, 고객경험실과 상품실을 총괄하는 마케팅담당(실급) 등 4실과, 해외 지역별 판매지원 등을 담당하는 제네시스해외판매기획팀으로 구성된다. 제네시스 사업부장은 기존 제네시스 전략 담당이었던 맨프레드 피츠제럴드 전무가 맡는다.<br/><br/>신송식품 3인 대표이사 체제로<br/>신송간장으로 유명한 신송그룹이 최근 핵심 계열사 신송식품을 조승현 조승우 안영후 3인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했다고 31일 밝혔다. 안영후 대표는 대상그룹의 장류 사업을 이끌다가 지난해 신송식품에 합류했으며, 신송식품의 주력인 장류 사업 등 식품사업부문을 전담하게 된다. 조갑주 창업주의 장남인 조승현 대표는 신송식품 법인을 총괄하게 된다. 조승현 대표는 대주주로서 대표의 지위를 갖게 된다.<br/><br/>우리은행ㆍ연세대, 교육 기부금 신탁상품 업무협약 체결<br/><br/>우리은행은 3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이광구(오른쪽) 우리은행장과 김용학 연세대학교 총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육 기부금 기부 장려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으로 우리은행은 교육 기부금을 연세대에 기부할 수 있는 우리나눔신탁 상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하고, 연세대는 기부 희망자들을 우리은행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나눔신탁은 기부자가 가입금액의 50%를 기부하고 50%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으로 최소가입금은 2억원이다.<br/><br/>하만 오디오, 삼성전자 유통망서 판매 <br/>삼성전자가 1일부터 자체 유통망을 통해 오디오 브랜드 ‘하만’의 오디오 제품을 국내 판매한다. 그 동안 하만 제품은 하만코리아가 수입총판 업체를 통해 국내 유통해왔으나, 앞으로는 삼성 디지털프라자 등 삼성전자의 유통망을 통해 하만카돈과 JBL, AKG 등 3개 브랜드 제품이 판매된다. 또 전국 삼성전자서비스센터를 통해 하만 제품 사후관리(AS)가 실시된다.<br/><br/>삼성화재, 상반기 당기순이익 7,798억원<br/>삼성화재는 31일 올해 상반기 7,78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자동차보험의 성장세에 힘 입어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원수보험료는 전년보다 1.7% 증가한 9조1,832억원을 기록했으며, 보험영업효율을 판단하는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1.0%포인트 개선된 101.1%를 기록했다.<br/><br/>LGD, 상주 협력사 직원까지 암 발병 보상<br/>LG디스플레이는 지난 5월 말 발표했던 산업보건 지원보상제도의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자사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전ㆍ현직 임직원과 상주 협력사 직원 중에서 암이나 특이질병이 발병할 경우 업무 연관성과 관련 없이 지원보상을 하는 제도다. LG디스플레이는 이를 위해 1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향후 10년간 운영하기로 했으며, 필요에 따라 재원을 증액할 계획이다.<br/><br/>삼성전자, 6CA 지원 차세대 LTE모뎀 개발<br/>삼성전자가 6개 주파수 대역을 하나로 묶어 빠르고 안정적인 데이터통신을 가능하게 한 6CA 지원 차세대 LTE모뎀을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스마트폰으로 2시간짜리 초고화질(HD)급 영화를 단 10초만에 내려 받을 수 있는 속도로, 올해 말 양산을 시작하는 모바일 프로세서에 처음 적용돼 내년 초 출시되는 갤럭시S9(가칭) 등에 탑재될 전망이다.<br/><br/>SKT, IoT 제품 개발 대회 수상팀 사업화 지원<br/>SK텔레콤은 지난달 29~30일 사물인터넷 제품 개발 대회 'IoT 메이커톤’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고등학생, 대학생 대상의 대회에는 11개팀이 참가했으며 최종 우승은 IoT 전용망을 이용해 메시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확인할 수 있는 IoT 스마트밴드 '카르빈'을 개발한 바다팀이 차지했다. 수상한 4개팀은 총 1,000만원의 상금 등을 받는다. SK텔레콤은 수상팀이 원할 경우 제품의 사업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br/><br/><br/><br/>한국씨티은행 ‘아시아지역 최우수 디지털은행’ 수상<br/>한국씨티은행은 전세계 193개국 경제 및 금융 전문가들이 구독하는 금융전문지 글로벌파이낸스로부터 ‘2017년 아시아지역 최우수 디지털은행(Best Consumer Digital Bank in Asia Pacific)’ 중 한국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글로벌파이낸스는 “은행 방문 없이 신규 계좌 개설, 체크카드 발급, 신용대출 신청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 편의를 위한 혁신성이 높이 평가됐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br/>최근 새로 도입한 인터넷뱅킹과 로그인 없이 계좌 잔액 및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한 스냅샷 서비스를 탑재한 ‘씨티모바일 앱’을 선보였으며, 모바일과 PC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도 은행 방문 없이 신규 계좌 개설, 체크카드 발급 그리고 신용대출 신청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고객 편의를 위한 혁신성이 높이 평가되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br/><br/>美 FDA, 셀트리온 허쥬마 검토 수용 <br/>셀트리온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자사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허쥬마’에 대해 품목허가 신청을 공식 수용했다고 31일 밝혔다. 최종 허가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허쥬마는 다국적제약사 로슈가 판매하는 ‘허셉틴’을 복제한 약으로, 국내에선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고 하반기 출시한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4월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FDA의 허가를 받았고, 지난달 바이오시밀러 혈액암 치료용 ‘트룩시마’도 FDA가 허가 검토에 들어갔다. <br/><br/>코트라, 일자리 사업실ㆍ외투기업 채용지원팀 신설<br/>코트라(KOTRA)가 국내외 일자리 창출 기능을 강화하고자 다음달 1일에 해외취업지원 전담조직인 글로벌일자리사업단을 ‘일자리사업실’로 확대한다. 코트라의 핵심기능인 무역·투자 지원과 연계한 일자리 전략수립, 해외 일자리 발굴과 취업지원 해외거점 확대, 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성장 지원을 통해 국내 일자리 저변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 ‘외투기업채용지원팀’을 신설, 외국인투자가 국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br/><br/>11번가, 상반기 거래액 4조2,000억원… 역대 최대<br/>SK플래닛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11번가는 상반기(1~6월) 거래액이 역대 최대인 4조2,000억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0%, 2015년 대비 52% 급증했다고 31일 밝혔다. 상반기 영업적자도 지난해 동기 대비 절반 가량 감소했다. SK플래닛은 지난해 2,000억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11번가를 롯데와 신세계 등 유통 대기업에 넘기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 적자폭이 줄었지만, 기존 적자규모가 커 수익성 회복은 지켜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진혁 SK플래닛 11번가사업부문장은 “고객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차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br/><br/>롯데그룹, 기업문화 꾸밀 현장 소통가 46명 선발<br/>롯데그룹은 31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기업문화위원회 주니어보드 위촉식을 진행했다. 46개 계열사에서 주니어보드로 선발된 실무자급(대리 및 책임) 46명은 위원회 회의에 참여해 현장 경험이나 동료들의 목소리를 내외부 위원들에게 전달하거나 거꾸로 위원회의 정책과 실천과제를 현장에 전파하면서 기업문화 혁신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황각규 경영혁신실장은 "<span class='quot1'>주니어보드를 통해 소통한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span>"며 "<span class='quot1'>기업문화위원회와 현장을 긴밀하게 연결해주는 사내 소통채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달라</span>"고 말했다.<br/><br/>아워홈, 인턴 영양사·조리사 공개채용<br/>종합식품기업 아워홈은 다음 달 9일까지 2017년 하반기 신입 인턴 영양사와 조리사를 공개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식품영양 및 조리 관련 학과를 전공한 전문학사 이상의 졸업자 또는 2018년 2월 졸업 예정자다. 졸업자는 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1개 이상 보유해야 한다. 서류전형, 인·적성 검사, 실무면접, 임원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입사자들은 교육 이수 후 3~6개월간 아워홈 인턴 영양사와 조리사로 근무하며 실무 경력을 쌓고, 우수 근무자로 선정된 인턴사원에겐 정규직 조기 전환의 특전도 부여할 계획이다.

언론사: 한국일보-2-251.txt

제목: [톡톡TALK]바이오 대세에 제약업계가 씁쓸한 이유는  
날짜: 201707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31051018001  
ID: 01101101.20170731051018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정부가 지원 약속한 바이오의약품<br/>막대한 투자 가능한 기업 드물어<br/>기존 화학신약과 지원책 조율 필요<br/><br/>‘바이오’가 대세입니다. 과학자들은 바이오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새 정부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주요 신산업의 하나로 바이오를 꼽으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가장 반길 것 같은 제약업계가 웬일인지 시큰둥합니다.<br/>바이오의약품이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기술임은 분명합니다. 기존 화학의약품의 부작용을 줄이고, 난치병 치료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이오의약품이 의료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복용하거나 주사하는데 수십~수백만원이 드는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 적용을 받더라도 환자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보건당국 입장에서도 보험 재정이 한정돼 있는 만큼 선뜻 적용하길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경제력 있는 환자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겠죠.<br/>바이오의약품이 비싼 것은 제조 과정이 까다롭고 대규모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생물체에서 나온 단백질이나 세포를 이용해 만들기 때문에 첨단 기술과 엄격한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재계에선 삼성이 바이오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점찍은 데는 이런 배경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년 간 바이오의약품 개발과 공장 건설에 3조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몇이나 될까요.<br/>바이오의약품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JW중외제약과 일본 쥬가이제약의 합작 벤처인 씨앤씨신약연구소가 개발해 임상시험에 들어갈 유방암 치료제 후보물질은 기존 항암제가 잘 듣지 않고 재발이 잘 되는 삼중음성 유방암을 치료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 물질은 화학적으로 합성해 만듭니다. 화학의약품은 대개 바이오의약품보다 덩치가 작은데요. 그래서 바이오의약품은 세포 표면 물질을 건드리는데 그치지만, 화학의약품은 세포 안으로 직접 들어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은 그래서 암이나 자가면역질환 등 광범위한 질병을 대상으로 주로 개발되고, 삼중음성 유방암처럼 예외적인 질환이나 특이 증상 등에는 화학의약품이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br/>매출 1조원 넘는 기업이 2곳밖에 없는 국내 제약업계에선 삼성 같은 ‘규모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적지만 수요가 확실한 질병의 화학신약 개발에 공을 들여왔던 겁니다. 이런 노력들은 가려지고 화려한 바이오에만 이목이 집중되니 씁쓸할 수밖에 없겠죠.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신약 건수를 보면, 화학신약은 2005년 18개에서 2015년 33개로 늘어났습니다. 이 기간 바이오신약은 2개에서 12개가 됐습니다. 증가 폭은 바이오신약이 높지만, 여전히 화학신약이 3배 가까이 많죠. 무조건 ‘대세’를 따르기보다 바이오와 화학신약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정책을 조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br/>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52.txt

제목: “인천대를 세계최고의 특화연구 대학으로 육성하겠다” 조동성총장 취임1주년 인터뷰  
날짜: 201707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31051007003  
ID: 01101101.20170731051007003  
카테고리: 사회>교육\_시험  
본문: “인천대를 세계 최고의 바이어 대학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지구촌 어느 나라에도 없는 차별화한 글로벌 대학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br/>창의적 경영 비전과 혁신적 콘셉트로 교육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조동성 인천대 총장은 3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대 다음으로 국립대에 성공한 인천대가 2020년 실용학문중심의 연구거점 대학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br/>조 총장은 무엇보다 인천대학교를 바이오 특화연구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이에 따라 그는 최근 미국 UC버클리대 김성호 명예교수 등 5명의 해외 석학을 영입, 목표를 향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 <br/>김 교수는 1988년 암 유발 유전자인 라스(Ras) 구조를 밝혀냈고 세계 최초로 암호화된 유전체(게놈) 정보를 번역해 호암상을 받았다. '노벨상에 가장 근접한 한국계 과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김 교수 외에도 유전체 연구 권위자인 한국계 미국인 이민섭 박사와 '국경없는의사회' 대표를 지낸 우니 카루나카라 예일대 연구교수 등이 초빙돼 질병 예측과 신약 개발, 치료 등 분야에 적용할 기술 연구를 수행한다. <br/>교수충원에도 적극 나선다. 인천대는 가을학기 이전에 국내외 바이오 관련 전공교수 20여 명을 더 충원할 계획이다. 국내 최대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는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유한킴벌리 등 20여 개 기업과 오는 9월부터 매트릭스 칼리지 교과 과정을 공동 운영키로 했다.<br/>매트릭스 칼리지 개념은 조 총장이 특히 역점을 두는 산학 협력 모델이다. 학교가 갖고 있던 교육과정 편성 권한을 기업이나 기관에 넘기는 것이다. <br/>기업체가 대학에 와서 원하는 과목을 설계하고, 학생들은 가고 싶은 기업이 짠 교과를 선택한다. 기업이 원하는 대로 교육 프로그램을 짜고, 원하는 학생들을 원하는 방식으로 교육한 뒤 심사를 거쳐 데려가는 개념이다. 대학은 일종의 플랫폼인 셈이다.<br/>조 총장은 바이오 연구중심대학이 성공하려면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산업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바이오 중심지 송도와 인접한 인천대는 국내 최고 여건을 갖고 있다.<br/>인천대는 국립대 법인으로 내년부터 국고 지원을 받는다. 조 총장은 인천대의 재산 가치가 3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인천시가 인천대를 지원하는데 쏟은 10년의 세월과 3조원의 재산을 정부에 무상으로 주는 것이라는 논리다. 정부와 대립하지 않고 정부가 원하는 것을 100% 수행하는 실험대학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br/>서울대 교수 시절 국내 최초로 바이오 경영자 과정을 개설해 운영했던 조 총장은 기업이 대학에 교과 과목을 설계하고 학생들이 가고 싶은 기업이 짠 교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을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9월부터 당장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유한킴벌리 등 인천 송도에 있는 20개 국내 바이오기업이 직접 설계한 ‘매트릭스 칼리지’ 교과 과정이 개설돼 운영된다.<br/>조 총장의 취임후 1년동안 개혁 실험은 캠퍼스 도처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br/>취임 직후 총장실을 기존의 3분의 1로 축소하고, 6개 처장실도 없애 하나로 합쳤다. 직원들에게 두 개 부서 겸임을 권하고, 최근에는 결재 서류에 한국어와영어를 병기하도록 했다.<br/>30~60대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트라이버시티’를 강력 추진하고 있다. <br/>인천대 제물포 캠퍼스에 40∼60대의 재취업과 창업교육을 돕는 트라이버시티(Tri-versity)를 설립 할 계획이다. 트라이버시티는 정규교육 과정인데 실직을 했거나 더 좋은 일자리를 찾고있는 30~60대 국민들에게 정상적이고 매우 체계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해 학사, 석사, 박사 등의 학위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트라이버시티는 균형감각과 통합적 사고, 창업에 필요한 능력을 철저히 가르치는 정규 대학으로, 정식 학위도 수여한다. <br/>인천대는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하는 대학발전모델 ’University 4.0’을 적극 반영한 미래지향적 대학 체계를 정립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인천대는 하향적 주입교육, 수평적 협동 교육, 상향적 탐색 교육의 3세대를 넘어 인공지능과 지혜 중심의 포스트 정보사회 지원을 위한 University 4.0 모델로 진화하는 있다. <br/>조동성 총장은 “2020년 수도권 연구중심 거점 국립대학 체계를 정착시키고, 2026년 세계 100대학 대학 진입을 목표로 대학운영체계 혁신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br/>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53.txt

제목: 직장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  
날짜: 201707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31050845003  
ID: 01101101.20170731050845003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75% 해당… 생활>학교>가정 순 <br/><br/> <br/>직장인의 75% 정도가 일터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다. 가정 스트레스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그 비율도 43% 가량에 이르렀다. <br/>31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송선미 부연구위원의 ‘스트레스 관리: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한 비율은 2008년 77.8%였고, 지난해에는 73.4%였다. <br/>전국 2만5,000여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격년으로 시행하는 통계청의 스트레스 조사를 분석한 결과이다.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2주 동안 각 생활 영역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매우 많이 느낌’, ‘느끼는 편임’, ‘느끼지 않는 편임’, ‘전혀 느끼지 않음’으로 나눠 측정했다. <br/>지난해 조사에서 직장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답한 비율(매우 많이 느낌+느끼는 편임)은 20대 73.6%, 30대 80.9%, 40대 78.7%, 50대 72.4%, 60세 이상 55.0%로 30,40대의 스트레스가 심했다. 월 가구소득 기준으로는 100만원 미만과 100만∼200만원은 각각 56.8%, 69.9% 정도였지만, 200만∼400만원은 76.2%로 더 높았다. <br/>이어 ‘전반적 생활’, 학교, 가정 순으로 스트레스 받는 비율이 높았다.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밝힌 응답자는 54.8%였다. 이혼상태인 응답자가 66.6%로 비율이 높았고, 기혼(57.0%), 미혼(51.2%), 사별(44.6%) 순이었다. <br/>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비율은 52.9%였으며 여학생은 59.1%, 남학생은 47.3%로 성별 차이가 상당했다. 취업압박이 심한 대학생 이상(58.4%)이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이어 고등학생(54.4%), 초ㆍ중학생(41.7%) 등이었다. <br/>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비율은 42.7%였고, 가사ㆍ육아 노동의 불평등 때문에 여성의 스트레스 비율은 49.4%로 남성 35.7%보다 훨씬 높았다. 또 이혼자(54.8%)가 기혼자(46.8%), 미혼자(33.3%)보다 가정 스트레스가 많았다. <br/> 보고서는 “만성화된 스트레스는 우울, 불안장애, 당뇨, 암 등의 질환을 야기할 수 있고 사회 안녕에도 위협이 된다”며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조직 문화와 사회 제도를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br/>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54.txt

제목: 최다빈, 모친상 아픔 딛고 압도적인 1위  
날짜: 201707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30050652002  
ID: 01101101.20170730050652002  
카테고리: 스포츠>올림픽\_아시안게임  
본문: 한국 피겨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16ㆍ휘문고)이 자력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br/>차준환은 30일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선수 1차 선발전을 겸한 KB금융 피겨스케이팅 코리아 챌린지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잇단 점프 실수로 129.67점(3위)에 그쳤다. 전날 쇼트프로그램에서도 77.25점으로 2위에 머물렀던 차준환은 총 206.92점을 기록, 출전 선수 네 명 중 3위에 자리했다.<br/>이준형(단국대)이 총 228.72점으로 1위를 차지해 평창 올림픽 티켓을 따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201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네벨혼 트로피 출전권을 얻었다. 이 대회는 오는 9월말 독일에서 펼쳐진다. 한국 남자 싱글은 올림픽 티켓을 따내지 못해 네벨혼 트로피에서 상위 6위 이내에 들 경우 출전권 1장을 획득할 수 있다. 2위는 223.49점을 기록한 김진서(한국체대)다. <br/>‘남자 김연아’로 불릴 만큼 주니어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낸 차준환은 평창 올림픽 시즌을 위해 4회전 점프로 승부수를 띄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냈다. 쇼트프로그램에서 엉덩방아를 찧었고, 프리스케이팅에서는 첫 점프 과제인 쿼드러플(4회전) 토루프 점프를 깨끗하게 뛰어 기대를 모았지만 이어진 쿼드러플 살코 점프에서 넘어진 것을 비롯해 트리플 악셀도 1회전으로 처리하는 등 점프 난조를 보였다.<br/><br/><br/>이제 차준환은 이준형이 네벨혼 트로피에서 출전권을 가져와야 남은 두 차례 선발전에서 역전을 노릴 수 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선발전을 세 차례 치러 총점 합계 상위 1명에게 올림픽 출전권을 준다. 이준형은 “<span class='quot0'>이번 대회를 앞두고 걱정이 많았는데 차분하게 집중해 연기를 했다</span>”며 “<span class='quot0'>네벨혼 대회에서 꼭 티켓을 따오겠다</span>”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차)준환이가 발목 부상 때문에 힘들어했다”면서 “4회전 점프에 부담을 느낀 것 같더라”고 후배를 걱정했다.<br/><br/><br/>앞서 열린 여자 싱글에서는 최다빈(17ㆍ수리고)이 암 투병끝에 최근 타계한 어머니를 여읜 슬픔을 딛고 평창 올림픽 티켓 획득에 한 발짝 다가섰다. 최다빈은 프리스케이팅에서 118.75점을 받아 전날 쇼트프로그램 63.04점을 합쳐 총 181.79점으로 1위에 올랐다. 김하늘(평촌중)이 169.15점으로 2위, 3위는 안소현(신목고)이 162.44점으로 각각 자리했다. <br/>최다빈은 이번 대회 전 이중고를 겪었다. 지난 6월 모친상을 당한 아픔 속에 훈련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고, 스케이트 부츠 상태도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최악의 상황 속에 대회 불참도 생각했지만 후회가 남을 것 같아 출전을 결정했고,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을 실수 없이 연기했다. 쇼트프로그램을 마친 뒤에는 어머니 생각에 눈물을 쏟기도 했다. 여자 싱글의 평창 올림픽 티켓은 2장이며, 이번 대회 포함 총 세 차례에 걸쳐 총점 합계 상위 2명이 올림픽 무대를 밟는다. 이날 시상자로 참석한 김연아는 “<span class='quot1'>올림픽까지 부상을 조심하고 천천히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span>”고 후배들을 격려했다.<br/>한편 주니어 여자 싱글에서는 김예림(14ㆍ도장중)이 김연아 은퇴 이후 최고 점수를 받으며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김예림은 전날 끝난 주니어그랑프리 파견 선수 선발전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총 193.08점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이 점수는 김연아가 2014년 종합선수권대회에서 기록한 227.86점 이후 최고 점이다. 김연아를 제외하면 국내 여자 선수 중 총점 190점을 돌파한 이는 최다빈(191.11점)과 임은수(191.98점)뿐이었다.<br/>김지섭기자 onion@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55.txt

제목: [기자의 눈] 일회성 빚 탕감 정책의 명과 암  
날짜: 201707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28051115002  
ID: 01101101.20170728051115002  
카테고리: 경제>경제일반  
본문: “<span class='quot0'>철저한 평가를 전제로 숫자에 구애 받지 않고 사정이 어려운 분들을 최대한 도와드리겠다.</span>”<br/>지난 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장기연체자 빚 탕감’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 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가 보유한 장기연체 채권은 물론, 대부업체가 가진 연체채권까지 사들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br/>어려운 사람을 최대한 돕겠다는 정부의 정책 취지는 언뜻 보기엔 나무랄 데가 없다. 본인 이름으로 통장 하나 만들기도 어려운 장기 채무자들에게 정부의 화끈한 빚 탕감 약속은 재기의 동아줄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을 구원할 동아줄이 이번 한번만 내려오는 거라면 어떻게 봐야 할까. 비슷하게 빚 고통에 시달리는데도 정부가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상당수는 이 동아줄을 잡을 수 없다면 말이다. <br/>사실 정부의 이번 빚 탕감 정책은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처럼 ‘일회성’ 대책이다. 우선 대출 원리금이 1,000만원 이하이면서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들만 동아줄을 잡을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br/>아무튼 정부는 대략 내년 초쯤 빚 탕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그런데 시행 시점에서 안타깝게도 연체기간이 9년인 사람은 딱한 처지와 관계없이 후보에서 자동 탈락이다. 현재도 정부는 연체기간이 15년 이상인 채무자에겐 소득심사를 거쳐 이자는 전액, 원금은 90%를 탕감해 주고 있다. 대부분 극빈층인 이들은 나머지 10%를 수년에 걸쳐 갚는 중이다. 위의 기준으로만 따지면 동아줄을 잡고도 남지만 이들 역시 이미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내년 빚 탕감 후보 명단엔 들 수 없다. <br/>정부는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기업 그리고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장기연체 채권까지 사들여 빚을 없애주기로 했다. 하지만 대개 장기연체자가 빚을 한 곳에서만 지는 경우는 드물다. 시중은행에서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으로 차례차례 빚을 늘린 다중채무자가 많다. 정부가 이들 기관 소유의 빚을 없애준다고 해서 이들의 빚 문제가 모두 청산되지 않는 셈이다. 또 정부가 민간회사인 대부업체에 헐값으로 연체채권을 넘기라 강요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꼽히다. <br/>요즘 국민행복기금 콜센터엔 항의 전화가 빗발친다고 한다. ‘사정이 어려운 건 똑같은데 왜 내 빚을 탕감해주지 않느냐’는 것이다. 단 한 번의 대책으로, 또 애매한 기준으로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정부는 당장 내달 해법을 발표한다고 한다. 대통령 공약이어서겠지만, 정부가 조급증에 걸렸다는 걱정을 지울 수 없다. <br/>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56.txt

제목: 췌장암 위험 물혹, 수술 없이 내시경으로 제거  
날짜: 201707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27051058001  
ID: 01101101.20170727051058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내시경 초음파로 물혹에 에탄올 주입…10명 중 9명 효과<br/><br/>췌장에 생긴 주머니 모양의 물혹(낭성 종양)은 대부분 양성이다. 하지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암으로 악화할 수 있다. 따라서 물혹이 생겼다면 췌장 일부를 조기에 수술로 잘라낸다. <br/>그런데 최근 물혹을 수술하지 않고도 내시경으로 없애는 치료법이 효과가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췌장은 일부를 수술로 잘라내면 당뇨병, 소화기능 장애 등의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내시경 치료법은 물혹만 제거하므로 당뇨병이 생기지 않고 수술로 인한 다른 부작용 발생 위험도 적다.<br/> 서동완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팀이 내시경 초음파로 췌장 물혹 환자 158명을 치료한 뒤 평균 6년 동안 장기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총 141명(89.2%)에게서 물혹이 없어지거나 관찰만해도 될 정도로 크게 줄었다. <br/>연구결과는 '유럽소화기내시경학회지'에 최근 실렸다.<br/>서 교수팀이 2005년 국내 처음으로 시행한 이 시술법은 입 안으로 내시경 초음파를 넣어 췌장 물혹에 미세한 침을 꽂아 안에 든 물을 빼낸 뒤 에탄올을 넣거나, 소량의 항암제까지 집어 넣어 물혹 세포를 죽이는 방법이다. <br/>서 교수팀은 내시경 초음파 췌장 물혹 제거술 효과를 알아내기 위해 2005년 7월 이후 췌장 물혹 내시경 초음파 제거술을 시행한 환자 가운데 158명을 50~85개월 장기 추적 관찰했다. 114명(72.1%)에게서는 종양이 완전히 없어졌고, 27명(17.1%)은 추적 관찰만 해도 될 만큼 물혹이 줄어 141명(89.2%), 즉 췌장 물혹 환자 10명 중 9명에게서 효과가 우수했다.<br/>또한, 내시경 초음파 시술법으로 췌장 물혹이 완전히 없어진 114명을 평균 6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2명에게서만 췌장 물혹이 재발했으며 모두 양성이었다. <br/>초음파 내시경으로 췌장 물혹 제거술을 받은 158명 가운데 16명(10.1%)에게만 합병증이 생겨 기존 수술법보다 합병증 위험이 3분의 1로 줄었다. 이 가운데 15명은 가벼운 복통 등 증상이 매우 경미하거나 적절히 치료하면 회복이 가능했다.<br/>서 교수는 "내시경 초음파로 췌장 물혹을 없애면 췌장을 잘라내지 않아도 되므로 시술 후에도 췌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해 당뇨병 등 합병증 위험이 크게 줄고, 흉터가 남지 않아 회복 속도가 매우 빨라 환자 만족도가 높다”고 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2-257.txt

제목: ‘더불어 잘사는 경제’ 기조에 맞춰 상생 방안 쏟아내는 기업들  
날짜: 201707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27051049001  
ID: 01101101.20170727051049001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번째 간담회에 맞춰 기업들이 내놓은 ‘선물 보따리’에는 이전 정부 때 단골로 발표하던 대규모 투자 계획 대신 상생 방안이 담겼다. 새 정부가 국정 목표로 제시한 ‘더불어 잘사는 경제’ 기조에 맞춰 협력사 지원 방안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이 쏟아지고 있다.<br/>시작은 지난 17일 LG디스플레이가 발표한 ‘신(新)상생협력 체제’ 전환 방안이었다. LG디스플레이는 400억원 규모였던 1차 협력사 전용 기술협력자금을 1,000억원으로 늘려 2, 3차 협력사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협력사 직원이 암이나 희귀질환에 걸릴 경우 본사 임직원과 똑같이 최대 1억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br/>사흘 뒤인 20일 현대자동차가 5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해 2, 3차 부품 협력사 5,000여곳을 지원하는 내용의 ‘선순환형 동반성장 5대 전략’을 발표했다.<br/>SK그룹도 4,8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6,200억원으로 늘려 1차 협력사 외에 2,3차 협력사들도 낮은 금리에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1차 협력사들이 2,3차 협력사들의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1,000억원의 펀드를 별도로 조성하기로 했다.<br/>삼성디스플레이도 총 2,000억원 규모의 ‘물품대금 지원펀드’를 조성해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줄 물품대금을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br/>간담회가 열린 27일에는 KT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협력업체에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1,0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br/>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도 잇따라 발표됐다. 두산그룹의 지주사인 ㈜두산과 핵심 계열사인 두산인프라코어는 계약직과 파견직 근로자 45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고, 2, 3차 협력사와 영세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게 1인당 월 10만원씩의 임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br/>CJ그룹도 그룹 계열사의 방송 제작, 조리원 직군 등 파견직 근로자 3,000여명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br/>GS리테일은 편의점 GS25 가맹점주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수입을 보장하고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데 5년간 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br/>이 같은 기업들의 릴레이 상생 방안 발표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한 재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대기업에 집중된 경제력이 완화돼 대ㆍ중소기업이 고루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지만,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기업들은 일사분란하게 상생 방안을 만들어내야 하는 분위기</span>”라며 “<span class='quot0'>이전 정부와 달라진 게 뭔지 모르겠다</span>”고 말했다.<br/>한준규 기자 manbok@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58.txt

제목: [36.5˚]?당연한 것과 당연하지 않은 것들  
날짜: 201707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26051120002  
ID: 01101101.20170726051120002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남미 전통음료 마테(mate)차가 발암물질 취급을 받은 적이 있었다. 마테차를 많이 마신 이들에게 식도암 또는 소화기암이 자주 발생한다는 연구가 나오면서다. 그러나 최근 연구를 보면 마테차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 마테차를 뜨겁게 마시는 관습이 암 가능성을 높인다는 결론이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뜨거운 온도 때문에 세포 변화가 생기고 이런 상황이 장기간 누적돼 암 발생 환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br/>이처럼 인과관계(causation)라 생각했던 것이 알고 보면 아무 인과관계가 없거나 상관관계(correlation)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br/>최저임금과 법인세 문제도 사실 그렇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쪽에선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이 줄 것이라 말하고, 재계에선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 투자가 준다고 호소한다.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얘기라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얘기로 들린다. <br/>먼저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이 준다는 명제. 과연 참일까? 일견 그럴 것도 같다. 고용주 입장에서 비용이 증가하니 사람을 쓰지 않으려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십 년 전부터 최저임금과 고용의 관계를 연구한 미국의 사례들을 보면, 저 명제를 쉽게 참이라 보긴 어렵다.<br/>1994년 데이비드 카드와 앨런 크루거의 논문 내용은 이렇다. 미국은 주(州)마다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는데 92년 펜실베이니아가 최저임금을 4.25달러로, 바로 옆 뉴저지는 5.05달러로 정했다. 결과는? 오히려 최저임금이 높은 뉴저지에서 고용이 늘고, 펜실베이니아에서는 줄었다.<br/>반대 결론도 있다. 2006년 데이비드 뉴마크 등이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연구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이 발견됐다. 별 영향 없다는 설도 있다. 2008년 톰 스탠리 등이 기존 연구결과를 가지고 메타분석한 결과, 고용감소 효과가 거의 없다고 나타났다.<br/>일각에서 자명한 진실이라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과 투자의 관계는 어떨까? 학자들 연구 결과는 저마다 달랐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법인세율 인상 시 투자가 유의미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냈다. 그러나 2005년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서는, 법인세 부담이 기업 투자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됐다.<br/>재정학 최고 권위자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는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에 “<span class='quot0'>법인세율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 자체가 투자에 영향을 줄 이유가 없다</span>”고 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속성상 세율이 올라도 기대되는 순수익률이 0만 넘으면 당연히 투자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라는 얘기다.<br/>이 짧은 칼럼에 논문 다섯 편과 글 한 편을 장황하게 나열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다. 마치 자명한 진실, 명백한 인과관계처럼 주장되는 것들이 사실은 각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 ‘조건부 진실’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다.<br/>결국 최저임금 인상이나 법인세율 조정은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싸움은 아니다. 기대되는 점과 우려되는 결과를 종합해, 정부가 결정을 내리는 ‘정책적 판단’ 문제로 귀결되는 게 맞다.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최저임금과 고용, 법인세와 투자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말한다면, 그건 논증이 아닌 프로파간다다.<br/>덧붙이자면, 정책 판단 영역에 해당하는 최저임금과 증세 문제를 ‘당위’로 바라보는 시각 또한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 정도 급여는 주자”거나 “당연히 그 정도는 내라”고 여론에 호소할 사안은 아니다. 부자가 영예롭지 못한 나라에서 ‘명예증세’라는 형용모순으로 포장하는 것도 프로파간다에 가깝다. 당장의 여론에 기대기보단, 정책을 맡은 쪽에서 향후 계획과 효과, 부작용 수습책을 솔직하게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해 가는 수순이 맞다.<br/>이영창 경제부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59.txt

제목: [영상] '맛, 괜찮을까?' 할리데이비슨 엔진 넣은 '담금주' 등장  
날짜: 201707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26050953003  
ID: 01101101.20170726050953003  
카테고리: 경제>자동차  
본문: 미국의 모터사이클 문화를 대변하며 세계적 모터사이클 브랜드로 성장한 '할리 데이비슨(Harley-Davidson)'의 엔진 부품을 넣은 주류가 세계 최초로 등장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드라이 진(Dry Gin)’ 계열 증류주로 모터사이클 마니아와 ‘주당’에게 호기심을 자극할 요소로 채워졌다. <br/>26일 미국 자동차전문매체 카스쿱스에 따르면 할리 데이비슨 모터사이클 엔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제작된 세계 최초의 프리미엄 '드라이 진'이 탄생했다. 물론 해당 주류에는 할리 데이비슨의 엔진 부품이 들어간 부분이 가장 큰 특징으로 투명한 병 속에는 금속 물체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br/>고고학자를 의미하는 'The Archaeologist'라는 이름이 붙은 이 주류 속에는 할리 데이비슨의 역사적 모델에 탑재된 엔진 부품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1939년 제조된 플랫 헤드 캠샤프트, 1947년 너클헤드 나사 너트, 1962년 팬헤드 로커 암 등이 그것. <br/><br/><br/>대다수의 걱정처럼 해당 주류에서 금속 맛이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해당 술은 제조과정에서 특별한 정제기술을 거치고 밀봉이 이루어져 인체에 무해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병 속에 들어가는 엔진 부품 역시 특별한 기술을 거쳐 안전하게 보관된다. <br/>이 밖에도 해당 주류에는 손으로 제작된 변조 방지 씰과 엔진 부품의 일련 번호가 표시된 태그가 포함됐다. 또한 주류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1931년 하이델베르크 타이겔 인쇄기에서 제작된 주문상자와 해당 부품 및 할리 데이비슨 모터 사이클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설명서가 포함된다. <br/>해당 제작사에 따르면 이 술은 첫 출시와 함께 몇 시간 만에 매진이 될 만큼 인기를 끌었다. 현재는 다음 판매를 위한 주문 예약을 접수 중에 있다. 할리 데이비슨 엔진 부품이 들어간 'The Archaeologist'의 가격은 약 1,048달러(한화 약 117만원)로 알려졌다. <br/>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60.txt

제목: [편집국에서] 원내4당 체제의 명과 암  
날짜: 201707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25051133001  
ID: 01101101.20170725051133001  
카테고리: 정치>국회\_정당  
본문: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된 지난 주말 국회 풍경은 한마디로 코미디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20여명이 해외로 나가 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본회의를 밀어붙였고 자유한국당은 집단 퇴장했다가 재석의원이 149명으로 늘어 정족수에 근접하자 본회의장에 복귀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한국당이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복귀했다는 후문과 민주당 지도부가 막판에 한국당에 유인책을 제시했다는 설 등이 난무한 가운데 여당은 표 단속 실패 책임론의 후폭풍에 휘말려 있다. <br/>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원내4당의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당이나 야당 모두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1대 1로 맞붙어 동물과 식물국회를 거듭하던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국회라는 평가도 없지 않지만 여당이나 야당이나 아직 제 역할에 익숙지 않은 모습이 역력하다. 야당 생활이 체질화한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기본을 못 갖췄고 제1야당은 여전히 만년 집권당의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몽니를 부리고 있으며 2,3야당은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헤매고 있는 형국이다. <br/>120석의 여당은 40석의 국민의당과 20석의 바른정당을 유인하면서 인사청문회 정국을 돌파하고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는 등 그럭저럭 국정의 중심축 역할을 해내고 있다. 곳곳에서 “아이고 못해 먹겠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지만 세 야당과 밀당을 하면서 복잡한 함수를 어렵사리 풀어내고 있다. 그렇지만 본회의 표 단속에 실패함으로써 여당의 기본소양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 문준용씨 제보조작 사태 당시 국민의당을 향해 사사건건 날을 세웠던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의 공세 또한 여당의 기본과는 거리가 멀다. 과거 새누리당을 ‘청와대 2중대’라고 비난하던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독점적 의사결정을 뒤따라가는 모양새도 아이러니다. <br/>여당도 문제지만 원내4당 체제에는 야당이 더 적응 못하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인 한국당은 내부의 자중지란에 더해 정책 행보에서 완전히 길을 잃었다. 본회의에서 집단 퇴장함으로써 여당의 추경안 처리에 골탕을 먹이는가 하면 가장 많은 수의 상임위원장 권한을 멋대로 휘두르고 있다. 통상 여당이 맡는 운영위원장 자리 또한 민주당에 넘기지 않고 야당으로서 국회 운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청와대의 정당대표 회동을 거부하고 수해현장을 찾았던 홍준표 대표는 장화 의전 논란으로 몽니의 정점에 올랐다.<br/>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여당과 제1야당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을 타고 있지만 속내가 복잡하다. 제보 조작사태로 치명타를 입은 국민의당은 사실상 회생불능 상태에 빠져 있으며 바른정당은 1명의 의원이라도 이탈하면 원내교섭 단체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살얼음을 걷는 입장이다. <br/>다당제가 갖는 정치적 편익을 고려하면 봉숭아학당과 같은 코믹 국회를 잠시 웃어넘길 수 있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지지율 10% 초반의 야당이 사사건건 정국을 가로막고 50% 가까운 지지율의 여당은 복잡한 정치함수를 풀기 위해 매번 머리를 싸매야 하는 답답한 국회를 그냥 둘 수 없다는 지적도 비등하다. 이런 사정으로 동물국회에 제동을 걸기 위해 가동시킨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거나 내년 6월 지방선거 전후로 정계개편을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실성은 크지 않다. <br/>근본적으로는 정치 현실과 제도의 괴리 또는 불일치를 바로 잡아야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다. 양당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현재 선거제도를 두고서는 정상적인 다당제 현실을 기대할 수 없다. 당장 이르면 연말에 도래할 개헌 정국에서 대통령제를 비롯한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선거제도 개선 논의가 시급하다. 이미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총선에 앞서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br/><br/>김정곤 정치부장 jkkim@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61.txt

제목: 갑상선암 유전자변이 찾았다  
날짜: 201707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25051002003  
ID: 01101101.2017072505100200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서울의대ㆍ국립암센터 연구팀 ‘NRG1’유전자변이 증명 <br/>국내 인구 25%에서 발견… 갑상선암 예방ㆍ진단 도움<br/> 국내 연구팀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인 갑상선암의 유전자변이를 증명했다. 김종일ㆍ박영주ㆍ손호영 서울의대 연구팀과 이은경ㆍ황보율 국립암센터 연구팀은 전장유전체변이 분석을 통해 ‘NRG1’ 유전자가 우리나라 갑상선암에서 유전자변이를 일으키는 중요한 변이임을 증명했다고 25일 밝혔다.<br/>연구진은 분화갑상선암 1,085개 사례와 8,884개 대조군으로 전장유전체연관분석연구를 실시한 결과, 한국인에게는 NRG1 유전자가 갑상선암 발생에 연관성이 높고, 기능적으로도 갑상선 조직에서 해당 RNA(유전정보전달물질) 발현량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변이임을 밝혀냈다<br/> 갑상선암은 유전성이 높은 암으로 갑상선암의 가족력은 서양에서는 4~5% 정도 환자에서 발견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9.6%로 높다.<br/>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발견한 NRG1은 우리나라 인구의 25%에서 발견되고 있어 향후 갑상선암 예방과 진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br/> 박영주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민족에 따라 영향력이 다른 갑상선암의 특정 변이를 확인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 연구결과가 갑상선암의 유전적 원인을 밝히는데 단서를 제공할 것</span>”이라고 기대했다. <br/>이번 연구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최근호에 게재됐다. <br/>김치중 의학전문기자 cjkim@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62.txt

제목: [경희의료원과 함께 하는 건강 Tip] 위암  
날짜: 201707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24051048002  
ID: 01101101.20170724051048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위암은 가장 익숙한 암이다.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위암 발생률은 남성에게 1위, 사망률은 남녀 모두 3위다. 많이 발병하는 만큼 치료법도 발전해 사망률도 크게 줄고 있다. 특히 조기 위암은 95% 이상 완치된다. 위암의 조기 발견이 중요한 이유다.<br/><br/>Q. 위암은 왜 생기나.<br/>“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이 가장 큰 위암 발병 원인이다. 헬리코박터균은 모든 위암의 71~95%에서 확인된다. 짜고 탄 음식, 발암물질이 함유된 음식을 자주 먹는 식습관, 유전적 영향도 발병 원인이다. 이밖에 위염과 위 점막 조직이 장 점막 조직으로 바뀌는 장상피화생도 큰 원인으로 꼽힌다.”<br/><br/>Q. 조기 검진과 완치율이 높아졌는데.<br/>“2005년부터 5대 암 검진사업으로 40세 이상은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다. 이 때문에 조기 진단이 늘고 있다. 5대 암 검진사업 이후인 2009~2013년 위암의 5년 생존율은 2001~2005년보다 15.4% 증가했다. 정기 검진과 위암 치료술 발전 때문으로 보인다.”<br/><br/>Q. 어떻게 치료하나.<br/>“조기 위암은 내시경절제술로 치료한다. 시술시간이 짧고 회복이 빠르다. 특히 위를 보존하므로 치료 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 입원기간과 의료비가 줄고 합병증과 사망률도 수술보다 적어 시술이 크게 늘고 있다. 현재 수술한다 해도 환자 삶의 질을 유지하려고 최소침습수술이나 기능보존축소수술을 주로 시행하는 추세다.”<br/> <br/>Q. 다학제 협진이 왜 중요한가.<br/>“위암은 발견 즉시 신속히 치료해야 하므로 여러 진료과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우리 병원 위암팀은 소화기내과, 외과, 종양혈액내과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담당 의료진의 신속한 절차로 방문 당일 검사ㆍ진료한다. 위암은 조기 치료가 중요한 만큼 발견 후 수술 받기까지 여러 진료과가 연계해 재빨리 치료한다.”<br/><br/>Q. 합병증과 예방법은.<br/>“내시경절제술은 위를 잘라내지 않다 보니 다른 위 부위에서 암이 재발될 수 있다. 내시경절제술을 하면 10% 정도 다른 위 부위에서 암이 재발한다. 따라서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해야 한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br/><도움말: 장재영 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언론사: 한국일보-2-263.txt

제목: [헬스 파일]  
날짜: 201707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24051046002  
ID: 01101101.20170724051046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뇌수막종 전자교과서 제작<br/>서울대 보라매병원 신경외과 정희원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김재용 교수팀은 기존 교과서와 전자책 개념을 뛰어 넘는 신경외과 양성뇌종양 수술 교과서 ‘뇌수막종 및 신경초종의 수술적 치료’를 전자교과서로 만들었다. 전체 32개 챕터(뇌수막종 18챕터, 신경초종 14챕터)로 구성됐으며 현재 20개 챕터가 국내 저자들에 의해 제작돼 발간됐다. 12개 챕터는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대(UCSF)에서 담당해 현재 작업 중에 있다.<br/><br/>고대 안암병원 암센터 확장<br/>고대 안암병원이 환자 개인 맞춤형 포괄적 암 치료를 실현할 암센터를 확장 오픈했다. 김선한 암센터장은 “새롭게 오픈한 암센터는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 의료진의 실력이 다학제팀, 포괄적 치료시스템, 환자 중심의 환경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구축했다”고 했다.<br/>강동경희대한방병원, 수면장애 임상<br/>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암센터 윤성우 교수팀은 암환자의 수면장애개선을 위한 임상연구 참여자를 모집한다. 암환자의 수면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천왕보심단을 투여하고 인지행동치료를 실시한다. 천왕보심단은 식약처승인을 받은 한약으로 현재 수면장애치료에 활용되고 있다. 모집대상은 만 19세 이상 남녀 중 암을 진단받았고 수면장애가 있는 사람이다.<br/><br/>365mc, 지방흡입 ‘식사일기’ 앱 출시<br/>비만클리닉 365mc가 국내 최초로 지방흡입 수술 고객의 올바른 식사 습관 형성을 돕는 ‘식사일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출시했다. 365mc는 그동안 지방흡입 수술 고객을 위해 비만과 연결된 식사ㆍ운동 등 행동습관을 스스로 인지하고 수정하는 인지행동요법의 하나로 책자 형태의 ‘식사일기’를 제공해왔다. 지방흡입 수술 고객은 이를 통해 후(後)관리에 필요한 내용과 생활 속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올바른 체중 감량에 도움을 받았다. 다만 고객이 일일이 섭취 음식과 칼로리를 기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는 지적이 있었다.<br/>새로 출시된 ‘식사일기’ 앱은 끼니별 섭취 음식(1인분 기준)과 열량을 각 음식 별로 계산된 칼로리 표에 따라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다. 또한 1일 물 섭취량 표기, 섭취한 간식의 열량 추가도 가능하다. 365mc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지방흡입 수술 고객은 자동으로 계산된 하루 총 섭취량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식단 조절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했다.

언론사: 한국일보-2-264.txt

제목: 환자상태 따라 수술법 결정… 맞춤수술로 대장암 치료  
날짜: 201707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24051045001  
ID: 01101101.20170724051045001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개복ㆍ복강경ㆍ로봇수술 자유자재 활용…수술 후 조기회복 프로그램도<br/>“환자는 자식 같은 존재”… 환자생명 살리는 외과의사 선택 보람<br/> <br/>대장암은 식습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암이다. 대장은 음식물과 직접 접촉하는 장기라 붉은 고기 등 육류와 인스턴트 음식을 즐겨 먹으면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2015년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표한 184개국 대장암 발생 현황에 따르면 한국인의 대장암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45명으로 세계 1위다.<br/> 대장암 치료에 주력하고 있는 이인규(47) 서울성모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는 외래는 물론 일반인 대상으로 한 건강강좌에서 식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붉은 고기 등 육류와 패스트푸드 섭취를 줄이고 생선과 채소 중심의 식습관을 유지해야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br/> 이 교수는 장 건강은 어릴 적 길든 식습관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어려서부터 육류와 패스트푸드에 입맛이 길들어지면 장 건강을 장담할 수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최근 아이의 장 건강을 위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먹이는 부모가 많은데 유산균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식습관이 좋지 않으면 무용지물</span>”이라고 꼬집었다.<br/><br/>환자상태 따라 수술법 선택… 금식 없이 수술 가능<br/>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건강검진으로 암을 조기 치료할 수 있게 됐지만 대장암, 특히 직장암은 치료하기 힘든 고약한 암이다. 결장암은 수술부위가 넓고 단순하지만 항문과 연결된 직장에 암이 생기면 최악의 경우 항문을 제거해야 한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암 덩어리를 제거하는 것이 수술의 궁극적 목표이지만 수술 후 환자의 삶의 질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수술하기 전에 선택할 수 밖에 없다</span>”고 말했다.<br/> 이 교수는 개복수술,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등 현재 대장암 치료에 활용되고 있는 모든 수술법을 마스터한 외과의사다. 그는 환자상태에 따라 수술법을 택한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조기에 암을 발견한 환자는 복강경수술, 로봇수술로 치료하지만 온 몸에 암세포가 퍼진 환자는 개복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외과의사는 환자상태에 따라 모든 수술이 가능해야 하고, 수술결과도 차이 나면 안 된다</span>”고 말했다.<br/> 이 교수의 환자맞춤 치료는 수술에 국한되지 않는다. 서울성모병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술이 필요한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후 조기회복(Early Recovery After SurgeryㆍERAS)’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진료과(외과ㆍ마취통증의학과) 간호부 영양실 약제팀 의료기사(운동치료사) 등이 참여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병원은 서울성모병원이 유일하다.<br/>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환자가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서울성모병원에서는 대장암 수술 2시간 전까지 환자에게 탄수화물 보충음료를 제공한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탄수화물 보충음료는 섭취 후 2시간이 지나면 소장에 흡수돼 수술에 문제가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수술 전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수술 후 다양한 합병증은 물론 인슐린 저항성을 약화시켜 수술 후 회복이 빠르다</span>”고 설명했다. <br/> 수술 후 금식도 최소화했다. 수술 후 4시간이 지나면 물을 마실 수 있고, 수술 다음날부터 미음과 죽이 제공된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과거에는 수술 후 방귀가 나올 때까지 음식은 물론 물도 먹지 못하게 했지만 수술 중 특별한 문제가 없는 환자는 수술 후 조기에 물과 음식을 섭취하면 장 운동이 활발해져 방귀가 나오는 시간이 줄어드는 등 효과를 보고 있다</span>”고 말했다.<br/> 이 교수가 대장암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것은 환자에 대한 깊은 애정 때문이다. 그는 “<span class='quot0'>대장암 환자를 볼 때마다 측은지심이 생긴다</span>”며 “<span class='quot0'>외과의사는 환자 생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 이 교수는 의사에게 환자는 자식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 자식 잘못되길 바라는 부모가 없듯 이 교수는 말을 잘 듣지 않는 환자는 봐주지 않는다. 대장암 수술을 하고도 식습관을 개선하지 않고, 음주에 흡연까지 하는 환자는 이 교수의 질책을 피할 수 없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당신 이렇게 하면 정말 죽을 수 있다</span>”고 대놓고 말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환자를 살리고 싶은 게 그의 마음이다. <br/> 이 교수는 진정한 외과의사가 되려면 끊임없이 의학적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고 말한다. 외과의사에게 있어 칼은 다른 의사가 갖고 있지 않는 옵션이지 전부가 아니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br/> “<span class='quot1'>교수님, 외과를 선택하면 힘들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span>” 올 봄 가톨릭대 의대 신입생이 이 교수 강의시간에 질문을 던졌다. 이 교수의 답은 ‘쿨’했다. “응. 레지던트 때 정말 힘들지. 근데 교수되면 더 힘들다. 하지만 죽어가는 환자를 내 손으로 살릴 수 있어 후회는 없다. 외과의사 할 사람 손들어봐!”<br/> 다시 태어나도 외과의사를 하겠다는 이 교수. 지천명(知天命)을 바라보는 나이에 해맑게 웃는 마음 따뜻한 외과의사를 만났다.<br/>김치중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2-265.txt

제목: [갑상선암도 암이다] 작은 갑상선암에서 적극적 감시의 허와 실  
날짜: 201707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24051044001  
ID: 01101101.201707240510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정기욱 서울아산병원 유방내분비외과 교수<br/><br/>“<span class='quot0'>갑상선암은 암이 작으면 그냥 둬도 된다는데 꼭 수술을 해야 할까요?</span>” 갑상선암을 초기에 발견한 환자들이 수술을 고민하며 꼭 덧붙이는 질문이다. ‘갑상선암은 예후가 좋아 그냥 둬도 괜찮다’거나 ‘작은 암도 암이다’는 상반된 주장이 몇 년째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들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br/>작은 갑상선암에 대한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일본에서 발표된 한 연구였다. 이 연구에서는 크기가 1㎝보다 작은 갑상선암 즉 미세유두암을 진단 즉시 수술하지 않고 초음파 검사로 추적 관찰을 진행했다. 그 결과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커지거나 림프절 전이가 이뤄진 경우가 적었다. 이를 두고 미세유두암은 이른바 적극적 감시(Active Surveillance)를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br/>적극적 감시는 갑상선암을 그냥 내버려 두자는 것이 아니고 즉각적으로 수술하는 대신 정기적으로 초음파 등의 수단으로 암을 관찰하면서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하자는 것이다. 적극적 감시는 선택된 환자에서 즉각적인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비교적 안전한 방법이지만 모든 갑상선암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크기만으로 적극적 감시를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고 모양과 위치,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또한 수술을 미루고 관찰하더라도 적절한 의료행위를 통해 추적관찰이 이뤄져야 한다. <br/>이는 미세 유두암이라도 국소 또는 원격전이가 가능할 수 있으며 현재 의료기술로는 이러한 고위험 미세유두암을 미리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조기에 진단된 암을 나중에 커진 후 수술하면 오히려 수술 범위가 커지거나 합병증이 늘어나고, 추가 치료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 비용 효과적인 이익도 아직 확실히 증명되지 않았다.<br/>지난해 11월 대한갑상선학회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대한갑상선학회 갑상선결절 및 암 진료 권고안 개정안’에서 적극적 감시가 가능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br/>첫 번째는 매우 위험도가 낮고 전이와 국소 침윤이 없는 미세유두암일 경우, 다른 질환으로 수술 위험이 크거나 남은 여생이 짧을 경우, 수술 전 해결해야 할 내ㆍ외과적 질환이 있을 경우로 규정했다. 또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위에 예시한 적극적 감시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br/>논쟁의 여지가 있는 의학적 주장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긍정적인 측면과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이 논쟁 속에서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감시’의 양면을 잘 이해하고 환자마다 적절한 치료방안을 의료진과 함께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언론사: 한국일보-2-266.txt

제목: 1세대 여성행위예술가 정강자 별세  
날짜: 201707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23050634002  
ID: 01101101.20170723050634002  
카테고리: 문화>전시\_공연  
본문: ‘윤복희의 미니스커트’보다 충격적인 누드 퍼포먼스를 선보였던 우리나라의 1세대 여성 행위예술가 정강자 화백이 23일 새벽 별세했다. 75세.<br/>대구에서 나고 자란 고인은 홍익대 서양화과를 졸업한 뒤 전위적인 예술작업에 몰두했다.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은 1968년 5월 30일 서울의 음악감상실 세시봉에서 선보인 우리나라 최초의 누드 퍼포먼스 ‘투명풍선과 누드’다. 투명풍선을 작가의 몸에 붙였다가 나중에 관객들이 터뜨리는 것이었는데, 풍선 터뜨리는 행위에다 기존 질서를 부정하자는 의미를 집어넣었다. 모든 전위가 그러하듯, 지금의 눈으로 보면 크게 놀랄 만한 것도 아니었지만 군사독재와 엄숙주의, 가부장제가 절대적이던 그 당시에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1970년대 들어서도 김구림 작가 등 끝없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전위적 작업을 하던 작가들과 ‘제4집단’을 결성, ‘한강변의 타살' '기성문화예술의 장례식' 등 기성 관습에 도전하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벌여왔다. 제4집단은 박정희 정권의 집요한 방해공작으로 해체됐다.<br/>이후 고인은 전위적 퍼포먼스를 포기하지 않았으나 평면 회화와 조각 등의 전통 미술 영역에도 많은 공을 들였다. 2015년 위암 3기 판정을 받았다. 암 진단을 받고도 전시회를 마치고 수술을 받겠다고 의료진을 설득할 정도로 작품활동에 의욕적이었다. 내년 초 아라리오갤러리에서 회고전을 앞두고 있었다.<br/>빈소는 서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24일은 2호), 발인은 25일 오전 10시. 장지는 경기도 파주 용미리 수목장. (02)2258-5940<br/>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67.txt

제목: [기고]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를 기대하며  
날짜: 201707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23050623001  
ID: 01101101.20170723050623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월말에 문 대통령이 직접 구체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대가 크지만 다른 한편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까 걱정도 많다. <br/>지난 15년간 역대 정부가 건강보험보장성을 높여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개인이 의료비를 가장 많이 부담하는 나라이고,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OECD 국가는 의료비 중 80% 이상을 건강보험이나 국가가 책임지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64% 밖에 부담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매년 약 44만 가구가 의료비 때문에 상대적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br/>지난 정부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이른바 ‘비급여 풍선효과’를 근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초음파나 비싼 항암제에 대해 보험 혜택을 확대하면 병원이 그보다 더 비싼 새로운 비급여를 늘려나가는 것을 말한다. 병원이 부도덕해서가 아니라 건강보험이 진료비를 낮게 책정해서 생기는 손해를 벌충하려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결국 국민 의료비 부담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고 의료비 때문에 곤란을 겪는 국민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 암과 심장병 같은 이른바 4대 중증질환에서는 보장성이 OECD 국가 수준으로 개선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br/>이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비급여 풍선효과’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새 정부는 정책방향을 옳게 잡았다. 원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모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앞으로 개발될 신기술도 예외 없이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급여를 아예 없애기로 한 것이다.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가 완전히 사라지면 새로운 비급여가 생겨나기 어렵게 된다. 계획대로라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초음파와 MRI처럼 건강보험이 일부만 적용되던 비싼 검사을 해도, 일년 약값만 1억 원이 넘는 고가 항암제를 써도, 상급병실에 입원해도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미용 성형이나 특실과 같은 호화서비스는 예외다. <br/>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성공하려면 병원이 비급여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 현 의료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 우선 건강보험 진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높여서 병원이 비급여 진료를 하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의 숙원인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로 나아가는 전기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환자진료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무리한 진료비 삭감,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같은 관료적인 의료제도 운영에서 벗어나야 한다.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를 하면서 심평원의 진료비 삭감을 피하기 위해 의사가 비급여 진료를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지난 정부가 실패한 또 다른 이유는 비급여 진료가 우리나라의 잘못된 의료제도에서 기인한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br/>동시에 돈을 벌기 위해 치료효과가 없는 비급여 진료를 남발하는 부도덕한 병원을 근절해야 한다. 부도덕한 과잉진료는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낳아 오히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 <br/>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으면 공부를 할 수도 일을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의료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미완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정부로 역사에 기억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br/>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언론사: 한국일보-2-268.txt

제목: [지구촌은 선거 중] 권력 놓지 않으려는 ‘차베스 사도’의 위험한 도박  
날짜: 201707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21050950001  
ID: 01101101.20170721050950001  
카테고리: 국제>중동\_아프리카  
본문: 유가폭락 이어지며 경제 파탄<br/>국민들 끼니마저 거를 정도<br/>야당 장악한 의회 탄핵 추진에<br/>마두로 대통령 정국 뒤집기 시도<br/>“<span class='quot0'>기존 의회 해산, 새 헌법 제정</span>”<br/>반정부시위 격화 사망 100여명<br/>선거 제대로 치러질 지 미지수<br/><br/><br/>한 때 ‘천국’으로 불린 나라가 있다. 끝없이 펼쳐진 카리브해 해변에는 파도가 넘실댔고, 만년설로 뒤덮인 안데스산맥을 구경하려 관광객이 구름처럼 몰려 들었다. 아름다운 자연에 더해 땅을 파면 원유가 펑펑 쏟아졌다. 매장량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아 먹고 살 걱정이 없는 듯 보였다. 1999년 좌파정권이 들어서자 두려움을 느낀 일부 부유층과 지식인이 떠났지만 국민은 동요하지 않았다. 정부는 석유산업을 국유화해 번 돈을 빈곤퇴치와 무상복지에 쏟아 부었다. 10년이 지난 뒤 50%에 달했던 빈곤율은 절반(29.8%)으로 뚝 떨어졌다. 곳곳에 학교를 세워 무상교육을 한 덕분에 ‘문맹’이란 단어도 사라졌다. <br/>천국이 지옥으로 변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미국 허핑턴포스트는 요즘 이 나라의 상황을 “<span class='quot1'>반정부 시위가 내전으로 확대돼 유럽 난민 대란을 촉발했던 시리아 사태를 보는 것 같다</span>”고 표현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 들어 고국을 등지고 난민ㆍ망명 신청을 한 국민은 5만2,000여명. 지난해(2만7,000여명)보다 두 배나 많다. ‘21세기 사회주의 실험’의 성공 사례로 꼽혔던 베네수엘라의 현주소다. <br/>베네수엘라는 30일(현지시간) 제헌의회 선거를 앞두고 있다. 545명의 의원을 새로 뽑아 신(新) 헌법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span class='quot2'>정치ㆍ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span>”이라며 선거의 정당성을 강조했지만 이를 그대로 믿는 국민은 없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야권 관계자의 말을 빌려 “<span class='quot3'>살인적 물가와 생필품 부족에 지친 민심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차기 대선에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마두로 정권이 의회를 무력화하려 ‘친위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다</span>”고 비판했다. <br/><br/>정부 무능 대규모 저항 불러<br/>베네수엘라 위기의 1차적 원인은 정치권 갈등이다. 2015년 총선에서 야권은 전체 167석의 3분의2(112석)를 차지해 집권 베네수엘라통합사회당(PSUVㆍ55석)에 압승을 거뒀다. 20여개 야당 연합체 국민연합회의(MUD)는 여세를 몰아 대통령 탄핵과 국민소환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정권의 반격은 만만치 않았다. 급기야 올해 3월 친정부 성향의 대법원이 의회를 전격 해산하자 정권퇴진 운동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번졌다. 폭발한 민심이 거리로 쏟아졌고, 이에 맞선 정부도 군경을 동원, 강경 진압으로 일관해 사상자가 속출했다. 100일 넘게 이어진 시위 과정에서 숨진 사람만 100여명을 헤아린다. <br/>혼란은 거리에 국한되지 않았다. 경찰 헬기가 대법원을 공습하는가 하면, 정부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해 야당 의원들을 폭행하는 등 사실상 무정부 상태를 방불케 하는 폭력과 테러가 일상이 됐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나서 “<span class='quot4'>소요 사태가 내전이나 쿠데타로 비화할 우려가 크다</span>”며 대화를 호소할 만큼 마두로 정권을 향한 불신의 골은 깊었다. <br/> <br/><br/>마두로 다이어트의 진실<br/>파국의 진짜 배경은 파탄 난 경제에 있다. 베네수엘라에는 ‘마두로 다이어트’란 말이 있다. 현 정권의 무능 탓에 식량위기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잘 먹지 못해 체중이 감소했다는 뜻이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현지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한 미 CNN방송 보도를 보면 ‘하루 두 끼 미만 식사를 한다’는 응답자가 2015년 11.3%에서 지난해 32.5%로 3배나 증가했고, 실제 이들의 평균 몸무게는 1년 사이 8.6㎏이나 줄었다. <br/>비극은 저유가의 역습에서 비롯됐다. 2013년 만해도 배럴당 100달러 선을 유지했던 국제유가는 작년 중순 28달러까지 떨어졌다. 당연히 원유수출 대금 대부분을 무상복지에 투입했던 정부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미 바클레이은행 이코노미스트 알레한드로 아리자는 “베네수엘라는 남미 산유국 중 유가 폭락의 최대 피해자”라며 “지난해 원유판매 수입이 270억달러로 전년도의 3분의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자연스레 나라 곳간은 바닥났다. 외환보유고는 이달 22년 만에 100억달러를 밑돌았다. 베네수엘라 화폐 ‘볼리바르’는 외환시장에서 휴지조각이 된 지 오래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관계자는 허핑턴포스트에 “<span class='quot5'>베네수엘라를 떠나는 이유는 정치적 박해나 범죄가 아닌 오로지 경제적 문제 때문</span>”이라며 “<span class='quot5'>이제 무상의료는커녕 변변한 백신ㆍ치료약도 없어 임신부와 환자들이 브라질 등 인근 국가들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span>”고 전했다. <br/><br/>차베스 따라하기 결말은 <br/>마두로의 제헌의회 승부수는 2013년 암으로 사망한 전임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행보를 빼닮았다. 차베스도 99년 집권하자마자 제헌의회 선거를 통해 반대 세력의 싹을 자른 뒤 14년 ‘좌파 독재’의 발판을 마련했다. 차베스 밑에서 부통령을 지낸 마두로는 평소 ‘차베스의 사도(使徒)’를 자처할 정도로 그의 후광에 기대고 있다. <br/>하지만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은 차베스와 달리 이번엔 제대로 선거가 치러질지조차 미지수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야권 주도로 16일 유권자 700만명이 참여해 실시된 개헌 찬반 투표에서 무려 98%가 제헌의회 구성에 반대했다. MUD는 또 ‘결전의 날’로 명명된 20일 전국 24시간 총파업을 밀어 붙여 부당 선거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br/>관망하던 미국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span class='quot6'>마두로 정권이 제헌의회 선거를 강행하면 강력하고 신속한 경제조치를 취하겠다</span>”면서 강도 높은 제재를 시사했다. 영국 BBC방송은 “<span class='quot7'>마두로가 기댈 건 차베스 향수에 젖어 18년간 맹목적 지지를 보낸 ‘차비스타(차베스 열성 지지자)’밖에 없다</span>”고 꼬집었다. <br/>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69.txt

제목: [메아리] 좋은 사회를 만드는 습관  
날짜: 201707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21050852002  
ID: 01101101.20170721050852002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얼마나 좋은 습관 갖느냐 성공의 관건<br/>원전 논란 보며 안전불감증 여전 실감<br/>불의의 사고 대비 갖춘 사회 만들어야<br/><br/>엊그제 일본에서 유명했던 한 의사가 세상을 떠났다. 도쿄 성누가국제병원의 히노하라 시게아키 명예원장이다. 105세 장수를 누린 그의 인생 모토는 ‘영원한 현역’이었다. 100세 넘어 환자를 보는 내과의였고 전쟁 체험 세대의 책임이라며 평화 강연 활동을 마다하지 않았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수업이나 저술ㆍ기고, TV 출연에도 적극적이었다. 건강하고 열정적인 삶이었다.<br/>그는 일본에서 예방의학을 강조한 선구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노래했고 암, 당뇨, 고혈압, 심장병 같은 질병을 ‘성인병’이라 하지 말고 ‘습관병’으로 고쳐 부르자고 했다. 식습관, 생활 방식을 고치면 상당 부분 예방 가능한 병임을 이름으로 알려 주자는 것이었다. 1950년대 후반 성인병이라는 말을 지었던 일본 후생성은 히노하라의 주장이 있고 한참 뒤 성인병을 ‘생활습관병’으로 바꿔 부르게 된다.<br/>히노하라가 어느 인터뷰에서 인용한 적이 있는 ‘습관’과 관련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있다. “사람은 반복된 행동의 산물이다. 뛰어나다는 것은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일종의 습관에 의한 것이다. 뛰어남은 훈련과 습관으로 얻는 기술이다. 우리는 덕이 있고 뛰어나서 올바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는 것이다.” 미국의 자기계발 멘토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백만불 짜리 습관’에서 습관이 한 사람의 생각과 느낌, 행동의 95%를 결정한다며 “성공 습관” 개발이 훌륭한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했다. 빌 게이츠도 비슷한 말을 한다. “<span class='quot0'>인생은 습관의 연속이고 어떤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하다</span>”.<br/>나쁜 습관은 사람을 망치지만 좋은 습관은 사람을 훌륭하게 만든다. 비단 사람만이 아니다. 사회도 어떤 습관을, 달리 말해 어떤 문화를 갖느냐에 따라 격이 달라진다. 예를 들자면 끝이 없겠지만 지금 찬반 갈등이 뜨거운 원전 문제를 보자. 가동했거나 가동 중인 440여기 중 치명적인 사고가 난 원전은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3곳의 6기이다. 다른 사고들과 비교하면 발생 확률이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사고 가능성이 제로가 아니며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다.<br/>게다가 운전 중 발생하는 이런저런 작은 사고들, 땅 깊이 묻는 것 말고 해답을 찾지 못한 폐기물 처리까지 감안하면 이처럼 안전을 위협하는 에너지원을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여론을 모아 보자고 3개월간 신규 원전 건설 중지한 것을 두고 당장 원전 전면 폐쇄라도 한 것처럼 반대하고 나서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세월호 이후 ‘안전’ 구호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놓고도 한국 사회는 아직 그런 안전 중시 태도를 습관으로 만들지 못한 것 같다.<br/>작고한 히노하라는 30대 중반에 도쿄 대공습을 겪었다. 소이탄에 다친 사람들이 넘쳐났으나 치료할 시설이 턱없이 부족했다. 세월이 한참 흐르고 근무하던 성누가국제병원에서 새 병동 신축 계획이 거론되자 그는 재난 상황에 대비해 로비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로비와 병원 복도, 심지어 병원 예배당에까지 산소공급장치를 설치하자고 했다. 유사시 병실이 모자라도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과잉 투자”라는 비난이 있었지만 제안이 채택돼 1992년 당시로서는 일본에서도 드문 시설을 갖춘 병동이 완공됐다. 그리고 3년 뒤 도쿄에서 옴진리교의 지하철 사린가스 테러 사건이 일어났다. 중독된 시민들이 밀려들자 병원장이던 히노하라는 당일 외래환자 진료를 전면 중단하고 병동 전체를 활용해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일조했다. 모자랐던 과거에서 배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다. 반대로 과거망각증은 사람을, 사회를 죽음으로 끌고 갈지도 모르는 질 나쁜 습관병이다.<br/><br/>김범수 논설위원 bskim@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70.txt

제목: 매케인 앞뒤 안 맞는 말 하더니… 뇌종양 진단  
날짜: 201707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20051419001  
ID: 01101101.20170720051419001  
카테고리: 국제>미국\_북미  
본문: 생존율 낮아… 트럼프ㆍ오바마 “회복을” 응원<br/><br/><br/><br/>2008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존 매케인(81) 상원의원이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br/>종양 발병 부위에 따라 발작이나 두통, 시각장애, 착란 증세를 보일 수 있는데,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에 대한 의회 청문회 중 매케인 의원이 앞뒤가 맞지 않는 질문을 한 것이 그의 뇌종양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매케인 의원은 코미 전 국장을 ‘대통령’으로 부르는 등 실수를 연발, 청중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br/>1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주 매케인 의원의 왼쪽 눈 위 혈전 제거 수술을 했던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메이요클리닉 의료진은 이날 “<span class='quot0'>혈전 제거수술 후 조직검사 과정에서 ‘교모세포종’으로 알려진 원발성 뇌종양이 발견됐다</span>”고 밝혔다. 교모세포종은 미국에서 연간 1만2,000명 이상 발병하는 흔한 종양으로, 55세 이상 5년 생존율은 4%정도로 낮다. 고(故) 에드워드 케네디 전 상원의원도 같은 종양으로 사망했다. 매케인 의원은 해군 장교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전쟁영웅’. 2008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당시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와 경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내 “멜라니아와 나는 매케인 의원, 부인 신디 여사와 그들의 가족 모두를 위해 기도한다. 빨리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트위터에 “존 매케인은 미국의 영웅이자 내가 아는 가장 용감한 전사 중 한 명이다. 암은 자신이 무엇에 맞서는지를 모른다”며 매케인 의원의 회복을 빌었다. <br/>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71.txt

제목: [북 리뷰] 돼지도 거식증에 걸릴까?  
날짜: 201707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20051350002  
ID: 01101101.20170720051350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의사와 수의사가 만나다 <br/>바버라 내터슨-호러위츠, 캐스린 바워스 지음ㆍ이순영 옮김 <br/>모멘토 발행ㆍ488쪽ㆍ2만2,000원 <br/><br/>자살하는 쥐, 강간하는 물개, 마약에 취한 왈라비의 소식은 인간을 당황스럽게 한다. 문명 안에서만 발생하는 거라 믿었던 온갖 정신 장애가 동물의 세계에서 고스란히 발견된다는 건 뭘 의미할까. <br/>심장전문의 바버라 내터슨-호러위츠와 과학 저널리스트 캐스린 바워스가 함께 쓴 ‘의사와 수의사가 만나다’는 인간의 질병과 동물의 질병에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파헤친 책이다. 두 사람이 창안한 개념 ‘주비퀴티(zoobiquity)’는 동물을 뜻하는 그리스어 ‘zo’에 모든 곳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ubique’를 합친 말로, 수의학과 인간의학을 아우르는 통일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데서 출발했다. <br/>암에 걸린 공룡, 자해하는 말, 우울증을 앓는 고릴라, 반항하는 사춘기 원숭이의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이 흥미진진하다. 캐나다 로키산맥에 사는 큰뿔야생양 중엔 이가 잇몸까지 닳아버린 녀석들이 있다. 절벽에 자란 향정신성 지의류(곰팡이와 조류가 복합체가 되어 생활하는 식물군)를 이빨이 닳을 때까지 뜯어낸 것이다. 아시아의 아편생산지역에서 사는 물소들은 양귀비 추수가 끝난 뒤엔 금단증상에 시달린다. 이들은 자연의 환각물질을 ‘우연히 한 번’ 접한 게 아닌, 명백한 중독자들이다. 저자들은 여기서 약물에 중독된 인간들의 “못 끊겠어”란 호소를 겹쳐 듣는다. 그리고 묻는다. 동물이 약에 중독되는 이유를 알아낸다면 인간에 대한 처방도 바뀌지 않을까. 의학계가 약물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주로 ‘의지 박약에 대한 질타’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것 또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br/>저자들은 동물의 마약 중독을 생존을 위한, 즉 진화과정에서 살아남으려는 행동의 결과로 본다. 동물이 젖을 빨고, 식량을 저장하고, 둥지를 지을 때 뇌에서는 긍정적인 기분을 자아내는 화학물질이 분비된다. 생존에 적합한 행동을 응원하는 일종의 “생존 회로”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응원’을 받기 위해선 사냥과 같은 ‘일’을 해야 하지만, 약물은 그 과정을 생략해준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긍정적인 기분만 느끼려는 태도는 어쩌면 ‘못난’ 중독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span class='quot0'>개체의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유전되어온 뇌의 생명활동 때문</span>”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br/>독자는 내내 갸웃거리면서도 눈을 뗄 수 없다. 거식증을 앓는 돼지 이야기로 가면 숫제 저자와 대결하는 기분이 든다. 문명, 그것도 매스컴 이후의 최신 문명이 탄생시킨 질병으로 여겨져 온 거식증을 어떻게 동물이 앓을 수 있을까. 저자는 거식증에 걸린 동물이 음식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양의 짚을 먹는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거식증 환자들이 샐러드만 먹는 행동과 병치시킨다. 그렇다면 돼지도 인간처럼 사회가 원하는 신체상에 반응해 신체 왜곡을 꾀한다는 것일까. <br/>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불안과 섭식의 오랜 상관성이다. 지구의 탄생 이래 모든 동물은 포식자의 눈을 피해 불안에 떨며 “순조롭지 못한 식사”를 해왔고, 이는 우리의 DNA에 “오래된 기억”으로 박혀 있다는 것이다. 음식을 먹으면서 포식자를 피해 다니는 동물의 행동은, 섭식장애를 앓는 인간의 사회 공포증과 언뜻 겹쳐진다. 살찌는 데 대한 두려움이 실은 포식자, 즉 사회적 강자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 이를 극복하려면 자기 삶 속의 포식자를 먼저 인식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엔 또 하릴없이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br/>주비퀴티는 진화심리학과 비슷한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문명 공동체 안에서 일원으로 살기 위해 인간의 본능을 조절하는 일이 완성단계에 이르지 않은 시점에서, 본능에 주목하는 일은 의도치 않은 방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의학이 놓친 것, 혹은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본다는 점에 주비퀴티의 가치가 있다. <br/>“인간과 침팬지의 유전자 차이는 1.4%에 불과하지만, 바로 그 부분에 모차르트와 화성탐사로봇, 분자생물학 연구를 가능케 한 신체적, 인지적, 감정적 특질들이 들어 있다. (…) 이 1.4%의 장엄한 빛에 가려 우리는 98.6%의 유사성을 보지 못한다. 명백하지만 범위가 좁은 차이점에서 잠시 시선을 돌려 숱하고 엄청난 유사성을 받아들이자고 권유하는 것이 바로 주비퀴티다.” <br/>황수현 기자 sooh@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72.txt

제목: "이럴 바엔 내가 쓴다" 지하철 시(詩) 백일장이 열린 까닭  
날짜: 201707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20051311001  
ID: 01101101.20170720051311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span class='quot0'>임산부 전용석의/저 아저씨/몇 개월이세요</span>”<br/><br/>“<span class='quot0'>급하다는 이유로/먼저 타지 마라(중략)/너는 한번이라도/허무하게 지하철을 놓친 적이 있느냐</span>”<br/><br/>5줄의 짧은 시가 임산부 전용석을 차지한 지하철 이용객의 부족한 시민의식을 ‘저격’한다. 안도현 시인의 ‘연탄재’를 패러디한 시는 ‘승객이 다 내린 후 탑승하라’는 지하철 에티켓이 지켜지지 않는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서 열린 ‘지하철 스크린도어 시(詩) 백일장’에서 보이는 ‘풍자시’다. <br/><br/>백일장에서는 지난해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보수하다 숨진 김군을 추모하는 시도 주목을 받았다. “<span class='quot0'>이 문에서/스무살 청춘이 죽었다/점심에 먹을/사발면 하나 남기고</span>”라는 내용의 시는 지하철과 연관된 청년 노동의 현실을 지적해 1,000명이 넘는 이용자에게 공감을 받았다.<br/><br/>온라인 상의 '스크린도어 시 백일장'은 서울시가 지난 12일부터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실릴 시민 시 100편을 공모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span class='quot1'>각박한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시</span>"를 선정해 스크린도어에 게시하고 있다. 심사위원은 10인 이내 문학 관련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2015년 8월을 기준으로 서울 지하철 1호선~9호선, 분당선에 있는 4,841개 스크린도어에 걸린 시들이 시민을 만나고 있다.<br/><br/><br/><br/>그러나 지하철 스크린도어에는 때때로 시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시가 게시돼 여러 번 논란이 됐다. 선정적이거나, 공공성을 훼손하는 시가 민원을 받고 철거되기도 했다. 지난 1월 철거된 시 ‘줌인’은 아버지가 출가한 딸의 연락을 받고 회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딸을 “첫사랑 애인 같다”고 묘사한 데 이어 딸 사진을 “엄지와 검지 사이/쭈욱 찢어지도록 가랑이를 벌린다”는 내용에서 딸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br/><br/>“<span class='quot0'>목련꽃 목련꽃/예쁘단대도/우리 선혜 앞가슴에 벙그는/목련송이만 할까</span>”<br/>지난해에는 시 ‘목련꽃 브라자’가 같은 이유로 민원이 들어와 철거됐다. 미성년자도 이용하는 지하철인 만큼 성적인 묘사가 드러난 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게 당시 시민 의견이었다. 또 다른 시 ‘몹쓸 인연에 대하여’는 “시간을 갉아 먹는 암세포를/고귀한 인연이라 생각해본 적 있는가” 등의 암세포 묘사가 암 환자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서울시는 해당 시를 철거했다.<br/><br/><br/>위 사례처럼 ‘공감 불가’인 시를 볼 바엔 차라리 부족한 시민의식을 지적하며 공감을 얻겠다는 게 SNS 풍자 시의 창작배경이다. 지난해부터 서울시는 스크린도어 시에 작고한 시인의 작품부터 외국의 유명한 시까지 게시 대상의 폭을 넓혔으나 현재 남아있는 스크린도어 시 중에서도 문학적 가치가 떨어지거나 공공성을 훼손하는 시가 있다는 의견은 남아있다.<br/><br/>서울시는 철저한 심사로 논란의 여지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문화예술과 담당자는 “<span class='quot2'>문학작품 특성상 해석의 여지가 넓어 논란이 생기는 것 같다</span>”며 "서울시는 공공성을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작품이 있으면 즉시 철거를 하고 있고, 이번 공모전에도 심사를 철저히 해 시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시들을 걸러낼 예정이다”고 밝혔다.<br/><br/>김빛나 인턴기자(숙명여대 경제학부 4)

언론사: 한국일보-2-273.txt

제목: 로봇수술로 전립선암ㆍ신장암 치료 선도…환자 안전ㆍ수술 효과 높여  
날짜: 201707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17051155002  
ID: 01101101.20170717051155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나는 외과의사다] 홍성후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비뇨기과 교수<br/>수술만 잘하는 의사보다 소통하는 의사 되고파<br/><br/> 인체의 비뇨기관은 소변을 만들고 운반하고 배설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비뇨기과는 요로계(콩팥 요관 방광 요도)와 남성 생식기관(고환 부고환 사정관 음낭 음경), 부속성선(전립선 정낭 구요도선)과 부신에 생기는 질환을 다루는 분야다.<br/> 홍성후(46)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비뇨기과 교수는 이 가운데 전립선암과 신장암 치료에 특화된 외과의사다. 그가 이 두 질환 치료에 집중하는 것은 수술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br/> 전립선암은 ‘착한 암’으로 불린다. 조기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암세포가 온 몸으로 퍼진 뒤 발견하면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고약한 암으로 변한다. 수술은 늦은 발견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전립선암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이다.<br/> 신장암은 항암ㆍ방사선 치료로 완치를 기대하기 힘든 고약한 암이다. 수술 이외에는 별다른 치료법이 없다. 홍 교수는 “<span class='quot0'>신장암은 수술에 따라 환자 생명이 좌우되기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쥐고 있는 사람이 외과의사</span>”라며 “<span class='quot0'>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환자를 수술로 살릴 수 있는 외과의사가 된 데 보람을 느낀다</span>”고 말했다.<br/><br/>“<span class='quot1'>로봇수술로 환자 안전ㆍ치료 효과 높여</span>”<br/> 홍 교수는 선ㆍ후배 외과의사들에게서 타고난 손재주를 가진 의사로 평가 받고 있다. 비뇨기관은 신경과 혈관이 얽혀 있어 암을 수술할 때 신경과 혈관을 손상하지 않고 종양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를 열지 않고 수술부위에 몇 개의 구멍을 내 시행하는 복강경 수술은 의사의 손기술이 결과를 좌우한다.<br/>홍 교수의 손재주는 국내 비뇨기 복강경 수술 선구자인 황태곤 전 서울성모병원 원장(비뇨기과 교수)을 만나 업그레이드됐다. 황 전 원장에게서 복강경 수술기법을 오롯이 전수받았기 때문이다. 홍 교수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전립선암과 신장암 수술에 로봇수술을 접목했다. 최소침습으로 환자 안전은 물론 수술효과까지 극대화됐다. 청출어람(靑出於藍).<br/> 전립선은 좁은 골반 안에 있다. 그 주위에는 신경, 혈관, 요도 괄약근이 연결돼 있다. 그래서 전립선암 수술은 단순히 종양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종양 제거 후 방광과 요도를 다시 연결하는 재건수술을 해야 한다. 홍 교수는 “<span class='quot0'>3D 입체화면으로 수술부위를 정확히 찾을 수 있고, 로봇팔로 자유롭게 수술부위에 접근할 수 있기에 로봇수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로봇수술은 신장암 수술에 가장 좋은 수술이다. 신장암 수술은 종양 제거와 함께 남아 있는 콩팥 기능 보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종양 제거 시 과다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 콩팥과 연결된 혈관을 차단한다. 혈관 차단 시간이 길어지면 콩팥 기능이 떨어져 제대로 된 수술결과를 낼 수 없다.<br/>홍 교수는 “<span class='quot0'>혈관을 차단한 뒤 종양을 제거하고 피와 소변이 새지 않게 콩팥을 봉합하는 시간이 30분을 넘겨서는 안 된다</span>”며 “<span class='quot0'>수술부위에 빠르게 접근해 이른 시간 내 종양을 제거하고 콩팥을 복원하는 데에는 로봇수술이 안성맞춤</span>”이라고 말했다.<br/> 복강경 수술만으로도 ‘명의’ 소리를 듣는 그이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수술이 끝난 수술방에서 혼자 로봇수술기법을 수없이 연마했다. 외과의사라는 사명감이 없으면 불가능했다. 홍 교수는 “<span class='quot0'>로봇팔로 쌀알 크기 정도 종이학을 접게 됐을 때 비로소 자신감을 얻었다</span>”고 했다.<br/><br/>“<span class='quot1'>환자와 진솔하게 소통하려고 노력</span>”<br/> 홍 교수는 수술 잘하는 외과의사에 그치지 않고 마음 따뜻한 의사가 되려고 한다. 환자들과 끊임없이 진솔하게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의사가 돼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고 싶다’던 꿈 때문만은 아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환자들을 보면서 삶을 성찰했기 때문이다.<br/>비뇨기과는 요즘 인기가 떨어진 외과 내에서도 전공의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진료과다. 하지만 홍 교수의 생각은 다르다. 비뇨기과의 미래를 낙관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서구식 식생활로 전립선암 등 비뇨기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의료인력 충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중앙암등록본부가 2016년 11월 발표한 암 발생률 추세변화를 보면 남성 암 가운데 전립선암 환자는 지난 15년 동안 10만명당 9.7명에서 26.5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br/>홍 교수는 “<span class='quot0'>전립선암은 갑상선암과 함께 발병률과 발생속도가 가장 높고 빠른 암</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멀지 않은 장래에 남성 암 1위에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이기에 치료는 물론 항암제 개발, 기초연구도 활성화될 것</span>”이라고 전망했다.<br/> 외과의사는 독수리 눈과 사자 심장, 여자 손(탁월한 손재주) 등 세 가지를 겸비해야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현 시대는 환자와 소통하며, 환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의사를 요구하고 있다. 시대가 원하는 외과의사를 만났다.<br/>김치중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2-274.txt

제목: [갑상선암도 암이다] 갑상선암 수술 후 치료법과 환자들의 삶  
날짜: 201707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17051158002  
ID: 01101101.20170717051158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조선욱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br/><br/>“<span class='quot0'>아이와 며칠이나 떨어져 지내야 하나요?</span>” 갑상선암으로 갑상선을 떼내는 큰 수술을 받고 난 뒤 환자들에게 찾아오는 또 한 번의 고비가 있다. 바로 방사성 요오드 치료다.<br/>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수술로 다 제거할 수 없던 미세 갑상선 세포들을 찾아내 없애는 치료법이다. 보통 갑상선 전(全)절제 수술 후 재발 위험도를 평가해 필요할 때 시행한다. 요오드는 해산물 등에서 섭취할 수 있는 일반 영양소인데, 갑상선에만 유일하게 흡수된다.<br/>이런 성질을 이용해 요오드와 방사성 물질을 붙여 놓은 알약이 바로 ‘방사성 요오드 치료제’다. 이를 먹으면 수술 후 남아 있는 갑상선 세포와 갑상선 암세포에만 특이적으로 흡수돼 파괴된다.<br/>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다른 조직에 끼치는 영향이 적어 큰 부작용 없이 재발과 전이 가능성을 낮출 수 있어 효과적인 치료법이지만, 치료과정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복용 후 통상 5~7일 이내에는 환자에게 방사성 물질이 남아 있어 안전 관리를 위해 단계별 격리가 필요하다. <br/>고용량을 사용하면 치료 후 격리병동을 쓰고, 감마선 선량을 파악해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기준에 도달하면 퇴원한다. 하지만 퇴원 후에도 보통 1주일 정도 침, 눈물, 대소변, 땀으로 방사능이 배출될 수 있고, 아직 남아 있는 방사능이 영향을 줄 수 있어 장시간 다른 사람과 1m 이내 밀접한 접촉은 피해야 한다. <br/>갑상선암은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 환자가 많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으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외부에서 스스로를 격리하는 엄마들도 많다. 마치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사는 셈이다. 어린 자녀와 오랜 시간 떨어져 있어야 하니 수술보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더 어려워 할 수 밖에 없다.<br/>또 다른 고통은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치료 전 1~2주 정도 요오드 함량을 줄이는 ‘저요오드식’으로 갑상선 세포들이 요오드에 배고픈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또 준비 기간 동안 갑상선 호르몬제를 중단해야 체내 갑상선자극호르몬 수치를 늘려 남아 있는 갑상선 세포를 활성화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br/>이 때 호르몬제를 중단하면 환자는 피로, 어지럼증 등의 일상생활이 어려운 심각한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 갑상선 호르몬제를 끊지 않고도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보험이 제한적이라 환자들은 이래저래 불편할 수 밖에 없다. 연구결과 전신대사작용에는 변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환자 가운데 침샘 염증이나 위염으로 일시적으로 고생하거나 식이요법으로 지친 상태에서 급격한 호르몬 변화로 불안감을 크게 느끼는 사람도 있다.<br/>갑상선암이 예후가 좋은 ‘착한 암’이라고 해서, 또 수술이 잘 끝났다고 해서, 갑상선암 환자들의 삶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갑상선암도 암이다. 수술 후에도 어렵고 힘든 치료과정 속에서 힘들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들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언론사: 한국일보-2-275.txt

제목: [경희의료원과 함께 하는 건강 Tip] 전립선암  
날짜: 201707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17051157003  
ID: 01101101.2017071705115700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전립선암은 북미, 유럽 등에서 남성암 발생 1위, 사망원인 2위인 무서운 암이다. 전립선암 주 원인은 서구화된 식생활, 평균수명 연장, 인종, 가족력 등이다. 국내도 최근 전립선암 인식 증가와 암 선별검사로 남성암 4위를 기록했다.<br/><br/>Q. 발견이 어려운 이유는.<br/>“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생기기 전까지 전립선암 검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예를 들어 방광염은 혈뇨, 후두암은 목소리 변화 등의 증상이 생긴다. 하지만 전립선암은 초기 증상이 없다. 증상이 나타났을 땐 전립선암이 상당히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기에 조기 검진이 중요하다.”<br/><br/>Q.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법은.<br/>“증상이 없어도 전립선특이항원(PSA)이라는 혈액검사로 알아낼 수 있다. 현재 국내 전립선암 증가 추세를 보면 50세 이상이면 1년에 한 번 PSA 검사를 추천한다. 특히 가족 중에 전립선암 환자가 있다면 반드시 검사하는 게 좋다.”<br/> <br/>Q. 전립선비대증이 전립선암으로 바뀌나.<br/>“전립선비대증과 전립선암 모두 전립선에서 생기지만 전혀 다른 병이다. 전립선비대증이 암이 되지 않는다. 다만 전립선비대증을 앓았던 환자에서 전립선암에 걸릴 수 있다. 또한 두 질환의 증상이 비슷하므로 50대 이상인데 오줌 누기 어렵다면 정기적으로 전립선 검진을 해야 한다.”<br/><br/>Q. 최소침습 로봇수술이란.<br/>“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전립선암 수술이 대부분 로봇수술로 진행된다. 로봇수술은 개복 수술과 복강경 수술의 한계를 넘어 최소 침습, 최소 절개로 출혈량과 신경 손상을 줄여 합병증이 거의 없다. 성기능, 요자제 능력의 빠른 회복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다만, 로봇수술은 매우 정교한 수술이기에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br/><br/>Q. 전립선암 예방법은.<br/>“전립암 원인으로 동물성 지방과 육류의 과다섭취, 비만, 당뇨병 등이 꼽힌다. 따라서 균형 잡힌 식생활과 운동을 통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하다. 전립선암 예방에 좋은 음식이나 약제가 확실히 정립되진 않았지만 라이코펜을 다량 함유한 토마토를 비롯, 혈당강하제, 고지혈증치료제 등이 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br/><도움말: 전승현 경희대병원 비뇨기과 교수>

언론사: 한국일보-2-276.txt

제목: [헬스 파일]  
날짜: 201707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17051157001  
ID: 01101101.20170717051157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유유제약, 다한증치료제 ‘유니클린’ 내놔<br/>유유제약은 몸에 바르는 다한증 치료제 ‘유니클린’을 출시했다. 유니클린은 액상 형태 제품으로 피부에 바르면 땀샘에 보호막을 만들어 물리적으로 땀 분비를 억제한다. 분비되지 않은 땀은 혈액으로 재흡수된 뒤 소변으로 배출되며 겨드랑이 손 발 등 다양한 부위에 쓸 수 있다. 일반의약품이어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br/><br/>뇌수막종 전자교과서 제작<br/>서울대 보라매병원 신경외과 정희원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김재용 교수팀은 기존 교과서와 전자책 개념을 뛰어 넘는 신경외과 양성뇌종양 수술 교과서 ‘뇌수막종 및 신경초종의 수술적 치료’를 전자교과서로 만들었다. 전체 32개 챕터(뇌수막종 18챕터, 신경초종 14챕터)로 구성됐으며 현재 20개 챕터가 국내 저자들에 의해 제작돼 발간됐다. 12개 챕터는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대(UCSF)에서 담당해 현재 작업 중에 있다.<br/><br/>고대 안암병원 암센터 확장<br/>고대 안암병원이 환자 개인 맞춤형 포괄적 암 치료를 실현할 암센터를 확장 오픈했다. 김선한 암센터장은 “새롭게 오픈한 암센터는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 의료진의 실력이 다학제팀, 포괄적 치료시스템, 환자 중심의 환경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구축했다”고 했다.<br/>강동경희대한방병원, 수면장애 임상<br/>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암센터 윤성우 교수팀은 암환자의 수면장애개선을 위한 임상연구 참여자를 모집한다. 암환자의 수면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천왕보심단을 투여하고 인지행동치료를 실시한다. 천왕보심단은 식약처승인을 받은 한약으로 현재 수면장애치료에 활용되고 있다. 모집대상은 만 19세 이상 남녀 중 암을 진단받았고 수면장애가 있는 사람이다.<br/><br/>365mc, 지방흡입 ‘식사일기’ 앱 출시<br/>비만클리닉 365mc가 국내 최초로 지방흡입 수술 고객의 올바른 식사 습관 형성을 돕는 ‘식사일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출시했다. 새로 출시된 ‘식사일기’ 앱은 끼니별 섭취 음식(1인분 기준)과 열량을 각 음식 별로 계산된 칼로리 표에 따라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다. 또한 1일 물 섭취량 표기, 섭취한 간식의 열량 추가도 가능하다. 365mc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지방흡입 수술 고객은 자동으로 계산된 하루 총 섭취량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식단 조절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했다.

언론사: 한국일보-2-277.txt

제목: LG디스플레이 ‘新상생협력’…2ㆍ3차 협력사까지 보듬는다  
날짜: 201707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17051105001  
ID: 01101101.2017071705110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올해 상생경영 10주년을 맞은 LG디스플레이가 금융ㆍ기술ㆍ의료복지 분야 상생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기존 1차 협력사에서 2ㆍ3차 협력사로 전면 확대한다. 2,000여개 협력사들이 새롭게 상생 프로그램 혜택을 보게 됐다.<br/>2007년 7월 업계 최초로 동반성장 전담조직을 설치해 상생경영을 시작한 LG디스플레이는 2ㆍ3차 협력사까지 보듬는 내용이 담긴 신(新) 상생협력체제를 17일 발표했다.<br/>우선 2015년 1차 협력사 지원을 위해 조성한 400억원 규모 상생기술협력자금은 1,000억원으로 늘린다. 2ㆍ3차 협력사도 설비 투자와 신기술 개발,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해 자금이 필요하면 직접 LG디스플레이에 신청해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br/>LG디스플레이는 금융기관과 제휴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동반성장펀드’,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론’ 등 기존 1차 협력사 위주의 금융지원도 2ㆍ3차 협력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br/>여기에 2ㆍ3차 협력사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체 보유한 특허 5,105건도 공개하고 유ㆍ무상 양도한다. LG디스플레이는 올 상반기 액정패널 절단장치 특허를 탑엔지니어링에, 액정패널 검사장치용 니들 블록 특허를 엔아이디티에 각각 제공했다.<br/>장비 국산화를 위한 신장비 공동개발도 더욱 활성화한다. LG디스플레이는 그간 협력사와 손잡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용 증착기 국산화 등의 성공사례를 만들었다.<br/>이밖에 LG디스플레이는 1년 이상 근무한 2ㆍ3차 협력사 임직원이 암 등 희귀질환에 걸릴 경우 자사 임직원과 똑같이 지원한다.<br/>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78.txt

제목: 여성 유일 필즈상 수상자 마리암 미르자카니 별세  
날짜: 201707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16050607003  
ID: 01101101.20170716050607003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받은 유일한 여성 수학자 마리암 미르자카니 전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15일(현지시간) 유방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40세.<br/>스탠퍼드대는 이날 “<span class='quot0'>여성으로서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필즈상 수상자인 미르자카니가 오랜 투병 끝에 숨을 거뒀다</span>”고 발표했다. 이란 출신의 미르자카니는 기하학의 난제 중 하나인 모듈라이 공간을 해석한 ‘리만 곡면의 역학ㆍ기하학과 모듈라이 공간’ 논문으로 2014년 8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수학자대회에서 필즈상을 받았다. 수학자들이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여기는 필즈상은 1936~2014년 사이 56명에게 주어졌는데, 여성 수상자는 미르자카니뿐이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6년 세계 최고권위 학회인 미국 국립과학원(NAS)의 회원으로 초청된 첫 이란인 여성이 됐다.<br/>1977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태어난 미르자카니는 청년기부터 수학에 관심을 품고 친구인 로야 베헤슈티와 함께 공부한 끝에 1994년 17세 때 이란 여학생으로서는 최초로 세계수학올림피아드 대표선수로 선발됐다. 이 대회에서 42점 만점에 41점을 받아 금메달을 획득했고 이듬해에도 같은 대회에서 만점으로 금메달을 수상, 단숨에 세계적인 ‘수학 천재’로 떠올랐다. 이후 1999년 테헤란 샤리프기술대학에서 수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뒤 2004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클레이수학연구소 연구원, 프린스턴대 교수를 거쳐 2008년부터 스탠퍼드대에서 교수를 지냈다. 그러나 4년 전 암이 발병해 투병해왔다.<br/>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모하마드 자비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깊은 슬픔”을 표현하며 고인의 죽음을 애도했고 동료 미국계 이란인 수학자 피로즈 나데리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 개의 빛이 꺼졌다”고 탄식했다. 마크 테시어라빈 스탠퍼드대 총장은 “<span class='quot1'>천재적인 수학이론가이자 자신의 영광을 후대의 나아갈 길을 닦은 것으로 받아들인 겸손한 인물</span>”이며 “<span class='quot1'>수만명의 후대 여성들에게 수학과 과학의 길을 갈 수 있는 영감을 주었다</span>”고 추모했다. 유족으로 남편인 체코 출신 과학자 얀 본드락과 딸 1명이 있다.<br/>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79.txt

제목: 아버지 빈 자리 채워 준 외삼촌에 간 이식  
날짜: 201707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14051025004  
ID: 01101101.20170714051025004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span class='quot0'>외삼촌은 아버지 같은 분, 더한 것도…</span>”<br/>모교서 십시일반 헌혈증 110여장 모아 전달<br/>1000만원 넘는 병원비 부담, 모교 벼룩시장 행사<br/>“<span class='quot0'>가족을 살리는 일인데 뭔들 못하겠어요?</span>”<br/>암 투병 중인 외삼촌을 위해 선뜻 간이식 수술을 결정한 고3학생이 있다. 주인공은 경남 창원 창신고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상준(18ㆍ사진)군.<br/>이 군은 2월 외삼촌의 간암 판정 소식을 들었다. 병원에서는 길어야 4~5개월이라며 시한부 판정을 내렸다. 무엇보다 몰라보게 수척해진 외삼촌의 모습에 이 군은 충격을 받았다. 이 군은 “<span class='quot1'>외삼촌의 눈은 황달로 노랗게 떴고 얼굴은 새까맣게 말라 있었다</span>”고 말했다. <br/>초등학교 때 서울에 살았던 이 군은 방학이면 며칠씩 경남 김해에 사는 외삼촌의 집을 방문해 살았다고 한다. 홀어머니 밑에 자란 이 군에게 외삼촌은 아버지와 같았다. 그랬던 외삼촌의 건강이 나빠진 게 지난해 이맘때쯤 이었다. 이 군은 “<span class='quot1'>당시 간경화였던 외삼촌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고 올해 간암 판정을 받아 믿을 수 없었다</span>”고 말했다. <br/>의료진은 가족에게 “간 이식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이 군은 올해 3월부터 약 한달 간 경남 창원과 서울의 병원을 4, 5차례 오가며 조직검사를 받았다. 이어 이식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주저 없이 기증을 결정했다. 자신의 간의 60% 이상을 떼주는 대수술이었다. 이 군은 “<span class='quot1'>기증자가 건강해야 수술 성공률이 높다는 말을 들었다</span>”며 “<span class='quot1'>자전거로 등교하고 하교할 땐 학교 뒷산을 걸으며 몸무게를 82㎏에서 10㎏쯤 뺐다</span>”고 말했다. <br/>이 군의 모교인 창신고도 발벗고 나섰다. 같은 반 친구들을 중심으로 수술에 필요한 헌혈증 50장을 모아 이 군에게 전달했다. 병원비에 보태라고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학내 1, 2학년들이 주축이 된 벼룩시장도 열렸다. 교사와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참고서, 도서, 가상현실(VR) 체험기기, 전자기타 등 물품을 냈고 또 구매했다. 이렇게 마련된 성금은 100만원을 넘겼고 추가로 기증받은 헌혈증도 60장 넘게 모였다.<br/>벼룩시장을 기획한 김민진(42) 창신고 보건교사는 “<span class='quot2'>상준이의 조직검사 등 각종 병원비만 1,000만원이 훌쩍 넘어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2'>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가족의 도리를 다하는 학생이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만한 일을 찾고 싶었다</span>”고 말했다.<br/>지난달 14일 이 군은 외삼촌과 함께 수술대에 올랐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다. 이 군은 “<span class='quot1'>가족들 모두 외삼촌을 이대로 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span>”며 “<span class='quot1'>아버지 같은 외삼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span>”고 말했다. <br/>창원=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80.txt

제목: 2017 상반기 히트상품 - (주)엠제이테크 ‘본 데스크(bon desk)’  
날짜: 201707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13051350002  
ID: 01101101.20170713051350002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요즘 웬만한 기업체 사무실에서는 서서 일하거나 서서 회의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IT업계 사무실 또는 특수연구 부서에서 어쩌다 볼 수 있었던 ‘서서 일하는 ‘스탠딩워크(Standing work)가 이제는 하나의 업무 트렌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br/>스탠딩워크는 하루 6시간 이상 앉아서 일하는 업무환경이 근로자들의 심혈관계질환, 당뇨, 암, 우울증, 비만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미국암학회의 연구발표에 따라 유럽국가들과 미국(실리콘벨리) 등에서 이미 10여 년 전부터 도입해 지금은 미국 백악관에서도 동참할 정도로 가히 열풍 수준이다. <br/>국내도 헬스케어제품 전문업체 (주)엠제이테크가 스탠딩데스크의 표준을 제시한다는 목표로 서서 일하는 책상 ‘본 데스크(bon desk)’를 출시했다. 본 데스크는 책상 위에 올려놓고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기존 책상을 치울 필요가 없으며, 제품 사이즈는 국내 근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가로 80cm에 세로 60cm이다. 사용자가 자신의 키 높이에 맞게 최저 6cm에서 최고 40cm까지 7단계로 높이를 조절할 수 있으며, 두께는 6cm에 불과해 키가 작은 사람도 앉아서 업무를 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 <br/>본 데스크는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7월 한 달간 감사세일을 한다. 소비자가격 42만원을 30% 할인해 294,000원에 판매한다. 문의: 1644-6658

언론사: 한국일보-2-281.txt

제목: [브리핑]호텔신라, 맛있는 제주만들기 18호점 재개장 등  
날짜: 201707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13051326001  
ID: 01101101.20170713051326001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기아차 ‘스토닉’ 공식 출시… "가성비 최고"<br/>기아자동차가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스토닉’을 13일 공식 출시했다. 기아차는 지난달 27일 언론에 스토닉을 처음 공개한 데 이어 이날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 비스타홀에서 출시 행사를 열고 판매에 들어갔다. 실제 국내 디젤 SUV 가운데 유일하게 최저 가격(1,895만원)에 출시했으며, 동급 최고수준 연비(17㎞/ℓㆍ15인치 휠 기준)에, 고강성 차체구현 및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시스템 등 첨단 주행안전 기술인 ‘드라이브 와이즈’를 적용해 가성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br/><br/>호텔신라, 맛있는 제주만들기 18호점 재개장<br/>호텔신라는 상생 프로그램인 '맛있는 제주만들기' 18호점으로 제주 구좌읍 소재 세평맛집이 재개장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인 이명성(59)씨가 2011년부터 해물짬뽕과 탕수육 등을 팔아 1일 평균 10만원대 매출을 올리던 20평 규모 음식점이지만, 이씨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던 부인이 암 판정을 받은 이후 이씨 혼자 가게를 꾸려왔다. 호텔신라는 18호점만의 차별화 메뉴로 세평고기국수, 통문어 흑돈샤부, 흑돼지 돈가스를 정해 조리법을 전수하고 노후화된 시설물도 전면 교체했다.<br/><br/>롯데, 인터넷진흥원과 안전한 인터넷 문화조성 협력<br/>롯데그룹은 1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서울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전 국민 정보보호 실천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전 국민의 안전한 인터넷문화 조성을 위한 정보보호 실천 홍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br/><br/>롯데 빅마켓, 창고형 할인점 최초 '팔도 지역 소주' 판매<br/>제주도 여행을 가야 맛볼 수 있던 한라산 소주를 이제 수도권의 창고형 할인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롯데마트가 운영하는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 롯데 빅마켓은 13일부터 창고형 할인점 중 최초로 팔도 지역 소주를 판매한다. 롯데 빅마켓에서 판매하는 지역 소주는 충청도 '오투린', 전라도 '잎새주', 경북도 '맛있는참', 경남도 '좋은데이', 제주도 '한라산' 등 5개 품목이다. <br/><br/>카카오맵에서도 ‘내비’ 기능 쓸 수 있다<br/> 카카오는 모바일 지도 서비스 카카오맵 개편(업데이트)을 통해 카카오내비 길안내 기능을 탑재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카카오맵에서는 자동차, 대중교통, 도보 등을 통한 이동 경로 정보만 제공됐고, 모바일 내비게이션 기능을 쓰려면 별도로 카카오내비 소프트웨어(앱)를 다운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카카오맵 자동차 길찾기 메뉴 안에서 바로 내비게이션 기능을 연동할 수 있다.<br/><br/>SKT, 중국 원격 가스검침 시장 진출<br/>SK텔레콤이 중국 충칭(重慶)시에서 사물인터넷(IoT) 전용망 로라를 이용한 원격 가스검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충칭시 경제정보화위원회ㆍ충칭가스ㆍ차이나모바일과 4자 간 사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충칭시에 로라망을 구축하고, 2019년까지 충칭가스 고객에 스마트 가스미터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br/><br/>컴투스 ‘서머너즈 워’ 해외 매출 1조원 달성<br/>모바일 게임업체 컴투스는 자사 대표 역할수행게임(RPG) ‘서머너즈 워’가 글로벌 서비스 개시 3년 만에 해외 매출 1조원을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단일 게임으로 해외 매출로만 1조원을 벌어들인 건 국내 모바일 게임 사상 처음이다. 서머너즈 워는 현재까지 총 59개 국가에서 게임 매출 1위를 기록했고 125개 국가에서 매출 최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누적 다운로드는 8,000만건을 넘어섰다. <br/><br/>네이버, 핀란드어 사전 제작한다<br/>네이버는 외국어 교육 전문 정보기술(IT) 업체 언어과학과 온라인 핀란드어사전 제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핀란드어사전은 표제어 약 1만2,000개 규모로 제작된다. 이번 업무협약은 네이버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어학사전 분야 활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네이버는 2016년부터 5년간 사전 개정과 신규 사전 제작 등을 위해 1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언론사: 한국일보-2-282.txt

제목: 의료진 오진 중 암 관련 오진이 60%  
날짜: 201707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13051216001  
ID: 01101101.20170713051216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의료진의 오진(誤診) 중 암 진단과 관련된 오진이 10건 중 6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13일 한국소비자원이 2012~16년 접수된 오진 관련 피해 신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645건의 신고 중 374건(58.0%)이 암과 관련돼 있었다. 이 중 암인데 암이 아닌 것으로 진단한 사례가 342건(91.4%), 암이 아닌데 암으로 진단한 사례가 32건(8.6%)이었다.<br/>신고 사례 중 나중에 의료진 과실이 있었다고 밝혀진 경우는 259건(69.3%)이었고 이 중 203건은 실제 배상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의료진 과실로 판단된 사례 중 59건(22.8%)은 환자가 결국 사망했다. 잘못 진단된 암의 종류로 보면 폐암이 71건(19.0%)으로 가장 많았고, 유방암(14.7%)과 위암(13.6%)이 그 뒤를 이었다.<br/>A(38)씨는 조직검사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과 항암ㆍ방사선 치료를 받던 중 다른 병원에서 조직 슬라이드를 재판독한 결과 악성이 아닌 양성으로 진단됐다. 피해자 B(48)씨는 유방촬영 당시 양성병변 진단을 받았지만, 7개월 후 분비물이 나와 재검사를 받은 결과 유방암 3기였다.<br/>암을 진단해 놓고도 결과를 알려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은 C(52)씨는 10일 후 병원에 전화해 결과를 문의하자 이상 소견이 없다고 했지만 6개월 후 병원을 방문해 재확인하니 당시 결과가 위암으로 기록돼 있었다. <br/>소비자원은 “<span class='quot0'>오진 피해 발생시 진료기록과 방사선 영상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고경위를 작성해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신고해 달라</span>”고 당부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83.txt

제목: 19년 공들인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시판 허가  
날짜: 201707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12051237001  
ID: 01101101.20170712051237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세계 첫 퇴행성 관절염 환자용<br/>이르면 9월부터 국내 판매<br/>이웅렬 코오롱 회장 각별한 관심<br/>개발비 1100억원 이상 투입 결실<br/><br/>보험 적용돼도 약값 100만원대<br/>“<span class='quot0'>비싼 가격이 시장 확대 걸림돌</span>”<br/><br/>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한 국내 첫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케이 주(이하 인보사)’가 국내에 정식 출시된다. 국산 신약으로 29번째이며, 퇴행성 관절염 환자용 유전자치료제로는 세계 최초다. <br/>코오롱생명과학은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개발에 착수한 지 19년 만에 1,1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얻은 결실이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span class='quot1'>끈기 있게 투자하고 노력하고 기다려온 결과</span>”라며 “<span class='quot1'>회사의 성공을 넘어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청신호가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인보사는 기존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등을 받아도 통증 등이 계속되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들에게 쓸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지금까지 이런 환자들은 수술 말곤 뚜렷한 치료법이 없었다. 인보사는 구성이 독특하다. 염증을 억제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도입한 연골세포와 일반 연골세포를 섞어 만들었다. 유전정보를 건드렸기 때문에 세포만으로 만드는 세포치료제와 다르다. 기존 유전자치료제들이 동물세포나 환자 자신의 세포를 이용해 만들어진 반면, 인보사는 손가락이 6개로 태어난 사람(동종)에게서 수술로 떼어낸 손가락의 연골세포를 채취해 사용했다. <br/>코오롱생명과학에 따르면 해외에서 먼저 허가받은 유전자치료제는 총 8개다. 이들 모두 특정 암이나 유전병, 희귀병 치료용이다. 약 60억달러 규모의 세계 퇴행성관절염 시장을 겨냥한 유전자치료제는 인보사가 처음이다. 임상시험에서 중등도의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게 인보사를 1회 주사하고 1년 뒤 통증과 무릎 기능 개선 정도를 대조군과 비교한 결과 통증이 줄어들고 일상 활동이 나아졌음을 확인했다고 식약처와 코오롱생명과학은 설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르면 오는 9월 국내 시판을 시작하고, 연말쯤 미국에서도 임상시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br/>인보사는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이 “<span class='quot2'>내 인생의 3분의 1을 인보사에 투자했다</span>”고 언급할 만큼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 지난 4월 이 회장은 인보사 생산 거점인 충주공장을 직접 찾아 직원들에게 “<span class='quot2'>1998년 성공 가능성이 0.00001%라는 보고를 받았지만, 그룹 미래를 내다보고 과감하게 실행에 옮겼다</span>”는 뒷얘기를 전하기도 했다. <br/>다만 비싼 가격이 시장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 번 접종에 400만~500만원이나 드는 데다 1, 2년에 한 번씩 계속 맞아야 한다.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해도 환자가 부담하는 약값이 100만원대(3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고가의 신약에 급여를 적용하면 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라는 비판도 예상된다. 현재 무릎 인공관절 수술 비용은 400만~500만원이고, 연골 재생을 돕는 메디포스트의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 시술 비용은 800만~1,200만원 정도다. 제약업계에선 “혁신적인 신약이긴 하지만, 워낙 고가이고 국내 처음 도입되는 만큼 의료진이나 환자가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br/>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84.txt

제목: 붉은박쥐 게놈 세계 최초 분석  
날짜: 201707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12051221003  
ID: 01101101.2017071205122100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UNIST 박종화 생명과학부 교수 게놈산업기술센터 연구진<br/>붉은박쥐 게놈 해독, 다른 생물과 비교ㆍ분석 마쳐<br/>인간의 장수 등 연구에 기여할 전망<br/>황금박쥐로 잘 알려진 ‘붉은박쥐(Myotis rufoniger, 마이오티스 루포니거)’의 게놈(Genome, 유전체)이 세계 최초로 분석됐다. 멸종위기에 처한 붉은박쥐의 보전과 복원을 위한 유전적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오래 사는 붉은박쥐의 유전변이는 인간의 장수 등을 연구하는 데도 기여할 전망이다.<br/>UNIST(총장 정무영)는 박종화 생명과학부 교수가 이끄는 게놈산업기술센터(KOGIC) 연구진이 붉은박쥐의 게놈을 해독하고, 다른 생물과 비교?분석을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류덕영 서울대 수의대 교수팀과 함께 진행했으며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맹식)와도 협업했다. 연구 내용은 국제학술지 ‘플로스 원(PLoS ONE)’ 7월 5일자로 발표됐다.<br/>이번 연구로 붉은박쥐는 한국에서 게놈을 해독한 최초의 박쥐가 됐다. 박쥐는 몸 크기 대비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포유류인데 이번에도 긴 수명, 비행능력, 초음파 감각, 낮은 시력에 관한 유전자 변이가 확인됐다. 야생 생물인 박쥐의 유전자가 인간의 수명과 질병에 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br/>붉은박쥐는 국내에 확인된 개체 수가 450~500마리밖에 되지 않는 희귀한 생물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제452호로 지정돼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충북 단양 고수동굴에서 죽은 채 발견된 붉은박쥐를 이용해 DNA 시료를 얻고, 게놈을 해독했다. 연구팀은 붉은박쥐의 게놈을 해독한 결과를 다른 박쥐 7종과 육상 포유동물 6종의 게놈과 비교하면서 관련 유전적 변이를 분석해냈다.<br/>특히 붉은박쥐의 게놈에서는 박쥐 색깔과 맹독으로 알려진 ‘비소(As)’에 강한 특성 등에 관한 유전변이를 찾아냈다. 박쥐는 일반적으로 검은색으로 표현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색깔을 가진다. 연구진은 다른 동물의 게놈과와 붉은박쥐의 게놈을 비교하면서 붉은색을 띠게 만드는 유전변이를 발견했다. 또 붉은박쥐에는 비소(As)저항성 유전자 서열에 변이도 찾았다. 이 부분은 붉은박쥐가 중금속으로 오염된 동굴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진화적 단서를 제공한다. <br/>또 이번 연구를 통해 붉은박쥐의 개체 수가 마지막 빙하기 후반부터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모든 생명체의 게놈은 그 생명체의 과거 진화의 역사와 개체 수에 대한 기록이 저장돼 있다. 게놈은 생물종의 역사책인 것이다. 이번 분석에서 1~5만 년 전부터 붉은박쥐가 속한 애기박쥐과 박쥐들의 개체 수가 급감했고, 붉은박쥐가 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br/>이번 연구의 주저자인 박영준 UNIST 생명과학과 석ㆍ박사통합과정 연구원은 “<span class='quot0'>박쥐의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등장으로 서식지가 파괴됐기 때문일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연구에서 확인된 박쥐들의 감소 추세가 박쥐 전반적인 것인지, 박쥐의 감소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밝히려면 추가적인 박쥐 게놈 연구가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참고로 박쥐들은 해충을 잡아먹거나, 벌처럼 꽃가루를 옮기는 등 생태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br/>박종화 교수는 “<span class='quot1'>박쥐는 생물학적으로 고래만큼이나 재미있는 동물이며, 장수하는 동물로서, 인간에게 매우 귀중한 생물자원</span>”이라며 “<span class='quot1'>국가적으로 이런 생물자원의 유전정보를 모아 빅데이터로 만들 필요가 있으며, 박쥐 게놈에서 장수 관련 유전정보를 더 깊이 연구해, 궁극적으로 암 치료와 수명연장에 활용하고 싶다</span>”고 밝혔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85.txt

제목: 비상장주식 매입… 조카 취업 청탁… ‘메피아 민낯’  
날짜: 201707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11051228003  
ID: 01101101.20170711051228003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감사원, 서울교통公 간부 해임 요구<br/>전동차 납품사와 유착해 특혜받아<br/><br/>서울교통공사(구 서울메트로) 간부가 수주업체와 유착해 비상장주식을 매입하고 조카 취업을 청탁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감사원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br/>11일 감사원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교통공사 조모(57) 처장에 대해 해임을,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조씨는 전동차 구매업무를 주관하는 차량처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2월, 2호선 전동차 제작을 수주한 A사와 2014년부터 유착관계를 가지며 특혜를 주고 받았다. 정직 처분을 요구 받은 직원 2명은 조씨 밑에서 일하던 부장과 팀장이다.<br/>입찰 당시 A사는 경영난으로 법정관리를 밟고 있어 단독 입찰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메트로 A사의 요청을 받아 제작실적이 없는 회사도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입찰 조건을 완화했다. 2004~2007년 전동차 구입 때는 단독이든 컨소시엄이든 객차 제작실적이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했던 것과 대조되는 입찰조건이었다. 결국 A사는 전동차를 한 번도 제작한 적이 없는 다른 회사와 컨소시엄을 결성한 뒤 입찰에 참여, 수주에 성공했다.<br/>조씨는 이후 A사가 채용 공고를 내자 전화를 걸어 ‘신규 사원을 채용하느냐’고 물은 뒤 관련 근무 경력이 전혀 없는 조카의 입사 응시 원서를 제출했다. 감사원은 조씨 조카가 면접 과정에서 조씨가 고모부임을 밝히고 채용돼 현재까지 2년간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또 A사 자회사가 암 치료 기기 등 의료기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비상장 주식을 사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이후 조씨 처남은 비상장주식 10만주를 시세보다 저렴한 액면가 500원에 사들였다.<br/>이에 대해 조씨는 “<span class='quot0'>A사가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해 전동차 제작 사업을 수주한 것이고, 처남은 공모주 청약이 미달돼 다른 주주들과 똑같은 가격으로 주식을 산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행정 소송도 각오하고 있다</span>”고 밝혔다.<br/>감사원 조사와는 별도로, 경찰은 지난 4월 조씨를 포함한 서울메트로 직원, A사 임직원 등 발주 비리 관련 인물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br/>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86.txt

제목: '쌈마이웨이' 진희경, 김지원 생모였다…박서준-김지원 이별(종합)  
날짜: 201707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10051212001  
ID: 01101101.20170710051212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쌈, 마이웨이' 진희경이 김지원의 생모로 밝혀진 가운데 박서준-김지원은 격투기 때문에 결국 헤어지고 말았다.<br/><br/>10일 밤 10시 방송된 KBS2 월화드라마 '쌈, 마이웨이' 15회에서는 황복희(최애라 분)가 최애라(김지원 분)의 생모임이 밝혀졌다.<br/><br/>이날 앞서 격투기 경기에서 부상을 입은 고동만(박서준 분)은 오열했다. 다행히 귀에는 큰 이상이 없었으나 머리 측두부 뼈에 금이 간 사실이 확인됐다.<br/><br/>이에 애라는 동만에게 "너 머리뼈 어디에 금이 가 있다고 한다. 금이 간 위치데 또 충격을 받게 되면 영영 못 뛰게 있을 수도 있다고 한다. 결론은, 이제 너 격투기 못 해. 내가 안 시켜"라고 말했다. 동만이 "이 정도하고 관둘 거면 10년 만에 다시 덤비지도 않았다"고 했으나 애라는 "니 마음대로 해라. 한 번이라도 더 글러브 끼면 나랑은 끝"이라고 선언했다.<br/><br/>황복희의 사연도 공개됐다. 동만의 부상 소식에 병원으로 달려온 황복희는 황장호(김성오 분) 앞에서 경쟁률 1000대1을 넘어 배우가 된 과거를 회상했다. 황복희는 "그때 애 엄마는 배우로 데뷔 안 시켜주던 시대였다. 그때부터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며 "내 마이웨이는 가시밭길이었다"고 말했다. <br/><br/>황복희는 방송국 고위간부를 찾아갔다. 알고 보니 그 간부는 황복희의 현역 시절 그가 미혼모라는 사실을 방송으로 공개한 PD 출신이었다. 과거 황복희는 그에게 방송을 내보내지 말아 달라고 애원했고, "애라는 건드리지 말라"고 말했다. 황복희는 집에 있던 사진 한 귀퉁이를 펼쳤다. 애라의 부친이 그곳에 자리하고 있었다.<br/><br/>남일(곽시양 분)은 황복희가 일본에 건너가서 얻은 양자였다. 애라 일로 괴로워하는 황복희를 보며 남일은 "엄마 사업 망하고 혼자 암 걸렸을 때 누가 옆에 있었냐. 최애라가 있었냐. 나랑 다시 일본 가자 엄마"라고 설득했다.<br/><br/>한편 다시 김탁수에게 재대결을 신청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고동만. 그는 애라에게 "난 진짜 너 못 놓겠다"며 그를 잡았다. <br/><br/>고동만은 "나도 무섭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되돌아가는 거다. 다시 들러리로 살기 싫다"고 말했다. 애라는 "<span class='quot0'>사실은 나도 네가 못 멈출 줄 알았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0'>그럼 이제 우리 친구도 못 하는 거지?</span>" 사실을 확인했다.<br/><br/>동만은 "난 못 해. 헤어질 걸 생각하고 널 좋아한 게 아니라서, 다신 죽어도 친구는 못 해"라며 "꼭 이래야 하냐. 옆에 있어주면 안 되냐" 물었다. 애라는 "못 하겠다. 보는 게 힘들다"며 "그냥 사귀지 말걸 그랬다"고 눈물을 보였다. 애라는 동만의 손을 놓고 그곳을 떠났다.<br/><br/><br/><br/>강희정 기자 hjk0706@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87.txt

제목: [갑상선암도 암이다] 갑상선암, 이제 합리적 공감대 만들 때다  
날짜: 201707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10051204001  
ID: 01101101.2017071005120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박정수 강남세브란스병원 갑상선암센터(갑상선내분비외과) 교수<br/><br/>갑상선암만큼 논란이 많았던 암은 없다. 주요 논란은 이렇다. “갑상선 초음파 검진은 법으로 막아야 한다. 건강검진에서 빼야 한다. 증상 있을 때만 검진하라. 갑상선암으로 죽지 않는다. 과잉진료다. 암도 아니다. 수술할 필요도 없다.”<br/> 환자에게 귀가 솔깃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갑상선암도 암이다. 그대로 두면 다른 암처럼 악화돼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경과가 좋은 유두암이 가장 많지만 나쁜 여포암 수질암 악성림프종 미분화암 등도 있다.<br/>유두암에는 변종이 많다. 변종은 병태 생리가 저마다 달라 여포변종, 왈틴, 투명세포, 키큰세포, 미만성 석화화, 고형, 기둥세포, 말발굽세포, 저분화세포 변종 순으로 예후가 나쁘다. 여포암은 유두암보다 나쁘고, 수질암은 더 나쁘고, 미분화암은 대부분 진단 후 6개월을 못 넘긴다. 반대로 여포변종 유두암의 일종인 비침윤피막형은 예후가 너무 좋아 양성 종양으로 분류하자는 의견도 있다. 수술 후 15년 추적해 보니 재발이 1%도 안 된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미국의 10~20% 유두암이 해당되고 한국은 2% 미만이다. 따라서 이런 암은 원칙대로 광범위하게 수술하지 않고 양성 종양에 준해 치료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암 같지 않은 암을 수술 전 미리 알아내는 진단법이 없다.<br/>2013년 미국암협회의 병기별 5년 생존율을 보면 유두암 1, 2기는 100%이지만 4기는 51%다. 여포암 1, 2기는 100%이지만, 4기는 50%이고, 수질암 1기 100%, 2기 98%이지만 4기는 28%로 병기가 진행될수록 예후가 나쁘다. 무상의료를 자랑하는 영국은 암 조기발견과 치료에 적극적이지 않아 1년 생존율이 83%고 5년 생존율이 80%도 안 된다.<br/>우리는 어떤가? 2015년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5년 치료성적을 보면 93~95년 남자 87.2%, 여자 95.4%였다. 2008~2012년 남자 100.5%, 여자 100%로 높아졌다. 조기 진단율이 높아져서다.<br/>갑상선암은 위치가 안 좋거나 전이되면 증상이 생기는데 이때는 치료도 어렵고 완치 기회도 놓치게 된다. 1㎝ 미만 작은 유두암은 기도, 성대신경, 식도, 갑상선 피막 밖으로 침범하지 않거나 림프절ㆍ원격 전이가 없으면 6~12개월마다 추적 관찰하다 악화되면 수술해도 된다고 미국갑상선학회가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초기에 간단히 반(半)절제하면 되지만 악화하면 전(全)절제 수술해야 하는 게 단점이다. 1㎝ 미만이라도 유두암의 나쁜 변종, 여포암, 저분화암, 수질암 등은 수술해야 한다.<br/> 갑상선암에 대한 큰 혼란은 초음파 같은 진단기술 발달로 작은 암이 많이 발견돼 수술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과잉진료란 말이 생겼고, 세계적인 현상이다. 금방 죽지 않는 작은 유두암을 수술해 개인ㆍ사회경제적 부담이 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갑상선암은 암도 아니니 진단ㆍ치료도 말자는 극단적 주장 때문에 치료기회를 놓치는 우(愚)를 범해선 안 된다. 최근 수술이 줄고 진행된 암이 느는 현상이 환자를 위한 길인지 생각해볼 일이다. 이제 흥분을 가라 앉히고 갑상선암 환자에게 어떤 접근이 가장 합리적인지 공감대를 만들 때다.

언론사: 한국일보-2-288.txt

제목: 복강경 간암수술이 개복보다 합병증 적어  
날짜: 201707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10051203002  
ID: 01101101.20170710051203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김기훈 서울아산병원 교수팀 360례 분석 결과<br/>간에는 혈관이 많이 분포돼 있고 절제 수술을 할 때 범위가 넓어 출혈과 상처감염 등 합병증이 생기기 쉽다. 고난이도 수술로 꼽히는 간암 수술에서 복강경 수술이 개복 수술보다 합병증이 적어 환자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 김기훈 서울아산병원 간이식간담도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0'>2007년부터 최근까지 복강경을 이용한 간세포암 절제술 360례를 시행한 결과, 합병증 발생률이 1.3%(5건)로 개복 수술(7.3%)보다 크게 낮아 안전성이 입증됐다</span>”고 밝혔다. 김 교수팀은 단일 센터로 국내 최다 복강경 간암 수술 기록을 갖고 있다.<br/>입원기간도 개복 수술이 13.9일이지만 복강경 수술은 9.9일로 평균 4일 가량 줄었다. 수술 후 통증 점수도 복강경 수술(2.7점)이 개복 수술(6.3점)보다 절반 이하로 낮았다.<br/>복강경 간암 수술은 배에 1㎝도 안 되는 작은 구멍 5개를 만들어 복강경 기구를 배 속에 넣고 암 부위를 잘라 내는 수술이다. 수술시간은 개복 수술보다 약간 더 걸리거나 비슷하지만 간을 크게 잘라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br/>복강경 수술은 최소 침습 수술로 이뤄져 개복 수술보다 합병증이 적고 회복 속도가 빨라 일상 복귀시간도 줄어든다. 또한 수술로 인한 스트레스가 적고, 수술 후 면역기능이 비교적 잘 유지돼 스트레스 반응도 적다.<br/>개복 수술은 배를 열고 간암 부위를 잘라내는 수술로, 간은 대량 출혈 위험성이 높아 안전하게 절제하려면 30㎝정도의 큰 흉터가 남을 수 밖에 없다.<br/>김 교수팀은 간암 재발률을 줄이기 위해 부분 절제가 아닌 간세포암을 충분히 잘라내는 대량 간 절제에서도 복강경으로만 수술하고 있다.<br/>복강경 간암 수술을 시행한 초기에 많은 의료진은 복막 내 암세포 전이 가능성이나 종양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지 우려했지만 개복 수술과 비교해 생존율ㆍ재발률에서 차이가 없었고, 합병증도 낮아 우려와 달리 종양학적으로도 문제 없음을 입증한 것이다.<br/>복강경 수술 환자와 개복 수술 환자 각각 264명을 분석한 결과, 개복 수술의 3년 생존율 88.8%, 5년 생존율 77.8%와 비교해 복강경 수술의 3년 생존율 88.8%, 5년 생존율 80.3%는 큰 차이가 없었다. 무병 생존율도 개복 수술은 3년 63.3%, 5년 55.3%로 복강경 수술의 3년 62.5%, 5년 51.4% 와 비교해 재발률도 큰 차이가 없었다.<br/>김 교수는 “<span class='quot1'>복강경 간세포암 절제술이 개복 수술보다 합병증이 적다는 좋은 결과를 보였고, 큰 흉터를 남기지 않아 간암 환자 삶의 질까지 고려할 수 있어 복강경 간세포암 수술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span>”고 했다. 그는 복강경 간세포암 절제술의 낮은 합병증 비율에 대해 “<span class='quot1'>간암 환자가 늘고 있고, 간기증자 복강경 수술을 포함한 개복 간절제 수술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복강경 간세포암 수술 안전성을 높일 수 있었다</span>”고 덧붙였다.<br/>복강경 간세포암 수술은 종양 위치에는 제한이 없고, 발생 위치에 따라 큰 종양도 수술이 가능하나 보통 크기가 7㎝ 이하여야 한다. 종양이 간정맥과 간문부(肝門部)에 가까이 있거나 간 내 구조물에 변이가 있는 경우라면 개복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안전하다.<br/>이번 간세포암 복강경 간우엽 절제술의 우수성에 관한 논문은 2017년 외과 최고 저널(Annals of Surgery)에 실렸다. 이번 연구 결과는 올해 ‘아시아 태평양 복강경 외과학회’와 ‘아시아 태평양 간담췌 외과학회’에서 우수 발표로 선정됐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2-289.txt

제목: [이 상품 어때요] KB 골드바 신탁 外  
날짜: 201707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10051024003  
ID: 01101101.20170710051024003  
카테고리: 경제>유통  
본문: 국민은행 'KB 골드바 신탁' 출시<br/>KB국민은행은 한국거래소(KRX)에 개설된 금 시장에서 금 현물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KB 골드바 신탁’을 은행권 최초로 출시했다. 1g 단위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한국조폐공사가 인증하는 순도 99.99%의 골드바(1㎏ 단위)로도 인출할 수 있다. 매매차익에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최초에 500만원 이상을 투자해 금을 사는 임의식 상품(계약기간 5년, 추가 매입은 200만원 단위)과 매월 30만원 이상을 금에 투자하는 적립식 상품(계약기간 10년) 두 가지 종류다. <br/><br/>교보생명 ‘교보내게맞는종신보험’ 출시<br/>교보생명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나 고령자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무)교보내게맞는종신보험’을 출시했다. ▦최근 3개월 내 입원ㆍ수술ㆍ재검진 소견 여부 ▦최근 2년 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ㆍ수술 여부 ▦최근 5년 내 암으로 진단ㆍ입원ㆍ수술 여부 등 세 가지 고지항목에 ‘아니오’로 답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금리연동형 종신보험으로 주계약에서 최대 2억원까지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고객에게는 가입 5년 후부터 최대 10회에 걸쳐 가입금액의 0.1%를 지급하거나 계약자 적립금에 가산해준다.<br/><br/>신한카드 ‘리니지M 신한카드’ 출시<br/>신한카드는 엔씨소프트와 제휴해 주요 앱마켓에서 어플리케이션(앱) 구매 시 할인 혜택을 주는 신용카드 '리니지M 신한카드'와 체크카드 '리니지M 신한카드 체크'를 출시했다. 신용카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앱마켓에서 1만원 이상 이용 시 10% 할인(월 최대 1만5,000원) 된다. 또 편의점에서 10%(일 1회, 월 5회), 스타벅스에서 10%(일 1회, 월 5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체크카드는 주요 앱마켓에서 이용금액의 5%를 월 최대 8,000원까지 환급해주고, 스타벅스에서 10% 캐시백 서비스(월 3회)가 제공된다.

언론사: 한국일보-2-290.txt

제목: 이민영 JLPGA 2승째…암 딛고 완벽 복귀  
날짜: 201707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09050636002  
ID: 01101101.20170709050636002  
카테고리: 스포츠>골프  
본문: 이민영(25ㆍ한화)이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닛폰햄 레이디스 클래식(총 상금 1억 엔) 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올 시즌 일본무대 진출 후 2승째다.<br/>이민영은 9일 일본 홋카이도 호쿠토시 암빅스 하코다테클럽(파72ㆍ6,362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5개를 잡아내 5언더파 67타를 적어냈다. 최종합계 19언더파 197타를 기록한 이민영은 2위 김하늘(29ㆍ하이트진로)을 6타 차이로 따돌리고 우승컵을 차지했다. 우승 상금은 1,800만 엔(약 1억8,000만원)이다.<br/>이민영은 올 시즌 일본 무대로 진출해 4월 야마하 레이디스오픈 이후 3개월 만에 시즌 2승째를 거뒀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통산 4승을 쌓아 올린 이민영은 2015년 3월 신장암 수술을 받고 필드에 복귀한 이력으로도 잘 알려진 선수다. <br/>항암 투병 끝에 복귀한 뒤 지난해 7월 KLPGA 투어 금호타이어 첫 우승을 일궈냈고 올 시즌 일본에서도 2승을 거두며 완벽한 부활을 알리고 있다. 현재 이민영은 상금 순위 4위, 올해의 선수 부문 3위를 달리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 포인트를 추가해 올해의 선수 부문에서는 2위로 뛰어오를 전망이다.<br/>시즌 4승에 도전한 김하늘은 최종 라운드에서 6타를 줄이는 저력을 자랑하며 2위로 대회를 마쳤다. 우승컵은 놓쳤지만 상금 순위와 올해의 선수상 1위를 지켰다. <br/>안신애(27ㆍMY문영)는 8언더파 208타로 공동 13위에 올랐다. 안신애는 올해 JLPGA 투어에 4차례 출전, 이번 대회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이전까지 지난달 어스 먼다민컵 공동 16위가 최고 순위였다. <br/>한국 선수들은 올해 JLPGA 투어 18개 대회에서 8승을 합작하고 있다. 김하늘이 3승을 거뒀고 이민영이 2승을 올렸다.<br/><br/>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91.txt

제목: 중국 인권운동가 류샤오보 위독…마지막 출국 막은 중국 당국 책임론  
날짜: 201707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07051134002  
ID: 01101101.20170707051134002  
카테고리: 국제>중국  
본문: 간암 말기 치료 중 병세 급속 악화<br/>지인들 “곧 샤오보 잃을 것 같다”<br/>서방서 치료ㆍ임종 원했으나 불허<br/>인권운동 탄압 비난 커질 듯<br/><br/><br/>중국의 반체제 인권운동가로 2010년 옥중에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던 류샤오보(劉曉波ㆍ61)의 ‘마지막 순간’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이대로 사망할 경우 중국 정부는 인권탄압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br/>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ㆍ명보ㆍ빈과일보 등 홍콩 매체들은 7일 간암 말기 확진판정을 받고 투병중인 류샤오보가 간기능 저하로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이며, 가족들은 의료진의 진단 결과를 전해 듣고 밤을 새우며 병상을 지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방에서 마지막 삶을 보내겠다고 요구했던 류샤오보는 중국 당국의 거부로 현재 랴오닝(遼寧)성 선양(瀋陽)의 중국의과대학 부속 제1병원에 머물고 있다. <br/>류샤오보의 친구이자 시인인 예두는 “<span class='quot0'>다가오는 24시간이 마지막 밤이나 아침이 될 수 있으니 준비하라는 통지가 가족들에게 있었다</span>”면서 “곧 샤오보를 잃을 것 같다”고 애통해했다. 그에 따르면 류샤오보는 지난 3일 복수를 뺀 뒤에 병세가 호전되는 듯했지만 5일부터 다시 악화했다. 류샤오보의 다른 친구인 모지수도 “가족들이 갑작스레 건강 상태 악화를 통보 받았다”고 확인했다. <br/>류샤오보가 사망할 경우 그동안 그에게 가해진 인권탄압이 재론되면서 중국 정부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중국 당국은 류샤오보와 가족들이 치료를 위해 요구했던 해외출국을 허용하지 않았다. 또 베이징(北京) 주재 서방 외교관들과 국제앰네스티(AI)ㆍ휴먼라이트워치(HRW)ㆍ국제기자연맹(IFJ) 등의 류샤오보 출국 허용 요청을 ‘내정간섭’으로 규정하며 철저히 외면해왔다. <br/>1955년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태어난 류샤오보는 1984년 베이징사범대 중문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모교 강단에 섰고, 체제 비판적 문학비평 활동으로 ‘문단의 흑마’라는 별칭을 얻었다. 1989년 미국 컬럼비아대 방문학자로 체류중에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 사태가 발발하자 즉시 귀국해 왕단(王丹) 등과 함께 민주화운동을 이끌다 반혁명 선전선동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톈안먼 시위 지도부 대부분이 해외망명을 택한 데 비해 류샤오보는 중국에 남아 지금까지 네 차례나 체포ㆍ구금되면서도 민주화와 인권운동의 가시밭길을 걸었다. <br/>류샤오보는 2010년 랴오닝성 진저우 감옥에 수감된 상태에서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노벨상위원회는 ‘중국에서 근본적 인권을 위한 장기적이고 비폭력적인 싸움을 벌여왔다’고 평가했다. 옥중 노벨평화상 수상으로는 1935년 카를 폰 오시에츠키(독일), 1991년 아웅산 수치(미얀마)에 이어 세 번째였다. 그는 신중국 건국 이후 귀화ㆍ망명하지 않은 첫번째 중국인 수상자이기도 하다. <br/>하지만 중국 정부는 그의 노벨상 수상을 내정간섭으로 규정하고 노르웨이에 무역보복을 강행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또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석방 요구에도 귀를 닫았다. 그러던 중 지난 5월23일 류샤오보가 말기 암 진단을 받고 나서야 병원 치료를 허용했다. <br/>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92.txt

제목: “강기훈 유서대필 허위감정, 국가ㆍ국과수 직원이 책임”  
날짜: 201707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06051325001  
ID: 01101101.20170706051325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기본원칙 무시… 6억원 배상 판결<br/>법원, 수사검사 책임은 인정 안해<br/><br/><br/>고 김기설씨 유서대필 조작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뒤 24년 만에 유서대필 혐의(자살방조)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강기훈씨에게 국가와 필적 감정을 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 당시 수사 검사의 배상 책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br/>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부장 김춘호)는 6일 강씨와 가족들이 국가와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담당검사 두 명과 거짓으로 필적 감정을 한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pan class='quot0'>국가와 김씨가 함께 강씨에게 5억2,000여만원 등 총 6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span>”고 판결했다.<br/>재판부는 “필적 감정을 하면서 기본 원칙도 지키지 않고 위법을 저질러 수사와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가 됐다”며 “허위 감정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래 전 발생한 사건이지만 허위 감정으로 인해 강씨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무죄 판결)이 최근 밝혀졌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국가 5년, 일반인 10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도 밝혔다.<br/>그러나 강씨가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폭압 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한 수사검사 두 명에 대해선 20년이 넘은 사건이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며 배상책임을 묻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검사가 의도적으로 허위 감정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증명되지 않아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br/>이로써 강씨는 유서대필 조작 혐의를 벗은 데 이어 국가 배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끝내 수사기관의 사과를 받지도, 책임을 묻지도 못하게 됐다. 강씨 측은 유감을 표명했다. 암 투병 중인 강씨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못했다. 대리인 송상교 변호사는 “<span class='quot1'>강씨가 무죄 판결을 받고 가장 원했던 것은 가해자들의 사과였지만 모두 책임을 회피했다</span>”며 “<span class='quot1'>책임을 묻고자 민사소송에서 국가와 가해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했는데 법원은 핵심 당사자들의 책임을 부정했다</span>”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span class='quot2'>사건을 지휘한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고 검사의 수사 틀 안에서 움직인 국과수 감정인의 책임만 인정한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2'>소멸시효가 검사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감정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맞지 않다</span>”고 지적했다.<br/>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은 1991년 5월 8일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을 규탄하며 분신자살하자 검찰이 그의 친구였던 대학생 강씨를 “<span class='quot3'>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하고 자살을 방조했다</span>”며 기소해 처벌했던 사건이다. 강씨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9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6월의 형을 확정 받고 복역했다.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강씨가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재심에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이를 확정했다.<br/>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93.txt

제목: “수출용 연구로 개발, 허가해 주이소”  
날짜: 201707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06051316002  
ID: 01101101.20170706051316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동남권 방사선 의ㆍ과학산단’ 대형 국책사업 장기 지연<br/>吳 기장군수, 미래부ㆍkopecㆍ원안위ㆍKINS 방문해 ‘호소’<br/><br/>“<span class='quot0'>장기 지연되고 있는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사업을 조속히 허가해 주세요.</span>”<br/>부산 기장군은 오규석 군수가 지난달 26일 미래창조과학부 성일홍 연구개발투자심의관, 이달 4일 한국전력기술(kopec) 조직래 전무, 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종배 사무처장을 잇따라 방문한 데 이어 7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성게용 원장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ㆍ과학 일반산업단지’에 건설키로 한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사업’의 허가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br/>미래부 주관으로 부산시와 기장군이 함께 추진해온 이 국책사업은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을 뚫고 기장군이 따냈으며, 향후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미래 먹거리 사업이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태 및 경주지진 여파로 원안위의 안전성 심사가 강화돼 현재까지 건설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br/>이에 따라 오 군수는 더 이상 사업 지연을 두고 볼 수가 없다고 판단, 직접 중앙부처를 돌며 해결책을 강구하고 나선 것. 앞서 지난 2월에는 관련기관인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직접 방문해 신속한 건설허가를 촉구한 바 있으며, 3월에는 서울 광화문 원안위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br/>이번 관계 부처 방문에서 오 군수는 “<span class='quot1'>신형 연구로 개발사업 지연으로 동남권 방사선 의ㆍ과학산단 내 기업유치 및 입주 시기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국책사업인 만큼 신속한 건설허가를 위해 노력해달라</span>”고 요청했다.<br/>수출용 신형 연구로는 암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과 중성자를 이용한 반도체 생산, 비파괴 검사 등 다양한 연구 및 생산을 할 수 있는 소형 연구로를 말한다. 2008년 캐나다 연구용 원자로의 노화문제로 방사성동위원소 품귀현상이 빚어져 전 세계적으로 암세포의 뼈 전이여부를 알아보는 핵의학 영상검사가 마비된 것도 이 신형 연구로와 관련이 있다. 동위원소가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의료 수가가 높아져 진단 및 치료를 못 받고 목숨을 잃는 암환자들이 생길 수도 있다.<br/>이로 인해 국내에서도 동위원소 생산시설 건립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 미래부가 ‘수출용 신형 연구로 사업’을 공모하게 됐고, 당시 9개 지자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2010년 말 기장군이 유치하게 된 사업이다. <br/>수출용 연구로가 준공되면 그간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던 방사성 동위원소의 국내소비량을 100% 자력으로 공급해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일본과 중국, 동남아 등 해외수출도 기대, 향후 50년간 38조에 이르는 경제적 이윤 창출과 150여명의 고급연구원 유치 등 막대한 효과 발생이 예상된다.<br/>또한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 및 동위원소 공급 시기는 OECD 원자력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지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동위원소의 안정공급을 위한 OECD 공동선언서에 이미 서명을 한 상태로, 연구로 건설허가가 늦어지면 국제적 영향력 하락이 예상된다. <br/>안전성도 검증 받았다. 원자력 발전소와는 애초부터 건설의 목적과 규모가 다르다. 열출력은 발전용의 0.3%에 불과하고, 내진설계도 발전용 원자로보다 훨씬 더 견고한 0.3g(g:중력가속도, 지진규모 7.0)로 채택됐다. 건설부지 역시 고리원전보다 8배 이상 높은 해발 80m의 고지대로 지정돼 지진해일 피해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성을 인정 받았다.<br/><br/>기장군 관계자는 “<span class='quot2'>2019년 준공 목표인 ‘동남권 방사선 의ㆍ과학 일반산단’은 중입자가속기 개발,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구축 및 파워반도체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핵심인 신형 연구로 개발사업이 지연돼 차질이 우려된다</span>”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94.txt

제목: 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 로봇 수술 아시아 첫 3,000례 돌파  
날짜: 201707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06051111001  
ID: 01101101.20170706051111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최영득 교수, 2005년 첫 수술 후 약 12년 만에 달성<br/><br/>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 최영득 교수가 아시아 최초로 비뇨기과 로봇 수술 3,000례를 달성했다. 2005년 8월 첫 수술을 시행해 2012년 5월 1,000례를 돌파한 뒤 5년 여 만이다.<br/> 전립선암 수술(근치적 전립선 적출술)이 3,000례 중 약 85%를 차지한다. 전립선암 수술은 로봇 수술의 장점이 명확하게 적용되는 분야다. <br/>전립선은 골반 뼈 안쪽에 위치한 탓에 개복 수술을 하는 경우 암이 생긴 부위가 뼈에 가려져 옆에서 보면서 수술해야 한다. 하지만 로봇 수술은 골반 뼈 안쪽까지 카메라가 들어가 전립선암 발생 부위를 10배 확대해 세세히 보면서 수술을 진행하므로 이런 어려움이 크게 준다. 출혈도 훨씬 적다. 덕분에 수술 후 합병증인 요실금 및 발기부전과 관련된 구조 손상과 직장이나 요관 등 인접 부위 손상도 최소화한다.<br/>전립선암 로봇 수술 환자의 50%는 고위험 환자군이었다. 이 환자군 중 3분의 2는 3기 이상인 환자였다. 최 교수는 국소 전립선암은 물론 수술이 무척 까다로운 진행성 전립선암도 로봇 수술했다. <br/>최 교수는 정확하면서도 빠른 수술로 이름이 높다. 전립선암 로봇 수술 시간은 빨라야 1시간30분 정도이지만 그에게는 30분 정도에 불과하다. <br/>최 교수는 “<span class='quot0'>함께해 온 의료진들 덕분에 3,000례를 달성했다</span>”며 “<span class='quot0'>후배들이 로봇 수술을 통해 더 많은 환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안겨주길 바란다</span>”고 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2-295.txt

제목: [메디컬 잉글리시] 뇌종양(brain tumor)  
날짜: 201707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06051304003  
ID: 01101101.2017070605130400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Background overview: A man in his 60s got a brain MRI and returned to the neurosurgeon’s office for an interpretation.<br/>상황: 60대 남자가 뇌 MRI를 찍고 신경외과 외래에 결과 설명 들으러 왔다.<br/>(D = doctor, P = patient)<br/>D: So we got your MRI, and I will help you to interpret the image while we look at it together. Do you see this tumor here?<br/>의사: MRI 결과 나왔는데요.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종양이 하나 보이는데요.<br/>P: Tumor?<br/>환자: 종양이요?<br/>D: Yes, you have a tumor in your auditory nerve. Don’t be startled. The tumor is minor in size and not malignant, so you don’t have to worry too much.<br/>의사: 청신경에 생긴 청신경종양입니다. 일단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크기가 작고 악성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br/>P: So, it’s not a cancer?<br/>환자: 암이 아니고요?<br/>D: No, it’s not. It’s a benign tumor.<br/>의사: 네, 암은 아니고 양성 종양입니다.<br/>P: So, what should I do now?<br/>환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br/>D: Well, because the tumor is relatively small, we can start by monitoring it regularly. Nowadays, we have a technique called the CyberKnife, which can remove tumor with radiology alone without making an incision. You had no idea of things like a brain tumor when you went in for MRI, and look how lucky we got for detecting this early enough. Brain tumors turn up like that.<br/>의사: 일단 크기도 작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사하면서 관찰하는 방법이 있고요. 요즘은 사이버나이프라고 레이저 수술이 있는데 수술하지 않고 방사선으로 종양을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MRI 찍은 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셨잖아요. 이렇게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종양입니다.<br/>P: I see. Do you then recommend that I get that CyberKnife procedure?<br/>환자: 그렇군요. 사이버나이프는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br/>D: Yes, I’d recommend it.<br/>의사: 네, 제 생각에는 하면 좋긴 한데요.<br/>P: Is it okay if I stuck to the regular monitoring for now?<br/>환자: 정기적으로 검사만 하면 안될까요?<br/>D: You can certainly do that. The CyberKnife is a relatively simple and safe procedure, but can be costly.<br/>의사: 그렇게 해도 됩니다. 사이버나이프는 간단하게 제거가 되기 때문에 좋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br/>P: I will do as you say, doctor.<br/>환자: 선생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br/>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언론사: 한국일보-2-296.txt

제목: “원자력 없으면 병 치료 어떻게…” 환자들 불안감  
날짜: 201707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06051300001  
ID: 01101101.20170706051300001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희귀 소아암 등 치료 핵심 원료<br/>원자로 생산 말곤 대체기술 없어<br/>우주개발 원자력 전지에도 사용<br/>“<span class='quot0'>응용 기술 개발 등 막지 말아야</span>”<br/><br/><br/>올봄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는 소아암 환자들의 부모와 의료진의 전화가 수시로 걸려왔다.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한 방사성의약품이 제때 공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방사성의약품의 핵심 원료인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하는 원자력연의 연구용 원자로가 2년여 동안 정지 상태이고, 재가동 시기마저 불확실해 환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것이다. <br/>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하려면 원자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낼 때 일으키는 것과 같은 핵분열반응이 필요하다. 새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과 맞물려 우리 사회에 원자력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지만, 사실 현대사회는 전력뿐 아니라 곳곳에서 원자력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원자력이 없으면 당장 암 진단과 치료는 사실상 마비된다. 석유화학과 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에도 원자력의 산물인 방사선이 필요하다. 원자력 연구자들은 “<span class='quot1'>장기적으로 원전을 줄여가자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은 적극 공감하지만, 탈원전 정책이 원자력기술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지 않길 바란다</span>”고 입을 모았다.<br/>신경모세포종을 비롯한 희귀 소아암 치료에 쓰이는 방사성의약품은 방사성동위원소인 요오드로 만든다. 이 약으로 치료받는 국내 환자는 연 200여명. 원자력연의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는 이 아이들을 위해 요오드를 공급해왔다. 그런데 내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2015년 9월 보강공사에 들어가면서 가동이 중지됐다. 이후 원자력연은 매년 3억원을 들여 요오드를 수입해 국내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 수입품은 약 30배나 비싼 데다 오랜 운송 과정에서 구조가 불안정해질 경우 자칫 치료가 아니라 피폭을 일으킬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4월 하나로 공사는 끝났지만, 이후 진행 중인 검증 절차가 탈원전 분위기와 맞물려 엄격해지고 있어 언제 끝날지 예측이 어렵다. 공급 재개를 기다렸던 의료계는 탈원전 정책으로 방사성의약품에까지 불똥이 튈까 우려하고 있다. <br/>갑상샘질환, 신장질환, 암의 뼈 전이 등을 확인하는 핵의학검사에 꼭 필요한 방사성동위원소 몰리브덴도 원자로에서 나온다. 우리나라는 몰리브덴을 전량 수입한다. 캐나다와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3개국이 몰리브덴 세계 수요의 약 99%를 공급하는데, 이들 원자로 대다수가 오래돼 정비나 중지가 잦다. 언제든지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2008년 네덜란드와 캐나다 원자로가 중지된 탓에 국내 주요 병원에서 핵의학검사가 줄줄이 연기되거나 중단된 적이 있다.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부산 기장군에 신형 연구로를 짓기로 했지만, 착공이 1년여 미뤄지고 있다. 박울재 원자력연 책임연구원은 “<span class='quot2'>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는 대부분 대체 기술이 없어 원자로가 없으면 결국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방사선을 내는 방사성동위원소는 자연에도 존재하지만, 너무 적다. 예를 들어 천연 몰리브덴은 국내 핵의학검사 수요의 5%밖에 감당하지 못한다. 방사성동위원소를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핵분열반응이다. 핵분열반응의 열을 이용해 터빈을 돌리면 전기가 만들어지고, 핵분열반응에서 나오는 중성자로 화학반응을 일으키면 방사성동위원소가 생산되는 것이다. <br/>방사성동위원소는 산업현장에도 필수다. 정유ㆍ석유화학 설비에선 반응이나 이동 중인 유체 내부의 상태, 복잡한 배관의 누설 여부 등을 방사성동위원소를 넣어 확인한다. 작은 결함이 하루 수십억원에 달하는 손실로 이어질 수 있지만, 워낙 규모가 큰 데다 고온고압 환경이 많아 방사성동위원소 없인 결함 유무를 가려내기 어렵다. 대형 하수처리 시설에서도 방사성동위원소가 ‘추적자’ 역할을 한다. 유동성이 낮아 분해가 잘 안 되는 위치를 정확히 찾아낸다. 대형 유조선 등을 건조하는 조선업에선 비파괴검사가 필수다. 구조물에 방사선을 쪼인 다음 반대편 필름에 찍히는 사진을 보면 제작해놓은 구조물을 파괴하지 않고 내부 구석구석까지 살펴볼 수 있다. 병원에서 환자 몸에 엑스(X)선을 투과해 찍은 영상으로 어디가 아픈지 파악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방사선으로 식물을 개량해 만든 신품종은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br/>우주개발은 원자력전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극한 환경에서도 10년 이상 작동하는 원자력전지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는 열이나 방사선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원리다. 미국은 파이어니어, 보이저, 갈릴레오, 뉴호라이즌스 등 26개의 우주탐사선에 원자력전지를 넣었고, 우리나라도 달 탐사에 성공하려면 원자력전지가 있어야 한다. 방인철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는 “<span class='quot3'>원자력 원천기술 확보는 의료와 산업 분야에 반드시 필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3'>발전 부문 축소로 비(非)발전 부문의 응용기술 개발까지 제동이 걸리지 않도록 정책적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 <br/>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97.txt

제목: 점점 젊어지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필수  
날짜: 201707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05051252002  
ID: 01101101.20170705051252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대구 달서구에 사는 유현자(21·가명)씨는 자궁경부암예방주사 접종과 검사를 위해 산부인과에 내원했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20대 동료가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br/>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자궁경부암 검진 진료 환자는 2,606명, 30대는 1만1,966명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간 전체 자궁경부암 검진율 53% 중 20대는 26.9%, 30대는 53.1%일 만큼 관리가 소홀했다.<br/>이애현 산부인과 전문의는 “<span class='quot0'>자궁경부암 무료검진을 시행하지만, 발병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자궁질환이 나이든 이들에게 생기는 질환이라는 인식 때문에 젊은 층의 검진율이 저조하기 때문이라</span>”고 말했다.<br/>최근 자궁경부암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성경험 연령이 낮아지고 성 파트너의 수가 늘면서 자궁경부암의 주 원인인 인유두종바이러스(HPV)의 노출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HPV는 주로 성 접촉에 의해 전파되기 때문에 자궁경부암예방을 위해서는 조기에 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자궁경부암은 초기에 발견될 경우 생존율이 80%에 육박한다.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다른 암처럼 5년 생존율이 뚝 떨어진다. 특히 장기까지 퍼진 경우는 생존율이 25%미만으로 떨어진다. 자궁경부암이 발생하면 자궁을 절제하는 수술이나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를 한다. 또 치료가 되더라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조기진단 및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br/><br/><br/>때문에 백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백신은 전체 자궁경부암의 70%에 효과를 보인다.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전 즉, 성 접촉을 시작하기 전에 접종하는 것이 가장 좋다. 또 중년여성에서도 새로이 감염되는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늦게 맞았다고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다. <br/>화원에서 자궁경부암검사를 하러 온 한 여성은 “<span class='quot1'>자궁경부암예방주사는 첫 성관계 전에 맞아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미루다가 뒤늦게 맞으러 왔다</span>”고 말했다.<br/>이 산부인과 전문의는 “<span class='quot0'>자궁경부암의 잘못된 인식과 산부인과에 대한 편견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자궁경부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모든 질환과 마찬가지로 정기검진과 예방접종만 해도 염려 없이 건강한 여성의 삶을 누릴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김민규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98.txt

제목: 경북도 독도 홍보전략 논리ㆍ이성적으로 확 바꿨다  
날짜: 201707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05051130002  
ID: 01101101.20170705051130002  
카테고리: 국제>일본  
본문: 독도학술광고 시리즈 5편 제작<br/><br/><br/>경북도가 5일 독도에 대한 일본 주장의 허구성을 정면 비판하는 독도학술광고 시리즈를 제작, 공개했다.<br/>‘독도, 일본주장이 왜 허위인가’라는 제목의 광고물 시리즈는 총 5편으로, 국민들이 쉽게 독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br/>1편은 ‘독도, 일본 땅이라고?’라는 헤드라인으로 ‘죽도(울릉도) 외 일도(독도)는 본방(일본)과 관계없다’고 명시한 1877년 태정관지령 문서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br/>2편은 ‘독도, 일제강점과 관계없다고?’라고 반문하면서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러시아 함대가 동해로 남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는 등 독도가 일본침략의 첫 희생물이 된 경위를 밝히고 있다.<br/>3편은 ‘한국은 독도를 몰랐다고?’라는 제목에서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 작성 때 독도가 한국 땅으로 명시된 사실을 알리고, ‘리앙코르도’ 암을 한국 사람은 ‘독도’라고 불렀다고 기록한 니타카호 항해일지를 제시하고 있다.<br/>4편에서는 ‘독도는 일본 땅, 미국도 인정했다고?’라고 되묻고 1948년 주한미군사령부 공문에서 ‘독도 근처 수역은 한국인 어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업지역’이라고 적시, 미군정이 독도가 한국 땅임을 명확히 밝힌 공문서를 게재하고 있다.<br/>마지막 편에서는 ‘독도, 진실은 하나!’라는 제목으로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는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와 ‘독도(석도)를 울도군 관할지역’으로 명시한 1900년 10월25일 칙령 41호를 소개하고 있다.<br/>이복영 경북도 독도정책관은 “<span class='quot0'>일본의 독도야욕에 논리적, 이성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독도학술광고 시리즈를 제작하게 됐다</span>”며 “<span class='quot0'>연말에는 일반인들이 역사적 논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홍보물도 만나게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299.txt

제목: 신성일, 투병 중에도 시상식 참석 "암 세포 떨쳐낼 것"  
날짜: 201707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04051210002  
ID: 01101101.20170704051210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배우 신성일이 투병 중에도 시상식에 참석했다. <br/><br/>신성일은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영화를 빛낸 스타상' 시상식에 참석해 공로상을 수상했다.<br/><br/>신성일은 "그깟 암 세포, 모두 다 내쳐버리겠다"며 "최고 의료진이 내게 붙었다. 3기에서 2기로 만들어 뽑나내면 그만이라고 하더라. 워낙 체력이 좋아 방사선 치료도 걱정 없다고 한다. 여러분도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걱정하는 이들에게 한 마디를 전했다. <br/><br/>신성일을 최근 폐암 3기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진행 중이다. <br/><br/><br/><br/>명희숙 기자 aud66@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00.txt

제목: 공연 기부하는 장흥군 공무원  
날짜: 201707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04051045002  
ID: 01101101.20170704051045002  
카테고리: 문화>음악  
본문: 편백숲 힐링의 아름다운 선율<br/>6년째 숲속 힐링음악회 개최<br/>음악인도 동참 관객과 교감<br/><br/><br/>전남 장흥을 대표하는 치유의 명소 편백숲 우드랜드에서 장흥군 공무원들이 노래와 악기 등 공연을 기부하는‘숲속 음악회’를 가져 화제다. 5월부터 10월까지 매달 한차례(7,8월은 2차례) 열리고 있는 음악회의 주인공은 김규중 보건소장과 이시영 홍보담당, 농업기술센터 김소연 농촌지도사 등이다. 위동환 비서실장의 부인 손초경씨 등 공무원 가족과 지역 음악인들도 출연하고 있다. <br/>2012년 시작, 올해로 6년째를 맞는 힐링음악회는 김 소장의 쥐띠 동창생 4명이 의기투합 대금하모니연주단을 결성한 것이 계기가 됐다. 홍보담당 이씨도 통기타 연주와 듀엣 가수로 활약하고 있다. 학창시절 보컬을 담당했던 이씨는 트로트와 최신가요, 가곡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며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br/>공무원들이 앞장서다 보니 지역에서 활동하는 음악인들도 동참, 숲속 힐링음악회 무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달 8일에는 음악 재능기부자들이 대거 참가하는 등 일그란데 앙상블의 성악공연과 전통무용, 대금, 색소폰, 바이올린, 팬플룻 연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선보였다. <br/>암 치료를 받은 김모(57ㆍ광주)씨는 “우드랜드 숲속 힐링 음악회만 오면 병이 다 나은 것 같다”며“매주를 기다리며 좋은 소리와 공기 등 공연을 보면 행복하다”고 말했다.<br/>우드랜드를 찾는 관광객, 지역민과 교감하며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는 김 소장은 매월 프로그램을 짜고 초청가수를 섭외하는 등 음악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span class='quot0'>편백숲에서 열리는 음악회는 사람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자연예술</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치유와 문화가 공존하는 음악회를 더 확대해야겠다</span>”고 말했다.<br/>장흥=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01.txt

제목: 국내 항암치료 선구자 김노경 서울의대 명예교수 별세  
날짜: 201707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04051030001  
ID: 01101101.20170704051030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국내 항암치료 기술 발전에 기여해 온 김노경(사진)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가 4일 오전 11시 별세했다. 향년 77세. <br/> 고인은 수술과 방사선 외에 다른 암 치료법이 없던 1970년대부터 약물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해왔다. 특히 고인은 지난 1999년 대기업과 손을 잡고 국내 1호 항암신약 개발을 주도했고, 이후에도 새로운 항암제 개발과 임상시험 발전에 선구적 역할을 해왔다.<br/> 국내 암 치료 사업에도 족적을 남겼다. 고인은 보건복지부 암정복추진기획단장(1996년)과 국립암센터 이사장(2004~06년) 재임기간 중 암 정복을 위한 국가계획에 참여, 우리나라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세계 최고수준인 70%에 이르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공로를 인정 받아 국민훈장모란장(1988년)과 옥조근정훈장(2005년) 등을 수상했다. <br/> 1940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뒤 1972년부터 서울대병원 내과교수로 재직하면서 서울대병원 교육연구부장, 임상의학연구소장, 내과학교실 주임교수를 역임했다. 1986~88년에는 대통령 주치의로 활동했다. <br/>유족으로는 부인 한경희씨와 아들 지수씨, 딸 지연씨, 며느리 김자영씨, 사위 김범준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6일 오전 9시, 장지는 곤지암 소망동산이다.<br/><br/>김치중 의학전문기자 cjkim@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02.txt

제목: [애니팩트] 개의 후각을 이용한 암 진단법이 개발중이다  
날짜: 201707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04050924003  
ID: 01101101.2017070405092400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일본 치바현 호쿠소 대학병원에서는 '암 탐지견'을 훈련 중입니다. 암 의심환자의 소변을 얼린 뒤, 탐지견에게 그 냄새를 맡게 해 건강 이상 유무를 판단한다고 하는데요. <br/>연구를 진행하는 미야시타 마사오 교수에 따르면 “<span class='quot0'>실험에 참여한 개들은 지금까지 거의 100% 정확도로 암 식별에 성공했다</span>”고 합니다. <br/>개를 통한 암 진단 연구는 지난 해 영국에서도 진행된 적 있으며, 당시 탐지견들은 93% 성공률을 보였다고 하네요. <br/><br/>▶ 동그람이 페이스북에 방문하시면 더 많은 애니팩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언론사: 한국일보-2-303.txt

제목: 소변에 나트륨 많으면 위암 적신호  
날짜: 201707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03051338003  
ID: 01101101.2017070305133800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김영선ㆍ송지현 서울대병원 교수팀, 장상피화생 발병 위험 높아져<br/><br/>소변에 나트륨 수치가 높으면 위암 전(前)단계인 장상피화생 등 질환이 생길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염분 섭취와 위암의 전암 병변 연구가 이뤄진 적은 있었지만 연관성을 증명하지는 못했다.<br/>김영선ㆍ송지현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소화기내과 교수팀은 662명을 대상으로 소변의 나트륨 농도와 위축성 위염 및 장상피화생간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소변 나트륨 농도가 가장 낮은 군에 비해 소변 나트륨 농도가 가장 높은 군이 위축성위염 동반 장상피화생 위험도가 2.9배 높았다. <br/>이번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Cancer Epidemiology, Biomarkers & Prevention) 온라인에 발표됐다.<br/>염분 섭취 평가에는 24시간 식이회상법이나 식사일기법이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섭취한 모든 음식의 종류와 양, 조리할 때 첨가한 소금의 양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개인별 소금 섭취량 차이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br/>이번 연구에서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측정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인 24시간 소변 수집 검사로 나트륨 섭취량을 평가해 정확성을 더했다. 연구대상은 소변 나트륨 함량이 정상수치인 그룹(≤139mmol/d), 다소 높은 편인 그룹(140~194mmol/d), 소변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은 그룹(≥195mmol/d)의 세 그룹으로 나눠 비교했다. <br/>나트륨은 우리 신체에서 혈액과 체액에 존재하면서 전체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무기질로 농도가 늘 일정하게 유지돼야 한다. 나트륨 섭취량이 너무 많으면 여분의 나트륨이 물과 함께 소변으로 배설된다. 따라서 소변으로 배출되는 나트륨 양이 많을수록 소금으로 대표되는 나트륨 섭취량이 많다는 의미다.<br/>위축성 위염은 위 점막층이 위축돼 혈관들이 비쳐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장상피화생은 위 점막 세포가 손상된 뒤 불완전하게 재생돼 정상적인 위 점막이 아닌 소장 점막과 유사한 세포로 재생되면서 위 점막에 작은 돌기가 생겨 울퉁불퉁하게 변하는 것이다.<br/>위염을 관리하지 않으면 만성위염,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이형성의 단계를 거쳐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br/>송 교수는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이 발견되면 위암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있기에 국내 전문가들은 1년 간격으로 추적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했다. <br/>덧붙여 장상피화생을 동반한 위축성 위염의 위험도는 담배를 하루 한 갑씩 20년 피운 경우 2.8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 감염이 있다면 4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br/>2014년 국민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염분 섭취량은 하루 3,890㎎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권장량인 하루 2,000㎎ 이하보다 높다. <br/>김 교수는 "나트륨 섭취가 많을수록 위암 전암 병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김치, 장류ㆍ젓갈류, 찌개, 가공식품 등의 섭취를 줄이고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2-304.txt

제목: 백혈병은 불치병? “이젠 치료 가능한 질환”  
날짜: 201707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03051336001  
ID: 01101101.20170703051336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백혈병에 대한 5가지 오해와 진실<br/><br/>백혈병은 2000년대 초까지 영화나 드라마에서 불치병 단골 소재였다. ‘백혈병=불치병’이라는 등식이 자리 잡은 이유다. 이젠 백혈병은 치료 가능한 질환이다.<br/>특히 백혈병 가운데 가장 많은 ‘만성골수성백혈병’은 2001년 표적항암제 출시 후 관리 가능한 만성질환이 됐다. 하지만 만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으면 환자나 가족은 여전히 오해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오해와 진실을 짚어본다.<br/><br/>①만성골수성백혈병은 치료가 어렵다? <br/>만성골수성백혈병은 10여 년 전만 해도 진단 후 5~7년 내 사망할 만큼 완치가 힘들었다. 2000년대 표적항암제 이매티닙이 개발된 이후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관리하는 만성질환으로 바뀌었다. <br/>미국의 한 기관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해당 기관에서 1975년 이전까지 6%에 불과했던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8년 상대 생존율은 2001년 87%까지 향상됐다. 현재 2세대 표적항암제를 중심으로 약물치료를 중단해도 재발되지 않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적 완치’와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그 결과, 48주 동안 기능적 완치 가능성을 확인한 2세대 치료제도 있어 만성골수성백혈병은 점점 더 완치에 가까워지고 있다.<br/><br/>②백혈병이면 무조건 큰 병원에서 치료해야 한다?<br/>만성골수성백혈병을 치료할 때는 어느 병원을 택하느냐 보다 전문의 권고에 따라 약제를 꾸준히 충실히 복용하고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은 유럽과 미국에서 제시하는 국제 치료지침이 잘 정립돼 있다. 이를 국내 현실에 맞게 개정한 한국 치료지침도 마련돼 있다. 국내 혈액내과 전문의라면 이런 표준지침에 따라 치료하므로 병원에 따라 치료법에는 차이가 거의 없다. <br/><br/>③만성골수성백혈병의 제일 좋은 치료제가 있다?<br/>현재까지 만성기 만성골수성백혈병의 1차 치료에 승인된 약으로는 1세대 치료제(이매티닙)와 2세대 치료제(닐로티닙, 다사티닙, 라도티닙)가 있다. 1세대 치료제 이매티닙은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 역사를 ‘이매티닙 전후’로 나눌 만큼, 우수한 효과를 보이며 만성골수성백혈병 최초의 표준요법으로 자리잡았다. <br/>2012년 새롭게 출시된 2세대 치료제의 경우 1세대보다 빠르고 좋은 치료반응을 통해 가속기 및 급성기 진행을 줄인다. 특히 진단 시 예후가 나쁠 것으로 분류된 환자라도 상대적으로 효과가 더 좋게 나오고 있다. 이 약들은 모두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약마다 암 유전자(BCR-ABL) 활성을 억제하는 강도가 다르고, 치료제 내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돌연변이 유전자에 대한 활성도도 달라 약 효과와 함께 환자 나이, 기저(基底) 질환, 약물 순응도, 예후 인자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택해야 한다.<br/><br/>④치료경과가 좋으면 유전자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br/>유전자검사(분자생물학적 검사)란 필라델피아 염색체 내부의 암 유전자(BCR-ABL) 이상을 직접 확인해 유전자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측정하는 검사다. 유전자검사는 암 유전자가 처음 진단 시 1,000분의 1로 줄어든 상태를 뜻하는 주요 분자생물학적 반응(MMR)을 달성할 때까지 3개월마다 이후엔 3~6개월마다 시행하는 게 표준지침이다. <br/>정기검진을 통한 모니터링은 치료 순응도, 무증상 생존기간 등을 높이고, 입원율과 치료비, 증상악화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정기 유전자검사 결과, 암 유전자가 거의 검출되지 않는 상태(MR4.5단계)에 도달해야 하지만 약물 치료를 중단하고도 주기적 검사만으로 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적 완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기능적 완치는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새 치료목표가 되고 있다.<br/><br/>⑤백혈병 치료제를 먹으면 일상생활이 어렵다?<br/>그렇지 않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은 약물 치료만으로도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질환이다. 치료 초기와 약 복용에 큰 문제가 없다면 100%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다만, 정해진 시간에 약을 꾸준히 먹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한다. 2세대 치료제 도입과 다양한 임상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어 더 나은 치료 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2-305.txt

제목: “챔피언 퍼트때 아빠의 목소리가...” 대니얼 강의 사부곡  
날짜: 201707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03051249001  
ID: 01101101.20170703051249001  
카테고리: 스포츠>골프  
본문: “오늘 우승에는 아빠도 함께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승을 확정 짓는 퍼트를 하면서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다.”<br/>재미동포 대니얼 강(25)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생애 첫 승을 메이저 우승으로 장식하면서 밝힌 사부곡(思父曲)이다. <br/>대니얼 강은 3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올림피아필즈의 올림피아필즈골프장(파71ㆍ6,588야드)에서 열린 시즌 두 번째 메이저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총 상금 350만 달러) 4라운드에서 보기 3개와 버디 6개를 더해 3타를 줄였다. 최종 합계 13언더파 271타를 적어낸 대니얼 강은 디펜딩 챔피언 브룩 헨더슨(20ㆍ캐나다)을 1타차로 따돌리고 생애 처음으로 우승했다. 우승 상금은 52만5,000달러(약 6억 원). 2012년 프로 데뷔 이후 138개 대회 만에 얻어낸 열매다. 종전 메이저 최고 성적은 2012년 US여자오픈에서 기록한 공동 14위였다. <br/>1992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대니얼 강은 아마추어 시절 손꼽히는 유망주였다. 2007년 US여자오픈에 15세의 나이로 참가 자격을 얻었고, 2010년 아마추어 최고 권위의 US여자 아마추어 챔피언십 정상에 올랐다. 2011년에도 같은 대회를 제패, 1996년 켈리 퀴니(미국) 이후 15년 만에 대회 2연패를 기록했다. 당시 그에게 무릎을 꿇은 제시카 코다(23ㆍ미국)와 모리야 쭈타누깐(24ㆍ태국)은 이미 LPGA투어를 주름잡는 선수가 됐다. 그 사이 대니얼 강은 손목부상과 목 디스크로 지난 시즌 6개월을 통째로 쉬어야 했다. 이에 더해 ‘눈 백태’로 알려진 익상편 수술까지 받으며 크게 흔들렸다. 하지만 올 시즌 복귀해 샷 감각을 끌어올리며 톱10에 4차례 진입했고, 결국 생애 첫 투어 우승을 메이저 챔피언으로 이름을 새겼다. <br/>골프채널 등 외신에 따르면 대니얼 강은 메이저 우승을 결정짓는 마지막 퍼트를 앞두고 별안간 귓가에 아버지의 속삭임이 들렸다고 말했다. 2010년 US여자 아마추어 대회에서 처음 우승할 때 마지막 퍼트를 남겨두고 머뭇거리자 옆에서 “이 퍼트를 성공하면 TV를 사주마”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던 목소리가 떠올랐다는 것. 아버지 강계성씨는 대니얼 강이 2010~11 US여자 아마추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할 때 캐디 역할을 했다. 그는 “마치 아버지가 내 옆에 있는 것 같았다”며 “내게 소원이 있다면, 이 우승을 아버지가 지켜 보는 것”이라고 울먹였다. 강계성씨는 2013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대니얼 강은 그 후 오른쪽 손 우측 면에 한글로 ‘아빠’라고 문신을 새겼다. 그는 “누군가와 악수를 하면 그 사람도 우리 아빠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매일 수첩을 들고 다니며 (아빠에게) 못 부칠 편지를 눌러 쓴다. 그는 앞서 오른쪽 검지에도 ‘just be’라는 영어 문신을 새겼다. 대니얼 강은 USA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부모님이 항상 ‘있는 그대로의 네가 되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17살 때 just be라는 문신을 처음 새겼다”고 말했다. <br/>두 살 터울의 오빠 알렉스 강 역시 그의 우승에 일조했다. 연습라운드를 돌며 코스 해석에 어려움을 느끼자 미국프로골프(PGA) 2부 웹닷컴투어에서 뛰고 있는 알렉스에게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조언을 구했다. 덕분에 대니얼 강은 4라운드 내내 60대 타로 선방할 수 있었다. 우승을 확정 지은 직후 왈칵 눈물을 쏟아내며 어머니 그레이스 리를 끌어안은 대니얼 강은 “그들이 없으면 나도 없다”며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br/>대니얼 강은 두둑한 배짱과 활달한 성격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대니얼 강은 이날 10번 홀에서 보기를 범하며 3위로 밀려났지만, 이후 4연속 버디를 낚으며 선두 자리를 탈환했다. 특히 13번홀(파4)에서 친 어프로치 샷이 크게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함박웃음을 지어 보였다. 이어 7m 거리의 긴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흐름을 탔다. <br/>한편, 전날까지 공동 선두를 지켰던 최운정(27ㆍ볼빅)은 합계 10언더파 274타 3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김세영(24ㆍ미래에셋)과 양희영(28ㆍPNS창호), 이미향(24ㆍKB금융그룹) 등이 9언더파 275타로 공동 4위에 올랐다. 세계랭킹 1위 유소연(27ㆍ메디힐)은 4언더파 280타로 공동 14위에 머물렀지만 경쟁자들의 부진으로 왕좌는 지켰다. <br/><br/>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06.txt

제목: [이 상품 어때요]알리안츠 ‘처음부터끝까지우리아이보장보험’ 外  
날짜: 201707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03051156001  
ID: 01101101.20170703051156001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알리안츠생명, 평생보장 어린이보험 출시<br/>알리안츠생명이 자녀의 평생보장을 위한 어린이보험인 ‘(무)처음부터끝까지우리아이보장보험’을 출시했다. 자녀가 태아일 때부터 노년까지 한 가지 보험으로 주계약 보험료 변동 없이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중도급부형을 선택하면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는 시점에 맞춰 일정금액을 입학자금으로 받는다. 골절, 입원, 수술, 암을 포함한 중대한 질병, 항암치료, 치아치료비와 같은 의료보장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포함한 재해 및 유괴, 납치, 폭행, 강도 등과 같은 범죄 피해보장까지 담았다. <br/><br/>KB증권, 주식ㆍ펀드 등 통합관리계좌 출시 <br/>KB증권이 하나의 계좌에서 국내외 주식은 물론 주가연계증권(ELS), 펀드,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대안투자상품 등 다양한 투자자산을 거래하고 관리할 수 있는 맞춤형 통합관리계좌 ‘KB able Account’를 출시했다. 계좌 유형에 따라 최소가입금액을 최소 1,000만원(자산배분형 3,000만원)부터 투자할 수 있고, 계약기간은 1년에 만기시 자동연장 된다. 윤경은(오른쪽) 사장이 서울 여의도 영업부를 방문해 첫 번째 고객으로 가입했다. <br/><br/>신한은행, 온라인 직장인 신용대출 출시<br/>신한은행이 직장인을 대상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과 인터넷뱅킹으로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가능한 '신한 S드림 신용대출'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고객이 영업점에서 재직ㆍ소득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개발됐다. 대출 대상은 공무원, 군인, 사립초ㆍ중ㆍ고 교사 및 신한은행에서 선정한 업체에 1년 이상 재직중인 연소득 3,000만원 이상의 급여소득자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 대출금리는 2.45%~5.45%(6월 29일 기준)다.

언론사: 한국일보-2-307.txt

제목: [편집국에서]문 대통령, 일본 원전 사망자 발언 진실은  
날짜: 201707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03050719001  
ID: 01101101.20170703050719001  
카테고리: 국제>일본  
본문: 한창만 지역사회부장 cmhan@hankookilbo.com<br/><br/>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span class='quot0'>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span>”고 한 발언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논란은 이 숫자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의 직접적인 연관을 짓기 어렵다고 일본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br/>문 대통령의 발언에 일본 정부는 “<span class='quot1'>정확한 이해 없이 발언한 내용이라 매우 유감스럽다</span>”는 뜻을 전달했고,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은 ‘근거 없는 숫자에 입각한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문 대통령 공격에 나서는 형국이다. 결국 청와대는 원전 관련 사망자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관련’이라는 단어가 빠졌다고 한발 물러섰다. <br/>이쯤에서 과연 문 대통령의 발언이 틀린 팩트에 입각한 것인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br/>일본 정부가 분류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사망자란 원전사고로 유출된 방사능 물질에 피폭돼 암이나 각종 질병에 걸려 숨진 사람을 뜻한다. 일본 정부는 사고 발생 이후 지금까지 여기에 해당하는 사망자는 단 한명도 없다고 주장한다. <br/>하지만 일본 정부의 주장에는 적지 않은 논리적 오류가 존재한다. 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차례 현장을 방문, 삶의 터전을 잃고 고향에서 수십㎞ 떨어진 낯선 곳에 지어진 가설 주택에서 힘겹게 생활하는 많은 원전 이재민을 만났다. 하루 아침에 고향을 잃은 상실감에 힘들어했고, 육안으로는 멀쩡한 고향산천의 모습을 눈앞에 두고도 높은 방사선 수치 때문에 등져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괴로워했다. 상당수 이재민이 고령자임은 사실이지만, 살아서 다시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결국 죽음으로 내몰렸다. 1,386명 전부는 아닐지언정, 상당수는 원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보다 오래 삶을 영위할 수 있었을 사람들이다. <br/>지난 해 발생한 경주 지진 이후 관심이 뜨거워진 탈원전 문제와 관련, 국내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지진과는 무관하다며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도후쿠 대지진 당시 들이닥친 쓰나미가 원전내부 전력공급원을 침수시킨 것이 근본 원인이다. 하지만 상당수 일본 유력 언론은 지진의 직접적 영향으로 원자로 내부에 금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원자로 내부의 정확한 상태를 조사하기 전까지는 지진과 원전사고가 100% 관련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br/>굳이 이웃 일본의 원전 사고 사례를 장황하게 설명한 것은 남의 동네 이야기쯤으로 여겨지던 탈원전 문제가 현 정권 들어 주요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어서다. 일단 장기적으로 탈원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공감한다. 경주 지진을 계기로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된 이상 동해안에 밀집한 원전의 100% 안전을 신뢰하기 어렵게 됐다. <br/>반면 당장 가동을 중단할 경우 전기료 인상 등 소비자의 직접 부담이 발생하며, 장기적으로 원전을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이 굼뜬 현실에서 섣부른 탈원전 정책이 불러올 사회적 손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문 대통령이 현재 건설중인 신고리 5ㆍ6호기의 가동중단 여부를 공론화하겠다고 발언을 우려하는 시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br/>문 대통령이 던진 탈원전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자리잡았다. 제안 과정이 너무도 갑작스러워 적지 않은 논란도 있었지만 이미 던져진 문제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br/>대신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현 정권내에 결론을 내기 위해 서둘러서는 더욱 안 된다. 탈원전 여부는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인 만큼 정치적 문제로 비춰져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언론사: 한국일보-2-308.txt

제목: WHO가 인정한 지카 진단키트.. 다국적기업과 당당히 경쟁  
날짜: 201707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702050618002  
ID: 01101101.20170702050618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1<br/>분자진단기술로 가격 75% 낮춰<br/>탄자니아 감염 실태조사 사용 중<br/>유엔인구기금, 유니세프도 문의<br/><br/>#2<br/>연 매출 40% 연구개발에 투자<br/>올해 첫 흑자전환 기대<br/>2019년 RNA기술 임상시험 계획<br/><br/><br/>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는 브라질 리우올림픽 기간 지구촌을 공포로 몰아넣은 지카바이러스와 그 친척뻘인 뎅기열, 치쿤구니아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한꺼번에 진단할 수 있는 키트에 대해 처음으로 긴급사용 승인했다.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는 상황일 때 각국에 배포하는 제품 명단에 올렸다는 의미다. 이 키트를 개발한 기업이 바로 국내 바이오벤처 1호 바이오니아다. 함께 긴급사용 승인 명단에 오른 독일 알토나진단의 제품은 지카바이러스 감염만 가려낼 수 있다. <br/>바이오니아가 세계 최초로 WHO 긴급승인을 받은 지카바이러스 다중진단키트는 현재 탄자니아의 감염 실태조사에 쓰이고 있다. 유엔인구기금(UNPF)과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들의 제품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박한오 바이오니아 대표는 “<span class='quot0'>자체 개발한 B형과 C형 간염, 후천성 면역결핍증(에이즈) 진단 키트도 올해 아시아 기업 최초로 유럽에서 사용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우리의 분자진단 기술은 유명 다국적기업들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자부한다</span>”고 말했다. <br/>환자의 증상이나 의사의 경험을 토대로 병을 판단하던 기존 진단 방식과 달리 분자진단은 특정 유전자나 단백질을 분석해 발병 여부를 알아내는 기술이다. 진단의 신뢰도와 정확도가 높을 뿐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대규모 진단이 가능해 특히 사람 간에 확산하는 지카바이러스나 에이즈, 간염, 결핵 같은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필수로 자리 잡고 있다. <br/>국제사회가 바이오니아의 분자진단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의료의 공공성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바이오니아 분자진단 키트 가격은 애보트나 로슈, 지멘스 같은 다국적기업 제품의 4분의 1 정도다. 소수 대기업이 고집하던 비싼 가격을 감당할 수 없어 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에는 분자진단의 혜택이 충분히 돌아가지 못했다. 박 대표는 “<span class='quot0'>핵심 기술을 직접 개발해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비싼 로열티 지불 없이 제품을 자체 조달할 수 있어 가격경쟁력이 높다</span>”고 설명했다. <br/>이만한 기술력을 갖출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단연 연구개발 투자다. 바이오니아는 2000년 이후 해마다 매출액의 약 40%를 연구개발에 쏟아부었다. 지난해 바이오니아의 매출액은 약 210억원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1호 기술창업 기업으로 1992년 첫 발을 뗀 뒤 유전자(DNA) 합성 기술과 관련 효소를 판매하면서 흑자 행진을 이어가던 바이오니아는 공격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시작하면서 적자의 늪에 빠졌다. 게다가 2000년대 초 미국과 영국이 인간 유전자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유전자 특허를 확보해 사업을 확대하려던 계획도 틀어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약 100억원을 들여 지은 DNA 합성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다. “<span class='quot1'>투자받은 돈을 화재 복구에 쓰면서 인력 구조조정까지 해야 했기에 주변에선 회사가 지속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도 많았다</span>”고 박 대표는 회상했다. <br/>그래도 ‘상용 유전자 기술의 완전 국산화’라는 창업 목표는 포기하지 않았다. 기존 DNA 분석 서비스를 고도화, 다양화하면서 또 다른 유전자인 RNA, 분자진단, 유산균 등으로 연구개발 폭을 넓혔다. 갖가지 난관을 뚫고 확보한 이들 기술에 최근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WHO 등재와 함께 분자진단 기술 상용화가 가시화한 걸 계기로 올해 바이오니아는 흑자 전환을 바라보고 있다. 모유에서 분리한 락토바실러스 유산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제품으로 출시됐다. “<span class='quot1'>한 달 동안 생산한 유산균 제품 5,000병이 5분 만에 팔려나갈 정도로 반응이 좋아 국내는 물론 미국과 유럽에 대량생산 체계를 갖춰 오는 10월부터 추가 공급을 시작할 계획</span>”이라고 박 대표는 말했다. <br/>RNA 기술에 거는 기대도 크다. 세포의 생존과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RNA가 인체 내에는 약 2,600가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바이오니아는 이 중 약에 내성이 생긴 폐암 세포를 죽이는 능력을 가진 마이크로RNA를 선별해 특허를 받았다. 암 치료의 최대 장벽인 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확보한 셈이다. 2019년 마이크로RNA 임상시험을 시작하기 위해 7월부터 관련 설비 투자에 들어갈 예정이다. 바이오니아는 남성형 탈모의 원인이 되는 모근의 특정 단백질만 콕 집어 공략하는 RNA도 찾아냈다. 남성호르몬을 억제하는 일반적인 탈모 치료제를 쓰면 머리카락은 나지만 여성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 RNA로 탈모 방지제를 개발하면 부작용 걱정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br/>바이오니아가 생명공학의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 중 3가지가 노벨상을 받은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1962년 수상한 DNA의 이중나선 구조, 1993년 DNA 증폭 반응, 2006년 RNA 조절 기능 등이다. 모두 바이오니아가 국내에서 처음 출시한 제품이나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앞만 보고 달려온” 바이오벤처 1세대로서 뿌듯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강점으로 작용했던 기술 다양성이 기업 규모가 커지면서 집중력을 떨어뜨려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게 요즘 박 대표의 걱정이다. 안고 갈 분야와 독립시킬 분야를 냉정히 구분해야 할 시기다. “<span class='quot1'>지난 25년 동안 이겨낸 수차례 위기를 교훈 삼아 미래 분자진단 시장의 개척자가 되겠다</span>”고 박 대표는 다짐했다.<br/>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09.txt

제목: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전 국민 확대하면 연간 16만명 수혜”  
날짜: 201706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30050909003  
ID: 01101101.2017063005090900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저소득층의 중증질환자에 한정해 지원하는 이른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전 국민과 전체 질환으로 확대하면 연간 16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30일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방안’ 연구보고서(임승지 부연구위원)를 보면, 전 국민 모든 질환에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해서 지원기준을 마련해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지원대상은 지금보다 10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br/>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7만명, 차상위 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계층) 2만명, 건강보험 가입자 7만명 등이다. 현재는 연간 1만6,000명 가량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2,837억원 가량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지원금액은 520억원 가량이다. <br/>재난적 의료비는 가구의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의료비지출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3년 8월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ㆍ심장병ㆍ뇌혈관질환ㆍ희귀난치질병 등 4대 중증질환과 중증화상으로 인한 과도한 본인부담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에 허덕이는 저소득층 가구에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br/>복지부는 애초 이 사업을 2015년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지속 시행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아 2017년까지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나아가 2018년부터 이 사업을 제도화한다는 목표 아래 지원대상과 지원 수준, 지원 범위, 재원 조달방식 등을 검토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특별법 형태로 제정할 계획이다.<br/>지난 3년 5개월간(2013년 8월~2016년 12월)의 이 사업으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5만8,567명이며, 지원금액은 1,760억3,300만원이었다.<br/>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10.txt

제목: 점점 젊어지는 유방관련 질환 정기검진은 필수  
날짜: 201706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29051330001  
ID: 01101101.20170629051330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구미시 인동에 사는 유현자(21·가명)씨는 갑상선, 유방암 검사를 하려고 영상의학과에 내원했다. 검사결과 유방에 종양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평소 자가 검진을 했을 때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던 터라 진단결과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br/>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유방관련 질환을 받은 여성이 2001년 약 7,000여명에서 2011년 약 1만 7,000여명으로 늘어났다. 또 2015년 유방암 또는 암 의심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4,772명으로 집계될 만큼 유방암 진단을 받는 이들이 늘었다.<br/>윤정해 외과 전문의는 “<span class='quot0'>정확한 검진 전에는 종양인지 암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자가검진에 만족하지 말고 정기검진나 정밀검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span>”고 말했다.<br/>유방암이란 유방에 생긴 암 세포로 이루어진 종괴(만져지는 덩어리)이다. 종괴는 유방암의 증상 가운데 가장 많은 증상으로 덩어리가 만져질 때는 유방암 감별이 필요하다. 유방암의 생존율은 초기의 경우 100%에 가깝지만 4기의 경우 20% 미만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치료법은 조기발견이다. <br/><br/><br/>유방관련 검진은 유방진찰, 유방촬영을 기본으로 유방 초음파 검사가 있다. 특별한 경우에는 자기공명검사(MRI)나 단층촬영(CT)등을 시행하기도 한다. 조직검사가 필요할 때는 맘모톰을 이용해 미세침을 삽입해 원하는 조직을 떼어내기도 한다. 때문에 맘모톰을 초음파와 함께 연동하면 정밀한 검사가 가능하다. 또 검사에 사용되는 바늘이 3mm 정도이기 때문에 통증이 거의 없다. <br/>김천에서 유방암 검진을 받기 위해 내원한 한 환자는 “유방에 몽우리가 만져져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진을 받으러 왔다”고 말했다.<br/>윤 전문의는 “<span class='quot1'>유방질환의 발병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90%이상 완치가 가능하다</span>”며 “<span class='quot1'>정기검진이 가장 확실한 치료책</span>”이라고 강조했다.<br/>김민규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11.txt

제목: [새 책] 나의 사촌 레이첼 外  
날짜: 201706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29051211003  
ID: 01101101.20170629051211003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문학<br/>▦나의 사촌 레이첼<br/>대프니 듀 모리에 글ㆍ변용란 옮김. 목이 매달린 사형수의 기억으로부터 시작하는 소설. 독자의 예상을 끊임없이 뒤집으며 반전을 이어나간다. 20세기 영국 최고 이야기꾼으로 불리는 작가의 대표 미스터리 고전. 현대문학ㆍ572쪽ㆍ1만4,800원<br/>▦비하인드 도어<br/>B. A. 패리스 글ㆍ이수영 옮김. 완벽해 보이는 결혼이 실은 거짓이라면? 100만부 이상 판매됐고, 굿리즈 최고 데뷔 소설상을 받으며 대중성과 작품성을 겸비한 책. 치밀한 복수를 소재로 한 스릴러. 아르테ㆍ324쪽ㆍ1만4,000원<br/>▦찰스 디킨스 런던의 열정<br/>헤스케드 피어슨 글ㆍ김일기 옮김. 디킨스의 삶 자체가 한 편의 소설을 방불케 한다. 디킨스의 작품세계와 삶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는지, 그가 영미문학의 대들보가 된 과정을 그린다. 뗀데데로ㆍ616쪽ㆍ2만5,000원<br/>▦천 명의 눈 속에는 천 개의 세상이 있다<br/>가오밍 글ㆍ이현아 옮김. 정신질환자 50명이 묻는다. ‘도대체 이 세상은 뭘까요?’ 평범한 우리가 어쩌면 다른 각도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성찰이 담긴 책. 한빛비즈ㆍ584쪽ㆍ1만7,000원<br/>교양ㆍ실용<br/>▦바이오사이언스의 이해<br/>이기형 외 지음. 4기 암환자였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키트루다라는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고 완치 판정을 받았다. 전 세계 뜨거운 감자인 바이오 의약의 원리부터 한국 바이오 산업의 현황까지 정리했다. 바이오스펙테이터ㆍ368쪽ㆍ2만5,000원<br/>▦민주주의 살해하기<br/>웬디 브라운 글ㆍ배충효 외 옮김. 오늘날 민주주의는 살해당하고 있지만, ‘살해자들’은 오히려 민주주의가 유일한 가치라고 부르짖는다. 자유민주주의에 신자유주의라는 모호한 개념이 섞이는 과정을 분석한 책. 내인생의책ㆍ392쪽ㆍ1만9,000원<br/>▦인류는 어떻게 기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br/>윌리엄 F. 러디먼 글ㆍ김홍옥 옮김. 지구 온난화는 산업혁명으로 시작돼 200여 년 사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1만2,000년 전 농업이 도입된 이후부터라는 주장을 다룬다. 에코리브르ㆍ384쪽ㆍ2만0,000원<br/>▦삶의 의미<br/>알프레드 아들러 글ㆍ김세영 옮김. 작가는 행동이라 불리는 ‘움직임’의 법칙을 파악하면 사람의 정신병을 고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산다는 것은 곧 스스로를 발달시키는 것이다’란 철학을 추구했던 작가의 삶. 부글북스ㆍ312쪽ㆍ1만6,000원<br/>▦비트코인 현상, 블록체인 2.0<br/>마이클 케이시 외 글ㆍ유현재 외 옮김.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 견해에도 비트코인을 둘러싼 ‘블록체인’ 기술의 관심은 식지 않고 있다. 바뀌지 않는 사실은 ‘가상화폐가 만들어졌으며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미래의창ㆍ472쪽ㆍ1만8,000원<br/>아동ㆍ청소년<br/>▦빨간펜<br/>사와이 미호 글ㆍ전혜원 옮김.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안 된다는 유명한 괴담을 쫓아가는 주인공. 어떤 이야기라도 그 속엔 삶을 지탱하는 힘이 녹아있음을 깨닫는다. 성장하는 사춘기 아이들의 모험이야기. 주니어RHKㆍ140쪽ㆍ1만원<br/>▦내가 할아버지를 유괴했어요<br/>안드레아스 슈타인회펠 글ㆍ김희상 옮김ㆍ넬렘 팜탁 그림. 점차 기억을 잃어가는 할아버지와 탈출해 모험을 떠나는 주인공의 가슴 따뜻한 사랑 이야기. 아름다운사람들ㆍ76쪽ㆍ1만1,000원<br/>▦마을에서 살려낸 우리말<br/>최종규 글ㆍ강우근 그림. 패스트푸드는 ‘빠른 밥’, 근린공원은 ‘이웃공원’으로 부르면 우리 말에 담긴 뜻이 더 잘 전달된다. 마음을 아름답게 전달 할 수 있는 우리말의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 철수와영희ㆍ204쪽ㆍ1만3,000원<br/>▦생각의 주인은 나<br/>오승현 글ㆍ안병현 그림. 합리성이 필요한 영역은 개인의 이익을 위하는 것에서 그칠까? 늘 합리적인 것은 아닌 우리들이 깨달아가는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공정한 세상이다. 풀빛ㆍ296쪽ㆍ1만5,000원

언론사: 한국일보-2-312.txt

제목: 풀려난 류샤오보 “죽더라도 외국서 죽겠다”  
날짜: 201706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29051201001  
ID: 01101101.20170629051201001  
카테고리: 국제>중국  
본문: 中 당국에 해외 치료 요청<br/><br/><br/><br/> 최근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가석방된 중국의 인권활동가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劉曉波·61)가 해외에서 치료받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r/>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인의 말을 인용해 류샤오보와 그의 가족이 중국 당국에 해외에서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류샤오보 부부와 가까운 인권운동가 예두(野渡)는 “부부가 해외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당국에 전했다”며 “이들은 미국에 가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br/>2011년 독일로 망명한 중국 반체제 작가 랴오이우(廖亦武)도 류샤오보의 부인인 류샤(劉霞)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면서 “류샤오보와 그의 가족이 중국을 떠나는 것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샤오보는 죽더라도 외국에서 죽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홍콩에 기반을 둔 인권단체 중국인권민주화운동정보센터는 류샤오보의 처남을 인용해 류샤오보의 가족이 해외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기를 바라고 있다고 확인하기도 했다. <br/>류샤오보는 2008년 공산당 일당체제 종식을 요구한 ‘08헌장’ 서명 운동을 주도하는 등 꾸준히 중국 정부에 저항하다 2009년 국가전복 선동죄로 11년형을 선고받고 랴오닝성의 한 감옥에 수감됐다. 2010년 중국 민주화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지난달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아 가석방됐으며, 현재는 중국 선양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br/><br/>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13.txt

제목: 신성일 “처음 가보는 ‘암세포 세계’, 또 다른 도전”  
날짜: 201706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28051204002  
ID: 01101101.20170628051204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아이구, 건강하지, 그럼.”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원로배우 신성일(80)의 목소리는 꼿꼿하고 활기찼다. 병색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br/>신성일은 최근 폐암 3기 진단을 받았다.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와 병원을 찾았다가 암세포를 발견했다. 30일부터 항암치료를 시작한다. 신성일은 “<span class='quot0'>서울 삼성의료원에서 5주간 방사선 치료를 받을 예정</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폐암 3기에서 2기로 증상이 완화된 뒤 수술 여부를 결정할 것</span>”이라고 28일 밝혔다.<br/>신성일은 경북 영천시에 거주하고 있다.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TV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흡연도 하지 않는다. 그는 “<span class='quot0'>부친이 폐결핵으로 돌아가셨다</span>”며 “<span class='quot0'>폐암 발병은 유전적 요인 때문인 듯하다</span>”고 했다. 또 “영천 자택에 마련한 기도실에 늘 향을 피웠는데 독한 연기도 한 가지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고 덧붙였다.<br/>“평소 건강 관리를 잘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폐암 3기라고 하니 녹초 상태의 환자를 떠올리겠지만 저는 아주 강건합니다. 폐 말고 다른 부위는 튼튼해요. 치료 잘 받아서 암을 이겨내야지요.”<br/>신성일은 암 투병을 또 다른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평생 영화배우로 살아오며 500여 작품에 출연했어요. 전 세계 각지를 누볐지요. 국회의원도 하고 감옥 생활도 해봤어요. 도전 정신이 충만합니다. 지금부터는 한번도 가보지 못했던 ‘암세포의 세계’에 도전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입문자니까 조심스럽게 시작해야지요.”<br/>아내인 원로배우 엄앵란도 2015년 한 건강 프로그램 녹화를 위해 건강 검진을 받았다가 유방암이 발견돼 수술을 받았다. 신성일은 엄앵란이 투병하는 동안 곁을 지키며 간병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br/>신성일은 통원치료를 위해 서울 마포구의 자택에 머물고 있다. 항암치료를 앞두고도 영화인으로서 새로운 계획들을 구상하고 있다. 29일엔 서울 상암동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열리는 원로배우 김지미의 데뷔 60주년 기념 특별상영전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그는 “2년 뒤엔 나도 데뷔 60주년을 맞는다”며 “내 특별전에도 꼭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선 그의 회고전이 열린다. 신성일은 “<span class='quot0'>완치까지는 아니어도 건강한 모습으로 부산을 찾는 관객들을 만날 것</span>”이라며 다시 한번 의지를 다졌다. <br/><br/>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14.txt

제목: 50년간 모은 9000만원 기부한 할머니 행복나눔인상 받는다  
날짜: 201706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28051131001  
ID: 01101101.20170628051131001  
카테고리: 지역>대전  
본문: 50년간 보따리 장사를 하며 모은 전 재산을 기부한 70대 할머니 등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온 이들이 ‘행복나눔인’으로 선정됐다. <br/> 보건복지부는 28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한 개인 43명과 민간봉사단체 10곳을 올해의 행복나눔인으로 선정하고 29일 시상식을 열기로 했다. 이 상은 금전이나 물품기탁, 재능기부, 자원봉사, 헌혈ㆍ장기기증 등으로 사회의 귀감이 된 개인과 기업, 단체에 주는 상으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2011년부터 시상하고 있다. <br/>행복나눔인으로 선정된 서부덕(77) 할머니는 25세 때부터 보따리 장사를 하며 모은 8,000만원을 지난해 10월 충남 보성군 장학재단에 내놨다. 올해 5월에는 보성군 벌교읍의 경로당 2개소에 냉장고를 기부하고 복지관엔 1,000만원과 쌀 20가마를 기부하기도 했다. <br/>배우 한지민(35·여)씨도 2007년부터 국제구호단체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머리카락(암 환자), 책 2만권(군 장병), 목소리(시각장애인용 영화), 손글씨(외국인 한글학습용 앱) 등을 기부해 행복나눔인으로 뽑혔다. <br/>부산의 고등학생 9명이 모인 봉사동아리 ‘연포나눔천사’도 단체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들은 2010년 부산 남구 연포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연탄 나눔 자원봉사를 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용돈을 모아 지역의 독거노인 및 양로원에 연탄, 간식비 등 500만원의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퀼트 바느질을 취미로 하는 30여명이 모인 ‘아봉공방’도 2006년부터 전시회를 열어 작품을 판매한 수익금 7,500만원을 장애인 단체와 저소득 가정 청소년에게 지원했다.<br/>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15.txt

제목: 신성일, 폐암 3기 진단...현재 방사선 통원 치료  
날짜: 201706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28051003002  
ID: 01101101.20170628051003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배우 신성일(80)이 폐암으로 투병 중이라고 전해졌다.<br/><br/>28일 한 매체에 따르면 신성일은 1개의 종양이 발견되며 폐암 3기로 진단받았다. <br/><br/>신성일은 최근 심해진 기침으로 한 종합병원에서 폐 조직 검사를 받았고 이와 같은 결과를 들었다. <br/><br/>병원 측은 당장 수술보다는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로 종양의 크기를 줄인 뒤 수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성일은 현재 통원 하며 방사선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br/><br/>앞서 아내인 엄앵란 역시 2015년 유방암이 발견된 바 있다. 현재 엄앵란은 수술 후 암 재발을 막는 호르몬 치료제를 복용하면서 자택 요양 중이다.<br/><br/>한편 신성일은 1960년 영화 ‘로맨스 빠빠’로 데뷔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br/><br/><br/><br/>이주희 기자 leejh@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16.txt

제목: “강의실 이름으로 교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날짜: 201706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27051256002  
ID: 01101101.20170627051256002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유족이 학교에 장학금 기탁<br/> 고려대 세종캠퍼스에<br/>‘故 전태웅 강의실’ 생겨<br/><br/> 암으로 예순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난 교수의 유족들이 근무하던 대학에 수억 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대학 측은 이 교수의 이름을 딴 강의실을 만들어 고인과 유족의 뜻을 기렸다.<br/>27일 고려대 세종캠퍼스에 따르면 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학과 전태웅 교수가 지난 3월 14일 암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br/>전 교수는 1981년 서울대 계산통계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일리노이 공대에서 컴퓨터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1995년부터 올해까지 22년간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근무했다. 대학 측은 평소 연구에 대한 열의와 제자 사랑이 남달랐던 전 교수의 갑작스런 유명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br/>이런 전 교수의 열정을 잘 아는 유족은 후진 양성에 써 달라며 학교에 2억5,000만원의 장학금을 선뜻 내놨다. 전 교수의 동생 찬웅씨는 앞으로 10년간 매년 2,000만원씩 장학금을 내기로 약속했다. 찬웅씨는 “형님이 생전에 애정을 갖고 몸담았던 대학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장학금 기부를 약정했다”고 말했다.<br/>대학 측은 고인과 유족의 뜻을 기리고, 감사를 전하기 위해 강의실 한 곳에 전 교수의 이름을 붙였다.<br/>선 부총장은 “<span class='quot0'>전 교수는 본교에서 후학 양성과 연구에 전념하시며 모두의 귀감이 되신 분</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우리 모두 전 교수님을 잊지 않고, 음수사원(飮水思源)의 정신으로 교육에 매진하겠다</span>”고 말했다.<br/>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17.txt

제목: “대마를 합법화해 주세요”  
날짜: 201706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27051221002  
ID: 01101101.20170627051221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의료용 대마 합법화’ 주장 상설 시민단체 설립된다 <br/><br/>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위한 시민단체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그간 대마 합법화를 지지하는 문화 예술인 모임 등이 있긴 했지만 상설 시민단체가 설립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br/>‘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 창립준비위원회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29일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미래청에서 창립대회를 가진다고 밝혔다.<br/>준비위원회는 “<span class='quot0'>의료용 대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할 수 없어 고통으로 신음하는 환자들을 위해 즉각적인 의료용 대마 도입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span>”이라고 밝혔다.<br/>준비위원회의 강성석(38) 목사는 “<span class='quot1'>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대마가 의료용 또는 여가용으로 합법화, 비범죄화 되어가고 있지만, 한국은 스스로 대마로부터 고립, 단절시키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국회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부처에서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span>”고 주장했다. <br/>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의료용 대마는 폐를 통해 흡수하는 것 이외에 알약, 오일, 연고, 패치, 스프레이, 드링크 등 종류가 다양하다. 각종 암과 파킨슨병, 발작, 치매, 관절염, 비만, 불안장애, 천식, 심혈관계질환, 신경질환, 정신질환 등과 관련한 대마의 유효성을 입증한 의학 논문만 미국에서 1만5,000건이 넘는다는 것이 준비위원회의 주장이다. <br/>현재 국내에선 의료용 여부를 불문하고 대마 사용이 관련 법과 시행령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된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의료용 대마를 처방 받거나, 국내에서 해외 직구를 통해 대마 관련 물품을 구입해도 처벌 대상이다. <br/>경남이주민센터 쉼터교회에서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주 여성 등을 상대로 목회를 했던 강 목사는 최근 허리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진통제로 아편 계통 약물이 사용되는 것을 보고 의료용 대마 합법화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강 목사는 “<span class='quot2'>관련 연구에 따르면 대마는 술이나 담배보다도 중독성이 낮은데 훨씬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2'>일단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여가용을 포함해 대마 완전 합법화를 주장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18.txt

제목: 유아인 軍면제 사유 골육종, 연간 100명 발생하는 암  
날짜: 201706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27051128004  
ID: 01101101.20170627051128004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유아인의 군 면제 사유인 골육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br/><br/>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에 따르면 골육종은 뼈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우리나라에서 연간 약 100명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팔, 다리, 골반 등 인체 뼈 어느 곳에나 발생할 수 있으나 흔히 발생하는 부위는 무릎 주변의 뼈다. 암이 있는 부위가 아프거나 붓는 것이 흔한 증상이다.<br/><br/>골육종 환자의 대부분은 발병 원인을 갖고 있지 않고 발병 원인을 찾을 수 없다. 흔히 암의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흡연, 잘못된 식이 습관 등은 골육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br/><br/>팔다리 통증과 종창(부종)으로 그 증상이 나타난다. 타박상을 입었을 때 통증에 비해 증상이 오래 지속되고 심해지는 경향이 있으나 모든 골육종에서 통증이 동반되는 것은 아니다. <br/><br/>골육종은 수술, 항암 약물, 방사선 등으로 치료한다. 치료 방법의 선택은 발생 부위, 전이 유무, 재발 유무,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br/><br/>한편 27일 소속사 UAA에 따르면 유아인은 골육종으로 인해 이날 병무청으로부터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br/><br/><br/><br/>강희정 기자 hjk0706@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19.txt

제목: “암 생존자의 조언이 암 극복에 큰 힘”  
날짜: 201706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26051111002  
ID: 01101101.20170626051111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윤영호 서울대병원 교수팀, 암 코칭 프로그램 개발<br/><br/>암을 이긴 환자가 다른 환자의 암 극복을 조언하면 큰 힘이 된다는 연구결과와 함께 관련 프로그램이 개발됐다.<br/>윤영호 서울대병원 암통합케어센터 교수팀이 국내 9개 상급종합병원 의료진과 함께 ‘건강리더십과 코칭(LEACH)’ 프로그램을 개발, 임상현장에 시험 적용한 결과,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 ‘바이오메드센트럴 캔서(BioMedCentral Cancer)’ 최근호에 실렸다.<br/>국내 암경험자는 130만 명으로, 상당수가 운동부족 등 잘못된 건강습관을 가졌거나, 과체중, 스트레스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투병 중 겪는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고 암 극복에 도움이 되는 몸 만들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br/>미국의학연구소도 암 경험 및 생존자가 늘면서 암을 만성질환처럼 관리하는 새로운 치료모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span class='quot0'>암환자 스스로가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는 ‘자기경영’ 역량을 키워야 한다</span>”고 했다.<br/>윤 교수팀이 개발한 LEACH는 완치 판정을 받은 암환자(치료 후 5년 이상 생존)가 치료가 끝난 암경험자를 지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연구팀은 ‘건강파트너’와 ‘건강마스터’를 각각 훈련시켰다. 건강파트너는 암완치자로 암경험자가 치료 후 스스로 암을 극복하도록 신체건강은 물론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등에 코칭을 제공한다. 건강마스터는 이 건강파트너에게 의학적 자문을 하는 의료진과 코칭 전문가로 구성됐다.<br/>연구팀은 2012~2013년 암경험자 206명(치료 후 2년 이내)을 실험군(134명)과 대조군(72명)으로 나눠 LEACH의 유효성을 검증했다. 실험군과 대조군이 1 대 1이 아닌 이유는 본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으며, 더 많은 환자(실험군)에게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 <br/>윤 교수는 “<span class='quot1'>실험군과 대조군이 1 대 1인 경우가 많지만, 이번 연구와 같이 동일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다</span>”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br/>실험군에는 건강교육자료와 리더십 강화 워크숍, 16회에 걸친 건강파트너의 전화코칭 등 LEACH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대조군에는 일반적인 암 치료 후 관리를 받게 했다. 대신 건강교육자료와 리더십 강화 워크숍은 제공했다.<br/>그 결과, LEACH 프로그램을 시행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3개월 후 불안, 사회적 기능, 식욕, 경제적 어려움 등의 개선효과가 상대적으로 컸다. 12개월 후에는 피로, 건강습관 등이 더 좋아졌다.<br/>윤 교수는 “암 치료 직후는 동기부여가 강해 건강습관을 개선하기에 좋은 시기다. 이번 연구는 암환자가 다른 암환자의 건강경영을 코칭한 최초의 연구”라며 “이 연구가 암을 이겨낸 생존자와 암환자 간의 파트너십 형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2-320.txt

제목: 사내 봉사단체 39개… 사장 직속 ‘사회공헌단’이 컨트롤타워  
날짜: 201706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25050640001  
ID: 01101101.20170625050640001  
카테고리: 경제>경제일반  
본문: ‘3만3,045시간, 2,840명, 2,208회.’<br/>지난 한 해 NH투자증권 임직원들이 펼친 봉사활동과 관련된 숫자들이다. 해외 현지법인으로 나간 일부 직원을 뺀 전 직원이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한 셈이다. 직원 1인당 봉사활동 시간으로 따지면 대략 11시간에 달한다. 최근 국내 기업들도 사회공헌 비중을 점점 늘리는 추세이긴 하지만 NH투자증권은 국내 기업 중에서도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 <br/>NH투자증권은 단순히 때맞춰 기부금을 내놓는 식이 아니라 김원규 대표이사부터 임직원들까지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스스로 사회공헌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는 조직 문화가 갖춰져 있다. 일찍부터 차별화한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 온데다가 사원으로 입사해 대표가 된 최초의 내부 출신 사장인 김 대표이사가 맏형처럼 봉사활동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br/>NH투자증권은 2005년부터 사회공헌 활동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0년엔 아예 사장 직속의 사회공헌사무국(현 사회공헌단)을 꾸렸다. 업계를 대표하는 선도 증권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를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NH투자증권은 사회공헌 활동 컨트롤타워 격인 사회공헌단 덕분에 사내봉사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천사펀드, 희망나무 장학금제도와 같은 간판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br/>사회공헌단은 사내 39개 봉사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봉사단체들은 교육ㆍ아동복지, 사회복지, 지역사업 등 지역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렇다면 봉사활동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는 걸까. 사내 봉사단에 소속된 임직원들은 매달 급여의 일정 금액을 기부한다. 여기에 회사가 추가로 지원금을 보태 사회공헌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한다. 대부분의 회사가 수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떼는 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다. 직원들도 함께 기금을 조성하다 보니 당연히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NH투자증권 사회공헌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상반기 기준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한 시간은 1만47시간에 달한다. <br/>NH투자증권은 이와 별개로 2005년부터 자발적 사내 기부금 모금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일명 ‘천사펀드’다. 이 제도에 가입한 임직원들이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후원금으로 기부하면 회사에서도 일정 금액을 더해 함께 지원하고 있다. 모은 기부금은 결식아동 결연사업, 소아암재단 환아 수술비 및 치료비 지원, 농촌지역 의료ㆍ건강지원사업 등 크게 3가지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br/>‘희망나무 장학금’은 우리 사회의 꿈나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2005년부터 매년 저소득층 가정의 우수 고등학생 40명을 선발해 수업료, 운영비, 급식비 등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면 입학 격려금으로 100만원을 준다. 물론 장학금만 주는 건 아니다. 각 지점의 직원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멘토 역할도 해준다.<br/>NH투자증권은 농협금융그룹의 일원으로서 범농협 차원의 도농(都農) 혁신사업인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김 대표이사와 임원을 결연 마을의 ‘명예 이장’으로 위촉하고 소속 임직원들을 ‘명예 주민’으로 참여시켜 상호 교감을 나누고 있다. 농번기 일손 돕기, 농산물 직거래장터 및 기타 마을의 숙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현재 27개 마을에서 농촌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br/>아울러 NH투자증권은 올해 극심한 가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농촌지역에 양수기 등도 지원했다. 지난 1월 조류독감이 발생했을 땐 경기 파주시 재난 현장을 찾아 방역활동 의약품을 지원하고, 사내 삼계탕 시식행사 및 치킨기프트 구매 장려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br/>지역 사회 주민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빠뜨리지 않고 있다. 매년 서울 여의도 윤중로에서 열리는 봄꽃축제에선 미아방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또 매년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배식 봉사활동을 한다. 서울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과 손잡고 옥상텃밭 조성사업도 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사회성을 기르고 수확한 농산물을 주변 소외 계층 이웃에게 나눠주기 위한 취지에서다. <br/>NH투자증권은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을 추구하고 있다. 직원들에게 강제로 할당하는 식의 사회공헌 활동은 생색내기엔 좋을지 몰라도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직원은 물론 사회에도 실질적 보탬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 사회공헌단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봉사활동은 우리 사회에 대한 투자라는 생각을 직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도 업계 대표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설 것</span>”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21.txt

제목: ‘사람이 좋다’ 김윤아, 자우림 말고 여자로서의 삶  
날짜: 201706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24050332003  
ID: 01101101.20170624050332003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자우림 김윤아가 ‘사람이 좋다’에 출연한다.<br/><br/>오는 25일 오전 8시 방송되는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서는 자우림 김윤아와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 씨’에서 영애 아빠로 알려진 배우 송민형의 이야기가 공개된다.<br/><br/> <br/><br/>1997년 데뷔 이후 단 한명의 멤버 교체 없이 20년간 사랑을 받고 있는 자우림은 ‘HEY HEY HEY’, ‘매직카펫라이드’, ‘일탈’, ‘하하하쏭’ 등 발표하는 곡마다 큰 사랑을 받으며 대한민국 대표밴드로 자리 잡았다. 남성 보컬들이 즐비한 밴드 사이에서 보기 드문 록 밴드의 여성보컬로 큰 사랑을 받은 김윤아는 결혼, 육아, 출산 등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자우림 활동 외에 4개의 솔로앨범을 내며 활발한 활동 중이다.<br/><br/> <br/><br/>무대 위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자우림의 뮤즈이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애교만점 사랑스러운 엄마이자 아내 김윤아. 음악과 아이 둘 다 포기할 수 없었던 김윤아는 남편 덕분에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었다. TV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김윤아의 반전매력을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서 만나본다.<br/><br/> <br/><br/>또한 ‘주몽’, ‘태왕사신기’, ‘각시탈’ 등 다양한 작품뿐만 아니라 10년 째 ‘막돼먹은 영애 씨’에서 ‘영애 아빠’역의 감초연기로 눈도장을 찍은 배우 송민형의 파란만장한 배우의 삶이 공개된다.<br/><br/> <br/><br/>1세대 아역배우 출신 배우 송민형은 초혼에 실패하고 아들과 미국으로 가게 되며 성인연기자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런 그에게 LA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시트콤 ‘LA 아리랑’에 출연이라는 천금 같은 기회가 찾아왔다. 비록 단역이었지만 연기자의 꿈을 버리지 않았던 그는 마흔이 넘은 나이에 다시 중고신인으로 돌아왔다. 이혼, 사업 실패로 인한 10억 원의 빚 그리고 세 번의 암 선고까지 받았지만 그 무엇도 연기를 향한 그의 열정만은 꺾을 수 없었다. 드라마에서는 조연이지만 그의 인생에서는 주연인 송민형의 파란만장한 인생 스토리가 궁금증을 키운다.<br/><br/><br/><br/>강희정 기자 hjk0706@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22.txt

제목: “재선의원들 왜 이래” 엎친 데 덮친 아베  
날짜: 201706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24050329001  
ID: 01101101.20170624050329001  
카테고리: 국제>일본  
본문: 도쿄대 출신 엘리트 40대 여성의원<br/>나이 많은 비서에 상습폭언 드러나 탈당 <br/>내달 2일 도쿄도의회 선거 앞두고 <br/>지지율 급락 아베 정권에 악재 연발<br/><br/><br/>일본 집권 자민당 내 재선의원 그룹이 ‘사고뭉치’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했던 2012년 중의원 총선 때 대거 국회로 진입한 신인들이다. 재선이지만 일본은 의회해산에 따른 조기총선이 수시로 반복돼 의원 경력으로 따지면 한국 초선의원과 비슷한 격이다. 사학스캔들로 지지율 급락을 겪고 있는 아베 총리가 이번엔 자민당 여성의원의 ‘갑질’ 폭언ㆍ폭행이란 악재를 또 만났다. 이 때문에 일본 정가에선 “선거돌풍 덕분에 무더기 당선된 신인들 중 함량미달 인물이 상당히 많았던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br/>22일 발행된 주간신조(週刊新潮) 최신호는 사이타마(埼玉)현의 2선 중의원인 도요타 마유코(豊田眞理子·43) 의원이 최근까지 정책비서였던 55세 남성 A씨에게 인격 모독에 가까운 폭언과 폭행을 해왔다고 폭로했다. 도요타 의원은 지난달 말 이 남성이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서 업무상 실수를 지적하며 얼굴과 등을 마구 때려 상처를 입혔다. 그 자리에서 “대머리야, 죽을래? 살아 있을 가치가 없다”는 등 폭언을 퍼붓고, A씨의 딸까지도 협박하는 듯한 폭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r/>비서관이 직접 녹음한 음성파일이 일본 내 방송프로에 등장하면서 여론은 분노로 들끓었다. 도요타 의원 측은 언론에 “<span class='quot0'>도요타 의원이 (피해) 비서에게 사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사죄할 것</span>”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곧바로 탈당계를 제출했다. <br/>도요타 의원은 엘리트 출세 코스를 밟아 왔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명문 도쿄대 법대와 미국 하버드대 대학원을 거친 후생노동성 관료출신으로, 문부과학성과 부흥청에서 정무관(차관급)을 역임했다. 그러나 의원 당선 후 채용된 비서들이 ‘정상인은 견딜 수 없는 인격모독’에 시달리며 그만둔 사례가 반복돼 왔다고 한다. <br/>더욱이 도요타 의원은 아베 총리와 같은 파벌인 호소다(細田)파 소속이다. 안 그래도 궁지에 몰린 아베 정권에겐 또다른 악재란 점에서 여권 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중의원 2선째 의원군이 연달아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4월 나카가와 도시나오(中川俊直) 경제산업성 정무관이 불륜문제가 들통나 사임했고, 지난달에는 오니시 히데오 의원이 “<span class='quot1'>암 환자는 일을 안 해도 된다</span>”고 말했다가 문제가 돼 자민당 도쿄도련(東京都連ㆍ도쿄도당)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3월에 내각부에서 쫓겨난 무타이 ��스케(務台俊介) 정무관도 재선이다. 태풍 피해지역 시찰 중 장화를 신지 않고 직원 등에 업혀 물웅덩이를 건넜다가 거센 비난을 받은 뒤에도 “<span class='quot2'>장화업계가 나 때문에 돈을 꽤 벌었을 것</span>”이라고 말해 화를 자초했다. 아내의 출산에 맞춰 남성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선언한 뒤 불륜이 발각돼 의원직을 내놓은 미야자키 겐스케(宮崎謙介) 역시 재선이었다. <br/>당내 원로들이 재선 그룹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관리 지시까지 내렸지만 “<span class='quot3'>아베의 얼굴로 쉽게 당선된 재선들은 나사가 풀려있어 도무지 속수무책</span>”이란 촌평이 나오고 있다. <br/>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23.txt

제목: 모방의 달인, 싸이월드 베껴 인터넷 제국 건설하다  
날짜: 201706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23050951001  
ID: 01101101.20170623050951001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한국의 ‘아바타 꾸미기’ 본떠<br/>텐센트 설립 초기에 대성공<br/>마윈의 알리바바와 中 선두 다퉈<br/><br/><br/>2002년 시장조사를 위해 한국을 찾은 텐센트 생산관리부장은 싸이월드의 ‘아바타 꾸미기’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걸 발견하고 새로운 수익모델이 될 것을 직감했다. 당시 텐센트는 1999년 OICQ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인터넷 메신저 QQ가 3년 만에 사용자 1억명을 돌파했음에도 뚜렷한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한 채 급증하는 서버 유지비용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한국에서 돌아온 생산관리부장이 올린 기획안을 받은 텐센트의 최고경영자(CEO) 마화텅(馬化騰)도 성공을 확신했다. 그러나 무턱대고 뛰어들기보다 싸이월드의 사례를 충분히 연구한 다음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바타에 유명 브랜드 상품을 입힐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심한 계획을 세운 후 이듬해 1월 ‘QQ쇼’ 서비스를 내놓았다. 마화텅의 예상은 적중했다. 사용자들은 인터넷상 가상 분신인 아바타를 꾸미기 위해 아이템을 구매했고, 패션업체들은 앞다퉈 광고비를 지불하며 텐센트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줬다.<br/>이 에피소드는 온라인 메신저 서비스 업체였던 텐센트가 어떻게 세계 1위 온라인 게임 회사이자, 알리바바와 함께 중국 상장기업 중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는 거대 인터넷기업이 됐는지를 설명해주는 단서다. 텐센트는 1998년 창립해 채 스무 살도 되지 않은 회사이지만 시가총액은 21일 기준 무려 2조6,500억홍콩달러(약 388조원)에 이른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310조원이다. 30조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텐센트의 창업자이자 CEO인 마화텅의 나이는 이제 46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던 그는 어떻게 단기간에 중국 인터넷의 최고 거물이 될 수 있었을까.<br/><br/>천문학도를 꿈꾸던 소년 청년 사업가로<br/>1971년 중국 광둥(廣東)성 산터우(汕頭)에서 태어나 하이난(海南)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마화텅의 어릴 적 꿈은 천문학자였다. 아버지가 정부 관리였던 덕에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그는 부모를 따라 선전(深?)으로 이주해 선전대학 컴퓨터학과에 진학했다. 1993년 졸업 후 무선호출업체에 취직한 그는 따분한 업무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사업을 펼치고자 1998년 회사를 떠나 대학 동기인 장즈둥(張志東)과 텐센트를 창업했다. <br/>첫 사업은 무선호출기와 인터넷을 연결하는 서비스였다. 마화텅은 당시 세 명의 이스라엘 컴퓨터광이 만든 PC용 인스턴트 메신저 프로그램 ICQ에 푹 빠져 있었지만 인터넷 메신저 서비스 사업을 하기엔 준비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자가 급격히 늘면서 무선호출기 시장이 쇠락하자 마화텅은 애초에 하고 싶던 일을 시작해 1999년 2월 OICQ를 세상에 내놓았다. 사실상 ICQ의 중국어판에 불과한 모방품이었다.<br/>하지만 여러 카피 제품 중에서 OICQ는 달랐다. ICQ가 부족한 점을 하나씩 보완하면서 모방 속 창조를 이뤄낸 것이다. 이러한 ‘창조적 모방’은 지금까지도 텐센트의 성공 유전자로 자주 언급된다. 훗날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텐센트가 작은 회사였을 때는 성장하기 위해서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야 했다. 그러나 모방만으로 성공할 순 없다. 해외에서 대단한 아이디어를 가져온다 해도 어떻게 현지화시킬 것이며 국내 상황에 맞게 어떤 혁신을 만들어낼 것인지에 따라 성공이 결정된다.”<br/><br/>혁신적으로 모방하라<br/>마화텅의 모방 전략이 처음부터 적중했던 건 아니었다. 사업 초기에는 지식재산권에 무지한 탓에 위기를 맞기도 했다. ICQ를 인수한 AOL이 지식재산권 침해로 텐센트를 고소해 2000년 3월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그러나 사업 초기에 이런 일을 겪은 것이 그에겐 전화위복이 됐다. 외부의 아이디어를 모방하되 반드시 창조적 혁신을 이뤄야 성공할 수 있으며 특허와 저작권이 사업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으니까.<br/>OICQ도 창조적 모방을 통해 중국의 국민 메신저로 거듭날 수 있었다. 모든 정보를 컴퓨터에 저장해 다른 컴퓨터를 사용하면 이전의 대화 내용이나 친구 목록을 볼 수 없었던 ICQ와 달리 OICQ는 정보를 서버에 저장해 어디서나 쓸 수 있도록 했고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메시지 전송이 가능하게 했다. 2001년 QQ로 이름을 바꾼 뒤엔 각종 부가서비스가 중국인들을 사로잡았다. 새로운 메신저 프로그램들이 등장하면서 ICQ 사용자는 점점 줄어들었지만 반대로 QQ 사용자는 급증했다. 1999년 10월 100만명이었던 가입자는 2000년 6월 1,000만명, 2002년 3월 1억명으로 늘었고 2009년 10억명을 넘어섰다. <br/>귀여운 펭귄을 로고로 한 QQ는 중국인들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부가 됐다. 마화텅은 어마어마한 사용자 수야말로 인터넷 사업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걸 확신했다. 그는 1등 메신저회사에 안주하지 않고 포털사이트, 뉴스, 메일, 블로그, 게임, 전자상거래, 엔터테인먼트, 금융, 간편결제, 바이러스 백신, 온라인 교육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트온을 운영하는 SK컴즈가 네이버, 다음카카오, 넥슨을 아우르는 회사가 된 셈이다.<br/>텐센트의 혁신은 ‘사용자 지상주의’에서 출발한다. 마화텅은 QQ 사용자가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지, 어떤 서비스를 원할지 고민했다. 텐센트는 말단 직원들부터 건전한 내부경쟁 시스템을 통해 이 같은 고민을 상품으로 내놓도록 했다. 중국판 카카오톡이라 할 수 있는 위챗(WeChat)은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텐센트가 미국의 왓츠앱과 한국의 카카오톡을 참고해 2011년 초 내놓은 위챗은 진공청소기처럼 중국 스마트기기 사용자들을 빨아들이며 지난해 말 기준 월간 이용자 수 8억8,900만명을 기록했다. 모바일 결제 송금, 오프라인 결제, 음식 배달, 온라인쇼핑, 재테크, 공과금 납부, 택시 호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위챗 하나만 있어도 생활이 가능할 정도라고 한다. <br/><br/>AIㆍVRㆍ우주관광까지 사업 확대<br/>텐센트는 전 세계 최대 게임업체이기도 하다. 텐센트의 지난해 매출액 219억달러(24조 9,725억원) 중 게임 부문 매출만 48.8%인 102억달러(11조 6,310억원)였다. 2003년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시작할 때만 해도 텐센트는 국내 게임 개발사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중소기업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다. 2003년 한국의 3D 온라인 게임 ‘세피로스’ 수입을 시작으로 사업을 시작한 텐센트는 ‘QQ탕’ ‘QQ스피드’ 등을 자체 개발하며 실력을 키웠고 한국에서 수입한 ‘던전 앤 파이어’ ‘크로스 파이어’의 엄청난 성공으로 온라인 게임 업계의 최강자로 올라섰다. 2011년 ‘리그 오브 레전드’를 개발한 미국 게임회사 라이엇게임즈에 투자한 데 이어 지난해 ‘클래시 오브 클랜’을 운영하는 핀란드 게임회사 슈퍼셀을 인수하는 등 텐센트는 공격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br/>텐센트의 무한확장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유망한 분야의 기술력 있는 회사라면 당장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과감하게 투자하거나 인수합병(M&A)를 추진한다 핀테크, 엔터테인먼트 제작, 웹소설, 클라우드,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암 치료 부문 등에 이어 최근에는 우주관광, 소행성 채굴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br/>마화텅은 언제나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선두주자이기보다 창의적으로 모방하는 후발주자의 전략을 택했다. 이 때문에 경쟁자들로부터 종종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시나닷컴의 창업자이자 전 회장인 왕즈둥(王志東)은 “마화텅은 베끼기의 제왕”이라고 했고, 마윈(馬雲) 알리바바 회장은 “<span class='quot0'>텐센트의 문제는 혁신은 없고 모조리 복제품밖에 없다는 것</span>”이라고 쏘아붙였다. 마화텅도 자신이 ‘모방의 달인’이라는 점을 부인하진 않는다. 혁신이든 모방이든 그에겐 사용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마화텅의 신념은 곧 텐센트 성공의 비결이다. “우리는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 어떤 기기로 접속하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텐센트는 혁신하든 아니면 빠르게 모방하든 사용자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제공하겠습니다.”<br/>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24.txt

제목: 투병기로 암 환자에 용기... 日 아나운서 고바야시 별세  
날짜: 201706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23050837001  
ID: 01101101.20170623050837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블로그에 암 투병기를 쓰면서 반향을 일으켰던 일본의 유명 아나운서 고바야시 마오(小林麻央)가 23일 별세했다. 향년 34세.<br/> 이날 NHK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블로그를 개설해 유방암 투병 생활과 가족간 교류, 자신의 심경 등을 자세히 적어 일본 사회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고바야시가 퇴원 후 자택에서 치료를 받던 중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암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리던 일본 사회 분위기를 깨고 블로그를 통해 암 투병 사실을 당당하게 공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작년 11월 BBC는 암 환자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준 고인을 ‘올해의 여성 100인’에 선정하기도 했다.<br/>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뉴스 프로그램 사회를 봤던 그는 2010년 일본 전통극 가부키(歌舞伎) 스타인 이치카와 에비조(市川海老?)와 결혼한 후 자녀 2명의 육아에 전념했다. 작년 6월 이치카와가 고바야시의 투병 사실을 공개했다.<br/>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25.txt

제목: UNIST “미토콘드리아 파괴해 암 치료”  
날짜: 201706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22051015002  
ID: 01101101.20170622051015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암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미토콘드리아’를 망가뜨려 암세포를 파괴하는 새 방식의 암 치료법이 제시됐다. <br/>UNIST(총장 정무영)는 자연과학부 화학과 유자형 교수팀이 같은 대학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 곽상규 교수팀, 충남대(총장 오덕성)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이은지 교수팀과 공동으로 암세포 미토콘드리아 안에서의 합성 펩타이드 자기조립을 통해 암세포를 제거하는 새로운 항암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구성과는 지난 21일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 온라인판에 발표됐다.<br/>기존의 암 치료는 수술을 통해 암 조직을 제거한 뒤 화학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이나 화학약물을 계속 투여하다 보면 내성이 생길 수 있다. 암세포에 내성이 생기면 더 이상 화학약물로 암을 억제하기 어렵다.<br/>유 교수 공동 연구팀은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분자의 자기조립(self-assembly)’을 이용해 암세포를 제거하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했다. 암세포 내부에서 스스로 뭉친 분자들이 암세포를 파괴하도록 만드는 방식이다.<br/>연구팀은 특히 세포 소기관 중 미토콘드리아를 표적으로 삼고, 이를 파괴시킬 자기조립물질을 합성했다. 세포 내 에너지 공장으로 알려진 미토콘드리아를 망가뜨리면 암세포도 사멸할 것으로 본 것이다. 이를 위해 합성한 물질은 트리페닐포스포늄(triphenylphosphonium)을 연결한 펩타이드다. <br/>트리페닐포스포늄 펩타이드는 세포 밖에서 자기조립하지 못하고 분자로 존재한다. 하지만 이 분자가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 쌓이면 농도가 수천 배 높아지게 된다. 이때 분자들끼리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면서 자기조립해 나노섬유구조를 만들게 된다. <br/>분자 하나가 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 끼치는 영향은 작다. 하지만 분자 수 백~수 천개가 모여 만든 나노섬유구조의 영향력은 매우 커 미토콘드리아 막에 구멍을 뚫게 된다. 이렇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던 단백질들이 세포질로 나오면서 암세포가 사멸하게 된다.<br/>유자형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에 개발한 방법은 화학약물 치료와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약물 내성을 이겨낼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난치성 암 치료법의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br/>한편 이번 연구에는 UNIST 자연과학부의 이현우 교수와 UNIST 생명과학부의 배성철 교수도 참여했다. 연구 지원은 한국연구재단과 UNIST 미래전략지원과제 등을 통해 이뤄졌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26.txt

제목: 홍삼, 항암요법 때 피로도 크게 개선  
날짜: 201706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22050935001  
ID: 01101101.2017062205093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암환자에게 피로는 흔히 경험하는 증상이다.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의 80%가 피로감을 호소할 정도다. 국제 가이드라인 NCCN(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지침은 ‘암환자의 피로가 암이나 암 치료와 관련돼 반복적으로 고통을 줘 일상적 기능을 떨어뜨린다’고 정의하고 있다. 암환자의 피로도를 개선하려면 항우울제, 부신피질호르몬제, 인지행동치료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치료 효과나 근거가 부족하다.<br/> 이런 가운데 홍삼을 섭취하면 암환자가 항암화학요법을 받을 때 피로가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열혼 고려대 안암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를 비롯해 15개 대학병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항암치료 중인 대장암 환자에서 홍삼의 피로도 개선 효과’)에서다. 이번 연구는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암학회’에서 발표됐다.<br/>연구진은 항암제 mFOLFOX-6 요법 치료를 받는 438명의 대장암 환자를 홍삼군 219명과 위약군 219명으로 무작위 배정한 뒤 항암화학요법치료 16주 동안 1일에 1,000㎎씩 2회를 복용토록 한 결과, 위약군 대비 홍삼복용군 피로도가 유의하게 개선됐다.<br/>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표인 BFI(Brief Fatigue Inventory)로 피로도를 평가한 결과, 16주까지의 전반적인 피로도는 위약군 78.10 대비 홍삼복용군 81.07로 홍삼군에서 크게 개선됐다.<br/>특히 일상적인 피로감은 위약군은 73.73인 반면, 홍삼군은 78.00으로 크게 좋아졌다. 피로가 대인관계에 지장을 준 정도도 위약군(81.31)보다 홍삼복용군(86.43)이 피로도 개선 효과가 더 좋았다.<br/>또한 피로가 보행능력에 지장을 준 정도도 위약군(83.73)보다 홍삼복용군(88.33)이 크게 좋아졌다. 피로가 기분에 지장을 준 정도 역시 위약군(80.98)보다 홍삼복용군(83.93)이 유의미하게 좋아졌다.<br/>피로가 인생을 즐기는 데에 지장을 준 정도에서도 위약군(82.35)보다 홍삼복용군(84.19)이 유의미하게 개선됐다. 특히 60세 이상 임상시험 대상자(173명)에서는 홍삼군에서 항암화학요법에 의해 발생한 피로도를 더 개선했다.<br/>오상철 고려대 종양혈액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결과는 암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피로감 부분을 홍삼이 매우 효과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을 밝힌 것</span>”이라고 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2-327.txt

제목: '비정상회담' 팬덤 문화 좋은 예와 나쁜 예(ft.에이핑크)(종합)  
날짜: 201706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20051135001  
ID: 01101101.20170620051135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에이핑크 박초롱, 손나은이 '비정상회담'에 출연해 직접 겪은 팬덤 문화에 대해 털어�J다.<br/><br/>박초롱, 손나은은 19일 밤 10시 50분 방송된 JTBC '비정상회담'에 게스트 출연해 "<span class='quot0'>팬덤 문화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나, 비정상인가요?</span>"를 안건으로 상정했다.<br/><br/>박초롱은 "아무래도 3, 40대 분들은 사회적 지위 때문에 부끄러워하더라"고 말했고 손나은은 "일부 팬들의 도를 넘어선 행동, 위험한 행동 때문에 부정적인 시선이 많이 생긴 것 같다. 그래서 부끄러워 하고 숨기려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밝혔다. <br/><br/>두 사람은 "아무래도 청순 콘셉트라 불편하기 보다는 신경 쓰이는 게 있다. 팬분들이 좀 보수적이다"라고 말했다. 또 손나은은 "<span class='quot0'>메이크업이 조금만 진해져도 제가 어색해진다</span>"고 털어놨다.<br/><br/>집착이 큰 일부 팬덤의 나쁜 예가 소개됐다. 비행기 타고 갈 때 옆자리에 팬이 앉아 간다는 얘기를 듣고 두 사람은 "저희도 그런 적이 있다. 한 남성 그룹과 같은 비행기를 탔는데 거기 팬들이 다 타서 화장실도 못 가고 담요만 뒤집어쓰고 잤었다"고 회상했다. <br/><br/>또 팬들의 지나친 관심에 불편했던 사례로 박초롱은 "해외 가면 해외 팬들이 룸 넘버를 알아내서 전화하고 노크하고 그랬다. 누군지 봤더니 태블릿을 들고 계속 똑똑 하고 있더라. 잠옷을 입고 있었다. 목소리를 내면 확인이 되니까 말도 못 했다"고, 손나은은 "팬이 준 선물에 도청장치,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더라"고 얘기했다.<br/><br/>이에 MC 전현무는 "한 보이그룹은 집에 들어가니 팬이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고 했다", 성시경은 "우리 선배 얘긴데,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밥을 해놨더라. 자는 동안 침대 밑에 있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에이핑크는 "생일 때 받아서 영상을 재생했는데 팬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뒤에 잠은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고 했다. 그 배경이 자기 집이고, 뒤에서 자신이 자고 있던 거다"라고 말해 출연진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br/><br/>개념 팬들의 사례도 소개됐다. 각국 비정상 대표들은 "세계 슈퍼주니어 팬덤이 아프리카에 학교를 만들었다. 아랍 샤이니 팬들이 암 환자를 위해 모금을 했다" "이민호 팬들이 병뚜껑을 모아서 암 환자를 위해 기부했다" "엑소 팬들이 레이 생일을 기념해 쓰촨 성 길을 닦아줬다. 톈진항 물류 창고 폭발 사고가 일어났었는데 성룡, 성룡 팬들이 기부를 했다"고 좋은 예를 들었다.<br/><br/>손나은은 "제 팬들이 식수 부족한 해외 지역에 제 이름으로 물을 기부한 적도 있고 헌혈증을 모아서 기부한 적도 있다. 이번 2월 10일(생일)에 210개 모자를 떠서 아프리카, 파키스탄 아이들에게 보냈다. 저도 같이 모자를 떠서 보냈다"고 얘기했다. 박초롱은 "<span class='quot1'>요새는 팬덤이 기부, 봉사 문화가 돼서 저도 생일 때 팬들이랑 같이 봉사 다녀온 적이 있었다</span>"고 덧붙였다.<br/><br/>두 사람은 "팬덤에 대해 직접 얘기해본 것은 처음"이라며 "앞으로 건전한 팬덤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출연 소감을 남겼다.<br/><br/><br/><br/>강희정 기자 hjk0706@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28.txt

제목: [헬스프리즘] ‘당뇨족’, 협진 체계를 기대하며  
날짜: 201706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19051128001  
ID: 01101101.20170619051128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이경민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br/><br/><br/><br/><br/>52세 남자 환자가 고열과 발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환자는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한달 전쯤 발바닥 아래쪽에 상처가 생겼지만, 통증이 크지 않은 탓에 혼자 소독하며 지냈다. 그런데, 4일전부터 갑자기 열이 나고 상처를 통해 분비물이 많아지면서 악취와 함께 발가락 끝이 새까맣게 변했다. 결국 환자는 괴사된 발가락을 절단한 뒤 며칠간 항생제 주사를 맞고 치유됐지만 신체 일부를 잃었다는 절망감과 공포는 마음 깊숙이 남아 있다.<br/>흔히 ‘당뇨족’이라고 불리는 ‘당뇨병성 족부 병변’은 당뇨병 환자 가운데서도 전신 상태가 안 좋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감각이 둔하다 보니 발에 상처가 생겨도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고, 상처부위를 자발적으로 보호하지 못해 상처가 악화되거나 재발이 흔하다. 혈액순환이 부족한 발가락이 저절로 괴사되기도 하고, 상처가 생기면 산소공급이 어려워 치유도 힘들다. 상처가 감염되면 며칠 만에 급격히 악화돼 다리를 절단하는 일도 많다. <br/>식습관의 서구화와 고령화로 당뇨병 환자가 늘어나면서 그 합병증인 당뇨족이 환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뇨족이 사망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아직 많지 않은 듯하다. 외국 논문들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발에 궤양이 발생한 경우 5년 후 사망률이 43~55%이었고, 절단하면 사망률이 74%에까지 이른다. 웬만한 암 못지 않은 높은 사망률이다. 상처 치료도 쉽지 않고, 여러 합병증을 일으키는 복잡한 상태여서 의사 한 사람이 치료하기에 벅차기도 하다.<br/>이런 이유로 필자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정형외과, 혈관외과, 성형외과 의사가 모여 ‘당뇨창상 협진 클리닉’을 9년째 운영하고 있다. 3명의 의사가 한자리에서 환자 상처를 직접 진찰하고 치료 결정을 내리는 국내 유일의 ‘대면’ 협진 외래 진료다. 3명의 외과 의사가 매주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음에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br/>의사 입장에서는 지식과 생각을 나누면서 최선의 의사 결정을 빠르게 내릴 수 있고, 환자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각각의 의사를 만나기 위해 병원을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br/>하지만 이렇게 장점이 많은 진료임에도 아직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다. 당뇨 창상 치료가 협진 수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 3명의 의사가 진료해도 1명의 의사가 진료하는 수가만 인정받는다. 즉 협진하려면 병원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더욱이 당뇨 창상 진단 분류가 세분화돼 있지 않아 중증 질환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병원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도 손해고 진료 항목의 중증도를 높이지도 못하는 당뇨 창상 진료가 달갑지 않을 것이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암센터와 대조적이다.<br/>당뇨병 환자의 발 상처를 진료 하는 의사로서 환자들이 제도적 혜택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는 2010년 201만9,000명에서 2015년 251만5,000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당뇨병 환자가 증가하면 그 합병증인 당뇨족 환자도 늘 수 밖에 없다. 당뇨족 환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

언론사: 한국일보-2-329.txt

제목: “위식도 역류염 15%는 오진… 엉뚱한 치료”  
날짜: 201706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19051124001  
ID: 01101101.2017061905112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소화기내시경 선구자’ 조주영 분당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인터뷰<br/><br/><br/> “<span class='quot0'>위식도 역류질환은 아주 흔한 병이지만 역류성 식도염 진단이 남발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span>”<br/> 조기 위암 등 소화기암을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분야에서 국내 최고 명의(名醫)인 조주영(56) 분당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역류성 식도염이 주위에서 너무 흔히 보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조 교수는 “<span class='quot1'>위식도 역류질환을 제대로 정확히 진단하면 장기간 약을 먹는 환자도 줄고 불필요한 의료재정 지출도 막을 수 있다</span>”고 덧붙였다.<br/>흔히 ‘속앓이’로 불리는 위식도 역류질환은 서구화된 식생활, 불규칙한 생활습관 등으로 매년 증가하면서 현재 국내 환자가 280만명에 달한다. 위산을 억제하는 약물로 치료되지만 재발이 흔해 거의 평생 약을 달고 살며 약물치료에도 반응하지 않아 드물지만 외과적 수술로 치료하기도 한다.<br/>조 교수는 2006년부터 10년째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와 함께 식도암 위암 식도무이완증(아칼라지아) 등 소화기질환의 내시경 시술 장면을 교육비디오로 만들어 전세계 소화기내과 의사들에게 전수하고 있다. 인도 미국 베트남 터키 등 세계 각지의 의료진이 조 교수에게 내시경 술기를 배우러 분당차병원 소화기센터를 찾을 정도로 소화기내시경 분야에 독보적인 존재다.<br/><br/>“<span class='quot0'>위식도 역류질환 오진 15%나 돼</span>”<br/> 위식도 역류질환의 대표격인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이 명치 부위에 있는 식도로 역류하는 질환이다. 식도와 위 사이의 차단막 역할을 하는 근육이 퇴화되고, 세포 자생력이 약해져 발병한다. 속쓰림, 트림, 소화불량, 만성 기침, 목 이물감, 가슴 통증 등 증상도 다양하고 만성 식도염이 되면 식도암으로 악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10% 정도가 위식도 역류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다.<br/>위식도 역류질환은 대부분 위산억제제를 먹으면 증상이 조절된다. 하지만 자주 재발하고 약을 먹어도 증상이 없어지지 않기도 한다. 따라서 조 교수는 “<span class='quot1'>약물치료를 3개월 이상 해도 효과가 50% 미만이거나 다양한 약물에도 호전되지 않거나(환자의 10~20%가 해당된다), 내시경검사에서 심한 역류성 식도염이나 암이 의심되면 전문의에게 내시경 시술이나 외과 수술을 시행해야 한다</span>”고 했다.<br/> 문제는 위식도 역류질환 진단에 오진이 많다는 점이다. 조 교수는 “<span class='quot1'>이 같은 사실은 최근 우리 연구팀의 연구에서 상당수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가 잘못된 진단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span>”고 했다. 조 교수팀은 2015년 3월~2017년 1월 난치성 위식도 역류질환으로 의뢰돼 정밀 검사를 시행한 환자 424명을 분석한 결과, 15.8%(67명)의 환자가 식도위접합부 유출장애였다.<br/>식도위접합부 유출장애는 음식이 식도에서 위로 넘어가는 길목인 식도위접합부가 잘 열리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열리는 질환이다. 식도위접합부가 느슨해지는 위식도 역류질환과 증상이 비슷하지만 병이 생기는 원리와 치료법이 완전히 다르다. 식도위접합부 유출장애를 진단하려면 고(高)해상도 식도내압검사를 해야 한다. 조 교수는 “<span class='quot1'>약물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속쓰림, 목 이물감 등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는 잘못된 치료를 장기간 하는 일을 피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한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span>”고 했다.<br/><br/>“<span class='quot0'>외과수술 않고 내시경시술로 치료</span>”<br/> 심한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 억제제로도 치료할 수 없다. 전에는 외과 수술로 치료했다. 조 교수는 두 가지 내시경시술로 치료하고 있다. 그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약물 치료로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복부를 자르지 않고 시행하는 수면 내시경 시술인 ‘항(抗)역류 내시경 시술(ARES)’을 개발했다. 수면 내시경을 이용해 느슨해진 식도 하부 점막 일부를 잘라내는 방식이다. 국내 최초로 ‘엔도플립’을 도입해 수술 전후 식도 하부의 압력을 실시간 측정해 수술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조 교수는 “<span class='quot1'>시술 후 치유 과정에서 절제된 점막이 점차 오므라들면서 느슨했던 위식도의 접합부를 죈다</span>”고 설명했다. <br/>이와 함께 조 교수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한 내시경 시술법인 ‘스트레타(Stretta) 시술’도 병행하고 있다. 스트레타 시술은 내시경을 입 속으로 넣어 낮은 주파수의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 해당 근육과 세포를 강화해 역류성 식도염의 다양한 증상을 호전시킨다. 조 교수는 “<span class='quot1'>절개나 이식수술이 필요 없는 치료법이라 외과 수술과 달리 목에 흉터가 남지 않는 것이 장점</span>”이라며 “<span class='quot1'>고령 환자도 안심하고 시술할 수 있다</span>”고 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2-330.txt

제목: 급성심부전 예후 대장암보다 나빠  
날짜: 201706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19051046003  
ID: 01101101.2017061905104600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급성심부전 환자 4명 중 1명이 퇴원 후 2년 내 사망해 일부 암보다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r/>19일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급성심부전 증상으로 입원한 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은 4.8%, 퇴원 후 6개월 내 사망률 12.4%, 1년 내 18.2%, 2년 내 27.6%로 조사됐다. 2년 내 사망률은 대장암(23.7%)이나 위암(25.6%)의 5년 사망률보다 높은 수치다. 이는 2014년부터 전국 10개 대학병원에 등록된 5,625명의 환자를 추적 조사한 결과다. <br/>급성심부전은 심근경색, 고혈압 등으로 인해 심장기능이 저하되어 호흡곤란, 발목부종, 피로감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다. 발병 원인은 허혈성심장질환(37.6%)이 가장 많고, 심근병(20.6%), 판막질환(14.3%), 부정맥(10.6%) 등이 있다. <br/>국내 심부전 유병률은 2002년 0.75%에서 2013년 1.53%로 증가하는 등 환자가 늘고 있지만, 예후 관리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 대상 환자의 7%는 퇴원 후 한달 이내에 다시 입원했고, 1년 내 재입원 비율은 23%에 달했다. 질병관리본부는 “<span class='quot0'>급성심부전 환자 사망률 감소와 의료비 경감을 위해 치료 표준화 도입 등 환자관리 방안을 모색하겠다</span>”고 밝혔다. <br/>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31.txt

제목: “췌장암 수술 후 보조항암요법, 일찍 시작할수록 효과 좋아”  
날짜: 201706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19050935003  
ID: 01101101.2017061905093500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황진혁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국제학술지 발표<br/><br/><br/><br/> 췌장암은 ‘악마의 암’이다. 5년 생존율이 10%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중앙암등록본부). 우리나라 전체 암 생존율이 70% 정도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 췌장암 생존율이 극히 낮은 까닭은 암 전 단계의 병변이 뚜렷하지 않아 조기 진단이 어려워서다.<br/> 최근 황진혁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팀은 췌장암 수술 후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보조항암화학요법을 조기 시작하는 게 생존에 유리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플로스원(Plos One)’ 최근호에 실렸다.<br/>이번 연구는 2006년 1월~2015년 5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췌장암 수술 후 보조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총 113명의 환자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 치료 개시 중간시점인 35일을 기준으로 조기 치료그룹과(56명) 지연 치료그룹(57명)으로 나눠 보조항암화학요법의 조기 개시 효과를 비교했다.<br/>추적 조사결과, 조기 치료그룹은 지연 치료그룹과 비교해 전체 생존기간(수술일부터 사망일까지 시간)은 39.1 대 21.1개월, 무병 생존기간(수술 일부터 재발이나 사망일까지 시간)은 18.8 대 10.0개월로 유의하게 길었다. <br/>또한, 수술 후 합병증이 없는 67명의 환자에서 조기 치료그룹은 전체 생존기간(42.8 대 20.5개월)과 무병 생존기간(19.6 대 9.1개월) 모두 훨씬 더 길었다.<br/>결론적으로, 췌장암 수술 후 조기에 항암화학요법을 시작하는 것이 전체 생존 및 재발까지의 생존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정된 항암 스케줄(6차)을 제대로 완수하는 것이 장기 생존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br/>황 교수는 “<span class='quot0'>최근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은 ‘수술 후 환자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라는 기준을 언급할 뿐, 정확히 어느 시점에서 항암요법을 시작할지 명시하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로 수술 후 항암요법을 빨리 시작하는 게 생존율 향상에 도움된다는 것을 확인했다</span>”고 했다.<br/>황 교수는 이어 “<span class='quot0'>췌장암은 예후가 워낙 좋지 않아 오히려 손을 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면역요법을 포함한 새 치료법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진행되며 발전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인터넷이나 잘못된 정보에 휩쓸리지 말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span>”고 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2-332.txt

제목: 내년부터 고도비만 치료도 건강보험 혜택 받는다  
날짜: 201706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18050527001  
ID: 01101101.20170618050527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내년부터 고도비만 수술을 받는 환자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br/>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내과적이고 비수술적 치료요법으로 체중을 줄이지 못하거나 동반 질환을 완화하지 못하는 병적 고도비만의 수술치료에 대해 내년부터 보험급여를 해주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필요한 건보 재정은 9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이런 고도비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강화 방안을 최근 열린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br/> 몸무게(㎏)를 키(ｍ)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 지수(BMI·㎏/㎡)가 25.0∼30.0일 때를 비만으로 본다. 고도비만은 30.0∼35.0인 경우를, 초고도 비만은 35.0 이상인 경우를 각각 뜻한다. 정상체중은 18.5∼23.0인 경우다<br/> 고도비만은 의학적으로 '질병'으로 분류돼 적절한 치료와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단순히 뚱뚱하다고 치부해버리기엔 비만으로 말미암은 합병증(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과 환자가 겪는 고통이 심각하기 때문이다.<br/> 고도비만 수술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의료계에서 그간 꾸준히 제기됐다.<br/> 건강보험공단이 2015년 12월 비만에 대처하고자 꾸린 '비만관리대책위원회'도 고도비만 수술치료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br/> 지난 2011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고도비만 환자에게 수술치료는 비수술치료보다 비용은 비싸지만, 효과는 더 좋았다.<br/> 고도비만 수술은 지방흡입술 등 미용 성형시술과는 성격이 다르다. 무엇보다 환자안전을 우선해야 하기에 비만학회는 위밴드술, 루와이위우회술, 위소매절제술 등 3가지만 고도비만 수술로 정식 인정하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br/> 많은 선진국도 비만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비만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있다.<br/> 프랑스는 고도비만 환자가 전문의에게 비만 치료수술의 하나인 위절제술과 우회술을 받으면 보험혜택을 제공하고 있다.<br/> 일본은 고도비만자와 건강검진에서 비만을 진단받고 고혈압·당뇨·지질 이상증 등이 있는 사람, 비만에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후군을 앓는 사람 등에 대해 보험급여를 해 준다.<br/> 호주는 당뇨나 심혈관계 질환, 암 등 주요 합병증을 앓는 초고도비만 환자에게 수술치료를 공공의료보장제도(메디케어)에서 지원한다.<br/>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33.txt

제목: '올가미' 배우 윤소정, 패혈증으로 별세  
날짜: 201706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16050954001  
ID: 01101101.20170616050954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배우 윤소정이 16일 별세했다. 향년 73세.<br/>소속사 뽀빠이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윤소정은 이날 오후 서울성모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소속사는 “지병은 없었는데, 최근 건강이 조금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 “사인은 패혈증이다”고 전했다. 이어 “고인은 오늘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이별을 고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면서 “지난 55년 동안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사랑을 받아 온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br/>영화감독이자 배우인 고 윤춘봉의 딸인 고인은 1962년 TBS 1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주로 연극 무대에서 활약하며 ‘연극계의 대모’라 불렸다. 연극 ‘신의 아그네스’ ‘어머니’ ‘잘자요 엄마’ ‘응시’ 등 묵직한 작품에서 빼어난 연기를 펼쳤다. 히서연극상과 이해랑연극상, 대한민국연극대상, 동아연극상 등을 받았다. <br/>대중에게는 영화 ‘올가미’에서 아들에게 집착하는 악독한 시어머니 역할로 널리 알려졌다. 이후 드라마로도 발을 넓혀 ‘잘했군 잘했어’ ‘다 줄 거야’ ‘청담동 앨리스’ ‘결혼의 여신’ ‘판타스틱’ 등에서 활약했다. 최근에는 사전 제작으로 촬영을 마친 SBS 드라마 ‘엽기적인 그녀’에서 자혜대비 역으로 출연하고 있다. <br/>유족은 남편인 연극배우 오현경과 1남 1녀. 고인은 남편이 2차례 암 투병을 하는 동안 극진히 간호하기도 했다. 딸은 연극배우이자 영화배우인 오지혜다. 고인의 오빠도 시나리오 작가 겸 영화감독인 윤삼육(본명 윤태영)이다. <br/>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진다. 발인은 20일, 장지는 충남 천안공원묘원. <br/><br/>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34.txt

제목: 생면부지 혈액암 환자에 골수기증 부사관  
날짜: 201706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16050839001  
ID: 01101101.20170616050839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실천하는 어머니보고 결심” 육군 26사단 김규면 하사 <br/><br/><br/>육군 26기계화보병사단 예하 명중대대 김규면(26) 하사는 지난 3월29일 근무중에 조혈모세포 은행협회에서 걸려온 전화 한통을 받았다.<br/>김 하사의 조혈모세포(골수)가 혈액암을 앓고 환자와 99% 일치한다는 내용이었다.<br/>김 하사는 생면부지의 환자였지만, 흔쾌히 자신의 골수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br/>대학생 때이던 2012년 조혈모세포 은행협회에 골수기증 신청을 했는데, 5년이 흘러 이식할 수 있는 환자를 찾게 된 것이다. 이후 혈액검사와 이식수술은 15일 무사히 끝났다. 김 하사가 암 환자를 위해 골수를 이식하기로 한 것은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그의 어머니는 각막 기증 신청을 할 정도로 생명 나눔에 관심이 많았고 몸소 실천해왔다고 한다. <br/>김 하사도 자신과 혈액세포가 일치하는 환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선뜻 기증신청을 했다. 그러나 그 결심을 당장 이룰 수는 없었다. 부모, 형제ㆍ자매가 아닌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 간 조혈모세포가 일치할 확률은 2만분의 1로 매우 낮기 때문이다. <br/>2015년 하사로 임관해 자주포 포반장으로 근무 중인 그는 임관 전부터 헌혈과 봉사활동 등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br/>김 하사는 16일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조혈모세포 기증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r/>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35.txt

제목: [36.5°] 거리의 이웃에 대해 우리가 놓치는 것들  
날짜: 201706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16051333001  
ID: 01101101.20170616051333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영국은 올 들어 테러와 전쟁 중이다. 석 달 새 불특정 다수를 노린 테러가 세 차례나 일어났다. 특히 지난달 22명의 목숨을 앗아간 맨체스터 아레나 테러는 2005년 이후 영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참사라고 한다. 으레 그렇듯 테러 현장의 참혹함을 전하는 소식 건너편에는 피해자들의 애틋한 사연과 그들을 위해 애쓴 평범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기사 한 귀퉁이를 차지한다. 맨체스터에서도 영웅은 탄생했다. 그런데 주인공이 노숙인이다.<br/>맨체스터 거리를 제 집 삼아 살던 30대 청년 크리스 파커는 그날도 구걸을 하러 아레나를 찾았다가 테러를 만났다. 생사가 요동치는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파커는 죽어가는 한 60대 여성 피해자를 품에 꼭 안은 채 그의 마지막을 온기로 채웠다. 아니나 다를까. 일부 매체는 단박에 호들갑을 떨며 ‘맨체스터의 성자(聖者)’라는 이름을 붙였다.<br/>더럽다. 게으르다. 무책임하다. 삶의 전장에서 모든 걸 포기한 이들에게 덧씌워진 편견이다. 여기 유튜브에서 꽤 인기를 끈 실험 동영상이 있다. 내용은 이렇다. 한 남성 노숙인에게 100달러를 쥐어줬다. 술을 파는 가게에 들어가는 남자, 그럼 그렇지, 당연히 술을 샀겠거니 낙담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진행자. 놀라움은 그 다음이었다. 이 사람은 다른 노숙인들에게 줄 음식을 구입하는 데 돈을 썼다. 알고 지내는 동료도 아니었다. 그리고 자신이 거리를 벗 삼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사가 이어진다. 양아버지는 암으로 돌아가셨다. 보험 만으로 병원비를 대지 못했고, 아버지를 돌 볼 사람이 없어 일도 그만뒀다. 어머니도 2주 뒤 세상을 등졌다. 집을 팔아야 했고 결국 홈리스가 됐다. 마지막 한 마디. “<span class='quot0'>나태하거나 약물 중독자만 여기 있는 게 아니다.</span>”<br/>마이클 존스는 길 위의 성자 파커를 위한 온라인 모금 운동 사이트를 만들었다. 원래 1,000파운드를 목표로 잡았던 모금액은 한 달도 안돼 무려 5만파운드(7,180만원)로 순식간에 불어났다. 존스는 지금 모금 페이지를 개설한 결정을 크게 후회하고 있다. 돈이 이렇게 모였는데도 파커는 아직 거리를 전전한다.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썼느냐는 힐난이 쏟아졌다. 존스는 파커가 지낼 만한 적당한 공간을 알아봤지만 그는 한사코 호의를 물리쳤다. 왜 그러는지는 모른다. 그냥 친구들이 있는 곳에 살겠다고 했다.<br/>기부금이 노숙인을 지붕이 있는 집에 데려다 놓고, 또 우리 눈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데 쓰여야 한다는 인식, 거기서부터 잘못됐다. 파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좀 더 섬세하게 다가가야 하는 문제였던 것이다. 조지 오웰이 거의 100년 전에 쓴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이란 책을 보면 그 때나 지금이나 노숙인의 삶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들은 여러 이유로 한 곳에 머물기를 거부한다. 별 생각 없이 던지는 베풂을 노숙인들에게 강요하면서 그들을 도시 내에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투명인간으로 만든 건 아닐까. 5만파운드를 전부 주더라도 한줌의 자유조차 허락되지 않으면 그 또한 폭력일 수 있다.<br/>노숙인들은 성자로 불리기를 바라지 않는다. 변화는 일시적 감정에 이끌려 주머니를 가볍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 눈높이를 맞추는 존중과 이해에서 시작된다. 꼭 10년 전 요즘은 널리 알려진 노숙인 인문학 강좌를 취재한 적이 있다. 한끼 밥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 밥 한 그릇 대접하기 힘든 인문학이 웬말이냐 싶었다. 하지만 저마다 아픈 사연을 긍정하는 수업 과정을 통해 수강생들은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했다. 중년의 한 남성 수강생은 “인문학이 한 줄기 빛처럼 다가섰다”면서 대학에 진학해 반드시 인생 2막을 열겠다고 다짐했다. 끝끝내 밝히지 않은 꿈을 그가 이뤘는지 몹시 궁금하다.<br/>김이삭 국제부 기자 hiro@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36.txt

제목: 광양 광영동 자족도시 조성  
날짜: 201706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15051216002  
ID: 01101101.20170615051216002  
카테고리: 지역>전남  
본문: 1156억 들여 2만명 수용 규모<br/>택지개발ㆍ주거환경개선<br/>광양제철소 배후도시로<br/><br/>1983년 광양제철소가 들어선 후 인구증가로 급성장했다가 인근에 새로운 도시가 개발되면서 20년이상 쇠락의 길을 걸어온 전남 광양시 광영동 일대가 집중 개발된다. 2020년까지 1,156억여원을 들여 인구 2만여명을 수용하는 자족도시로 조성될 전망이다.<br/> 15일 전남 광양시에 따르면 총 사업비 1,036억원을 투입해 광영ㆍ의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2019년까지 2,500세대, 7,000여명이 거주하는 신도시로 탈바꿈한다. 광영동사무소가 이곳으로 이전되고 광양제철소 배후 주거상업복합단지로 만들 계획이다.<br/> 환경개선과 정주권 확보를 위해 2020년까지 60억원을 들여 축구테마로와 문화창조공원, 도로확장, 주거정비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 공영주차장, 전선지중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br/> 광영동은 1990년 후반까지 서비스업의 중심지였으나 낙후된 도시기반시설과 도시확장이어려운 지리적 특성, 인근 신도시인 중마동에 밀려나 몰락의 길을 걸어왔다. 인구는 1996년 1만8,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03년 1만6,000명, 올해 5월말 1만3,000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br/>하지만 최근 광영고등학교가 설립되고 부영아파트 재개발과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 경관개선사업 등 정주권 회복 위해 다양한 도시계획사업 진행으로 점차적으로 활력을 되찾고 있다. <br/>정은태 광양시 도시과장은 “<span class='quot0'>옛 동광양권 중심지인 광영동은 중마동 등 인근 도시 확장으로 몰락의 길을 걸어왔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도시개발사업에 집중 투자로 재도약해 광양시 중심 도시로 성장시키겠다</span>”고 말했다.<br/>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37.txt

제목: 황당한 투수 교체, 19세 오윤성이 받은 충격은 누가 감쌀까  
날짜: 201706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14051158001  
ID: 01101101.20170614051158001  
카테고리: 스포츠>야구>한국프로야구  
본문: 13일 고척 넥센-NC전. 넥센이 5-4로 앞선 3회초 마운드에 오른 19세 고졸 신인 투수 오윤성(넥센)은 외로웠다. 몸도 제대로 풀지 못한 갑작스러운 등판인데다가 팀이 근소한 리드를 지키고 있는 상황은 이제 막 1군 5경기 밖에 나서지 않은 신인에게 무거운 짐이었다. <br/>몸이 덜 풀린 탓에 볼 8개를 연거푸 던져 3번 박민우와 4번 박석민을 볼넷으로 내보냈다. 5번 모창민을 유격수 라인드라이브로 잡고 한 숨을 돌리는 듯 했지만 연속 안타와 볼넷, 몸에 맞는 볼 등으로 무려 7점을 내주고 무너졌다. <br/>선수는 흔들리고, 경기 흐름은 넘어갔는데 벤치는 지켜만 봤다. 그렇게 3회 아웃카운트 세 개를 잡는 데 공 53개를 던지고 마운드에서 쓸쓸히 내려갔다. 한 동료 선수는 “<span class='quot0'>보고 있는데 안타깝게 느껴졌다</span>”고 말했다. 4회초에 공 7개로 삼자범퇴로 막고 총 60개를 던지면서 2이닝 7실점 패전 투수라는 참혹한 성적표를 받은 오윤성은 14일 1군에서 말소됐다.<br/>루키 투수의 상처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심판진과 초반 승부처에서 1군 경험이 있는 불펜 자원이 아닌 투수를 선택한 수장의 선택에서 비롯됐다. <br/>이날 넥센은 사이드암 선발 한현희(24)가 갑작스러운 팔꿈치 통증 탓에 2이닝만 소화하고 내려가자 좌완 금민철을 올렸다. 투수가 파울 라인 안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한 타자를 상대해야 했지만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 투수 교체가 받아들여졌다. <br/>그러나 규정에 따르면 같은 유형의 투수가 나와야 하는데 넥센은 사이드암이 아닌 왼손 투수를 올렸고, 심판진이 이의를 제기하자 오른손 정통파 오윤성을 올렸다. 원칙대로라면 사이드암과 오른손 정통파는 유형이 다르다. 한현희가 한 타자를 상대하고 내려가거나, 넥센 엔트리에 있는 다른 사이드암 신재영이 올라와야 했다. <br/>따라서 심판진이 오윤성으로 교체하도록 놔둔 것은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경기 후 심판진 조장이었던 김병주 심판은 “(한현희 이후) 사이드암이 올라와야 한다는 규정은 알고 있었다”며 “다만 남은 사이드암이 선발 신재영이다 보니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해선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이에 KBO는 심판 3조 팀 전체에 벌칙 내규 심판 제1항에 의거,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br/>투수 교체 권한을 가진 장정석 넥센 감독도 당시 상황에서 오윤성을 선택한 것에 대해 “어쨌든 결과는 감독 책임”이라며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감독은 “<span class='quot1'>하영민은 던질 수 없는 상태였고, 부상 선수들도 있어 중간 투수들이 넉넉하지 않았다</span>”고 설명했다. 오윤성을 이튿날 바로 1군에서 말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공을 던지기도 했고, 최근 구위도 좋지 않아 2군에서 재정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br/>김지섭기자 onion@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38.txt

제목: 건강보험, 月 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날짜: 201706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14051037001  
ID: 01101101.20170614051037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공단, 지난해 급여비 현황 분석<br/>가입자 절반 이상, 보험료 더 내 <br/>중증질환자ㆍ노인들이 집중 수혜<br/>저소득층 급여 배율 5.3배 달해<br/><br/>지난해 한 해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평균 월 10만원을 내고 18만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절반 이상은 받은 혜택보다 낸 보험료가 더 많았지만, 중증질환자와 노인이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봤기 때문이다.<br/>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6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10만4,062원의 보험료를 내고, 보험 급여는 18만3,961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당 보험료가 10만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석 대상은 지난 1년간 건보 가입 자격 변동이 없는 직장ㆍ지역가입자 1,695만 세대(3,855만명)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을 내는 사업자 부담금은 집계에서 제외됐다.<br/>가입자 절반 이상은 받은 혜택(보험 급여)이 낸 보험료보다 적었다. 직장가입자 세대 중 52.7%(581만 세대), 지역가입자 세대 중 55.6%(329만 세대)가 혜택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했다. 특히 분석 대상 가운데 6.8%(262만명)는 지난해 병원 등 요양기관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아 받은 혜택이 전무했다.<br/>그럼에도 평균적으로는 보험료보다 혜택이 훨씬 더 큰 것은 중증질환자나 노인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갔기 때문이다. 질환별로 보면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낸 돈(보험료)보다 혜택(급여비)이 8.0배나 더 많았고, 뇌혈관질환(7.7배) 희귀질환(4.1배) 암질환(3.7배) 환자가 있는 세대도 혜택을 톡톡히 봤다. 연령대 별로는 60세 이상의 급여비 배율이 직장가입자 2.4배, 지역가입자 2.6배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br/>저소득층도 비교적 혜택을 많이 봤다. 보험료 하위 20% 세대는 월 평균 보험료 2만6,697원을 부담했지만, 혜택은 14만599원을 받아 보험료 대비 급여 배율이 5.3배에 달했다. 반면 고소득층(보험료 상위 20%)은 월 평균 24만833원을 내고 27만2,041원의 혜택을 받아 배율이 1.1%였다. <br/>지역 별로도 크게 엇갈렸다. 저소득층ㆍ고령자가 많은 지방일수록 배율이 높고, 고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은 배율이 낮았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직장 가입자는 월 보험료는 19만743원을 내지만, 건보 급여는 16만9,746원을 받아 혜택 배율이 0.89배에 그쳤다. 반면 전남 신안군(3.30배) 전북 순창군(2.82배) 전북 부안군(2.78배) 전남 완도군(2.70배) 경북 울릉군(2.68배) 등은 배율이 높았다. <br/><br/>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39.txt

제목: "아! 여보"... 애틋했던 임재범의 6년  
날짜: 201706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13051114002  
ID: 01101101.20170613051114002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암이 4개나 발견됐어요. 눈물도 안 나오고 멍하더라고요.”<br/>가수 임재범(55)은 2011년 KBS2 예능프로그램 ‘김승우의 승승장구’에서 아내인 뮤지컬 배우 송남영(45)씨가 암 선고를 받을 당시를 떠올렸다. 송씨는 임재범이 MBC ‘우리들의 일밤-서바이벌 나는 가수다’(‘나는 가수다’)에 출연 제의를 받을 때쯤 암에 걸린 사실을 알았다. 2001년 결혼한 후 10주년이 되던 해였다. <br/>암은 하나가 아니었다. 갑상선암, 위암, 간암, 자궁암까지 독한 암세포가 송씨의 몸 곳곳에 퍼져있었다. 암 학회에서도 처음 발견된 사례였다. 암 선고를 받은 송씨는 놀라 펑펑 울었다. 당시 의사는 간의 60%를 잘라내야 한다고 판단했고 송씨는 “순리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6년간 투병생활을 이어오던 송씨는 12일 오후 세상을 떠났다.<br/>아내에 대한 임재범의 사랑은 각별했다. 당시 무대 공포증을 가진 임재범이 MBC ‘나는 가수다’의 섭외에 응한 것을 두고 아내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무대에 선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일었다. 실제로 임재범은 한겨울에 난방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려 우울증까지 앓았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내가 많이 힘들어했다. 어쩌면 그 사람의 병을 내가 키웠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br/>‘나는 가수다’ 출연 중에도 그는 팬 카페를 통해 “<span class='quot0'>육체의 병보다는 아내가 무척 외롭고 힘들어할 때, 한 여인의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많이 아프고 힘이 든다</span>”며 “<span class='quot0'>많은 기도로 회복의 기적을 아내가 누릴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span>”고 절절한 마음을 드러냈다. <br/>송씨는 뮤지컬계에서 오래 활동했다. 뮤지컬 ‘명성왕후’, ‘페임’, ‘겨울 나그네’ 등으로 무대에 올랐고, 2002년 영화 ‘마고’에도 출연했다. 임재범은 1999년 뮤지컬 ‘하드록 카페’를 보러 갔다가 송씨에게 첫눈에 반했다. 두 사람은 2001년 2월 결혼해 슬하에 딸을 하나 두고 있다. <br/>임재범은 2005년 공연을 하는 도중 부인을 무대로 초대해 팝송 ‘유 아 소 뷰티풀’을 부르며 사랑을 표현할 정도로 아내에게 남다른 로맨티스트였다. 그는 최근 음악 작업과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아내의 병간호에 전념했으나 결국 아내를 하늘로 떠나 보냈다. <br/>빈소는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은 14일 낮 12시, 장지는 경기도 이천 에덴낙원공원. <br/>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40.txt

제목: 피부암 환자 4년간 38% 늘어  
날짜: 201706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13051028002  
ID: 01101101.20170613051028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레저활동 확산 등의 영향으로 국내 피부암 환자가 지난 4년간 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br/>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악성 흑색종 등을 포함한 피부암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12년 1만4,081명, 2013년 1만5,029명, 2014년 1만7,837명, 2015년 1만7,455명, 2016년에 1만9,435명으로 매년 증가세다.<br/> 피부암은 60대 이상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했다. 작년 연령별 환자는 70대가 28.0%(5천577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 21.6%, 80세 이상 21.3%, 50대 15.5% 순이다. <br/> 40대 환자 비율은 7.7%다. 30대 3.5%, 20대 1.7%, 10대 0.5%, 10세 미만 0.2%로 젊을수록 발병 비율이 떨어졌다. 성별로는 여자 환자가 1만566명으로 남자(8,869명)보다 더 많았다.<br/> 피부암은 지나친 햇빛 노출이 주요 원인이며 편평상피세포암, 악성 흑색종, 기저세포암종 등으로 구분된다. <br/> 편평상피세포암은 표피의 각질 형성 세포에서 나타나는 악성 종양으로 햇빛에 의한 피부 손상, 만성 염증성 질환이나 흉터, 비소 섭취로 피부 표면이 굳어지는 비소 각화증, 방사선피부염 등이 원인이며, 입술과 뺨 등에 많이 발생한다. <br/> 편평상피세포암이 생기면 크고 불균일한 모양의 살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가 많다. 또 종양의 표면이 약해져 일반 세균에 의한 감염이 일어날 수 있고 고름이 나오거나 악취가 나기도 한다.<br/> 악성 흑색종은 주로 피부 표피의 기저층에 있는 멜라닌세포에서 발생한다. 멜라닌세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점을 구성하는 모반 세포가 악성으로 변질해 생길 수도 있다.<br/> 악성 흑색종은 장시간 햇빛에 과도하게 노출되면서 일광 화상을 입었을 때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가족력이 있으면 발병률이 8배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점이 악성 종양으로 바뀌기도 하는데 한국인은 손과 발에서 많이 나타난다.<br/> 기저세포암은 표피의 기저층이나 모낭을 구성하는 세포가 종양으로 변형된 것으로 코, 뺨, 머리, 이마 등의 두경부나 유두, 음경, 음낭, 외음, 항문 주위에서 주로 발생한다.<br/> 기저세포암종은 85%가 자외선 노출로 발생하며 햇빛에 잘 타지 않는 하얀 피부, 금발, 소아기에 주근깨가 있던 사람, 피부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br/> 편평상피세포암이나 기저세포암은 종양을 도려내는 외과 절제술, 액화 질소로 암 조직을 괴사시키는 냉동치료, 방사선치료, 국소 항암 화학치료, 병변 부위를 조금씩 제거해가는 모즈수술 등으로 치료한다.<br/> 악성 흑색종은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지 않았다면 외과 수술로 암을 제거하고, 전이 가능성이 있는 위험군이라면 인터페론이라는 항바이러스성 단백질로 면역요법을 시행한다.<br/> 국내에서 피부암 환자가 왜 증가하고 있는 명확하게 밝힌 연구는 아직 없다. 의료계에서는 야외에서 레저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외선 노출량이 많아진 것을 원인으로 추정한다.<br/>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41.txt

제목: 임재범 부인 송남영씨 별세  
날짜: 201706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12051152003  
ID: 01101101.20170612051152003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가수 임재범(55)의 부인인 뮤지컬 배우 송남영 씨가 12일 별세했다. 향년 45세. 임재범측에 따르면 갑상선암이 간과 위로 전이돼 투병 중이던 송씨는 이날 오후 세상을 떠났다. 송씨는 서울예대 연극과를 졸업했으며, 뮤지컬 ‘명성황후’, ‘페임’, ‘겨울 나그네’, ‘하드록 카페’ 등에 출연했다. 2001년 임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지수양을 두었다. <br/>임재범은 지난 2011년 MBC TV ‘우리들의 일밤-서바이벌 나는 가수다’에 출연해 화제가 될 당시 팬카페에 글을 올려 “<span class='quot0'>제 아내 송남영, 저와의 결혼 10주년 기념일을 즈음해 병원서 갑상선 암을 진단받고 갑상선 암 제거를 했고, 간, 위로 전이됐다는 추가 진단을 받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육체의 병보다는 아내가 무척 외롭고 힘들어할 때, 한 여인의 남자로 남편으로 많이 아프고 힘이 든다</span>”고 투병 소식을 알린 바 있다.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하던 임재범이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도 아내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최근 방송 활동을 하지 않고 부인 병간호에 힘쓴 것으로 알려졌다. <br/>빈소는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0호실이다. 발인은 14일 낮 12시, 장지는 경기도 이천 에덴낙원공원. (02)2227-7544<br/>이소라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42.txt

제목: 임재범 오늘(12일) 배우자상…뮤지컬 배우 송남영 별세  
날짜: 201706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12051152001  
ID: 01101101.20170612051152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가수 임재범의 아내이자 뮤지컬 배우 송남영이 별세했다.<br/><br/>12일 가요계에 따르면 그간 갑상선암이 전이돼 투병 중이던 송남영은 이날 오후에 세상을 떠났다. 향년 45세.<br/><br/>과거 임재범은 팬카페를 통해 아내 송남영이 암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 임재범은 최근 활동을 하지 않고 아내를 간병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한편 임재범, 송남영은 지난 2001년 결혼했으며 슬하에 딸이 있다.<br/><br/><br/><br/>강희정 기자 hjk0706@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43.txt

제목: [강남세브란스병원과 함께 하는 건강 Tip] 유방암  
날짜: 201706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12051144001  
ID: 01101101.201706120511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유방암 적정성 평가에서 국내 의료기관들은 평균 97.02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한 많은 곳이 1등급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유방암에 우수한 치료시스템과 높은 치료성적을 자랑하고 있다.<br/><br/>Q. 가슴이 찌릿하다면 유방암을 의심해야 하나.<br/> “많은 여성이 가슴 통증으로 유방암을 의심한다. 유방암 환자의 5% 정도만 유방통증을 호소하기에 대부분의 유방통증은 유방암과 관련 없다. 유방암의 주요 자각 증상은 멍울이나 분비물, 유두의 모양 변화 등이다. 다만 비주기적인 유방통증은 35세 이상이고, 가족력 등의 위험인자가 있다면 병원을 방문하기를 권한다.”<br/><br/>Q. 유방암의 발병률과 원인은.<br/> “인구 10만명 당 72.1명꼴로 생긴다. 갑상선암에 이어 여성암 발병률 2위다. 유방암 원인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위험인자로 여성호르몬, 연령, 출산 경험, 음주, 가족력 등이 꼽힌다.”<br/><br/>Q. 치료법과 생존율은.<br/> “전에는 유방 전체를 잘라내는 전(全)절제술을 주를 이뤘다. 최근 의학 발달로 초기엔 유방모양을 유지한 채 암을 제거하는 유방보존술을 시행한다. 다만 암 범위가 넓거나 다발성으로 생겼다면 유방을 전부 잘라내야 한다. 수술 후 재발을 막기 위해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항호르몬치료, 표적치료 등을 보조로 시행한다. 2기 이내 유방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91.8%를 넘을 정도로 유방암은 일찍 발견되면 완치 가능성이 높다. 조기 진단율이 높아지며 완치 가능성이 높은 0기나 1기 환자 비율은 2000년 32.6%에서 2014년 55.7%로 높아졌다.” <br/><br/>Q. 유방암을 예방하려면.<br/> “유방의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는 게 가장 좋은 예방법이다. 한국유방암학회는 유방암 조기 발견을 위해 30세 이후 여성은 매월 자가검진을 권하고 있다. 35세 이후엔 2년 간격으로 임상 검진을, 40세 이후에는 1~2년 간격으로 임상 검진과 유방 촬영이 필요하다. 고위험군이라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는 게 좋다.”?<br/><br/>Q. 유방암은 유전된다는데.<br/> “유전성 유방암은 전체 유방암 가운데 5%에 불과하다. 다만 40세 이전에 유방암이 생겼거나 양쪽 유방 모두 암이 생긴 경우, 본인이 유방암이면서 직계 가족 중 유방암이나 난소암 환자가 있는 경우, 본인이 유방암과 난소암을 모두 진단받은 경우엔 유전자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br/><도움말: 안성귀 강남세브란스암병원 유방암센터 유방외과 교수>

언론사: 한국일보-2-344.txt

제목: [헬스 파일]  
날짜: 201706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12051142001  
ID: 01101101.20170612051142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소화기내시경학회, 소화기 캠페인 <br/>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소화기 내시경 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올바른 의학적 정보를 전하기 위한 '소화기 탐구생활'을 캠페인을 벌인다. 학회는 캠페인을 통해 소화기 질환에 관심이 높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내시경 검사와 관련된 의학적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네티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시경 관련 정보들을 모아 이해하기 쉬운 비주얼 콘텐츠로 알려주는 활동, 내시경 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현황을 알아 볼 수 있는 설문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용태 학회 이사장(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은 “<span class='quot0'>정기 내시경 검사로 위ㆍ대장암을 조기 발견해 치료를 받음으로써 암 진행을 막고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span>”고 했다.<br/><br/>서울성모병원, 신생아중환자실 확장<br/>서울성모병원이 선천성 기형아, 미숙아 등 증가하는 중증신생아를 집중 치료하기 위한 신생아중환자실(NICU)을 기존 30병상에서 20병상을 늘려 50병상으로 확장했다. 국내 의료기관이 어려운 경영 여건으로 저수가 등 수익성 없는 사업을 기피하는 현상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여의도성모병원의 산모ㆍ신생아 집중치료센터와 통합 운영하면 국내 최대 규모로 운영되게 된다. 성인경 신생아중환자실장(소아청소년과 교수)은 “<span class='quot1'>2009년도 20병상의 신생아중환자실로 시작해 이번 병상 증설 및 확장으로 신생아 치료에 집중할 수 있어 매우 감사하다</span>”고 했다.<br/><br/>강남차병원, 최단기간 로봇수술 500례<br/>강남차병원 로봇수술센터가 산부인과 단일 진료과로 최단기간에 로봇수술 500례를 달성했다. 센터는 2015년 6월 로봇수술 장비인 ‘다빈치Si시스템’을 도입 후 10개월 만에 200례를 돌파한 이후 도입 1년 11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500례를 넘어섰다. 자궁근종을 비롯해 여성생식암, 난관미세수술 등 여성질환이 로봇수술의 100%를 차지하고 있다. <br/><br/>JW중외, 차량용 피톤치드 휘산기 내놔<br/>JW중외제약은 차량용 피톤치드 휘산기 ‘피톤케어’를 내놨다. 천연 피톤치드를 미세입자로 발산하는 제품으로 전남 장흥군에서 생산하는 편백나무 오일이 주 원료다. 차량 컵홀더에 고정할 수 있는 크기로 제작됐으며, 별도의 배터리 없이 USB 연결 방식으로 차량뿐만 아니라 사무실 등에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 가격은 39,800원.

언론사: 한국일보-2-345.txt

제목: 마르고 간수치 높으면 식도암 위험 3.65배↑  
날짜: 201706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12050957001  
ID: 01101101.20170612050957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분당서울대병원, 40세 이상 839만명 분석 결과<br/><br/>식도는 음식이 지나다니는 길이어서 암이 생기면 음식을 삼키기 어렵다. 식도암이 더 악화하면 물조차 마시기 힘들다. 또한 식도가 잘 늘어나므로 암이 작으면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불편함을 느껴 병원을 찾을 때면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강검진 시 내시경 검사로 식도를 관찰할 수는 있지만 초기의 점막 변화는 눈에 잘 띄지 않아 이상 징후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 <br/>이처럼 식도암은 조기 발견이 어렵고 일단 암이 생기면 림프절을 통해 주변 장기와 기관으로 빠르게 전이되므로 5년 생존율이 40%도 되지 않는다. 식도암은 식도선암과 식도편평세포암으로 나뉜다. 미국과 서유럽 등에서는 식도선암 발병률이 더 높다.<br/>따라서 서양의 식도암 연구는 선암에 집중됐다. 그 결과 비만이 주요 위험인자임이 밝혀졌다. 반면 한국은 식도암의 95% 이상이 편평세포암이다. 서양보다 비만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편평세포암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체질량지수(BMI) 등의 위험인자를 조사한 연구는 아주 드물었다.<br/>최윤진ㆍ이동호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자료를 활용, 40세 이상 838만8,256명을 8.7년간 추적 관찰해 BMI와 간수치가 식도편평세포암에 미치는 연관성을 분석했다. 논문은 국제학술지 ‘플로스원(PLOS ONE)’ 5월호에 실렸다.<br/>연구 결과, 저체중(BMI 18.5Kg/m² 미만)인 사람은 정상체중군(18.5~23Kg/m²)보다 식도암 발병이 40% 이상 높았다. 간 손상 지표인 감마글루타밀전이효소(GGT)가 40IU/L 이상인 사람은 16IU/L 이하인 사람보다 식도암 발병 위험이 2.22배 높았다. <br/>GGT는 남성은 11~63IU/L, 여성은 8~35IU/L 이하면 정상이다. 알코올과 관련된 간기능장애가 있으면 수치가 올라가고, 수치가 높으면 알코올성간염이나 지방간 가능성이 있다.<br/>또한, 저체중이면서 GGT가 40IU/L 이상인 경우에는 정상체중이면서 40IU/L 이하인 사람보다 위험도가 3.65배로 크게 높아졌다.<br/>최 교수는 “<span class='quot0'>식도암 조기 발견 지표가 전무한 상황에서 840만명 가까운 대규모 집단을 기반으로 한국형 식도암 위험인자를 밝혀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결과가 도출된 만큼 저체중이거나 GGT 수치가 높다면 식도암 예방과 조기 발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span>”고 했다. <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2-346.txt

제목: 국방장관 송영무 발탁, 13년 만에 육군 아성 허물다  
날짜: 201706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11050635001  
ID: 01101101.20170611050635001  
카테고리: 정치>청와대  
본문: 軍 대대적 지각변동 예고<br/>“미군 의존성 버려라”<br/>전작권 전환 담론 앞장<br/>전역 후 고액 자문료 수임 놓고 논란도<br/><br/><br/>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참여정부 마지막 해군 참모총장을 지낸 국방개혁의 선봉장이다. 2006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재임 당시 ‘국방개혁 2020’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을 수립하는데 깊숙이 관여해 육군 위주로 비대화된 우리 군의 미래 청사진을 그릴 적임자로 꼽힌다. <br/>송 후보자는 또한 우암 송시열 선생의 13대손답게 타협을 거부하는 저돌적인 추진력으로 정평이 나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논란 등으로 휘청대는 군 전체에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다만 전역 후 국내 법무법인과 방산업체 고문을 지낸 경력 등이 일찌감치 거론되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br/>육군사관학교 출신이 독식하던 국방부 장관에 비육군 인사가 발탁된 건 2004년 해군 출신 윤광웅 장관 이후 13년 만이다. 송 후보자는 해군 참모총장이던 2007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고 2012년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 합류한 이후 줄곧 곁에서 도왔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방안보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예비역 장성 40여명과 10여 차례 난상토론을 거쳐 문 대통령의 국방ㆍ안보 공약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br/>송 후보자는 평소 전작권 전환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span class='quot0'>전작권이 없으니 병사들은 의무복무로 잡혀오고 장교들은 군대를 직업으로만 보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군인들이 나를 지킨다는 자존감 없이 미군이 지켜준다는 정신자세로 해이해져 있다</span>”고 질타해왔다. 특히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국방개혁과 함께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내세운 만큼, 송 후보자의 평소 신념과 맞물려 얼마나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송 후보자는 11일 통화에서 “<span class='quot0'>국방개혁은 단순히 필요 없는 것을 줄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군을 새롭게 만드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6ㆍ25 처럼 배낭 매고 치르는 진지전이 아니라 속전속결을 위해 해ㆍ공군 중심으로 군 구조와 작전체계를 바꿔야 한다</span>”고 밝혔다. 그는 1999년 해군 2함대 제2전투전단장을 맡아 제1연평해전을 완승으로 이끌었다.<br/>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직전 자신과 키가 비슷한 김장수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면 조금만 고개를 숙여도 티가 많이 날 테니 절대 허리를 굽히지 말라”고 조언했다는 일화도 군인으로서의 그의 면면을 말해준다는 평가다.<br/>청와대는 다만 이날 송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며 “<span class='quot1'>주민등록법위반(위장전입) 사실이 있었다</span>”며 인사 검증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먼저 공개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 측은 “<span class='quot2'>1989년 부친의 암 투병 등으로 어려웠던 시절 부친이 사는 대전에 군인공제회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투기는 결코 아니었다</span>”고 해명했다.<br/>또 송 후보자는 2008년 해군 총장 퇴임 후 이듬해부터 법무법인 율촌과 LIG넥스원에서 각각 2년여 간 고문을 맡아 해군의 무기체계 수ㆍ출입 등과 관련한 자문료를 받은 것을 놓고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총장 재임시절 발생한 계룡대 근무지원단 납품비리 사건도 송 후보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 측은 “<span class='quot2'>율촌과 LIG넥스원에서 각각 연간 1억5,000만원과 월 700여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게 전부</span>”라며 “<span class='quot2'>납품비리는 지휘계통도 다르고 후보자와 전혀 상관없는 일</span>”이라고 해명했다. <br/><br/>▦충남 논산(68) ▦대전고ㆍ해사 27기ㆍ경남대 경영대학원 ▦해군 1함대사령관ㆍ합참 전략기획본부장ㆍ해군 참모총장 <br/>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47.txt

제목: 건보 진입 또 실패한 유방암 신약, ‘입랜스’  
날짜: 201706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09050855002  
ID: 01101101.20170609050855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심평원 “비싼 약값 낮춰 신청을”<br/>제약사선 월 160만원 약값 지원<br/><br/>한 달 약값만 5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유방암 신약 '입랜스'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품목으로 잠정 결론 났다. 제약사가 약값을 낮춰 가져오지 않으면 앞으로도 건보 적용은 어렵다는 것이 보건당국 입장이다.<b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한국화이자제약의 입랜스에 대한 급여 타당성을 심의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br/>심평원은 “<span class='quot0'>입랜스의 유용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한국화이자제약에서 제시한 가격이 고가여서 '효과 대비 비용'을 고려할 때 급여로 인정하기 어렵다</span>”고 밝혔다. 대신 제약사가 가격을 인하하고 비용 효과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다면 조속히 재평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당국의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정확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현재 약값(알당 21만원)이 당국이 효과 대비 비용을 추산한 적정 약값보다 훨씬 비싸 가격을 많이 내려서 가져오지 않으면 건보 적용이 어렵다</span>”고 전했다. 암에 쓰이는 급여 약제는 본인부담율이 5%에 그친다. 따라서 현재 약값을 유지한 채 건보 급여를 적용하면, 환자 본인부담금은 한 달에 약 25만원으로 낮아지지만 대신 건보는 환자 1명당 월 475만원이나 부담해야 한다. <br/>입랜스는 세포 분열과 성장을 조절하는 사이클린 의존성 키나아제를 선별적으로 억제해 암세포 증식을 막는 알약 형태의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다. 지난해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호르몬 양성 유방암에 쓰도록 허가 받아 같은 해 11월 국내에 출시됐다. 유방암 환자들은 월 500만원에 달하는 약값이 부담이라며 조속한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해왔다.<br/> 한국화이자제약은 이번 결정과 무관하게 오는 12일부터 입랜스를 먹는 유방암 환자에게 월 최대 160만원 상당의 약값을 되돌려 주는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환자가 우선 입랜스의 약값을 지불한 뒤 한국혈액암협회를 통해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br/>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48.txt

제목: SK - 불확실 시대 ‘Deep Change’로 새 길 개척  
날짜: 201706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08050829002  
ID: 01101101.20170608050829002  
카테고리: 경제>반도체  
본문: SK그룹은 저성장 시대의 해법으로 ‘Deep Change’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와 기술혁신에 나섰다. 나아가 전면적인 공유와 개방으로 위축된 기업생태계를 함께 살리겠다는 계획이다.<br/>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기업의 서든데스(Sudden death, 돌연사)를 경고한 데 이어 올해는 “<span class='quot0'>국내외 경영 환경이 불확실할수록 투자에 적극 나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span>”며 공격경영을 통한 성장동력 발굴을 강조했다.<br/>실제로 SK그룹의 주력 관계사들은 올해 대규모 투자를 추진 중이다. SK하이닉스는 7조원을 투자해 기술 중심 회사로 입지 강화에 나섰으며, SK이노베이션은 3조원대 대규모 투자로 전기차 배터리 생산설비를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또 SK텔레콤은 향후 3년간 11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New ICT 4차 산업혁명 주도에 나섰다. <br/>구체적으로 SK하이닉스는 D램 20나노 초반급 제품 양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차세대 10나노급 D램 제품은 하반기에 양산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업계 최초로 개발한 적층 72단 3D 낸드플래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br/>SK텔레콤은 엔비디아와 자율주행차 관련 전략적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기술 개발에 돌입하는 등 글로벌 파트너들과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SK텔레콤이 글로벌 기업 및 국내 스타트업들과 함께 세계 최초로 선보였던 5G 커넥티드카 ‘T5’는 ‘텔레콤 아시아 어워드(Telecom Asia Award)에서 ‘최우수 혁신 파트너십 전략’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br/>SK C&C는 AI 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있다. 주요 병원들과 함께 IBM의 AI왓슨을 기반으로 한 암 진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SK C&C는 중화권에 스마트팩토리와 스마트물류 사업에도 진출하는 등 기존 SI 분야를 넘어 ICT 융합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br/><br/>SK이노베이션은 ‘펀더멘털 딥 체인지’를 통해 미래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석유기업에서 에너지·화학기업으로 진화한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배터리, 정보전자소재 사업 등 신규 사업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는 유럽 등지의 수요 증가로 지난 3월 생산설비를 기존의 두 배 이상인 3.9GWh로 확대하기로 했다. 2018년에는 전기차 14만 대에 제공할 수 있는 생상능력을 갖추게 된다. <br/>SK그룹의 바이오 분야 진출도 활발하다. SK케미칼이 개발한 바이오 신약 ‘앱스틸라(AFSTYLA)’는 국내 최초로 미국, 유럽, 캐나다에 이어 호주까지 진출하게 됐다. SK바이오팜이 독자개발한 뇌전증 신약은 시판되면 미국에서만 연 매출 1조원 이상을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br/>친환경 신에너지 분야도 SK그룹의 차기 주력사업이다.<br/>신에너지 분야는 천연에너지인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등을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자원고갈에 대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녹색경영의 실천이다. <br/>SK는 지난해 4월 세종시 연동면 일대에 태양광 발전 인프라를 조성했다. SK D&D가 제주 가시리에 조성한 풍력발전소는 연간 7만8000MW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는 연간 제주도민 2만가구가 쓸 분량이다. <br/>SK E&S도 전남 신안에 풍력발전소를 가동 중이며 경남 양산 발전소까지 완공되면 총 7만3,000여 세대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언론사: 한국일보-2-349.txt

제목: 지하수를 기적의 물로… 16배 비싸게 팔아  
날짜: 201706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08050809003  
ID: 01101101.20170608050809003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다단계 판매 일당 5억대 챙겨<br/><br/><br/>일반 지하수를 암이 치료되는 ‘기적의 물’이라고 속여 폭리를 취한 현대판 ‘봉이 김선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br/>서울 강남경찰서는 일반 지하수로 만든 혼합음료를 각종 질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신비의 기적수’라고 허위 광고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방문판매업체 대표 염모(53)씨와 제품홍보강사 김모(58)씨 등 10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염씨 등은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한 회원 1,310명에게 5억2,500만원 상당의 혼합음료를 판매한 혐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br/>경찰에 따르면 다단계 방문판매업에 오래 종사한 염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역삼동에 사무실을 차리고 올해 2월까지 혼합음료를 판매했다. 혼합음료는 경기 가평군 조종면 한 공장에서 퍼 올린 지하수에 천연초즙을 소량 섞는 방식으로 만들었다.<br/>이들은 다단계 방식으로 모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span class='quot0'>세계 4대 성수보다 게르마늄이 풍부해 혈액암 고혈압 당뇨 등에 탁월하다</span>”고 홍보하며 ‘신비의 기적수’ 1세트(2ℓ 45병)를 19만8,000원에 팔았다. 병당 4,400원 수준으로, 시중에서 파는 생수(270~1,100원)보다 최대 16배나 비싸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성분 분석 결과, 게르마늄 등 특별한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행히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도 없었다.<br/>조사 결과 염씨 등은 역삼동 본사 외에도 춘천 대전 대구 전북 등에 판매센터를 차리고 정기적으로 강연회를 열었다. 피해자는 대부분 60, 70대였고, 암 환자나 가족이 암 투병 중인 경우도 있었다. <br/>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50.txt

제목: “5년 생존율은 ‘현재 발생한 癌 치료’ 의미… 맹신 말아야”  
날짜: 201706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08050926002  
ID: 01101101.20170608050926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음주ㆍ흡연 인한 재발 가능성 여전<br/>암 종류 따라 생존율 천양지차<br/>“완치 기준 달리해야” 지적도 <br/><br/>최근 의료계에서 암 치료의 ‘절대가치’로 여겨져 온 5년 생존율에 대한 인식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년 생존’을 무조건 암 완치로 받아들이면서 생기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br/>전문의들은 암 치료 후 5년 이상 생존해도 암 진단 전 ▦고령 ▦흡연 ▦비만 ▦당뇨 등 암 발생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암 경험자들은 5년 생존율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br/>조비룡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암 경험자 다수가 암 치료 후 5년이 지나면 완전히 건강이 회복됐다고 생각하는데 5년 생존율은 현재 발생한 암이 치료됐다는 의미일 뿐</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암 진단 전 흡연, 비만, 당뇨 등에 노출된 암 경험자는 같은 암이 재발하거나, 다른 부위에 새로 암(2차 암)이 발생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하지만 암 발생 5년까지는 금연, 금주 등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던 이들도 ‘5년 생존’ 판정을 받은 뒤에는 다시 술과 담배 등에 손을 대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 연세암병원이 2014년 4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암생존자클리닉을 방문한 위암 치료 후 5년 이상 생존하고 있는 암 경험자 654명(남 410명ㆍ여 244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 중 8.0%(52명)가 암 치료 후 담배를 다시 피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관리 부실이 암 재발률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 교수는 “<span class='quot0'>암 치료 후 건강에 자신이 생겨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암 경험자들에게 5년이 아닌 평생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한다</span>”고 말했다. 정소연 국립암센터 암환자헬스케어연구과장도 “<span class='quot1'>생활습관이 교정되지 않으면 암 치료 후에도 재발, 2차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span>”며 “<span class='quot1'>암 치료 후 5년 넘게 생존을 해도 얼마든지 암에 걸릴 수 있는데 관리를 잘못하면 평생 암을 치료해야 하는 고통에 시달릴 수 있다</span>”고 지적했다. <br/>암 종류별로 완치의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견해들도 나온다. 실제 암종별 5년 생존율은 천양지차다. ‘2014년 암등록통계자료’에 따르면 갑상선암의 경우 100.2%로 가장 높고 전립선암(93.3%) 유방암(92.0%) 등도 높은 생존율을 보인다. 반면 조기 발견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췌장암(10.1%) 폐암(25.1%) 간암(32.8%) 등은 5년 생존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당연히 5년 이후 재발률 역시 암종별로 차이가 클 수밖에 없지만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유방암의 경우 재발자 3명 중 1명이 5년 이후에 재발하는 등의 간헐적인 통계만 있을 뿐이다. 신동욱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2'>위암, 대장암은 물론 예후가 가장 좋은 갑상선암도 암 치료 후 5년이 지나 재발할 수 있다</span>”며 “5년 생존율은 암 치료를 위해 설정한 임의적 기준이기에 5년 생존율에 집착하지 말고 암종별 재발 및 전이 현황, 2차 암 발생 등 다각적으로 암 환자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br/>김치중 의학전문기자 cjkim@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51.txt

제목: 암 치료 5년후 완치 판정 받으면 정부 지원 뚝  
날짜: 201706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08050922001  
ID: 01101101.20170608050922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10명 중 7명이 5년 이상 생존<br/>본인 부담 최대 60%까지 치솟아<br/>6~10년 사이 재발 환자 많아져<br/>“관리 시스템 부실해 방치” 지적<br/><br/>이모(당시 52세)씨는 10년 전인 2007년 위암 판정을 받았다. 다행히 초기라 종양 부위를 제거하는 것으로 치료는 종료됐다. 항암치료도 필요치 않았다. 이씨는 수술 후 6개월에 한 번씩 꼬박꼬박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그리고 5년 뒤인 2012년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다. <br/>별 다른 증상이 없는데다 검사비 부담 때문에 병원을 찾지 않던 이씨는 2015년말부터 계속 체중이 줄고 복부 통증이 잦아졌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지난해 1월 다시 병원을 찾은 이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암세포가 폐에 전이됐다는 진단이었다. 이씨는 그해 6월 사망했다. <br/> 암 환자들에게 ‘5년 생존’은 ‘완치’의 다른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의료계에서 성인 암 환자의 경우 5년간 생존하면 그 이후 생존곡선이 거의 평탄해져 사실상 완치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5년 생존율’에 대한 과도한 맹신은 짙은 그림자도 만들고 있다. 5년 이상 생존한 암 경험자들이 사후 관리 체계 부실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암 정책이 5년 생존율 향상에 집중돼 있을 뿐, 그 이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br/>7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에 따르면 국내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최근 20여년 새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졌다. 1993~95년 41.2%에 불과했던 5년 생존율은 2010~14년 70.3%로 치솟았다. 암 환자 10명 중 7명은 ‘완치’ 판정을 받는다는 얘기다. 현재(2014년말 기준) 생존해있는 암 경험자가 총 150만명에 육박(146만4,935명)하는데 이중 절반에 가까운 44.9%(65만8,155명)가 5년 이상 생존에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통계도 있다. 의료기술 발달과 조기 검진 확산으로 암 치료 성공률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br/>하지만 5년 생존에 성공했다 해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재발 가능성은 충분하다. 유방암이 대표적이다. 한국유방암학회에 따르면 유방암 전체 재발률은 30.5%에 달한다. 재발 환자 3명 중 2명 가량(21.6%P)은 수술 5년 내 재발하지만, 6~10년 사이 재발하는 이들도 3명 중 1명에 육박(8.9%P)한다. 위암 역시 5년을 넘어섰다고 마냥 안심할 수 없다는 통계가 있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위암센터에 따르면 위암 수술을 받은 환자 1,299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20.5%(266명)가 암이 재발했으며 이중 5년 이후 재발률도 8.6%(23명)에 이르렀다. <br/> 문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5년 이후 뚝 끊긴다는 점이다. 암 환자가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로 등록하면 5년 간 진료와 검사 시 본인부담금을 5%만 부담하면 된다. 입원비 역시 본인부담은 5%에 불과하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 확 달라진다. 외래 진료와 검사 비용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병원 종류별로 30~60%로 치솟고, 입원비 역시 20%로 높아진다. 물론 5년이 지나서도 완치가 안되고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 경우, 5% 본인부담을 연장할 수 있지만 완치 판정이 나면 부담이 대폭 커지는 것이다. <br/>예컨대 산정특례 암 환자의 컴퓨터 단층촬영(CT) 검사비는 8,500원이지만 산정특례 종료 뒤에는 10만3,000원으로 올라간다. 자기공명영상(MRI)은 1만9,600원에서 23만5,900원으로, 양전자 단층촬영(PET)은 3만8,500원에서 46만3,000원으로 검사비가 폭등한다. 7년 전 자궁암 수술을 받은 윤모(72)씨는 “5년간 큰 부담 없이 진료와 검사를 받다가 산정특례 종료 뒤 불어난 비용 부담 때문에 병원 방문을 꺼리게 되는 게 사실”이라며 “친구들 중에도 암 경험자들이 적지 않은데 대부분 비슷한 처지”라고 말했다.<br/>대형병원들 역시 5년 이상 생존자들을 외면하기는 마찬가지다. 유방암이 재발해 가슴을 완전 절제한 홍모(66)씨가 그런 경우다. 홍씨가 처음 유방암 진단을 받은 건 쉰을 갓 넘긴 2002년 6월. 평소보다 땀이 많이 나고 몸이 무거워 대학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왼쪽 가슴에 0.2mm 종양이 발견됐다. 종양 크기도 작고, 유방암 초기단계인 유방 상피내암이라 부분절제를 통해 종양을 제거했다. 그 후 5년간 3~6개월에 한 번씩 병원을 찾아 정기검진을 받았고, 2007년 완치 판정을 받았다. 담당의사는 “<span class='quot0'>이제 1년에 한번 병원에 오면 되지만 여기는 환자가 많으니 가급적 동네병원에서 관리하라</span>”고 권했다. <br/> 동네병원에서 암 관리는 쉽지 않았다. 홍씨가 찾은 병원 의사는 유방촬영을 다른 영상의학과의원에서 해오라고 했고, 돈과 시간 낭비라는 생각에 발길을 돌렸다. 2013년 또 다시 몸에 이상을 느낀 홍씨는 유방암 수술을 받은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다시 왼쪽 가슴에 종양이 발견됐는데 종양크기가 4cm나 됐다. 의사는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 완전절제를 해야 한다고 했다. 홍씨는 “<span class='quot1'>암 수술 후 5년만 버티면 될 줄 알았는데 다시 암에 걸렸다</span>”며 “<span class='quot1'>병원에서 제대로 관리를 받았으면 최악의 상태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span>”이라고 아쉬워했다.<br/>암 경험자 관리를 위해 정부도 뒤늦게 나서고는 있다. 국립암센터와 더불어 전국 6개 지역에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를 만들어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가기로 한 것도 이런 취지에서다. 통합지지센터는 ▦전남(화순 전남대병원) ▦전북(전북대병원) ▦충북(충북대병원) ▦경남(경상대병원) ▦강원(강원대병원) ▦제주(제주대병원)에 들어설 예정이다.<br/> 하지만 이에 대한 암 경험자들의 반응은 싸늘한 편이다. 2008년 갑상선암을 치료했으나 2014년 폐암에 다시 걸린 박모(52)씨는 “암 경험자들은 자기가 치료받은 병원에서 관리를 받고 싶어 한다”며 “차라리 5년 이상 생존한 암 경험자에 한해 CT나 MRI 등에 대한 본인부담비율을 낮춰주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br/>의료계에서도 암 경험자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들이 나온다. 대학병원의 한 종양내과 의사는 “<span class='quot2'>아무리 조기에 암을 진단해 치료하더라도 재발 암이나 2차 암을 막지 못하면 암 환자가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질 것</span>”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주문들도 나온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3'>국가 차원에서 암 경험자에 맞는 검진 프로그램과 함께 금연, 영양상담, 운동, 만성질환 관리 등 암 경험자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해 암 경험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황정순(65)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유방암 환우회(가유회) 회장은 “<span class='quot4'>병원별 유방암 수술 후 재발률 공개와 함께 환자 관리를 촉구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김치중 의학전문기자 cjkim@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52.txt

제목: 20년간 연평균 47% 성장.. “유전자 빅데이터 기업으로”  
날짜: 201706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07050837001  
ID: 01101101.20170607050837001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생물<br/>유명 박물관 미라 유전자까지<br/>신속ㆍ정확한 유전자분석 서비스<br/><br/>153개국 1만8000여 고객 확보<br/>작년 ‘3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도<br/><br/>환자ㆍ건강한 사람까지 고객 확장<br/>“<span class='quot0'>올해 매출 1000억원 돌파 목표</span>”<br/><br/>1세대 생명공학 벤처기업 ‘마크로젠’이 어른이 됐다. 15평짜리 서울대 실험실에서 10여명이 모여 걸음마를 뗀 마크로젠은 세계 곳곳에 법인과 지사를 거느린 직원 450명의 어엿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회사 키우는 것도 육아와 비슷하다. 옆에서 보면 거저 자란 것 같지만, 키운 사람의 사연은 말로 다 못한다. 마크로젠 창업주인 서정선 회장은 “<span class='quot1'>마크로젠이 운 좋은 ‘신데렐라 컴퍼니’라는 얘기도 있는데, 우린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왔다</span>”고 힘주어 말했다.<br/>마크로젠은 지난 5일 서울 구로구 쉐라톤 디큐브시티호텔에서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마크로젠 임직원들은 올해 세계시장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해 2020년 2,000억원을 달성하자고 다짐했다.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47%라는 놀라운 기록을 일궈낸 만큼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업계도 내다보고 있다.<br/>마크로젠의 주력 사업은 유전자 분석 서비스다. 연구기관이나 기업이 필요한 유전자 정보를 첨단장비를 동원한 최신 분석기술로 신속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다. 좁디좁은 국내 시장에만 안주했다면 이만한 성장은 턱도 없다. 국내 서비스 출시 2년 뒤인 2002년 마크로젠은 세계적인 과학학술지 ‘네이처’에 ‘5달러만 보내세요’라는 제목의 광고를 실었다. 단돈 5달러에 원하는 유전자를 분석해준다는 의미다. 당시 비슷한 서비스가 20달러 안팎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충격적인 가격파괴였다. <br/>값만 싸다고 될 일은 아니다. 연구개발 분야에선 정확도가 생명임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마크로젠은 서울대 유전체의학연구소와 함께 네이처에 유전자 분석 관련 논문을 20년간 13편 냈다. 네이처는 연구자가 평생 논문 한두 편 내기도 쉽지 않은 학술지이다. 서비스와 연구를 병행한 전략은 먹혀들었다.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사는 생물 유전자, 유명 박물관에 잠들어 있는 미라 유전자까지 온갖 유전정보가 마크로젠을 거쳐 세상에 알려졌다. <br/>생명공학 기술은 빛의 속도로 발전했다. 고객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 싶으면 새 장비가 필요했고, 시장을 넓혔다 싶으면 신기술을 익혀야 했다. 2002년 2월 국내 생명공학 벤처기업 최초 상장으로 확보한 자금은 서 회장의 표현에 따르면 “곶감 꼬치에서 곶감 빼먹듯”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그런 순간순간들을 서 회장은 “<span class='quot1'>칠흑 같이 어두운 망망대해에서 천둥번개에 파도가 밀려오는데 어디가 어딘지도 모른 채 떠 있는 것처럼 정신이 없었다</span>”고 회상했다.<br/><br/><br/>그래도 마크로젠은 애초에 가려던 길을 묵묵히 고집했다. 유전자 분석으로 연구자를 돕겠다는 목표를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쌓은 신뢰가 153개국 1만8,000여 고객을 만들었다. 생명공학 벤처기업으로는 드물게 지난해 ‘3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고, 19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 유전체 연구 프로젝트 ‘지놈아시아 이니셔티브’에서 활동하게 됐다. <br/>이제 20달러에 유전자 수천개를 분석할 수 있을 만큼 세상이 달라졌다. 마크로젠은 고객층을 연구자에서 환자로, 이후 건강한 사람으로 확장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유전 질환이나 선천성 질환, 암 같은 난치병 등을 예방, 진단해주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서 회장은 “<span class='quot1'>기술이전이나 임상시험 성공 가능성만이 아닌 실제 매출과 실적으로 바이오산업을 주목 받는 사업으로 성장시킨 게 마크로젠의 중요한 성과</span>”라며 “<span class='quot1'>앞으로는 유전자 빅데이터 기업으로 성장하겠다</span>”고 말했다. <br/>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53.txt

제목: 사할린 1세 동포 25명 고국서 무료 진료받는다  
날짜: 201706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07050819002  
ID: 01101101.20170607050819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국제보건의료재단·국립의료원<br/><br/> <br/>러시아 사할린에 거주하는 1세대 동포들이 고국에서 무료 진료를 받는다. <br/>7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국립중앙의료원은 재외동포 보건의료지원사업의 하나로 질병을 앓고 있는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 25명을 초청해 맞춤형 의료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로 선정된 동포들은 오는 8일 입국해 12일부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검진을 받는다. 검진 결과에 따라 시술 및 수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br/>두 기관은 지난해부터 만성질환, 노인성질환, 암 등으로 고통받는 사할린 동포들에게 모국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에 강제 징용돼 사할린에 남겨진 동포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br/>지난해 초청된 주모(72)씨가 위내시경 조직검사에서 위암 판정을 받고 위부분절제술을 받아 회복하는 등의 성과가 있어 현지 동포들의 관심도 높다. <br/>박순옥 사할린 한인협회장은 “모국에서 관심과 지원을 받은 어르신들이 행복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할린 한인 사회에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요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은 “<span class='quot0'>더욱 많은 한인 1세대 동포가 모국의 선진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을 계속할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54.txt

제목: [삶과 문화] 제비들이 찾아오셨다  
날짜: 201706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07050803002  
ID: 01101101.20170607050803002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올해도 제비들이 찾아오셨다. 우리 집 식구들은 귀인을 맞이하듯 제비들을 반겼다. 요즘 제비 구경하기가 어디 그리 쉬운가. 제비들이 우리 집 한옥에 찾아 든 건 오월 초순. 제비들이 작년에 지은 집 주위를 맴돌기에 그 집을 재활용하려나 보다 했다. 그러나 옛집이 맘에 안 들었던지 흙과 지푸라기 같은 것들을 물어와 옛집 옆에 새 집을 짓기 시작했다. 드디어 일주일 만에 깔밋한 제비집이 완성되었다. 우리 집 식구들은 집 짓기가 끝난 날 제비집 아래 모여 짝짝짝 박수를 쳐주었다.<br/>그렇게 입주를 마친 제비들은 지금까지 알을 품고 있다.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 잠깐 집을 비울 때를 빼고는 암컷이 늘 둥지를 지킨다. 어느 날 밤중에 가만히 전등으로 제비 둥지를 비춰 보았더니, 암컷은 둥지 속에, 수컷은 암컷을 지키느라 그러는지 둥지 아래 박힌 긴 못 위에 앉아 있었다.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제비 부부의 지극한 정성에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 후 우리 식구들은 해산 중인 제비 둥지 밑을 지날 땐 발소리조차 크게 내지 않으려 조심하곤 했다.<br/>우리 식구들이 이처럼 제비들의 산파역을 자처하는 건, 불임의 시대를 살기 때문이다. 주민의 90% 이상이 노인들인 마을에는 배부른 임신부도 찾아보기 어렵고 아기 우는 소리도 거의 들을 수 없다. 그래서 논밭에서 들리는 개구리 울음소리나 짝을 찾아 우는 숲의 새소리도 예사롭지 않아 흔감하게 된다. 생명의 회임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생명의 회임보다는 불임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아기 못 낳는 부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23만여 쌍의 부부가 불임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다. 인구 절벽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불임도 인구 절벽에 한 몫 하는 셈이 아닌가.<br/>불임의 원인은 무엇일까. 유전자조작 식품의 유해성을 경고하는 학자들은 젊은이들의 불임이 그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GMO 수입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현재 우리가 대형 마트에서 사먹는 많은 식품들이 GMO 수입농산물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러니까 불임으로 고통 받는 부부들은 무려 지난 20여 년 동안 그런 유해한 식품을 먹어 왔다.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 농부들은 다른 모든 식물을 죽이는 제초제를 살포한다. 더 많은 재화를 얻기 위해 생명의 단절조차 서슴지 않는 것이다.<br/>유전자조작 농산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먹는 많은 식재료는 생명을 죽이는 독극물인 제초제를 뿌리고 생산된 것들이 많다. 제초제는 빗물에도 잘 씻기지 않고 우리가 먹는 식재료 속에 스며든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불임은 이처럼 죽음의 기운을 머금은 농산물로 만든 식품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숱한 암과 희귀성 질병 또한 이런 식품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건강한 먹거리를 걱정하는 이들의 증언이다.<br/>저물 녘 산책을 나서 농로를 걷다 보면, 논밭 가의 풀들이 샛노랗게 죽어가는 걸 보곤 한다. 섬�하다. 제초제의 기습을 받은 생명들. 그렇게 죽음의 기운이 퍼져 변색된 풀들을 보노라면 몸과 마음이 한없이 무지근해진다. <br/>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지구생명을 핍박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력의 결핍이 아닐까. 농토의 오염은 먹거리의 오염으로 이어지고, 먹거리의 오염은 우리 몸의 질병과 생명의 단절로 이어지지 않던가.<br/>이런저런 걱정에 신산스런 마음으로 대문을 들어서는데, 수돗가에서 저녁 찬거리를 씻던 아내가 낭랑한 목소리로 소리친다. 여보, 제비 새끼들이 드디어 알을 깨고 나온 모양이에요. 나도 울가망한 기분을 떨치며 맞장구를 친다. 어허, 경사 났군, 경사 났어!<br/>고진하 목사ㆍ시인

언론사: 한국일보-2-355.txt

제목: WHO “흡연으로 인한 사망, 2030년 800만명 될 듯”  
날짜: 201706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07050740002  
ID: 01101101.20170607050740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중하위ㆍ저소득국가 중심 흡연인구 증가세<br/><br/>전 세계 흡연인구가 2025년에는 11억4,700만명에 달하고,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도 점점 늘어 2030년에는 800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br/>7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담배, 지속가능한 발전에 위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흡연인구가 2015년 11억1,400만명에서 2020년 11억2,600만명, 2025년 11억4,7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br/>흡연인구는 2000년 11억2,800만명에서 계속 줄어 2010년 11억1,200만명을 기록했으나 이후 증가세로 반전했다. 중하위 소득국가와 저소득국가에서는 흡연자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중하위소득국가 흡연자는 2000년 2억9,000만명에서 2025년 3억6,900만명으로 27% 늘고, 저소득국가 흡연자는 같은 기간 8,000만명에서 1억1,400만명으로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br/>WHO는 흡연은 담배 구입비와 의료비를 발생시키고, 일할 시간을 빼앗아 가용소득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빈곤퇴치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2005년 인도네시아의 흡연자 가구의 담배제품 구매비용은 생선·육류·우유·계란 구매비용과 비슷했다.<br/>전 세계적으로 흡연과 간접흡연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한해 600만명으로 추산된다. WHO는 이 사망자가 2030년에 8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담배는 심혈관질환, 폐질환, 암 등의 질환과 조기 사망을 유발한다. 흡연에 의한 질병의 50% 이상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30∼69세에 발생해 가구 소득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br/>간접흡연은 특히 임산부와 태아, 아동에게 영향을 미쳐 유산, 사산, 유아사망증후군, 호흡기 질환 등을 야기한다. WHO는 2012년 기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1조4,360억달러(약 1,587조원)로 추산했다.<br/>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span class='quot0'>흡연은 삶에 필요한 필수적인 자원을 마련하지 못하게 만드는 등 질병과 빈곤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담배 규제가 필요하다</span>"고 지적했다.<br/>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56.txt

제목: “상처 자랑스러워한 아버지” 이혜영의 애틋한 현충일  
날짜: 201706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06050435002  
ID: 01101101.20170606050435002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스타들이 6일 현충일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호국 선열들의 뜻을 기렸다. 태극기를 들고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가 하면, 태극기 게양을 독려하며 현충일의 의미를 되새겼다.<br/>1990년대 여성 듀오 코코 출신 배우 이혜영에 현충일은 특별했다. 국가유공자의 딸인 이혜영은 SNS에 현충원에 잠든 아버지 묘역을 참배한 사진을 올린 뒤 ‘암 투병 중 자랑하시며 ‘난 현충원으로 간다’, 그땐 그 말이 듣기 싫어 딴 곳을 바라보곤 못 들은 척 했는데 그때 말할걸... ’저도 너무나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란 글을 올려 네티즌을 뭉클하게 했다. 그는 ‘총알이 스쳐간 상처를 자랑스러워하셨던’ 이란 글을 덧붙여 아버지의 넋을 기리기도 했다. <br/><br/>배우 이시영도 SNS에 태극기가 꽂힌 현충원 묘역 사진을 올린 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과 국군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충절을 추모하기 위하여 정한 기념일이다’라며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라는 글을 올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기렸다. 배우 이보영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유연숙 작가의 시 ‘넋은 별이 되고’를 담담하면서도 힘 있는 목소리로 낭송해 의미를 더했다.<br/><br/><br/><br/>스타들의 SNS에는 태극기 사진 게재가 잇따랐다.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예성을 비롯해 시크릿 멤버인 전효성, 혼성그룹 샵의 이지혜는 태극기 사진을 올린 뒤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 잊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다. 그룹 다이아의 정채연도 태극기를 들고 찍은 사진을 올린 뒤 ‘우리 모두 태극기를 게양해요’란 글을 적었다. 방송인 김지민은 ‘오늘은 쉬는 날이 아니다. 현충일이다’라며 ‘오늘 날 웃으며 살 수 있게 해주신… 호국영령의 명복을 빈다’는 글로 현충일의 의미를 되짚기도 했다.<br/><br/>태극기를 직접 그려 뜻을 기린 아이돌도 있었다. <br/>그룹 비에이의 밀리는 태극기를 그리는 과정을 담은 사진을 SNS에 공개한 뒤 ‘6월 6일 현충일은 많은 분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쉴 수 있는 것 같다’라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적어 눈길을 끌었다. 비에이의 소속사 크롬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밀리는 현충일에 순국선열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직접 태극기를 그리는 아이디어를 냈다. 그룹 모모랜드도 직접 그린 태극기 그림을 올리고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다’고 애국지사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br/><br/>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57.txt

제목: [36.5°]감시와 권력 사이  
날짜: 201706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06050750001  
ID: 01101101.20170606050750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몸에 암이 자라고 있는 걸 알게 된 환자가 지방에서 올라와 암 치료를 잘 한다는 서울의 한 병원을 찾았다. 그런데 이 병원은 장비가 모자라니 다른 병원에서 영상 촬영을 해오라며 돌려 보냈다. 병원을 다시 수소문하고 예약하는 동안 환자는 속이 타 들어갔을 것이다.<br/>최근 서울 노원구의 한 공공병원에서 일어난 일이다. 오래 돼 고장이 잦은 영상장비를 교체하는데 무려 1년이 걸리는 사이 많은 환자가 이런 혼란을 겪어야 했다. 이 병원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은 “<span class='quot0'>지난 정부에서 보낸 감사의 전횡</span>” 때문이라며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다.<br/>노조는 해당 감사가 지난해 부임 이후 자신의 결재 권한을 확대해 의료장비 구입 결재를 반려하는 바람에 환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감사실은 이에 대해 장비 구입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혜택을 독점하는 걸 막기 위해서였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현장 조건에 맞는 장비 제조사는 한 업체뿐이어서 결국 그 업체 장비가 약 1년 만에 투입됐다.<br/>노조에 따르면 해당 감사는 연구비로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감사실은 “연구과제 수주를 돕기 위해서”였다지만, 원장 아닌 감사가 과제 수주에 직접 나서는 경우는 드물다. 또 전용 차량을 “다른 기관과 ‘급’을 맞출 필요가 있어서” 월 임대료가 기존보다 약 1.7배 많은 고급으로 교체했다. 2011~15년 적자였던 이 기관은 직원들의 임금 동결과 삭감으로 지난해 겨우 적자를 면했다 올해 다시 적자 운영 중이다. <br/>공공기관의 감사는 방만경영을 비판ㆍ견제ㆍ감시하는 게 주 업무다. 이 과정에서 애꿎은 피해자가 생기거나 감사 개인의 이익이 발생한다면 설사 감시 목적이 정의로웠다 해도 다수의 공감이나 동의를 얻기 어렵다. 견제와 감시 기능이 권력과 멀지 않기 때문이다. 올바른 견제와 감시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br/>지난 정부의 원자력 진흥 일변도 정책에 급제동이 걸렸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수명연장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허가 과정을 계속 비판하고 감시해온 시민단체가 큰 역할을 했음이 자명하다. 덕분에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원자력발전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신재생 발전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될 거란 기대도 높다.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실행에 옮기는 건 원자력 정책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건 새 정부가 할 일이다. <br/>그런데 일부 시민단체가 더 나아가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을 빨리 중단할 것과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어떤 단체는 에너지 공기업 경영진과 비공개 모임을 갖거나, 정부 고위층과의 만남을 주선한다는 후문도 들린다. 물론 목적은 소통이겠지만, 아슬아슬하다. 국가 권력에 대한 비판ㆍ견제ㆍ감시가 시민단체 본연의 역할이다. 정책 결정에 직접 관여하려 할수록 견제와 감시 기능은 권력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br/>원전에 생존이 달린 국민도 있다. 어렵사리 마음을 정하고 원전 건설에 따른 혜택을 기대했던 일부 지역 주민들과 기존 원전 정책을 믿고 투자한 기업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원전 관련 한국 중소업체를 인수해 국내 시장에 진출한 한 독일계 기업 대표는 “<span class='quot1'>예측 불가능한 정책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span>”며 “<span class='quot1'>새로 고용한 인력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span>”고 토로했다.<br/>원자력뿐 아니다. 4대강 보 수문이 열린 날 일부 농민들은 시름이 깊어갔지만, 한 시민단체는 보 철거를 위한 투쟁을 다짐했다. 어떤 단체들은 특정 인사를 공직에서 배제하거나 처벌하라고 요구하면서도 시민단체 인사의 공직 진출에 대해선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목적이 온당하더라도 반대 목소리를 외면하거나 공직 인사에까지 관여하는 감시 기능은 스스로 명분과 신뢰를 잃게 된다. 견제와 감시 기능은 투명한 조직, 건전한 사회를 위한 필수 요건이다. 단 권력과 거리를 둘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빛을 발할 수 있다.<br/>임소형 산업부 차장 precare@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58.txt

제목: “통합ㆍ협력진료로 췌장담도암 치료”  
날짜: 201706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05050738001  
ID: 01101101.20170605050738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암 진단ㆍ수술ㆍ항암치료 전개<br/>예후 나쁜 고약한 암 정복 위해 센터 진료진 구슬땀<br/> <br/>조기 암 검진,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공포의 질환인 암이 만성질환이 됐지만 아직도 ‘신의 영역’인 암이 있다. 바로 췌장암과 담도암이다. <br/> 담낭, 담도, 췌장은 우리 인체에서 가장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래서 이들 장기에 암이 발생하면 수술 자체가 광범위하고 까다롭다. 다른 암과 달리 획기적인 치료법도 없어 수술만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조기에 암을 발견하기 어려워 수술시도 자체를 할 수 없는 환자가 많다.<br/> 한양대병원 췌장담도암센터는 암 가운데에서도 가장 예후가 좋지 않은 췌장암과 담도암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센터장인 최호순(59) 소화기내과 교수가 있다.<br/> 최 교수는 췌장담도암 치료는 통합ㆍ협력진료 없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암 진단 및 수술, 항암치료까지 관련 진료과가 협력하지 않고는 치료할 수 없기 때문이다. <br/> 췌장담도암센터에서는 소화기내과와 영상의학과가 협력해 암 진단 및 병기를 확진 한다. 수술이 가능한 환자는 외과에서 맡는다. 수술이 불가능할 경우 소화기내과, 혈액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가 협력해 항암요법과 방사선치료를 실시한다. <br/> 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 낮 12시30분 소화기센터 내 화상회의실에서 소화기내과 간담췌외과 방사선종양학과 혈액종양학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병리과 교수들이 모여 췌장담도암 환자 치료 및 수술을 논의한다. 다학제 통합진료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br/> 최 교수는 “<span class='quot0'>모든 치료와 수술에 대한 결정은 센터의 모든 교수진의 논의를 통해 이뤄진다</span>”며 “<span class='quot0'>말이 아닌 실천을 통해 환자중심, 맞춤치료를 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당일 협진제도도 도입했다. 최 교수는 “<span class='quot0'>소화기 내과(최호순ㆍ전대원)와 간담췌외과(이경근ㆍ최동호)에서 당일 협진제를 실시해 진료시간을 대폭 단축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진단이 힘든 환자라도 최소 3~4일, 늦어도 1주일 내 암 병기를 결정해 치료를 진행 한다</span>”고 말했다.<br/><br/>“<span class='quot1'>겸손과 헌신으로 환자 치료 최선</span>”<br/> 수많은 환자를 치료했지만 최 교수가 잊지 못하는 환자가 있다. 4년 전인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70대 노(老)부부가 최 교수를 찾았다. 검사결과, 남편이 담도암 판정을 받았다. 수술할 수 없을 정도로 암이 진행돼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병행했다. 남편을 돌보기 위해 시골에서 상경한 아내는 남편을 극진히 돌봤다. 부부는 병원에서 금술 좋은 부부로 소문이 자자했다.<br/> 남편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한 2015년, 아내도 남편과 같은 담도암에 걸렸다. 아내 역시 수술이 힘들어 항암치료를 했지만 지난해 사망했다. 아내를 먼저 보낸 남편도 상태가 좋지 않다.<br/> 최 교수는 “<span class='quot0'>부부가 항암치료를 받으면서도 서로 위로하고 잘 지냈는데 마음이 아프다</span>”며 “<span class='quot0'>아무리 의사가 노력을 해도 치료에 한계를 느끼는 것이 췌장담도암인 것 같다</span>”고 말했다. <br/> 그래서 최 교수는 후배 의사들에게 ‘겸손’을 당부한다. 그는 “<span class='quot0'>수술에 성공해도 재발률이 높은 것이 췌장담도암</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의사이지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 최 교수는 췌장담도암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려면 췌장과 담도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과 함께 내?외과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각기 다른 악기와 조화를 이뤄 최상의 화음을 연출하는 것처럼 말이다. 최 교수는 “<span class='quot0'>영상의학 관련 지식도 갖춰야 췌장담도암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 최 교수는 병원에서 ‘스마일’ 의사로 유명하다. 극심한 통증을 참으며 암과 싸우고 있는 환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그는 환한 미소로 환자를 대한다. 환자들은 “교수님의 웃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하다”고 말한다. 최 교수는 “<span class='quot0'>젊었을 때는 잘 웃지 않았는데 췌장담도암 치료를 하면서 환자를 대하는 생각이 달라졌다</span>”고 말했다.<br/> 최 교수는 지난해 7월부터 한양대 의대 학장 소임을 맡고 있다. 평소 다른 진료과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연구와 진료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둔 점이 높이 평가됐다는 후문이다. 최 교수는 “<span class='quot0'>모교에서 학장 소임을 맡게 돼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의대 두 축인 학생과 교수들과 의대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 “현대의학이 발전했지만 아직 정복되지 않은 암이 췌장담도암입니다. 하지만 �h양대병원 췌장담도암센터 진료진은 효과적인 통합진료를 통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노력이 결실을 거둬 췌장담도암 환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길 희망합니다.” <br/>김치중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2-359.txt

제목: ‘독한’ 난소암, 환자 적다고 여성암에서도 ‘서얼’ 취급?  
날짜: 201706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05050736002  
ID: 01101101.20170605050736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최근 유방암 환자들이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성명서를 냈다. “<span class='quot0'>유방암 환우들이 대한민국의 어머니, 아내, 딸, 여동생이기에 이들이 겪는 고통과 차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 도와야 한다</span>”는 내용이다. 암 환자들이 보건복지부가 아닌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성명을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br/>실제 국내 여성 환자는 남성 환자보다 차별받고 있다. 여성의 건강보험 보장률(54.2%)은 남성(59.5%)보다 5.3%p 낮다. 이처럼 차별받는 여성 환자 가운데 특히 더 서글픈 여성이 있다. 난소암 환자다. 난소암은 여성암 가운데 유방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병하지만 사회적 관심은 덜하다.<br/>난소암 환자들은 “정부로부터 서얼 취급을 받는다”며 “차라리 다른 암에 걸렸으면 덜 억울할 것”이라고 한탄한다. 난소암 가운데 BRCA유전자 돌연변이 환자는 혁신 신약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두 달에 2,000만원이나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메디컬 푸어’가 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br/><br/>두 달에 2,000만원 드는 약값<br/>난소암은 최근 급격히 늘고 있다. 2012년 1만2,942명이었던 난소암 환자가 2016년 1만8,115명으로 39%나 증가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비혼(非婚), 만산(晩産) 여성이 늘면서 폐경기 이후 여성을 위협하던 난소암이 20~30대 젊은 여성에게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 새 난소암으로 진료받은 20~30대 환자가 2,388명에서 3,145명으로 32%나 늘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년 기준 연령대로 보면 50~60대 폐경기 이후 여성이 49%로 가장 많았지만 20~30대 젊은 여성도 17%를 차지했다.<br/>난소암은 조기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2%일 정도로 매우 양호하다. 하지만 난소암 환자의 70%가 3기 이후 진단될 정도로 조기 발견이 되지 않고 있다. 난소가 골반 안쪽 깊은 곳에 위치해서다. 게다가 3~4기 진단을 받은 난소암 환자의 5년 생존률은 15~20%에 불과할 정도로 ‘독한’ 암이다. 재발률도 50~70%로 다른 암보다 아주 높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br/>대전에 살고 있는 한모(52)씨는 2014년 난소암 진단을 받은 뒤 수술하고 얼마 안 돼 두 번이나 재발했다. 구토와 탈모를 겪으며 매달 한번씩 항암치료를 받는 것이 헛되었다. 난소암 가운데 재발률이 40배나 높은 BRCA유전자 돌연변이 암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2월부터 복용한 새 표적항암제 덕분에 15개월이나 암이 재발되지 않았고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걱정이 줄어 심리적으로 안정됐고, 덕분에 삶의 의지가 강해져 항암치료를 받을 때는 그만뒀던 그림 강사 일도 다시 시작하게 됐다.<br/>그런데 최근 한씨의 시름이 늘었다. 대체 치료제가 없는 이 표적항암제가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두 달에 2,000만원 가까운 비싼 약값 때문이다. 가족들 눈치가 보여 약을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생겼다. 한씨는 “<span class='quot1'>너무 비싼 약값 때문에 약을 먹지 못해 세상을 떠난 다른 난소암 환자를 보면서 유방암 등 다른 암보다 환자수가 적다고 난소암에 관심을 덜 기울이는 상황이 너무 원망스럽다</span>”고 했다.<br/>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과 같은 5대 암은 국가암검진과 생애전환기검진 등에 포함돼 조기 검진과 치료환경이 잘 조성돼 있는 반면 난소암은 예외다.<br/>정부는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12~13세 여학생에게 무료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유방암은 최근 8년간 8개의 신약 항암제가 허가를 받을 정도로 의학이 발전됐지만 난소암은 2개에 불과하다. 게다가 국내 허가된 2개의 난소암 항암제 가운데 1개(아바스틴)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재발률이 40배나 높은 BRCA유전자 돌연변이 난소암 환자는 건강보험까지 받지 못해 비싼 약값 때문에 ‘메디컬 푸어’가 될 각오를 해야 한다.<br/><br/>혁신 신약 보험 등재에 601일 걸려<br/>난소암은 재발률이 높다. 진행성 난소암의 경우 재발률이 75%다. 거듭되는 재발과 항암치료로 인한 내성은 치료효과를 낮추고 합병증이 생길 위험도 높다.<br/>최근 기존 항암제 단점을 보완하고 난소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진 BRCA유전자 돌연변이 사멸을 목표로 하는 표적항암제(린파자)가 나왔다. 임상시험 결과, 해당 약제를 복용한 환자군은 병이 악화되지 않고 생존한 기간이 11.2개월로 위약 복용 환자군(4.3개월)보다 2.6배나 생존율이 높았다.<br/>하지만 환자가 적어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해 비싼 약값을 부담해야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의약품청(EMA)은 이 약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신약 허가를 받고 건강보험 급여 등재까지 평균 601일이 걸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245일보다 2배 이상이다.<br/>이재관 고대구로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span class='quot2'>여성암 가운데 유방암은 생존율이나 치료환경이 많이 좋아졌고, 자궁경부암도 예방백신까지 나왔다</span>”며 “<span class='quot2'>반면 난소암은 재발률이 높고 생존율이 매우 낮은 등 치료환경이 열악하다</span>”고 했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3'>신약의 경제성 평가에 앞서 확실한 효과를 보이는 약에 대해선 치료를 우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중요하다</span>”고 했다.<br/>최근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약에 따르면, 비싼 검사비와 신약이나 신의료기술 등의 비급여를 줄이고, 재난적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를 위한 의료비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4'>대체 가능한 다른 치료법이 없지만 환자수가 적어 경제성평가에서 소외되는 약제가 없도록 새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span>”고 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br/><br/><난소암 발병 추이>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언론사: 한국일보-2-360.txt

제목: [지평선] 장수유전자  
날짜: 201706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05050640002  
ID: 01101101.20170605050640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일본 연구팀이 장수와 관련 있는 새로운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한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100세 이상 일본인 530명과 79세 이하 4,312명의 유전정보를 비교해 DNA 염기가 다른 곳을 분석한 결과 ‘CLEC3’라는 유전자를 새로 확인했다. 암 전이나 뼈 형성과 관련된 이 유전자가 특정 장소에 있는 DNA 염기와 바뀐 비율은 일반인이 19%인데 장수자는 26%로 높았다는 것이다. 이 유전자는 특정 단백질 형성에 기여해 암 전이를 억제하거나 뼈를 튼튼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br/>▦ 알려진 장수유전자 가운데 유명한 것은 시르투인(sirtuin)이다. 2000년 미국 MIT 교수가 효모에서 찾아낸 이 유전자는 이후 동물과 사람에서도 확인됐다. 이 유전자는 축복 받은 소수만 가진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다는 점 때문에 특히 눈길을 끌었다. 이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면 누구나 장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답은 열량 섭취를 줄이는, 즉 소식(小食)하는 것이다. 그러면 에너지 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조효소의 생성을 돕고 그로 인해 이 유전자의 활동도 증가한다는 설명이다.<br/>▦ 장수 문제에서는 미국 인공지능 전문가 레이 커즈와일(구글 기술이사)을 빼놓을 수 없다. 커즈와일은 베스트셀러 <특이점이 온다>에서 “<span class='quot0'>나노 기술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2030년에는 적혈구의 수천 배 효율로 나노봇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면역체계관리시스템을 이용해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했다. 그는 <영원히 사는 법>이란 책에서는 수명 연장을 위한 유전자 프로그램 재설계, 세포 결함 제거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br/>▦ 그러나 당장 불로장생은 꿈일 뿐이다. 유전자 조작은 예상치 않은 부작용을 부를지 모른다. 기계와 인체를 결합해 인간의 수명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지만 그 경우 인간은 어떤 느낌일지 무척 생경하다. 그래서 지금의 인생도 결코 짧지 않다는 2,000년 전 격언이 더 와 닫는지 모르겠다. 인생론으로 유명한 세네카는 “<span class='quot1'>우리의 수명이 짧은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span>”이라 했다. 그가 제시한 인생을 길게 사는 방법은 세 가지다. 욕망을 버리고, 여유를 가지며, 오늘을 살라는 것이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이 외친 “카르페 디엠”(carpe diem)이다.<br/>김범수 논설위원 bskim@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61.txt

제목: [김월회 칼럼] ‘소모 교육’에서 ‘누림 교육’으로  
날짜: 201706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05050639001  
ID: 01101101.20170605050639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인공지능(AI) 알파고가 바둑 최고수를 연파하고는 바둑계를 떠났다. 지난해 이세돌 9단을 눌렀던 알파고는 세계 랭킹 1위 중국의 커제 9단을 3대 0으로 완파했다. 또한 저우루이양 등 다섯 명의 9단이 ‘집단지성’을 발휘해 벌인 대국에서도 가볍게 승리했다. 여러 모로 의미가 깊을 수밖에 없는 대국이었다.<br/>커제 9단과 대국한 알파고는 이세돌 9단과 대국했던 때보다 한층 진화된 상태였다. 처리 속도는 15배 이상으로 증진됐고 학습시간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으며 전력소비량도 30분의 1 이하로 줄었다. 한마디로 가성비가 자못 좋아졌다는 뜻으로, 알파고 같은 AI의 범용 가능성이 한결 높아졌음을 일러준다.<br/>그런데 이런 기술적 진보보다는 9단 연합팀을 눌렀다는 점이 한결 의미 깊어 보인다. ‘인간 집단지성에 대한 기계의 승리’라는 평가가 충분히 가능하기에 그렇다. 알파고처럼 인간도 통신하면서 뒀다면 쉬이 이겼을 거라고 말하기가 이젠 머쓱해졌다. AI는 IQ 150짜리 5대를 연동하면 IQ 750의 구현이 가능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는 속설도 꽤나 신경 쓰이게 됐다. 설령 많은 수의 프로기사 9단이 연합해도 여전히 9단이 최고치일 수 있음이 환기됐기 때문이다.<br/>어쩌면 인간에게는 기계와 결합해야 기계를 이기게 되는 길만 남았을지도 모른다. 1997년 세계 체스 챔피언이 AI 딥블루에게 패배했다. 그 후 인간이나 AI가 단독 혹은 팀으로, 또 ‘인간+기계’ 연합팀으로 참여 가능한 체스 리그가 출범됐다. 여기서 1위를 비롯한 상위권 대부분은 인간+기계 연합팀이 차지했다. 지난해 말 암 치료에 의료용 AI 왓슨을 도입한 한 병원에 따르면, 의료진과 왓슨이 서로 다른 진단과 치료법을 내놨을 때 환자 대부분은 왓슨을 따랐다고 한다. 그렇다고 환자들이 처치까지 왓슨에 맡긴 건 아니었다. AI의 진단을 토대로 의사가 치료하는 형식, 곧 ‘인간+기계’ 조합을 선택한 것이다. <br/>이는 임박한 AI 시대에 우리 인간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지를 잘 말해준다.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학습’이 그것이다. 알파고는 기존에 저장해놓은 데이터를 자가 학습하는 것만으로 이번 대국에 임했다. 새로운 기보의 수혈 없이 ‘강화 학습’이라 불린 자가 학습만으로 커제 9단을 꺾었다. 이로써 빅 데이터가 자가 학습과 만남으로써 차원을 달리하며 강해질 수 있음이, 그 증강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수 있음이 입증됐다. 빅 데이터는 갈수록 광범위하게 집적되고 자가 학습 능력도 세차게 진화할 것이기에 그렇다. <br/>게다가 AI는 항상 학습한다. 쉼 없이 학습하도록 프로그램을 짜면 정말 그렇게 한다. 인간처럼 두어 시간 공부하면 효율이 떨어지지도 않는다. 멍 때리거나 잡념에 휩싸이지도, 갈등하거나 회의에 젖어들지도 않는다. 동력이 공급되는 한 지치거나 멈추지 않고 계속 학습한다. 학습을 통해 점점 인간을 닮아가기도 한다. 알파고가 드물지 않게 구사한 ‘창의적’ 수도 실은 학습이, 곧 그러한 학습을 가능케 해준 기술이 일궈낸 인간다움을 향한 진보였다. 당면한 디지털 문명 시대 우리 일상을 그득 메울 디지털 기계의 근황이다. <br/>하여 이런 디지털 기계를 ‘주인’으로서 활용하려면 인간도 늘 학습해야 한다. 기계를 제압하느냐, 그렇지 못하냐는 부차적이다. 그들과 팀을 이뤘을 때 인간과 사회의 역량이 증강되는 한, 학습하는 AI와의 협업이 불가피해지기에 그렇다. 그래서 디지털 기계를 알아야 한다. 만들고 고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디지털 기계와 이를 기반으로 구현되는 디지털 문명을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른바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 그러니까 디지털 문명을 해독해내고 이를 삶에 창조적으로 사용할 줄 알도록 늘 학습해야 한다는 말이다.<br/>더구나 우리는 벌써 디지털 기계의 도움 없이는 사회적 일상의 영위가 사뭇 불편해지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소통도 생업도 여가도 디지털 기계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지고 있다. 인간다움의 정수라 하는 명징한 이성과 따뜻한 감성, 틀을 깨는 상상과 그윽한 직관조차 디지털 기반으로 표현되고 향유된다. 정도 차만 있을 뿐 우린 이미 ‘21세기형 사이보그’다. 자칫하여 디지털 기계에 잠식된 ‘나’로 전락되는 건 일도 아니게 됐다. 학습을 통해 연신 진화하는 디지털 문명에 대응해 디지털 문해력을 갱신해가야 ‘인간-나’를 유지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br/>그래서 현행 ‘초등-중등-고등’ 식의 교육 패러다임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한창 진척되고 있는 ‘평생’ 학습해야 하는 시대와 공진하지 못하기에 그렇다. 중장년, 노년이 됐다고 하여 ‘디지털 문맹’이 문제되지 않는 시절은 저물고 있다. 교육이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용으로 소모되는 풍토에서 평생학습이 부담되지 않는 ‘누림 교육’으로 전환돼야 하는 까닭이다. 생애 주기별로 누림 교육이 시행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진작에 마련했어야 했음이다.<br/>김월회 서울대 중어중문과 교수

언론사: 한국일보-2-362.txt

제목: [이 상품 어때요] 현대카드 제로 포인트형 外  
날짜: 201706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05050616001  
ID: 01101101.20170605050616001  
카테고리: 경제>유통  
본문: ’현대카드 제로’ 포인트형, 온라인 특화형도 출시 <br/>현대카드의 히트상품인 ‘현대카드 제로’의 라인업이 확장됐다. 새로 출시된 '현대카드 제로포인트형'은 전월 카드사용 실적이나 혜택 제공 한도, 횟수 등의 조건 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카드 이용금액의 1%를 M포인트로 쌓을 수 있다. 일반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대형할인점, 편의점, 대중교통 등에서는 1%를 추가로 적립해 주고, 선결제시 0.5%를 포인트로 더 준다. 적립된 M포인트는 전국 3만7,000여곳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현대카드는 또 온라인 쇼핑에 특화된 '현대카드 제로 모바일'도 내놨다. 이 카드는 모든 사용처에서 카드 이용금액의 1%를 M포인트로 받거나 0.7%를 할인 받을 수 있다. 18개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는 사용액의 2.5%를 포인트로 받거나 1.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br/><br/>해지환급금 다양한 ‘롯데 더알찬 건강보험’<br/>롯데손해보험은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을 낮춰 보험료가 10~30% 저렴한 ‘(무)롯데 더알찬 건강보험’을 출시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선택할 수 있는 해지환급금 수준을 일반형(기존 건강보험과 동일), 일반형의 50% 지급형, 30% 지급형,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등 4가지로 다양화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은 일반형 대비 보험료가 30% 저렴하며, 납입 기간 이후에는 일반형과 동일한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암ㆍ심장질환ㆍ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강화됐고 중증치매진단ㆍ치매입원 등 치매관련 보장부터 각종 질병에 대한 진단ㆍ수술ㆍ입원 등 다양한 담보들로 구성됐다.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납입기간은 20년, 25년, 30년, 만기는 100세, 90세, 80세로 구성됐다. <br/><br/>국가보훈대상자 우대 ‘우리나라사랑 정기예금Ⅱ’<br/>우리은행이 6월 호국ㆍ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나라사랑 정기예금Ⅱ'를 출시했다. 이 상품은 기본금리가 연 1.7%인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가족, 직업군인, 사병, 대체복무자에게 연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준다. 최저가입금액은 100만원이고, 총 판매 한도는 2조원으로 늘어났다. 6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판매되며 이 기간 한도가 소진되면 판매가 종료된다.

언론사: 한국일보-2-363.txt

제목: 환경성질환 피해자 10년간 1만명…사망자 2000명 넘어  
날짜: 201706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04050503001  
ID: 01101101.20170604050503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가습기살균제ㆍ석면ㆍ시멘트공장ㆍ연탄공장 4개 원인 탓 사망자 2208명 <br/><br/><br/>생활 환경에 의해 발병되는 ‘환경성 질환’ 피해자가 최근 10년 간 1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br/>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07년부터 정부에 피해 신고를 했거나 정부 조사에서 질환이 확인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습기살균제ㆍ석면ㆍ시멘트공장ㆍ연탄공장 등 4개 원인으로 인한 환경성 질환 피해자가 9,853명에 달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2,208명(22.4%)는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br/>4가지 원인 중 피해자를 가장 많이 낸 것은 가습기살균제다. 지난달 말까지 5,616명(57%)이 피해자로 인정받거나 신고됐고, 이 중 1,195명이 사망했다. 이는 2011년 8월 말 정부 역학조사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6년 간 집계한 수치인 만큼, 가습기살균제가 처음 판매된 1994년부터 따지면 피해자는 수 만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센터 측 설명이다. <br/>1군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돼 정부의 석면피해구제심사를 거쳐 4월 말까지 공식 인정된 피해자는 2,467명이다. 질환 별로 살펴보면 석면폐 환자가 1,274명(51.6%)으로 가장 많고, 석면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암인 악성중피종 859명(34.7%), 석면폐암 329명(13.3%), 미만성흉막비후 4명(0.1%) 등이었다. 석면 피해자 10명 중 4명(40.8%ㆍ1,006명)은 숨졌다. <br/>이 밖에도 석회암을 굽는 데 쓰이는 가마인 ‘소성로’를 보유한 전국 11개 시멘트공장에 의한 환기기능장애(1,387명), 폐암(349명), 진폐증(27명) 환자 규모도 1,763명(사망자 7명)에 달한다. 대구 동구 안심동에 위치한 시멘트ㆍ연탄 공장 밀집지역에서도 진폐증을 앓는 주민 8명이 확인됐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span class='quot0'>책임회피 기업에 징벌적 책임을 묻고 가해자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등 실질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br/>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64.txt

제목: 모든 의혹 반박 “칼날 위에 선 심정으로 시민운동 했다”  
날짜: 201706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02050556002  
ID: 01101101.20170602050556002  
카테고리: 사회>미디어  
본문: 강남아파트 위장전입, “부인 암 치료 위해 병원 근처로…은행 기록 있으니 확인해 보라”<br/>“부인 취업특혜 정유라급” “<span class='quot0'>잘못된 행정처리인 건 분명…부당한 영향력 행사한 적 없다</span>”<br/>노사정위 노문 자기표절 “윤리규정 제정 전 승인 받아 게재…2008년 이후엔 꼼꼼하게 처리”<br/>목동 아파트 다운계약서 “공인중개사ㆍ법무사 처리가 관행…국민 법감정엔 맞지 않아 송구”<br/><br/>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부인 취업특혜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논문 자기 표절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금의 윤리 규정에 비춰보면 미흡하다. 송구하다”면서도 “노사정위원회 승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당시 관행이었음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br/>김 후보자는 이날 문재인 정부 조각을 위한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span class='quot1'>개인적 사정이라 말씀 드리지 않으려 했다</span>”며 입을 뗐다. 그러면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로 주소지를 거듭 옮겨 위장전입 의혹을 사고 있는 데 대해 “부인의 대장암 치료 때문”이라고 사정을 밝혔다.<br/>김 후보자는 “많은 분들이 이른바 재벌저격수인 제가 당시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살았던 것에 의문을 가지고 계신다. 물론 자식 교육을 위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영국에 안식년을 다녀와 처가 길거리에 쓰러졌고 대장암 2기 말로 수술을 받고 1년 동안 항암치료를 하더라도 생존율이 반반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며 “그 때 수술한 병원이 강남의 모 대학병원이었다. 그 뒤로 제 처의 치료를 위해서 이사를 한 것이 중요한 이유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세계약서가 있었다면 소명이 됐을 텐데 보관하고 있지 않지만 관리비를 납부한 은행 기록을 갖고 있으니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r/>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인사 배제 5대 원칙 등을 포함한 고위공직후보자 자질 논란과 관련해 “기업을 상대로 하는 시민운동을 해 왔다. 그 20년 동안 정말 칼날 위에 서 있는 듯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 왔다”며 도덕성 문제에 자신감을 보였다. <br/>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은 도덕성 관련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김 후보자 부인이 서울시교육청이 정한 영어회화 전담강사 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span class='quot1'>잘못된 행정처리인 건 분명하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1'>저는 살면서 질문 취지(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이 없다</span>”고 반박했다. <br/>김 후보자는 1999년 서울 목동 아파트를 1억7,550만원에 구입하며 5,000만원에 구매했다고 다운계약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는 “<span class='quot1'>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 처리를 맡기는 게 당시 관행이었다</span>”며 “<span class='quot1'>지금의 기준에서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은 것을 송구스럽다</span>”고 사과했다. <br/>‘산업노동연구’에 2000년 게재한 논문이 같은 해 작성한 노사정위 연구용역 보고서를 자기표절 한 것이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산업노동연구라는 학술지에 계신 분들이 요청해 게재됐다”며 “노사정위의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8년 연구윤리규정이 제정되기 전이다. 이후에는 꼼꼼하게 처리했다”고 이해를 당부했다. <br/><br/>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br/>성지원 인턴기자(고려대 사회학4)

언론사: 한국일보-2-365.txt

제목: “운도 우연도 생길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호암상 수상자의 ‘우연학’ 개론  
날짜: 201706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01050837002  
ID: 01101101.20170601050837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삼성을 창업한 호암(湖巖) 이병철 회장을 기리기 위해 1990년 제정된 ‘호암상’은 순금 메달과 함께 무려 3억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그만큼 심사기준도 까다롭다. 수상 부문별로 뛰어난 업적과 함께 사회공익에도 기여해야 한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국내외 전문가 30여 명의 깐깐한 심사를 통과한 5명(1곳은 단체)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의 수상소감에서는 그 동안의 노력과 고민, 그리고 세상을 대하는 진심이 묻어 나왔다.<br/><br/>과학상 수상자 최수경(60) 경상대 교수<br/>“제가 연구하는 것은 경제성이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3년 넘게 준비했던 연구과제의 연구비 수주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주당 9시간의 강의와 기타 여러 업무 등으로 연구에만 전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이제 그만 할까’ 생각하던 시기에 수상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사건이라 연구를 계속하라는 계시인지, 내가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br/>화분에 키우고 있는 아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잎들이 창에 그림자를 만들면 그걸 쳐다보면서 잠이 드는 게 좋았습니다. 몇 년 전 여름이 끝날 무렵 나무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꺾꽂이를 처음 해봤습니다. 잎이 다섯 개 달린 작은 가지를 꺾어 물에 담가 놓았는데 정말 뿌리가 나기 시작해 화분에 옮겨 심었습니다.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다섯 잎 그 상태로 2년 반이 더 지났습니다. 그러다 잎들이 하나 둘 시들며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 나무는 죽는구나, 꺾꽂이가 쉬운 게 아니구나’ 생각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며칠 뒤 새 잎이 몇 군데에서 동시에 틔기 시작해 어느새 잎이 열 다섯 개가 됐습니다.<br/>이 화분을 볼 때마다 그 때의 마음 고생과 함께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연구도 이와 비슷합니다. 몇 년 혹은 더 오랫동안 매우 지루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잎들이 새로 돋아나기도 합니다. 가끔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크게 계획한 일이 평범하게 될 때도 많고, 또 그 반대의 일도 가끔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지루한 과정이, 결과에 상관없이 그냥 단순하게 일에 몰두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미 연구에 몰두하는 것 그 자체로 보상을 받고 있었다고나 할까요?”<br/>(최 교수는 기존 입자들과 성질이 전혀 다른 X, Y, Z 입자를 최초로 발견해 입자물리의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한 공로로 과학상 수상)<br/><br/>의학상 수상자 백순명(60) 연세대 교수<br/>“모국에 돌아온 이후 연구가 아닌 20년 전 미국에서 진행한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부끄럽습니다. 제 친구인 조지타운대학 안톤 웰스타인 교수는 “연구자는 가장 최근 발표한 논문으로 평가 받는다"고 하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최근 귀국해 이룬 성과물들은 매우 부족합니다. 정년까지 5년 밖에 안 남았지만 좀더 연구에 전념해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br/>특별히 머리가 비상하거나 뛰어난 특기가 없는 제가 환자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무수히 많은 선생님들과 선후배, 동료들에게 깊이 감사 드립니다. <br/>제가 이 기회에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은 저의 성과는 개인의 발명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연구자가 협력한 융합 연구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제 스승이신 닥터 피셔(Fisher) 형제가 50년에 걸쳐 진행한 임상시험과 참여 환자로부터 증여받아 어렵게 구축한 암 조직 은행, 15만명이 넘는 임상시험자, 환자의 추적조사를 진행한 700개 병원과 거기에 속한 3000명의 의사 및 연구진, 통계학자 등등 모두 같이 유방암 환자를 돕겠다는 일념으로 협력해 만든 숭고한 연구 결과입니다.<br/>제 인생은 우연의 연속이었고, 전 지독히 운이 좋은 연구자일 뿐입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모교에 돌아와 연구하며 느낀 점은 한국에서는 연구자간의 솔직하고 직설적인 의견 교환이 적고, 국가에서 너무 톱다운(top-down) 방식의 연구비 정책을 고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일어났던 것과 같은 ‘우연’의 기회가 미국보다 훨씬 적게 발생합니다. 결국 우연이란 것도, 우연이 생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가능합니다.”<br/>(백 교수는 ‘온코타입 DX(Oncotype DX)'란 유방암 유전자 검사법을 개발해 항생제 남용 없이 개인별 맞춤 치료의 기반을 마련한 공로로 의학상 수상)<br/>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66.txt

제목: 기후변화 진실? 거짓? 끈질긴 공방의 역사  
날짜: 201706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601050821003  
ID: 01101101.20170601050821003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기후변화를 ‘거짓’이라고 언급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처럼, 이미 100여년 전부터 과학적 사실로 굳혀진 온실가스와 기후변화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주장은 끊이지 않았다. 온실가스 발생으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된다는 기후변화 이론에 대한 갑론을박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br/>논쟁의 출발점은 1890년대 영국 과학자 존 틴들이 이산화탄소가 복사열을 흡수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1970년대 들어 대중이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논리도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br/>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이들은 지구 온난화 현상을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지구 온난화 현상이 주춤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후변화 회의론자인 스콧 프루이트 미 환경보호청(EPA) 청장은 올 초 인준 청문회에서 “<span class='quot0'>과거 20여년 간 인공위성 자료는 온난화 수치가 변동이 없음을 보여준다</span>”며 기후변화를 부정했다. <br/>하지만 기후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의견은 소수다. 미국 로렌스리버모어 국립연구소의 벤자민 샌터 박사는 “<span class='quot1'>(프루이트 청장이 근거로 제시한) 위성 자료는 지구 표면에서 멀리 떨어진 대기권의 온도를 측정한 것으로 온난화가 더 이상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span>”고 반박했다. 미국해양대기관리청 산하 기관에서 근무했던 토마스 칼 박사도 “<span class='quot2'>우리가 살고 있는 곳과 좀더 가까운 장소에서 온도를 측정하는 다른 위성 장비들의 자료를 보면 최근 수십 년 간 온난화가 진행돼 왔음을 알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span class='quot3'>담배업계가 흡연과 암의 연관성을 모호하게 한 작업을 한 것 같이 1990년대부터 미국석유협회 같은 단체들이 연구소 등을 후원하며 잘못된 근거들을 퍼뜨리고 있다</span>”며 기후변화 회의론자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span class='quot4'>인간 활동에 의해 상당수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는 자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다른 원소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반, 대중과 과학자 다수는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결론 짓고 있다</span>”고 덧붙였다. <br/><br/>채지선 기자 letmenknow@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67.txt

제목: 대한민국 화장품 방문판매, ‘소통’의 진화로 새역사 쓴다  
날짜: 201705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531050938002  
ID: 01101101.20170531050938002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span class='quot0'>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함에 성심성의를 다하는 ‘진심’은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 카운셀러가 견지해 온 최고의 가치다</span>”<br/><br/>이는 지난 4월 20일 서울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개최 된 ‘18회 아모레 카운셀러 대회에서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이 초심으로 돌아가는 자세를 당부하며 강조한 말이다.<br/><br/>1964년 방문판매 사업을 시작할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고객과 사회를 향한 진심을 바탕으로 인류의 아름다운 내일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전한 것이다.<br/><br/>그리고 이러한 서경배 회장의 외침과 함께 아모레퍼시픽 방문판매 사업은 또 한번 진화라는 이름을 쓰며 국내 방문판매 업계에 새로운 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br/><br/>고객과의 소통을 위한 ‘아모레 카운셀러(방문판매원)’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뷰티Q’가 누적 다운로드 수 100만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br/><br/>아모레퍼시픽의 방문판매 사업이 진화하는 시장 환경과 고객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지난 2015년 론칭한 ‘뷰티Q’의 다운로드 100만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br/><br/>본지는 아모레퍼시픽 방문판매 사업과 ‘아모레 카운셀러’가 걸어 온 53년 간의 여정을 돌아보고 내일의 대한민국 방문판매를 전망해 보았다.<br/><br/>아모레 카운셀러의 시작과 ‘정(情)’의 역사<br/><br/><br/>지난 1964년 9월에 방문판매 제도 도입으로 그 역사가 시작된 아모레퍼시픽의 ‘아모레 카운셀러’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고객들의 끊임없는 사랑을 받으며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하나의 회사를 넘어, 국내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오고 있는 주요 인적자원이다.<br/><br/>현재 전국적으로 약 3만 6,00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아모레 카운셀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방문판매 경로의 고객만 약 250만명에 이른다.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화장품 방문판매 조직인 셈이다. <br/><br/>아모레퍼시픽의 방문판매 채널에서는 현재 대표 브랜드인 설화수와 헤라를 비롯하여 바이탈뷰티, 프리메라, 려, 일리 등 총 9개 브랜드의 400여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br/><br/>방문판매 경로의 가장 큰 경쟁력은 개인별 맞춤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면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만의 뷰티&헬스 카운셀러를 갖게 되는 것이다. <br/><br/>하지만 무엇보다 아모레 카운셀러가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강조한 것은 ‘진심’, ‘정(情)’이었다.<br/><br/>이러한 활동의 결과 고객들은 제품에 대한 만족도뿐 아니라 관계를 맺고 있는 담당 카운셀러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br/><br/>카운셀러에 대한 높은 만족도는 새로운 고객의 추천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정을 바탕으로 아모레퍼시픽의 방문판매 사업은 고객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해 왔다.<br/><br/>이런 노력들로 오래전 화장품 판매원들의 상징이었던 커다란 화장품 가방이 사라지고 스마트폰을 통한 고객관리가 보편화될 정도로 시대가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아모레 카운슬러는 고객과 사회의 아름다움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고객의 평생 뷰티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다.<br/><br/>고객과의 소통, 그리고 진화<br/><br/><br/>1964년 방문판매 사업에 나선 아모레퍼시픽은 2000년대 초 디지털을 만나면서 큰 진화를 맞았다. <br/><br/>유통 채널의 다양화,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 그 위상이 흔들리던 방문판매에 2003년 업계 최초로 ‘PDA’가 도입되면서 방문판매가 고객 로열티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영업 채널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br/><br/>무엇보다 판매원의 이미지를 전문적인 카운셀러로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방문판매를 영업이 아니라 고객관리로 보는 인식의 전환도 이루어냈다. <br/><br/>여기에 더해 정확한 데이터 관리를 통해 ‘고객에 대한 통찰력’이라는 큰 선물을 얻게 되었다. <br/><br/>이전까지만 해도 최종 소비자가 누구인지, 어떤 구매자가 사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집계 및 분석하면서 더욱 빠르게, 보다 정확하게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영업전략을 전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br/><br/>현재 아모레 카운셀러는 ‘스마트폰 앱’인 ‘뷰티Q’를 통해 다양한 상품 및 미용 정보를 전달하여 더욱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카운셀링을 제공할 수 있다. <br/><br/>또한 언제 어디서든 간편 결제 및 뷰티 포인트 사용이 가능하며 나아가 고객의 구매 이력 및 뷰티포인트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뢰감을 주고 카운셀러의 이미지를 높여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br/><br/>‘뷰티Q’의 성과가 갖는 의미<br/><br/><br/>아모레퍼시픽이 방문판매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 개발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뷰티Q가 최근 누적 다운로드 수 10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17년 5월 현재 뷰티Q의 누적 다운로드수가 90만에 이른 것이다. <br/><br/>뷰티Q는 미용 정보 제공, 특정 제품 사전 예약 혜택 이벤트, 포인트 페이백 이벤트 등 다양한 고객 프로모션을 마련해 고객 혜택 제공에 주력하며 아모레퍼시픽 방문판매 사업에 새로운 소통의 장을 만들어 냈다.<br/><br/>또한 ‘카운셀러 찾기 서비스’를 통해 신규 고객이 방문판매 구매 경험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했다. <br/><br/>해당 서비스를 통해 희망 지역을 선택하면 전국의 영업장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전화 연결도 가능하다. <br/><br/>더불어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탑재하여 고객이 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고했으며 이 외에도 아모레퍼시픽 통합 포인트 ‘뷰티포인트’ 정보 조회, 제품 및 제휴 혜택 정보, 메이크업 시연 영상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통해 고객과의 오픈형 소통에 주력하고 있다. <br/><br/>아모레 카운셀러는 뷰티Q를 통해 고객의 구매 이력 및 뷰티포인트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카운셀링을 제공하고 있으며 뷰티Q의 고객 활용도도 높아지고 있다.<br/><br/>방문판매 경로를 이용하는 고객 중 37%의 고객이 뷰티Q를 사용하고 있으며 뷰티Q를 통한 구매 결제 또한 전체 결제 중 18%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br/><br/>또한 20대부터 시니어 층까지 전 연령 층의 다양한 고객이 뷰티Q를 활용하고 있어 향후 연령대에 따른 정보 및 서비스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고도화된 콘텐츠와 시스템 구축에도 가능해졌다.<br/><br/>뷰티Q는 아모레퍼시픽 방문판매 사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 동시에 국내 화장품 방문판매에 새로운 내일을 예고하는 시발점인 것이다.<br/><br/>모바일을 통한 토털 서비스가 카운셀러의 전문성을 높이고 고객들의 편의성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켰으며 젊은 고객층을 확보하는 연결고리가 된 것이다.<br/><br/>그런 의미에서 이번 뷰티Q의 누적 다운로드 수 100만이 갖는 의미는 새로운 화장품 방문판매 시작을 알리는 초석으로 의미를 갖는다.<br/><br/>시스템의 진화, 카운셀러 업(業)의 가치 증대<br/><br/><br/>아모레퍼시픽의 방문판매 사업은 고객들과의 소통에만 그 목적이 있지 않다.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카운슬러들의 가치를 높이는데도 오랜 시간 큰 노력을 경주해 왔다.<br/><br/>지난 2009년부터 아모레퍼시픽은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영업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 접점에서 카운셀링을 하는 아모레 카운셀러의 영업역량을 높이고 250만명의 기존고객의 구매를 확대하는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고객관계관리) 전략에 집중했다. <br/><br/>해당 프로그램은 카운셀러의 카운셀링 스킬을 업그레이드하고 카운셀러 영업력을 향상시켜 신입 카운셀러의 정착율을 높이고 있다. <br/><br/>또한 CRM을 통해서 카운셀러가 체계적으로 고객관리를 하며 고객에게 맞는 제품을 UP/Cross Selling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해 왔다. <br/><br/>아울러 뷰티포인트로 통합된 아모레퍼시픽의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더욱 견고한 CRM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br/><br/>뿐만 아니라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앞서 시니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전용 상품 출시, 차별화된 채널 전략 등을 구상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br/><br/>아모레퍼시픽은 2014년부터 방문판매 경로의 제도와 전략을 질적성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회사와 거래처, 카운셀러 간 동반성장 영업 체질을 내재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br/><br/>365콜센터 및 현장 고충처리위원회 신설, 동반성장협의회, 카운셀러 상조회 운영위원회, 뉴 리더, 모범직급자 등 대표 경영주 및 카운셀러들과의 주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모임을 운영하는 등 소통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br/><br/>또한 ‘Design your Dream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카운셀러의 등록부터 정착, 직급위촉 등 단계별 비전체계를 구체화하고 직급 위촉자를 대상의 해외 연수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br/><br/>카운셀러를 위한 스마트폰 교육용 애플리케이션과 사이버 교육시스템 등을 론칭하여 카운셀러들의 교육 콘텐츠 접근성을 높인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br/><br/>이러한 노력들은 아모레퍼시픽의 카운셀러들이 업의 가치와 철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아나가 고객과의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br/><br/>사회공헌으로 또 하나의 꽃을 피우다<br/><br/><br/>아모레퍼시픽은 책임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 소임을 다함으로써 세상의 아름다운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회사 설립 이후 지속해 왔다.<br/><br/>메이크업 유어 라이프(Makeup Your Life) 캠페인, 핑크리본 캠페인, 희망가게 등 여성의 삶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대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했으며 여러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운영 및 후원을 진행해 왔다.<br/><br/>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아모레 카운셀러들이 10년째 참여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이다.<br/><br/>이 캠페인은 암 치료 과정에서 피부 변화와 탈모 등 급작스러운 외모 변화로 인해 고통 받는 여성 암 환자들에게 메이크업 및 피부관리, 헤어 연출법 등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는 노하우를 전수하여 환자들이 투병 중 겪는 심적 고통과 우울증을 극복하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되찾고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고취할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이다. <br/><br/>2008년에 시작돼 올해 10주년을 맞은 이 캠페인에는 방문판매 경로의 아모레 카운셀러 및 임직원이 자원봉사자로 참가, 여성 암 환자들을 위한 ‘진정한 미의 전도사’로 활동한다. <br/><br/>현재까지 국내에서만 총 11,078명의 여성 암 환자 및 4,033명 아모레 카운셀러 자원봉사자가 참여했다. <br/><br/>또한 2011년에는 중국, 2015년에는 베트남으로 지역을 확대해 현재까지 3개국 총 12,360명의 여성 암 환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br/><br/>올해 국내 캠페인은 상·하반기(5~7월/10~11월)로 나뉘어 전개된다. 상반기에는 전국 주요 20개 지역 병원에서 약 850여 명의 환자를 만날 예정이다.<br/>캠페인 현장에서는 전문 강사와 아모레 카운셀러 봉사단이 참여자들에게 메이크업 및 피부관리 노하우를 전수한다. <br/><br/>암 수술 후 2년 이내로 현재 방사선 또는 항암치료 중인 여성 암 환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헤라(HERA) 메이크업 제품과 프리메라(Primera) 스킨케어 제품,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브로셔로 특별 구성된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키트’가 제공된다. <br/><br/>최지흥 뷰티한국 기자 jh9610434@beautyhankook.com

언론사: 한국일보-2-368.txt

제목: 자외선 차단제, 피부 건강 지키는 가장 확실한 화장품  
날짜: 201705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531050935001  
ID: 01101101.20170531050935001  
카테고리: 경제>유통  
본문: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과 의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반드시 사용하길 권하는 화장품이다. 자외선이 피부 노화를 앞당기는 결정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제 아무리 우수한 안티에이징 화장품을 바르고 온갖 관리를 받는다 해도 정작 자외선 차단제를 빼놓는다면 부질없는 짓에 지나지 않는다. 반대로 자외선 차단제만 잘 사용해도 안티에이징 관리의 반은 성공하는 셈이다.<br/><br/>단지 미용 목적 때문만은 아니다. 강한 자외선은 암 발생을 억제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만들고 면역반응을 저하시킴으로써 피부암을 유발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피부암의 80% 정도는 태양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br/><br/><br/>90년에 걸친 자외선과의 전쟁<br/><br/>자외선은 1801년 독일의 전기화학자인 요한 리터에 의해 그 존재가 밝혀졌다. 이후 자외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 규명됐고 1928년 세계 최초의 자외선 차단제가 미국에서 출시됐다.<br/><br/>자외선(UV, ultraviolet rays)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되는데 그 중 가장 위험한 건 UVC다. UVC는 염색체 변이를 일으키는 등 생명체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 그러나 오존층이 지구로 쏟아지는 UVC를 거의 모두 흡수해 지표면엔 닿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br/><br/>반면 UVA는 오존층에 흡수되지 않는다. UVA는 에너지량이 적지만 피부에 닿는 시점부터 태닝현상을 일으킨다. 또 파장이 길어 피부 진피층까지 침투해 피부 탄력에 관여하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를 파괴하고 주름을 생성시킨다. <br/><br/>UVB는 오존층에 대부분 흡수되긴 하나 에너지가 커 적은 양으로도 피부에 강한 자극을 가한다. 잠시만 노출돼도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고 일광화상을 입을 수 있다. 기미와 주근깨를 유발하고 심할 경우 세포 유전자를 파괴해 검버섯과 피부암을 일으키기도 한다.<br/><br/>국내서도 꾸준한 계도와 홍보가 이뤄지면서 많은 이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있다.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한 '화장품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여성 90.1%가, 남성은 56.4%가 선크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샴푸나 핸드크림 못지않은 높은 사용률로 자외선 차단제 사용이 미용의 목적을 넘어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br/><br/>자외선 차단제의 효능은 SPF와 PA 지수로 확인할 수 있다. SPF 지수는 UVB 차단 정도를 나타낸다. 집안이나 사무실 등 실내활동이 대부분인 경우 10, 간단한 실외활동이 동반될 경우 10~30 정도, 등산이나 해수욕 등 장시간 야외활동에는 50 정도가 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UVA 방어 수준은 PA 지수로 알 수 있다. 원래 국내서 판매되는 자외선 차단제의 PA 지수는 3단계로 분류돼있었으나 지난해 6월 식약처가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해 4단계로 늘렸다. 소비자 선택 기회를 넓히고 국산 제품이 해외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기준에 맞춘다는 취지에서다.<br/><br/>이에 따라 UVA 차단지수가 2이상 4미만이면 'PA+', 4이상 8미만이면 'PA++', 8이상 16미만이면 'PA+++', 16이상이면 'PA++++'로 표시하도록 바뀌었다. 개정안이 지난해 12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에도 'PA++++' 등급의 자외선 차단제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br/><br/>전문가들은 자외선 차단제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SPF나 PA 지수를 따지기 보단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br/><br/>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자외선 차단제 사용 권고량은 남성 얼굴 기준 900mg, 여성 얼굴 기준 800mg이다. 생각보다 많은 양으로, 보통은 500원 짜리 동전 크기 정도를 짜서 정성껏 문지르기를 권장한다.<br/><br/>또한 자외선 차단제는 아침에 한번 바르고 나왔다고 해서 종일 그 효과가 유지되는 게 아니므로 수시로 덧바르는 게 중요하다. 야외활동 중이라면 최소 2시간 간격으로 다시 발라야 자외선을 완벽히 막을 수 있다.<br/><br/>자외선은 사시사철 그 양의 많고 적음은 있지만 매일 내리쬐는 만큼 계절과 상관없이 신경 써야 한다. 여름철에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이들도 적지 않은데 지난해에 쓴 제품을 이듬해 다시 사용하는 일은 지양해야한다. 자외선 차단제의 성분은 안전성이 완벽하지 않아 쉽게 분리되므로 통상 개봉 후 6개월 정도가 지나면 교체하는 게 좋다.<br/><br/>타입 따라 취향 따라 골라 쓰자<br/><br/>자외선이 피부에 미치는 악영향이 널리 알려지면서 자외선 차단제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더 많은 자외선 차단제를 더 자주 사용하게 되면서 그 종류도 확대되는 추세다. <br/><br/>과거에는 로션 제형의 내용물이 튜브 용기에 들어있는 선크림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파우더, 스틱, 젤, 스프레이, 쿠션까지 다양한 타입과 형태의 자외선 차단제가 나와 있으므로 각자의 생활 패턴이나 선호에 맞춰 선택이 가능하다.<br/><br/>1 라네즈 워터리 선크림 <br/>수분과 영양이 풍부한 자작나무 수액 성분과 피부 보습 인자 성분이 함유돼 바르는 순간 산뜻한 수분감을 느낄 수 있고 피부를 촉촉하게 해준다. 하이드로 이온 미네랄 워터와 식물 유래 폴리페놀 추출물로 이뤄진 라네즈의 워터 스크린™ 기술을 적용, 유해 환경에 의해 쉽게 지치고 건조해지는 피부를 촉촉하고 건강하게 보호해준다. SPF50+ PA++++<br/><br/>2 숨37° 선-어웨이 멀티 이펙트 선블럭 EX <br/>미백 기능과 피부 톤을 자연스럽게 보정해주는 메이크업베이스 효과까지 담은 멀티 선블록. 스킨 프로텍션 기술을 적용, 자외선을 보다 강력히 차단하고 외부 유해 요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준다. 스커텔리아 뿌리, 멀버리 껍질 등으로 이뤄진 퓨어디(PureD)™ 성분과 비타민C 유도체, 폴리페놀류와 같은 항산화 성분을 추가해 건강한 피부 바탕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SPF50+ PA+++<br/><br/>3 A.H.C 내추럴 플러스 선스틱<br/>400여 가지 자연 유래 성분을 담아 피부에 순하게 작용한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피부 고민 해결을 위해 탄력 및 브라이트닝에 도움을 주는 특허 성분들도 포함시켰다. 더스트 흡착 방지 기능을 더해 각종 피부 질환을 유발하는 초미세먼지까지 막아준다. 휴대가 용이한 사이즈이며 간편한 스틱 타입으로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다. SPF50+ PA++++<br/><br/>4 라비오뜨 유브이 베일 브라이트닝 선크림<br/>순한 무기 자외선 처방으로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 가능하다. 번들거림 없는 보송한 마무리감과 자연스러운 톤-업 기능을 갖춰 화사한 피부 표현을 돕는다. 또 각종 꽃에서 얻은 릴리프 콤플렉스와 알로에베라잎추출물, 해바라기씨오일 등을 담아 자외선에 예민해진 피부에 수분을 충전하고 진정시켜준다. SPF50+ PA++++<br/><br/>5 어바웃미 유브이 퍼펙트 쉴드 톤업 선크림<br/>자외선차단은 물론 미백과 주름개선 효과도 지닌 3중 기능성 인증 제품이며 메이크업베이스 겸용으로 활용 가능하다. 프리지어, 쟈스민, 아이리스, 수선화 등 8가지 화이트 플라워 콤플렉스 성분이 브라이트닝 효과를 선사한다. 또 아라비안코튼, 넥타퓨어, 히비스커스, 푸른연꽃수가 함께 함유돼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고 피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SPF50+ PA++++<br/><br/>6 토니모리 O!Oi 더 화이트 티 마일드 선쿠션<br/>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쿠션 타입 선블록. 패션 브랜드 오아이오아이(O!Oi)와 협업해 용기 및 패키지를 새로 디자인했다. 미국의 환경운동단체(EWG)가 안전한 그린 등급으로 판정한 성분만으로 이뤄져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른 봄 차나무에서 흰 솜털이 보송보송 남아있는 싹을 수확해 만든 백화은침(백차) 추출물을 정제수 대신 사용했다. SPF50+ PA++++<br/><br/>7 네이처리퍼블릭 프로방스 카렌듈라 아이스 퍼프 선<br/>바르는 즉시 시원함이 느껴지는 쿨링 효과를 지녔다. 하와이 코나 914m 해양 심층수를 함유, 촉촉함과 기분 좋은 청량감을 선사하며 '태양의 꽃' 카렌듈라 추출물과 캐모마일 성분이 자극받은 피부를 편안히 달래준다. 퍼프가 내장돼 간편하게 사용 가능하고 자연스러운 스킨 톤의 텍스처가 화사한 피부를 연출해준다. 미백 및 주름개선을 함께 갖췄다. SPF50+ PA+++<br/><br/>8 스킨푸드 알로에 워터리 쿨링 선 쿠션 <br/>자외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 블루라이트까지 차단해주므로 실내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피부 진정 및 보습 효과가 빼어난 알로에 성분이 달아오른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켜준다. 휴대가 간편한 팩트 타입 제품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한 선 케어가 가능하다. SPF50+ PA++++<br/><br/>9 더샘 에코 어스 파워 투명 선 스틱 디즈니 에디션<br/>백탁 현상 없이 투명하게 발려 매끈하게 밀착된다. 휴대가 편리해 언제 어디서나 손대지 않고 청결하게 덧바를 수 있고 메이크업 전 푸석한 피부 결을 정돈하는데도 유용하다. 도시 유해 요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퓨리파잉 트리 모링가 성분을 배합했으며 강인한 생명력의 4가지 식물 성분을 담은 내추럴 플랜트 파워 콤플렉스를 더했다. SPF50+ PA++++<br/><br/>10 셀큐어 UV퍼펙션 데일리 에센스 선<br/>가볍고 촉촉한 에센스 텍스처가 피부에 부드럽게 스며들어 일상 자외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준다. 산뜻한 사용감을 지녀 여러 번 덧발라도 백탁 현상이 없고 메이크업 전에 사용해도 들뜨거나 밀리지 않는다. 산자나무 추출물, 복령 추출물, 에버라스팅 꽃수 등 자연 유래성분을 함유,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 방지에 도움을 준다. SPF50+ PA++++<br/><br/>11 SNP 유브이 퍼펙트 샤이닝 톤업 선 크림<br/>자외선 및 공해물질 차단, 피부톤 보정 기능을 갖춘 다기능성 제품이다. 피부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글라이코필름 성분이 함유돼있고 신기술인 파우더인실크시스템™을 적용해 부드럽고 보송한 피부 결을 연출할 수 있다.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까지 3중 기능성을 인증받았고 화사한 피부 톤을 표현해주는 핑크 베이지 색상을 띠고 있다. SPF50+ PA++++<br/><br/>12 투쿨포스쿨 마일드 시카 선 로션<br/>100% 무기 자외선 차단제로 안전 성분만으로 이뤄져 민감 피부에 안심하고 사용 가능하다. 고농축 센탈라아시아티카(병풀추출물), 치아씨 추출물, 유칼립투스 오일이 배합돼 자극 받은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켜준다. 촉촉한 로션 타입의 포뮬러로 피부에 순하게 스며들며 천연 에센셜 오일을 함유해 산뜻한 시트러스 향으로 마무리된다. SPF50+ PA++++<br/><br/>13 닥터지 브라이트닝 업 선<br/>피부 톤을 화사하게 보정해주는 톤 업 선케어 제품이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강하게 자란 프랑스 남서부 소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피크노제놀 성분을 함유해 자외선과 유해물질이 유발한 피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여기에 피지 흡착력이 뛰어난 탄닌 콤플렉스 성분을 더해 피부를 보다 산뜻하고 보송하게 만들어준다. SPF50+ PA+++<br/><br/>14 그라운드플랜 오 마이 패밀리 넌케미컬 선크림 <br/>피부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자외선을 반사시키는 무기 자외선 차단제로 순하고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 피부 디톡스에 좋은 밀싹과 면역력을 높이는 브로콜리 추출물 등 그린 식물 성분과 피부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귤오일, 피부를 진정시키는 녹차씨오일을 비롯한 제주 유래 성분 7가지가 들어있다. SPF50+ PA+++<br/><br/>15 잇츠스킨 프레스티지 선 데스까르고<br/>끈끈한 달팽이 점액에서 추출한 뮤신 성분이 함유돼 피부를 매끈하게 가꾸는 효과까지 갖춘 선크림이다. 식약처 고시 성분인 아데노신과 나이아신아마이드를 함께 배합, 주름개선 및 미백 기능성도 인증 받았다. 촉촉한 수분층이 피부에 부드럽게 펴 발리며 시원한 사용감을 선사하며 백탁 현상이나 번들거림 없이 깨끗한 피부 결을 만들어준다. SPF50+ PA+++<br/><br/>16 어퓨 파워 블록 데일리 선크림<br/>최대 자외선 차단지수를 적용했으며 피부에 빠르게 스며들고 산뜻하게 마무리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PC, TV 등에서 발생하는 파란색 계열의 가시광선으로, 자외선 영역과 가까워 피부 색소 침착을 유발하는 블루 라이트도 차단해준다.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병풀추출물을 20% 함유했으며 역시 피부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생열귀나무싹추출물을 함께 배합했다. SPF50+ PA++++<br/><br/>17 스킨젠 에코글램 선스틱<br/>국내 최고 수준의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춘 투명한 색상의 스틱형 자외선 차단제로, 자외선 감응성 용기를 사용한 점이 특징. 자외선에 노출되면 본래 초록색이던 용기의 캡 부분이 보라색으로 변하므로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해야할 시점을 쉽게 알 수 있다. 백탁 현상이 없고 자연 유래 성분인 마일드 비 콤플렉스, 베이비 리프 콤플렉스, 내추럴 세라마이드 성분이 함유돼 진정 효과가 뛰어나며 민감성 피부 사용 적합 테스트 완료했다. 여린 피부를 지닌 아이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피부 굴곡을 고려한 곡선형 타입으로 여러 번 덧바르지 않아도 잘 밀착돼 발린다. SPF50+ PA++++<br/><br/>18 세니떼 베리어 플러스 데일리 선 <br/><br/>자외선 차단은 물론 미세먼지 반발 시스템을 적용, 중금속을 비롯한 대기 내 유해물질이 피부에 흡착되지 않도록 막아준다. 또 가전기기에서 방출돼 피부 색소 침착의 원인이 되는 블루 라이트를 흡수·반사해준다. 부드럽고 퍼짐성이 좋은 제형으로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므로 백탁 현상 없이 피부 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남아프리카의 극심한 건조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강력한 수분유지력의 부활초를 함유, 피부 수분을 지켜준다. SPF50+ PA++++<br/><br/>김도현 뷰티한국 기자 kbeauty7243@beautyhankook.com

언론사: 한국일보-2-369.txt

제목: 이름도 헷갈리는 CI, GI 보험… 가족력 고려해 선택하세요  
날짜: 201705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530050800001  
ID: 01101101.20170530050800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암 등 3대 질병 보장하는 CI보험<br/>지급 심사 까다로워 소비자 불만<br/><br/>병세 상관없이 질병 코드별 지급<br/>‘3세대 종신보험’ GI보험 봇물<br/>보장 범위 넓은 만큼 보험금 적어<br/><br/>가족력 질병 보장 수준 따라 택일<br/>젊은층은 GI보험 가입이 유리<br/><br/><br/><br/># 최근 첫 아이를 얻은 30대 회사원 A씨는 “<span class='quot0'>더 늦기 전에 가족을 위해 질병과 사망에 대비한 보험 하나 정도는 들어두라</span>”는 부모님 권유에 적당한 보험 상품을 알아보고 있다. 그런데 지인들과 보험설계사마다 권하는 게 달라 고민이다. 어떤 이는 “중대 질병엔 CI(Critical Illnessㆍ치명적 질병)보험이 낫다”고 하고, 다른 이는 “보장범위가 넓은 GI(General Illnessㆍ일반 질병)보험이 정답”이라고 말한다. A씨는 “이름부터 알쏭달쏭한데 어떤 게 내게 더 맞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br/><br/>올 들어 생명보험사들이 기존 CI보험에서 한 단계 진화한 GI보험을 잇따라 출시하며 보험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한층 넓어졌다. 모두 갑작스런 사망과 중병을 함께 보장하지만 사전에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정작 보험금이 필요할 때 낭패를 볼 수도 있다. CI와 다른 GI보험의 특징과 장단점을 주요 상품과 함께 알아본다. <br/><br/><br/>GI보험은 종신보험 3세대<br/>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이 1세대였다면, CI보험은 2세대 종신보험이라 할 수 있다. 사망 전에 암ㆍ뇌졸중ㆍ급성심근경색 같은 ‘한국인의 3대 질병’에 걸릴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최대 80%까지)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망 후에 준다. 2002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CI보험은 연간 신계약 규모가 4,000억원에 달하는 생보업계의 대표 상품이다. <br/>다만 ‘치명적’이라는 용어가 암시하듯 CI보험은 보험금 지급 심사가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같은 암이라도 종양의 전이 범위가 약관에 미리 정한 수준 이상이어야 하고, 뇌출혈도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야 보험금을 준다. 이 때문에 최근 3년간(2013~2015년) CI보험의 보험금 부지급률(보험금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한 계약의 비율)이 전체 생보사 상품의 10배를 넘는다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다.<br/>GI보험은 이런 CI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에 착안한 3세대 종신보험이다. 약관상 정의 대신 질병분류 코드별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식이어서 진단 병명이 ‘C(Cancerㆍ암)코드’로 분류되면 병세와 관계 없이 보험금을 준다. 뇌출혈도 진단만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br/><br/>어떤 상품 있나<br/>최근 생보사들은 GI보험을 속속 내놓고 있다. 지난 1월 출시된 한화생명의 ‘변액유니버셜GI보험’은 3대 치명적 질병(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과 말기 폐질환, 말기 간질환, 말기 신부전증, 장기간병(LTC) 상태 등을 ‘중대질병’이란 조건 없이 진단만으로 보장한다. <br/>미래에셋생명의 ‘변액건강종신보험Ⅱ 건강이야말로 최고의 재산입니다’는 12가지 질병을 보장하며 중증갑상선암과 남성유방암도 선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흥국생명의 ‘가족에보탬이되는GI보험’은 8가지 질병을 보장한다. 신한생명의 ‘6대건강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도 꾸준한 인기다. <br/>NH농협생명의 ‘무배당 평생안심 NH유니버셜건강보험’은 고액 질병과 고액 수술, 중증 치매 등을 보장한다. 메트라이프생명의 ‘무배당 미리 받는 변액종신보험 공감’은 6대 질병과 4대 수술ㆍ중증 치매 등에 걸렸을 때 선지급금을 주고, 추가로 가입 금액의 1%를 60개월간 지급해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br/><br/>내게 맞는 상품은<br/>현재 가입한 보험이 적은 젊은층이라면 하나의 상품으로 사망과 기본적인 질병 보장이 되는 GI보험이 효과적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GI보험에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다. 보장범위를 넓힌 만큼 보험료가 비슷할 경우 CI보험보다 보험금이 대체로 적다. 또 CI보험이 보장하는 뇌경색은 GI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다. 가입자가 CI보험 조건에 맞는 치명적 질병에 걸렸을 때는 좁은 범위에서 보장액수가 높은 CI보험이 더 요긴할 수 있다.<br/>소비자로선 자신의 가족력 등을 살펴 걸릴 확률이 높은 질병을 많이 보장하는 상품을 고르는 게 현명한 접근법이다. 가령 뇌경색이 걱정된다면 CI보험을 고르고, CI보험에서 ‘소액암’으로 보장 수준이 낮은 암들에 가족력이 있다면 GI보험을 고르는 식이다. <br/>보험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1'>GI보험의 보장범위가 넓으니 무조건 좋을 것이라는 식의 접근은 피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1'>내게 필요한 보장의 우선순위를 먼저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span>”고 조언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70.txt

제목: [헬스 파일]  
날짜: 201705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529050754002  
ID: 01101101.20170529050754002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삼성서울병원, 심장질환 첫 방문 클리닉<br/>삼성서울병원은 평일 오전마다 ‘심장질환 첫 방문 클리닉’을 연다. 가슴 조임이나 통증, 답답함, 두근거림은 물론 숨이 차거나 어지럼증, 실신 등 심장질환 관련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 싶은 환자가 주 대상이다. 또 심장질환이 의심돼 진료를 받았지만 진단명이 확실치 않아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도 클리닉을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 클리닉은 첫 상담부터 안내직원이 아닌 심장전문의가 직접 환자 상태와 증상을 환자들과 소통을 하기로 한 점이 특징이다. 전화(02-3410-3000)나 삼성서울병원 본관 1층 로비 ‘우리 병원 처음예약 하실 분’ 창구에 문의하면 된다.<br/>성장ㆍ성조숙증 지침서 ‘엄마가 미안해’ <br/>자녀의 키 성장 관리와 성조숙증 예방 및 치료 정보를 총망라한 ‘엄마가 미안해: 엄마들을 위한 자녀의 성장과 성조숙증 지침서’(하이키출판사 발행)가 나왔다. 박승찬 하재원 이재준 부민석 하이키한의원 원장들이 공동으로 펴낸 이 책은 25년간의 키 성장과 성조숙증의 임상 경험과 노하우를 충실히 담고 있다. 성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부터, 성장기에 꼭 섭취해야 할 영양, 미리 조심해야 할 성조숙증, 성장 부진 요소 등이 일목요연하게 담겨 있다.<br/><br/>여의도성모, 중ㆍ장년 여성 건강강좌<br/>여의도성모병원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 병원 4층 강당에서 ‘중ㆍ장년 여성 건강다지기’ 건강강좌를 연다. 강좌는 ▦여성암 예방법 및 효과적인 검진전략(이용석 산부인과 교수) ▦중ㆍ장년 여성 피부 관리(김미리 피부과 교수) ▦나프로임신법(자연임신출산ㆍ조미진 간호사) 등으로 진행된다. (02)3779-1217

언론사: 한국일보-2-371.txt

제목: “개별 유방암 환자에게 맞는 ‘개인 맞춤형 치료제’ 개발될 것”  
날짜: 201705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529050750002  
ID: 01101101.20170529050750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2000년 여성 인구 10만 명당 26.3명이던 유방암 환자수는 2013년 79.8명으로 13년 만에 3배나 훌쩍 뛰었다(한국유방암학회). 이처럼 유방암은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여성암이다. 다행히 조기 검진율이 높아져 완치 환자가 늘고 있지만 다른 암과 달리 5년 뒤에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가 아주 까다로운 암이기도 하다.<br/> 치료가 까다로운 유방암을 정복하기 위한 연구에 천착하고 있는 백순명(60) 연세대 의대 종양내과 교수(연세의생명연구원장)가 호암재단(이사장 손병두)이 주는 ‘제27회 호암상 의학상’을 받게 됐다. 백 교수는 다음달 1일 호암아트홀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상장과 메달(순금 50돈), 상금 3억원을 받는다. <br/>백 교수는 “<span class='quot0'>유방암은 한 가지 질환이 아니라 최소한 4개의 다른 질환이라고 볼 수 있어 치료법이 다르고 까다롭다</span>”며 “<span class='quot0'>이에 따라 유방암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개인 맞춤형 치료제’ 개발에 모든 열정을 쏟을 것</span>”이라고 했다. <br/>이처럼 까다로운 유방암도 조기 발견하면 치료가 쉽기에 너무 겁먹지 말라는 것이 백 교수의 말이다. “유방암이 비록 여성암 가운데 갑상선암에 이어 2위일 정도로 흔하지만 조기 발견해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장기 생존을 기대할 수 있지요. 가족 가운데 유방암을 앓은 사람이 있는 여성은 어릴 때부터 관리와 예방이 중요합니다.”<br/>백 교수는 “<span class='quot0'>요즘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가 의료계 화두인데 암 종류별로 정밀의료 로드맵을 만드는 일에도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span>”고 했다.<br/>백 교수의 대표적 업적은 유방암 환자의 20~25%에서 나타나는 인체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HER)2 유전자가 유방암 환자의 나쁜 예후인자임을 밝혀낸 것이다. 이를 통해 HER2 유전자를 없애는 표적치료제인 ‘허셉틴’(트라스투주맙)을 수술 후 추가 사용함으로써 유방암 재발을 50% 정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임상시험(NSABP B-31)으로 입증했다.<br/>그는 또한 유방암 예후와 관련되는 21가지 유전자를 추려 재발 가능성을 수치로 보여 주는 ‘온코타입 Dx’(Oncotype Dx)라는 유전자 검사법을 개발, 유방암 환자의 60%정도를 차지하는 ‘에스트로겐호르몬수용체(ER)+, 인체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HER2)-‘ 유방암 환자는 부작용이 많은 항암화학요법을 꼭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br/>즉, ER+, HER2- 유방암 환자는 항암화학요법을 쓰지 않고 호르몬 치료만으로 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온코타입 Dx는 미국에서 유방암 치료의 표준으로 채택돼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50만명의 유방암 환자가 항암화학요법을 불필요하게 쓰지 않아도 됐다. 이 연구결과는 세계 최고의 임상 저널인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NEJM) 2004년 판에 실렸고,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다. 백 교수는 이 연구로 유방암 분야의 최고 권위 있는 ‘코멘 브린커 상’(2010)을 받았다.<br/> 백 교수는 1981년 연세대 의대를 졸업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조지타운대 의대 교수, 미국 국립유방암임상연구협회 병리과 과장, 삼성암연구소 소장을 역임했고, 삼성최고의과학자상(2009), 연세의학대상 학술상(2011) 등을 수상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2-372.txt

제목: “난치성질환 세포치료, 우리가 곧 길”  
날짜: 201705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529050749002  
ID: 01101101.20170529050749002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줄기세포 이용해 루게릭ㆍ파킨슨병 등 치료<br/>임상연구 통해 줄기세포치료법 효과 입증<br/><br/> ‘왕십리, 밤거리에 구슬프게 비가 내리면 눈물을 삼키려 술을 마신다. 옛 사랑을 마신다’ 가수 김흥국이 부른 ‘59년 왕십리’다. 김흥국에게 왕십리는 눈물 나게 옛 사랑이 떠오르는 곳일지 몰라도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축복의 장소다. 한양대병원 세포치료센터가 있기 때문이다.<br/> 한양대병원 서관 7층에 자리 잡은 세포치료센터에서는 루게릭병 파킨슨병 저산소성뇌손상 루푸스 등 현재까지 치료법이 없는 난치성질환을 치료하고 있다. 난치성질환을 치료하는 센터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생명은 사랑으로부터, 사랑은 한양으로부터’라는 표어처럼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사랑으로 보살피겠다는 의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br/> 세포치료센터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센터에서는 줄기세포를 이용해 난치성질환을 치료한다. 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로 구분된다. 센터에서는 난소를 사용해야 돼 윤리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배아줄기세포 대신 성체줄기세포(자가골수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와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 치료에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김승현(55) 신경과 교수가 이끌고 있는 ‘루게릭병 클리닉’이 대표적이다. <br/><br/>세계가 인정하는 루게릭병 클리닉<br/> 루게릭병 클리닉은 2005년부터 특수 진료와 다학제진료시스템을 구축해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2014년 말까지 클리닉에 등록ㆍ관리되고 있는 환자만 1,400명에 달한다. <br/> 루게릭병 클리닉이 세계 최고 클리닉으로 성장한 것은 김 교수의 선견지명 때문이다. 김 교수는 2000년대 초반부터 루게릭병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 신경계 퇴행성질환 치료에 집중했다. <br/> 김 교수는 신경계 퇴행성질환은 문명과 의료기술을 고도로 발달시킨 인류의 ‘업’이라고 말한다. 문명과 의료기술 발달로 인류는 과거보다 오래 살 수 있게 됐지만 그로 인해 과부하가 걸린 뇌의 퇴행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br/>김 교수는 “<span class='quot0'>미세먼지, 대기오염 등 과거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환경인자까지 더해져 인간의 신경계가 망가지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신경계 퇴행성질환은 앞으로 암보다 무서운 질환으로 인류를 괴롭힐 것</span>”이라고 말했다.<br/> 루게릭병은 다른 질환보다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진행속도가 빠르고 예후가 좋지 않다. 뇌와 척수에 존재하는 운동신경세포들이 급속히 손상돼 팔다리 근력이 약해지고, 근육이 마른다. 숨골이 위치한 뇌간 부위의 운동신경세포까지 망가지면 호흡 자체가 어려워 사망에 이르게 된다. 김 교수가 줄기세포 치료에 열정을 쏟고 있는 이유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 받고 있는 루게릭병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다.<br/> 김 교수는 2010~2013년 7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시험(제1상 8명ㆍ제2상 64명)을 통해 줄기세포 치료효과를 입증,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루게릭병 줄기세포치료제 품목허가를 받았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승인은 세계 최초로 루게릭병 치료에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br/> 하지만 김 교수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한다. 루게릭병의 이상적 치료 목표는 성체줄기세포가 손상된 운동신경세포를 대체해 손상된 근육기능을 회복하는데 있다. 하지만 현재 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치료는 성체줄기세포를 환자에게 투여해 급속도로 진행되는 운동신경손상을 최대한 억제하는데 국한돼 있다.<br/>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줄기세포치료 연구를 텔레비전 역사와 비교하면 흑백 텔레비전 시대</span>”라며 “<span class='quot0'>환자에게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주기보다 환자가 남의 도움 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싶다</span>”고 말했다.<br/> 센터에서는 루게릭병과 함께 파킨슨병 클리닉(김희태 신경과 교수), 저산소성 뇌손상 클리닉(김현영 신경과 교수), 루푸스 클리닉(배상철 류마티스내과 교수), 제대혈 클리닉(이영호 소아청소년과 교수)을 운영하고 있다. 센터 측은 “최동호 일반외과 교수가 이끌고 있는 간질환 세포치료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br/> 난치성질환 환자들이 세포치료센터를 찾는 것은 환자를 위한 배려와 관심을 몸으로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침대, 휠체어가 문에 걸리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진료실, 진료와 상담을 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 등 환자만족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었다.<br/>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보건의료시스템에서 소외되기 쉬운 난치성질환 환자를 보살피는 센터가 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사회ㆍ국가 차원에서 난치성질환 환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br/>김치중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2-373.txt

제목: [지평선] 안식 찾은 김흥수 화백의 유작  
날짜: 201705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529050711001  
ID: 01101101.20170529050711001  
카테고리: 문화>전시\_공연  
본문: 고 김흥수(1919~2014) 화백은 한국 미술계에서 강력한 ‘큰바위 얼굴’ 가운데 한 명이었다. 예술가의 족적은 필름의 음화가 현상액 속에서 마침내 선명한 양화로 떠오르듯 사후에 더 인상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김 화백은 생전부터 그랬다. 정신과 육체, 음과 양 같은 대립적 요소를 기하학적 추상과 구상적인 여성의 누드와 조화시켜 강렬한 색채로 화면에 담아내 큰 주목을 받았다. ‘하모니즘(harmornism)’의 창시자, 또는 ‘한국의 피카소’로 불리며 일찌감치 한국 미술계의 거목으로 자리했다. <br/>▦ 대중적으로는 김 화백이 작고하기 전에 사별한 마지막 부인 고 장수현 화백과의 파격적인 로맨스가 널리 알려졌다. 두 사람은 1980년대 스승과 제자로 만났다. ‘예술적 동지’로서 1992년 마침내 결혼할 때, 우리 나이로 74세였던 김 화백과 새 부인이 된 제자 간의 나이 차이는 무려 43세였다. 하지만 금단의 선을 넘은 듯한 두 사람의 결혼이 이내 파경에 이를 것이라는 추측은 빗나갔다. 장 화백은 이후 스승이자 예술적 멘토인 김 화백을 향한 사랑을 지성 어린 내조로 아름답게 승화시켰다.<br/>▦ 2014년 김 화백이 타계한 뒤 엉뚱한 일로 다시 한 번 대중적 관심이 일게 됐다. 결혼 후 김 화백의 삶과 예술을 온전히 뒷감당했던 장 화백이 오히려 남편보다 두 해 먼저인 2012년 암으로 사망했다. 그리고 장 화백이 관장이었던 서울 평창동의 ‘김흥수 미술관’도 경영난에 빠져 매각될 수밖에 없었다. 작품 보관이 시급했던 김 화백 측은 2013년 지인의 소개로 경기도의 한 사찰에 73점을 맡겨 뒀다. 그런데 김 화백이 이듬해 마치 아내를 따라가듯 타계하자 사찰이 소유권을 주장했다. <br/>▦ 김 화백은 장 화백과의 사이엔 자녀가 없었다. 하지만 이전 부인 소생의 자녀들이 사찰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등에 마구잡이로 보관되던 유작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진행했다. 그리고 4년 만에 작품을 회수해 최근 그 유작들을 재단법인 한올(이사장 김형성 성균관대 법학대학원 교수)에 기증했다. 떠돌던 고인의 유작들이 마침내 제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마침 서울옥션도 지난 27일부터 열린 홍콩 경매에서 고인의 유작 ‘하모니즘’ 등 5점을 출품하고, 별도 전시를 통해 ‘김흥수 알리기’에 나섰다. 고인의 예술이 재조명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br/>장인철 논설위원 icjang@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74.txt

제목: [영상] 유기견 꼭 안아줬더니…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포옹  
날짜: 201705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529050640004  
ID: 01101101.20170529050640004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반려동물은 항상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지내지만, 거리로 내몰린 유기 동물은 누구에게 어떻게 사랑 받을까?’ 태국의 환경단체 아이 앰 그린 하트(I am Green Heart)가 제작한 동영상 ‘첫 번째 포옹(The First Hug)’은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됐다.<br/>영상에는 암에 걸린 채 거리를 헤매던 개 ‘글루타(Gluta)’를 입양한 소라사르트 위세틴(Sorasart Wisetsin) 씨가 등장한다. 위세틴 씨는 방콕 거리를 돌아다니며, 길에 방치된 개에게 손짓하거나, 근처에 주저앉아 다가오길 기다린다. 순순히 다가오는 개가 있는 반면 경계를 늦추지 않는 개도 있지만 그는 그저 묵묵히 기다릴 뿐이다.<br/>그러다 개가 다가오면 말없이 천천히 끌어안아 준다. 처음엔 낯설어하던 녀석들은 이내 엉덩이를 들이대며 무릎 위에 자리를 잡거나, 위세틴 씨의 다리 위에 포개어 누워 손길을 받아들인다.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다는 듯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기도 한다.<br/>위세틴 씨는 “촬영을 통해 집이 없는 유기견이 사랑을 그리워한다는 것과 이 한 번의 포옹조차 유기견에게는 작은 행복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유기견에 대해서도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br/><br/><br/>김광영PD broad0\_kim@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75.txt

제목: [2017 대한민국 혁신기업 대상] (주)바이오메트로  
날짜: 201705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529050527003  
ID: 01101101.2017052905052700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주)바이오메트로(대표 강길남)는 혈액으로 질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의료용 체외진단 기기를 만드는 회사다. 핀란드 바이오기업인 ‘랩마스터’의 지배회사로서 랩마스터와 공동연구 개발을 진행해오고 있다.<br/>바이오메트로의 고유 특허인 음극성 전기화학 발광기술(C-ECL)은 정보통신·바이오·나노 기술이 융합된 최첨단 진단기술이다. 이 원천기술로 개발한 혈액검사 소형장비 ‘루시아’는 세계 공용 생체인식지표를 이용해 혈액 한 방울로 암, 심장질환, 바이러스 감염 등 수십 가지 질병을 5분 내에 진단할 수 있는 소형 진단장비다.<br/>루시아는 기존 휴대형 현장진단 장비보다 백만 배 높은 민감도와 대형 진단장비 수준의 정밀도와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 한 번에 여러 질환을 동시에 측정하는 다중분석도 가능하다. 또한 광원장치나 광학렌즈와 같은 고가의 장비 없이 간단한 전류 조절만으로 빠르고 정확한 현장진단이 가능하다.<br/>현재 바이오메트로는 C-ECL기술을 접목한 현장진단 리더기와 체내염증수치(CRP) 칩 개발을 완료해 오는 10월 유럽 CE인증을 취득을 시작으로 국내 및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인증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br/>강길남 대표는 “<span class='quot0'>C-ECL 기술은 동물진단, 식품위생 및 환경위해요소 진단 등에도 널리 적용이 가능하다</span>”고 설명하며 “<span class='quot0'>넓은 분야의 다양한 진단 키트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span>”고 포부를 밝혔다.

언론사: 한국일보-2-376.txt

제목: ‘삼성 반도체 직업병’ 옴부즈만위원회 첫 포럼…발병 논란 종지부 찍나  
날짜: 201705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528050448001  
ID: 01101101.20170528050448001  
카테고리: 경제>반도체  
본문: 작년 3년 한시 운영 합의로 출범<br/>과거 근무한 사람들 자문 등 제안<br/><br/><br/>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을 종합진단 중인 외부 독립기구 ‘옴부즈만위원회’가 최근 포럼을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외부 소통을 시작했다. 포럼은 출범 이후 약 1년 만의 첫 공식 행사다. 위원회가 반도체 생산라인과 질병과의 상관 관계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br/>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 26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열린 한국환경보건학회 춘계 학술대회 중 ‘전자산업의 환경과 건강’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반도체 노동자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 및 삼성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가 참석했고, 위원회 전문위원인 김치년 연세대 교수를 비롯해 박동욱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했다. 윤충식 서울대 교수, 정지연 용인대 교수, 하현철 창원대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는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함께 했다.<br/>이중 박동욱 교수는 “<span class='quot0'>정확한 직무 분석을 통해 다양한 유해인자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송창호 가대위 대표는?“<span class='quot1'>예전에 근무한 사람들의 자문을 받으면 조사를 더 잘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제안했다.<br/>지난해 6월 8일 출범한 옴부즈만위원회는 삼성전자 수원ㆍ기흥 사업장에서 25차례의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연인원 330여명이 조사에 참여했고, 삼성전자는 245건의 문건을 제출했다. 이철수 옴부즈만위원장은 “<span class='quot4'>반올림과 가대위, 삼성전자 간 합의로 위원회가 만들어진 만큼 성실하게 역할을 수행하겠다</span>”고 밝혔다.<br/>2007년 반도체 사업장 직업병 논란이 불거졌지만 삼성전자는 7년간 침묵하다 2014년 권오현 부회장의 사과와 함께 기금 1,000억원을 마련해 피해자 보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월엔 가대위ㆍ반올림과 예방 대책을 수립할 옴부즈만위원회 3년간 한시 운영에 합의했다.<br/>반도체 사업장 피해자 지원은 이뤄졌어도 발병 원인에 대한 논란은 진행 중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08년 12월, 삼성전자가 의뢰한 글로벌 역학조사기관 인바이론이 2011년 7월 “관련성이 없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도 2015년 11월 인과관계 판단을 유보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br/>먼저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영국의 NSUK, 미국 IBM과 인텔 등에 대한 여러 건의 조사에서도 반도체와 발병 간 통계적 연관성을 밝히지 못했다. 대만에서 세계 1위 반도체 수탁생산업체 TSMC를 대상으로 2003년부터 4차례에 걸쳐 실시된 조사도 마찬가지다.<br/>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옴부즈만위원회가 이제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돌입할 것 같다</span>”며 “<span class='quot2'>폭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span>”고 밝혔다.<br/>한편 LG디스플레이는 자사는 물론 협력사 임직원이 암 같은 특이질병에 걸리면 포괄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향후 발병뿐 아니라 회사가 설립된 1998년 11월 이후 근무자들도 지원한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span class='quot3'>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제3자 운영 형식의 지원보상위원회를 설립하고 1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향후 10년간 운영 뒤 필요 시 증액하겠다</span>”고 밝혔다.<br/>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77.txt

제목: 금빛 장발 '서던록 전설' 그레그 올맨 별세  
날짜: 201705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528050447001  
ID: 01101101.20170528050447001  
카테고리: 문화>전시\_공연  
본문: 컨트리와 블루스 장르를 아울러 미국 남부에서 유행한 서던록의 전설로 불린 올맨 브라더스 밴드 멤버인 그레그 올맨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의 자택에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다. 향년 70세.<br/>올맨의 매니저인 마이클 레만에 따르면 올맨은 간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다. 마약 투약으로 체포되기도 했던 올맨은 2010년 간 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5년 전 암이 재발했다. 건강이 악화해 지난해 10월 공연을 끝으로 이후 예정된 공연을 모두 취소해 팬들의 걱정을 사기도 했다. 올맨은 마지막까지 공연을 위해 투병 사실을 주위에 비밀로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r/>올맨은 1970년대를 풍미한 록스타였다. 금빛 장발에 허스키한 목소리로 키보드를 연주하며 올맨 브라더스로 활동해 인기를 누렸다. 1969년 1집 ‘디 올맨 브라더스 밴드’를 낸 뒤 노래 ‘위핑 포스트’ ‘램블린 맨’ ‘미드나잇 라이더’ 등으로 사랑 받았다. 이 밴드는 컨트리와 재즈, 블루스를 접목해 서던 록 음악을 대중화한 공을 인정 받아 1995년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2012년에는 그래미 어워즈에서 평생 공로상도 받았다. 카메론 크로 감독이 만든 영화 ‘올모스트 페이모스’(2000)는 올맨 브라더스 밴드의 활약을 모티프로 제작된 것으로 유명하다.<br/>올맨과 함께 밴드에서 활동한 형 듀에인 올맨은 1971년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했다. 올맨은 조지아주 메이컨시의 로즈 힐 묘지에 있는 그의 형 옆에 나란히 묻힐 예정이다. 1982년 해체한 밴드는 이후 재결합과 새 멤버 영입을 반복하며 부침을 겪었다. <br/>올맨의 사망에 동료 음악인들도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컨트리 가수 찰리 대니얼스는 사화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올맨은 블루스에 탁월한 감성을 지닌 희귀한 존재였다’며 ‘그의 훌륭한 목소리는 영원할 것’이라고 고인을 추모했고, 가수 셰릴 크로는 ‘가슴이 찢어 진다’며 애통해했다. <br/><br/>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78.txt

제목: [글로벌 Biz 리더] “소비자의 필요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찾아내는 것”  
날짜: 201705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527050610002  
ID: 01101101.20170527050610002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오케스트라의 목관악기 가운데 ‘바순’이라는 게 있다. 3m 정도 되는 길쭉한 원뿔 모양의 바순은 부드럽고 조용하게 낮은 음을 내며 다른 악기들과 쉽게 조화를 이룬다. 하지만 쉽게 배울 수는 없는 악기로 꼽힌다. 어른도 다루기 까다롭다는 바순을 1950년대 후반 10살짜리 꼬마였던 제임스 다이슨이 배우겠다고 덜컥 나섰다. 누가 봐도 분에 넘치는 도전이었을 텐데, 겁 없는 소년은 당차게 매달렸다. 다이슨의 자서전에 담겨 있는 표현을 빌면 “버거운 일에 도전해 녹초가 될 때까지 매달리는 근성”으로 그는 바순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갔다.<br/>그 못 말리는 근성이 결국 다이슨을 세계적인 ‘혁신의 아이콘’으로 이끌었다. 불편했지만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여겼던 진공청소기의 먼지봉투와 선풍기의 날개, 헤어 드라이어의 소음이 사라질 수 있음을 그의 근성이 증명해냈다. 유명해진 뒤에도 다이슨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간혹 홀로 바순을 연주한다고 한다. 옛 기억을 더듬어 바순의 멜로디를 만들어내며 발명가로서의 초심을 떠올리는 게 아닐까. <br/>‘당연한 불편’은 없다<br/>샤워하고 나서 헤어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리는 동안엔 대화가 실종된다. 헤어드라이어에서 나오는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바로 옆 사람 말도 잘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당연한 불편이라는 생각에 누구도 그 불편을 해소하려 하지 않았다. 다이슨이 지난해 내놓은 헤어드라이어 ‘슈퍼소닉’은 귀에 거슬리지 않는 정도의 소리만 낸다. 나머지 소리는 인간의 청력으로 들을 수 없는 고주파 영역으로 처리됐다. <br/>기존 헤어드라이어를 쓰면 열 때문에 모발이 상하기 일쑤다. 반면 슈퍼소닉은 공기 온도를 매초 20번씩 측정해 스스로 온도를 조절한다. 또 기존 헤어드라이어는 바람이 나오는 부위에 모터가 들어 있어 윗부분이 무겁지만 슈퍼소닉은 반대다. 모터를 손잡이에 넣었다. 관습적인 설계를 확 바꿔버린 것이다. 그런데도 건조하는 데는 효율적이다. 더 빠르고 센 바람을 내기 때문이다. 소량의 공기를 빨아들여 이보다 16~18배 많은 주변 공기를 움직이는 ‘에어 멀티플라이어’ 기술과 기존 모터보다 더 작고 강력하면서도 자기장을 이용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모터를 자체 개발, 적용한 덕분이다. 이들 기술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날개 없는 선풍기와 먼지봉투 없는 무선 진공청소기에도 들어가 있다. <br/>다이슨은 슈퍼소닉을 만들기 위해 5,000만파운드(약 895억원)를 들여 아예 모발연구소를 세웠다. 여기서 4년 동안 600개가 넘는 시제품이 나왔고, 이를 시험하려고 가발 만드는데 들어가는 인모(人毛)를 무려 1,625㎞나 썼다. 자체 모터 개발에는 16년 동안 엔지니어 100명이 달라붙었고, 2억5,000만파운드(3,000억원)가 투입됐다. <br/>또 이 모터를 장착한 무선 진공청소기는 출시 전 467㎞나 되는 거리의 먼지를 빨아들이며 험난한 테스트를 거쳤다. 첫 먼지봉투 없는 진공청소기를 세상에 선보이기 전 다이슨이 제작한 시제품은 자그마치 5,127개다. 당연하게 여겼던 불편을 없애고야 말겠다는 특유의 근성 없이는 여간 해서 엄두를 못 낼 숫자들이다. <br/><br/>바다와 정원의 일대 변혁 <br/>자신의 근성을 일깨워준 바순을 곧잘 연주할 줄 알게 됐을 즈음 다이슨은 미련 없이 바순을 내려놓았다. 학교의 오케스트라 평가시험에서 떨어졌기 때문이다.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었다. 정해진 곡을 암기해 연주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음악계의 관습에 따르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당시 어린 다이슨이 그 관습을 따랐더라면 어쩌면 그는 지금쯤 바순 연주자가 돼 있었을지 모른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선풍기에는 여전히 날개가 달려 있었을 것이다. <br/>다이슨이 바순을 배우겠다고 결심하기 한 해 전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다. 배우가 되고 싶었던 아버지가 평생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본 다이슨은 자신은 좋아하지 않는 일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 막내로 자라며 어릴 때부터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가는데 익숙했기에 다이슨은 진로도 누구의 도움 없이 결정했다. 화가가 되고자 예술학교로 진학했고, 인테리어 디자인과 구조공학에 매료됐다. 그리고 최초의 대서양 횡단 증기선을 설계한 영국 공학자 이삼바드 킹덤 브루넬처럼 세상에 없던 뭔가를 내놓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다. <br/>다이슨의 첫 번째 발명작은 1969년 ‘시트럭’이었다. 가볍고 빠르면서도 차량 같은 무거운 화물을 싣고 바다 위를 달릴 수 있는 배다. 시트럭을 세계 곳곳에 팔며 다이슨은 혹독한 ‘영업 훈련’을 했다. 다음엔 정원용 손수레를 만들었다. 폭이 좁은 바퀴로 움직이는 기존 수레가 균형이 잘 잡히지 않고 바닥에 흉한 바퀴 자국을 남기는데도 소비자들은 불편을 감수한 채 늘 같은 손수레를 써왔다. 다이슨은 수레에 바퀴 대신 엉뚱하게도 커다란 공 모양 플라스틱 튜브를 달아 일대 변혁을 일으켰다. <br/>‘볼배로’란 이름의 이 수레는 시장에서 대성공을 거뒀지만 ‘짝퉁’ 제품 등장으로 소송에 휘말렸고, 다이슨은 자신이 설립한 볼배로 회사에서마저 쫓겨나야 했다. 자서전에서 다이슨은 당시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다고 회고했다. 볼배로 특허를 회사 앞으로 등록한 바람에 자신의 작품임에도 권리를 전혀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패는 아프지만 값졌다. 이때의 아픔으로 다이슨은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특허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br/>英 왕궁에 놓인 청소기 <br/>볼배로 회사를 나온 1979년 다이슨은 진공청소기 개발사를 차렸다. 사무실이자 연구실은 집 옆 마구간이었다. 먼지봉투에 먼지가 쌓이면서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기존 진공청소기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다이슨은 먼지봉투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내일은 될 거야”를 수없이 되뇌며 5년을 보낸 끝에 ‘사이클론’ 방식을 적용한 청소기를 만들었다. 원뿔 모양의 통이 빠르게 회전하는 동안 먼지 입자가 중력보다 큰 힘을 받으며 벽면을 따라 끌려 내려와 먼지통에 모이는 원리다. 먼지통도 전과 달리 투명하게 만들었다. 소비자들이 먼지가 제거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br/>유명 가전업체들은 변화를 외면했다. 먼지봉투 판매가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테니 혁신이 달가웠을 리 없다. 그들은 소비자들이 먼지봉투와 불투명한 먼지통에 익숙하기 때문에 다이슨의 청소기가 팔리지 못할 거라고 단정했다. 판로가 막히고 재정 상황도 나빠지면서 다이슨은 좌절했다. 자신의 제품을 베낀 청소기를 내놓은 거대 다국적기업과 소송전도 벌여야 했다. 온갖 난관 끝에 드디어 1985년 일본, 1990년 미국 시장에 먼지봉투 없는 청소기를 내놓았다. 소비자들은 다이슨의 새로운 청소 방식을 빠르게 받아들였다. 그의 청소기는 마침내 영국으로 진출했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궁전에도 놓였다. 다이슨의 목엔 대영제국훈장이 걸렸다.<br/>다이슨이 청소기에서 먼지봉투를 떼어내야겠다고 결심한 이후 자신의 공장에서 100대의 먼지봉투 없는 청소기를 생산할 때까지 꼬박 14년이 걸렸다. 그 사이 자신의 이름 다이슨은 곧 회사 이름이 됐다. 이제 다이슨은 자신의 이름이 제품을 대표하는 명사이자 제품을 사용한다는 뜻의 동사가 되길 바란다. ‘오늘은 집을 다이슨하는 날’이란 말이 자연스러워지는 세상을 다이슨은 꿈꾸고 있다. <br/>투자=실패할 수 있는 여지<br/>공기청정기와 가습기, 손 건조기, 세탁기, 로봇청소기 등 제품이 20여가지로 늘면서 지난해 다이슨은 매출액 25억파운드(약 3조6,250억원)를 달성했다. 전년보다 45%나 증가한 수치다. 기세를 몰아 올 초 다이슨은 싱가포르에 3억3,000만파운드(4,785억원)를 투자해 테크놀로지 센터를 세웠다. 본사가 있는 영국 맘스베리 근처 휼라빙턴에 새로운 테크놀로지 캠퍼스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직원 수를 3배 넘게 늘렸고, 영국에서만 과학자와 엔지니어 3,500명을 고용했다. 한 사람의 오랜 노력으로 빚어낸 혁신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얼마나 윤택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다이슨은 분명히 보여준다.<br/>올해 일흔이 된 다이슨은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출근한다. 직함은 최고기술자(Chief Engineer). 자신의 회사지만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경영은 전문가에게 맡긴다. 그는 지금도 연구실에 있을 때 “행복하다”고 얘기한다. 다이슨의 60번째 생일에 다이슨의 엔지니어들은 기술과 디자인이 성공적으로 결합했다고 평가받는 1961년형 오스틴미니 자동차를 ‘반으로 잘라’ 가져왔다. 제품의 구조와 원리에 목메는 다이슨을 위한 기상천외한 선물이었다. <br/>시트럭부터 슈퍼소닉까지, 소비자를 대하는 다이슨의 철학은 명확하다. 소비자의 필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을 만든다는 얘기다. 다이슨이 회사를 상장하지 않는 것도 공시기업이 되면 소비자가 아닌 주주들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제품 출시를 서두르거나 기업 운영을 수동적으로 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래 소비자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이슨은 소프트웨어를 점 찍었다. 다이슨은 “<span class='quot0'>좋은 소프트웨어는 다이슨 제품을 업그레이드시킬 것이고, 소비자의 환경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지능을 제공해줄 것</span>”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세상을 바꿀 소프트웨어를 손에 넣기 위해 다이슨은 매주 700만파운드(101억5,000만원)를 연구개발에 투자한다. 이 어마어마한 금액은 직원들에게 마음껏 실패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span class='quot1'>발명할 때 실패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일 뿐이며, 성공은 99%의 실패로 이뤄진다</span>”는 다이슨의 신념이 다이슨에 거는 기대를 높이고 있다.<br/>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79.txt

제목: 복지사각 발굴, 키다리아저씨 지원 올해 30호 목표  
날짜: 201705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526050900002  
ID: 01101101.20170526050900002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산업은행이 최근 새로운 사회공헌사업 프로그램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KDB키다리아저씨 사업(이하 ‘키다리아저씨’)’이 올해 10호를 달성했다. 작년 말 지원한 1~2호를 포함하면 다양한 사연을 가진 총 12개의 개인과 기관이 키다리 아저씨의 든든한 지원을 받은 것이다.<br/><br/>‘키다리 아저씨’는 작년 2월 취임한 이동걸 회장이 직접 제안한 새로운 유형의 사회공헌 사업모델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정부나 기업의 재정적 지원이 절실함에도 도움의 손길을 못 받는 개인이나 미인가 복지시설 등과 같은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발굴해 ‘키다리 아저씨’와 같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사업이다.<br/>2016년 11월 KBS 뉴스에 방영된 ‘불법체류 베트남 부부 신생아 심장병 치료성금 편취’ 사건을 접하고 아이 치료비를 지원한 1호 사업을 시작으로, 암에 걸린 모친의 수술비를 걱정하는 모범 장병, 농가주택 화재로 거리에 나앉은 공주의 5남매, 생사를 걸고 탈북해 만학의 꿈을 펼치고 있는 늦깎이 탈북학생 4명, 가정폭력 희생자로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대구의 여고 3학년생, 10여 개국의 다양한 국적을 가진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안산의 어린이집 등 키다리아저씨는 우리 주변에 열악한 현실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사연과 아픔을 가진 소외계층에게 12회에 걸쳐 총 1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다.<br/>산업은행은 최근 주요 피후원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후원 전후의 애로사항과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키다리교실(키다리아저씨 8호)의 강명희 원장은 “<span class='quot0'>후원을 받는 곳도 없어 키다리교실의 문을 닫아야 하나 할 정도로 마음이 복잡했는데 뜻밖에 산업은행의 전화 한 통으로 후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span>”며 “<span class='quot0'>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지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이어가겠다</span>”고 다짐했다. 또한 탈북대안학교(키다리아저씨 9호)의 조억철 학생 외 3명은 어려운 환경에서 산업은행의 후원을 받아 검정고시에 모두 합격했다는 기쁜소식을 전했다.<br/>‘키다리아저씨’는 올해 30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언론사: 한국일보-2-380.txt

제목: ‘여성의 삶을 아름답게’ 지구촌 무대로 사회공헌  
날짜: 201705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526050849001  
ID: 01101101.20170526050849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아모레퍼시픽은 인류 공헌에 대한 염원을 담은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고 품질의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화장품 및 녹차 산업을 이끌어왔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고객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창업자와 CEO가 사회공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모범을 보임으로써 구성원들 또한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등 아모레퍼시픽의 사회공헌은 자연스럽게 기업문화로 정착되었으며, 나아가 책임경영 실천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2016년 사회공헌활동에 240억원을 집행했으며, 매년 그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br/>아모레퍼시픽은 ‘AMORE Beautiful World’라는 비전 아래 ‘여성’, ‘자연생태’, ‘문화’ 등 3대 핵심 활동 영역을 중심으로 여성의 삶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br/>우선, ‘여성’의 건강과 웰빙, 역량 강화를 지원해 여성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핑크리본캠페인,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 희망가게, 뷰티풀 라이프 등을 통해 여성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그린사이클 캠페인, 라네즈 리필미 캠페인, 이니스프리 숲 캠페인 등 ‘자연생태’를 보전하기 위한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 아름다운 자연과의 공존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문화’를 육성하고 대중과 공유하기 위해 미쟝센 단편영화제, 설화문화전, 아모레퍼시픽재단의 ‘아시아의 미’ 연구사업, ‘여성과 문화’ 학술연구지원 사업 등을 전개해 오고 있다.<br/>아모레퍼시픽은 아시안 뷰티(Asian Beauty)로 세상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원대한 기업(Great Company)’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AMORE Beautiful World’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의지와 약속(commitment), ‘20 by 20’를 발표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0만 명 여성에게 건강과 웰빙, 경제적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전 세계 여성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br/><br/>2008년부터 시작된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AMOREPACIFIC Makeup Your Life)’ 캠페인은 암 치료 과정에서 피부 변화와 탈모 등 급작스러운 외모 변화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 암환자들에게 메이크업과 피부관리, 헤어 연출법 등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는 노하우를 전수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투병 중 겪는 심적 고통과 우울증을 극복하고 내면의 아름다움과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다.<br/>2016년까지 캠페인에 총 11,078명의 여성 암환자 및 4,033명 아모레 카운슬러 자원봉사자가 참가함으로써 아모레퍼시픽의 대표적 사회공헌 캠페인으로 자리잡았다.<br/>한편, 2008년 한국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 2011년 중국, 2015년 베트남까지 확산, 현지 병원 및 환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며 아모레퍼시픽의 대표적 글로벌 사회공헌 캠페인으로도 자리매김했다. 2016년까지 중국(1,157명), 베트남(125명)의 총 1,282명 여성 암환자가 참가했으며, 314명의 뷰티 전문가가 자원봉사자로 활약했다.

언론사: 한국일보-2-381.txt

제목: 美 트럼프케어 시행하면 10년 뒤 무보험자 2300만명 늘어  
날짜: 201705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525050810001  
ID: 01101101.20170525050810001  
카테고리: 국제>미국\_북미  
본문: 미국 현행 건강보험법인 오바마케어(ACA)를 대체할 미국건강보험법(ACHA), 일명 ‘트럼프케어’를 시행하면 10년 뒤 의료보험 혜택이 박탈되는 미국인이 2,300만명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br/>미 의회예산국(CBO)은 24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4일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케어 시행에 따른 발생 비용을 분석한 결과, 오바마케어와 비교해 무보험자 수가 2020년 1,900만명, 2026년까지 2,300만명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026년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이는 미국민은 현행 오바마케어가 유지될 경우(2,800만명)를 합쳐 두 배에 가까운 5,100만명에 이른다. <br/>CBO는 트럼프케어 시행으로 앞으로 10년간 연방 재정적자를 1,190억달러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3월 초안 당시 추정한 1,500억달러보다 다소 감소한 수치인데, 하원에서 의료비 부담이 큰 계층을 위해 기금을 추가 배당한 데 따른 것이다. CBO는 “저소득층에게 제공된 보조금이 세금공제로 바뀌면서 혜택이 줄고 건강하지 못한 소비자는 극도로 높은 보험료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br/>돈 없는 서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트럼프케어의 맹점이 객관적 수치로 드러나면서 법안의 상원 통과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CBO 분석은 여당인 공화당이 민주당의 거센 반발에도 하원에서 단독 표결로 트럼프케어를 통과시킨 이후 나온 첫 보고서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span class='quot0'>이번 보고서는 트럼프케어가 건강보험체계에 암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span>”고 비판했다. 상원 과반(52석) 의석을 확보한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다시 한 번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br/>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82.txt

제목: 안동병원 유방암 치료 경북 유일 1등급  
날짜: 201705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525050748002  
ID: 01101101.20170525050748002  
카테고리: 지역>지역일반  
본문: 안동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4일 발표한 ‘유방암 4차 적정성 평가’에서 경북에선 유일하게 1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r/>심평원은 종합점수 산출기준을 충족한 전국 109개 평가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 1년간 입원 진료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국 84개 기관이 1등급을 받았고, 경북지역에서는 안동병원이 유일하게 포함됐다.<br/>유방암은 갑상선 암에 이어 여성 암 발생률 2위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40대(34.5%) 중년 여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br/>이에 따라 안동병원은 올해 심평원이 발표한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4대암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받게 됐다.<br/>안동병원 김익동 홍보팀장은 “<span class='quot0'>심사평가원이 전국 의료기관의 치료수준 상향평준화를 유도하고 국민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권정식기자 kwonjs57@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83.txt

제목: ‘3김 시대’ 저문 프로야구...그들이 남긴 명과 암  
날짜: 201705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524050715002  
ID: 01101101.20170524050715002  
카테고리: 스포츠>야구>메이저리그  
본문: 한국프로야구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3김 시대’가 저물었다. <br/>한국 야구 최고 명장으로 꼽힌 ‘3김’ 중 김응용(76), 김인식(70) 감독이 일선에서 물러난 데 이어 가장 마지막까지 지휘봉을 잡고 있었던 김성근(75) 감독까지 23일 한화 사령탑에서 내려오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br/>한국 야구는 이들 ‘3김’을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을 정도다. 감독 통산 승수 1위부터 3위까지는 김응용 감독 1,554승(68무 1,288패), 김성근 감독 1,388승(60무1,203패), 김인식 감독 978승(45무1,033패)이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23일 현재 현역 감독 중 최다 승을 기록 중인 김경문(59) NC 감독의 827승과 격차가 크다. <br/>우승 경력도 따라갈 자가 없다. 김응용 감독은 1980~90년대 해태에서 아홉 차례 우승을 차지했고, 2002년 삼성의 창단 첫 우승을 이끄는 등 총 10개의 우승 반지를 꼈다. 김성근 감독은 SK에서 세 차례(2007ㆍ2008ㆍ2010) 우승, 김인식 감독은 두산(전신 OB 포함)에서 두 차례(1995ㆍ2001) 정상에 올랐다. <br/>이들은 서로 다른 지도 스타일로 KBO리그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우승 청부사’로 통하는 김응용 감독은 강력한 카리스마로 선수단을 장악했고, ‘야신’으로 불린 김성근 감독은 데이터 야구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프로 구단뿐만 아니라 국제 대회에서도 한국 야구의 우수성을 알려 ‘국민 감독’이라는 호칭을 얻은 김인식 감독은 선수를 믿는 뚝심의 야구를 했다. <br/>영예로운 순간도 많았지만 ‘3김’은 묘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br/>바로 한화에서 마지막 프로 사령탑을 지내며 박수 받지 못하고 떠난 것. 김인식 감독은 2005~09년까지 한화 지휘봉을 잡는 동안 롤러코스터를 탔다. 부임 첫해부터 3년 연속 ‘가을 야구’에 올려놓고, 2006년 한국시리즈 준우승도 차지했다. 그러나 세대교체 실패로 2008년 5위, 2009년 최하위로 처지면서 한대화 감독에게 바통을 넘겼다. <br/>한 감독을 거쳐 2012년 10월 한화 사령탑에 오른 김응용 감독은 2013년과 2014년 2년 연속 최하위에 그쳐 사령탑 인생에 ‘오점’을 남겼다. 부임 첫해에는 처음으로 개막 13연패를 겪고 14경기 만에 첫 승을 거둔 뒤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가을 야구’를 염원하는 한화 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김응용 감독 후임으로 2014년 10월 사령탑에 취임한 김성근 감독 역시 2015년 6위, 2016년 7위로 기대에 못 미쳤다. 올 시즌에는 9위까지 처져 결국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옷을 벗었다. <br/>‘3김’이 다시 프로야구로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김성근 감독은 프로 팀을 맡은 7개 팀에서 모두 구단과 마찰을 빚은 끝에 ‘아름다운 마무리’를 맺지 못하고 떠났다. 김응용 감독은 현재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수장으로 한국 야구 발전에 힘쓰고 있고, 올해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1라운드 탈락을 맛 본 김인식 감독은 KBO 규칙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다.<br/>김지섭기자 onion@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84.txt

제목: 최장 ‘제임스 본드’ 로저 무어, 90세로 사망  
날짜: 201705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523050838003  
ID: 01101101.20170523050838003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유명 첩보 영화 ‘007’ 시리즈에서 제임스 본드 역으로 활약한 영국 배우 로저 무어가 별세했다. 향년 90세.<br/>23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영국언론은 무어가 스위스에서 암 투병 중 숨졌다고 보도했다. 무어의 세 자녀는 부친 이름으로 된 트위터 계정을 통해 “아버지 로저 무어 경이 오늘 세상을 떠났다. 깊은 슬픔을 감출 수 없다”고 사망 소식을 알렸다. 이어 “아버지가 생전 마지막 날 동안 보여준 사랑은 너무 위대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며 “그가 열정을 바친 영화와 TV쇼, 유엔아동기금(UNICEFㆍ유니세프)을 통한 활동을 시대가 기억할 것”이라고 애도했다. 장례식은 무어의 생전 소망에 따라 모나코에서 비공개로 치러질 예정이다.<br/>영국 런던 출신의 무어는 1945년 영화 ‘결혼 휴가’로 데뷔한 후 다수의 TV 드라마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특히 숀 코네리, 조지 라젠비의 뒤를 이어 1973년 ‘007 죽느냐 사느냐’로 3대 제임스 본드에 등극하면서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했다. 무어는 이후 1985년까지 12년간 ‘황금총을 가진 사나이‘ ‘나를 사랑한 스파이’ 등 007 시리즈 가운데 7편에 출연해 최장 기간 본드 역할을 맡았다. 무어는 또한 유니세프 대사 등 인도주의 활동에 공헌해 2003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으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았다.<br/>김정원기자 gardenk@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85.txt

제목: 유방암 수술환자 3명 중 1명 전체 절제술 받아  
날짜: 201705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523050752001  
ID: 01101101.20170523050752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 3명 중 1명은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암 환자는 40대가 가장 많았다. <br/>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5년 한해 동안 의료기관 109곳이 실시한 원발성 유방암(유방에서 최초로 발생한 암) 수술 8,078건을 분석, ‘유방암 4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br/> 수술 환자들의 암 병기를 보면 1기가 45.2%로 가장 많아 다른 암에 비해 비교적 빨리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림프절 전이가 동반된 2기는 40.3%, 종양의 크기가 5㎝ 이상이거나 림프절 전이가 4개 이상인 3기는 14.5%였다. 심평원은 “<span class='quot0'>다른 암에 비해 자가검진(촉진)을 통해 유방 종괴(만져지는 덩어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정기적인 국가 암 검진 정책 등에 의해 조기발견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span>”고 설명했다.<br/>유방암은 갑상선암에 이어 여성 암 발생률 2위이다. 40대(34.5%) 여성에게서 가장 많이 발병했으며, 이어 50대(31.1%), 60대(16.4%), 30대(8.3%), 70대(7.9%) 순이었다.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이 34.1%에 달했고, 나머지 65.9%는 유방 일부를 보존하는 방식이었다. <br/>이번 평가에서 109개 의료기관의 종합점수는 평균 97.02점으로 전반적으로 우수했다. 77.1%(84개 기관)이 1등급을 받았고, 42개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1등급에 속했다. 2등급은 12곳(11%), 3등급 8곳(7.3%), 4등급 3곳(2.8%), 5등급 2곳(1.8%)이었다. 등급별 명단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병원 평가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br/>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86.txt

제목: “갑상선암 무시하고, 두경부암 잘 몰라”  
날짜: 201705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522051059001  
ID: 01101101.20170522051059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갑상선암, 치료 안 해도 종양변화 점검 필요 <br/>로봇 갑상선암ㆍ두경부암 수술 세계적 권위 <br/><br/>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지만 예후가 좋아 ‘암’ 대접을 받지 못하는 암이 갑상선암이다. 갑상선암 판정을 받은 이들도 “위암이나 간암이 아니라 다행”이라고 말할 정도다.<br/> 갑상선암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는 의사가 있다. 태경(57) 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다. 태 교수는 “<span class='quot0'>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예후가 좋지만 갑상선암도 암</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갑상선암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암이 커져 주변조직을 침범하거나 림프절전이가 발생해 심한 경우 생명을 잃을 수 있다</span>”고 경고했다.<br/><br/>갑상선암, 종양 크기 작아도 방심 금물<br/> 갑상선암은 암 진행속도가 가장 느린 암이다. 그래서 종양크기가 1㎝미만이고 갑상선에 국한되면 치료보다 관찰을 한다. 태 교수는 여기에 함정이 있다고 지적한다. 평생 종양이 자라지 않으면 몰라도 종양이 커지거나 다른 조직으로 전이될 수 있어 6개월에서 1년마다 초음파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환자들이 검사 자체를 외면하다 일을 당한다는 것이다. <br/> 갑상선암과 함께 경각심이 높지 않은 암이 두경부암이다. 두경부암이 어느 부위에 생기는 암인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 <br/>두경(頭頸)부는 머리와 목 부위를 말한다. 사람은 두경부를 통해 숨을 쉬고, 음식물을 섭취하고, 말을 한다. 이 부위에 암이 발생하면 숨을 쉬고, 음식물을 섭취하고, 말을 할 수 없어 삶의 질이 떨어진다. 태 교수는 “<span class='quot0'>다른 암에 비해 발생가능성이 낮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어 말기에 발견돼 치료가 힘든 암이 두경부암</span>”이라고 말했다.<br/> 태 교수는 두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연하고 과도한 음주를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씹어 먹는 담배를 즐기는 인도에서 두경부암은 폐암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흡연과 음주를 같이 하면 구강암 발생률이 20~30배 정도 증가한다</span>”고 말했다. <br/> 두경부암은 음주, 흡연, 식생활, 위생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후진국 질환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두경부암 중 특히 혀 뒷부분의 구인두에 생기는 암은 인유두종바이러스(HPV)가 중요 발암인자로 밝혀졌다. 태 교수는 “<span class='quot0'>HPV는 성적 접촉에 의해 감염되는데 국내에서 구인두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경각심이 필요하다</span>”고 강조했다.<br/><br/>로봇수술로 암환자 만족도 높여<br/> 태 교수는 로봇수술을 통해 갑상선암과 두경부암을 치료하고 있다. 태 교수는 이비인후과 의사로는 세계 최초로 로봇 갑상선수술을 시행한 로봇수술 대가다. <br/> 기존 갑상선암 수술은 목 부위에 흉터가 남아 환자만족도 떨어졌다. 태 교수가 로봇 갑상선수술을 시도한 것은 환자만족도를 위해서다. 로봇 갑상선수술은 겨드랑이 또는 귀 뒷부위를 절개해 시행된다. <br/>태 교수는 “<span class='quot0'>기존 두경부암 수술은 턱뼈를 절개해야 돼 환자가 받는 충격이 컸다</span>”며 “<span class='quot0'>턱뼈 등을 절개하지 않고 로봇을 입 안에 삽입해 수술할 수 있어 환자만족도가 높다</span>”고 말했다. 태 교수는 로봇 갑상선ㆍ두경부암 수술의 안전성, 효과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 이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br/>태 교수가 갑상선암과 두경부암 치료에 탁월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한양대병원 갑상선ㆍ두경부종양센터가 있어서다. 태 교수는 “<span class='quot0'>매주 월요일 오후 갑상선암, 두경부암 환자 치료를 위해 관련 진료과 교수들이 모여 회의를 열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완벽한 다학제 협력진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헌신한 교수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span>”고 말했다.<br/> 태 교수에게 수술은 예술이다. 그는 “<span class='quot0'>수술이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전공지식, 수술기술은 물론 환자를 살리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수술 준비과정부터 수술이 완전히 끝나는 순간까지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태 교수는 휴가를 쓰지 않는 의사로 유명하다. 매년 해외에서 열리는 학회에 초청을 받아 로봇갑상선암ㆍ두경부암 수술법 강연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해외학회 강연만 20회에 달한다. 태 교수는 “<span class='quot0'>몸은 힘들지만 한국의료 발전상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어 보람을 느끼고 있다</span>”고 말했다.<br/> 태 교수는 후학들에게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치료하라고 강조한다. 입원 환자 상태가 악화되면 한밤중에라도 병원에 달려오는 그이기에 그의 가르침은 후학을 감동시킨다.<br/>태 교수는 “<span class='quot0'>갑상선암은 무시하고, 두경부암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 현실</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이들 암과 관련된 올바른 정보는 물론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과 수술법을 찾아 환자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span>”이라고 밝혔다. 명의가 그냥 된 것이 아님을 실감했다.<br/>김치중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2-387.txt

제목: [카드뉴스] “장군님, 여군은 술자리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날짜: 201705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522051047001  
ID: 01101101.20170522051047001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17일 보훈처장에 임명된 피우진 예비역 중령은 ‘1세대 여군 헬기조종사’로 30년 7개월간의 군 복무 동안 여군의 역사를 새로 써 온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가 살아온 이야기를 카드뉴스로 정리했다.<br/><br/>박주연 인턴기자 wisedragon@hankookilbo.com<br/><br/><br/>※이 카드뉴스는 한국일보의 5월 20일자 기사 ‘“다시 태어나도 군인” 피우진 스토리’( 바로가기 )을 재구성해 작성했습니다.<br/><br/><br/><br/><br/>“<span class='quot0'>장군님, 여군은 술자리의 ‘기쁨조’가 아닙니다</span>”<br/><br/>“이보다 더 짜릿하고 감동적 인사는 없었다. 역대급 홈런이다” <br/><br/>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br/><br/>문재인 정부의 첫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된 피우진 예비역 중령.<br/><br/>이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파격’ 인사였다.<br/><br/>비행경력 25년, 총 비행시간 1,300여 시간…<br/><br/>대한민국 1세대 여성 헬기 조종사인 그가 남긴 기록이다.<br/><br/>1979년 교사로 일하던 피 처장은 우연히 여군사관후보생 모집 공고를 접하고,<br/><br/>‘군대는 남녀차별 없이 계급 아래에 평등할 것’이란 생각에 서울 여군훈련소에 입소한다.<br/><br/>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생각이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br/><br/>사관후보생 면접에 치마를 입지 않은 그에게 면접관은 바지를 걷게 한 뒤 각선미를 체크했다.<br/><br/> ‘내무반 밖에선 꼭 화장하라’는 요구도 뒤따랐다.<br/><br/>‘여군 사관후보생은 우아하게 보여야 한다’는 이유.<br/><br/><br/> “<span class='quot0'>여군 부사관을 예쁜 사복을 입혀 술자리에 보내라</span>”<br/><br/>1988년 대위 계급이던 피 처장이 군사령관의 접대 명령에 맞섰던 일화는 유명하다.<br/><br/>‘막아 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br/><br/>명령을 이행하지 않던 피 처장은 더는 거역하기 어려운 궁지에 몰리자 묘안을 생각해 냈다.<br/><br/>‘부사관들에게 전투복을 입혀 보내자’<br/><br/>전투복을 입고 가면 접대부 다루듯 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br/><br/>피 처장은 ‘명령하신 병력을 준비했다’며 술자리에 보냈고, <br/>당시 이 일로 ‘미운털’이 박혀 보직 해임을 당했다.<br/><br/>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계속 군에서 일어나는 성폭력과 차별에 맞섰다.<br/><br/>2001년, 사단장이 여군 장교를 성희롱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유일하게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 <br/><br/>2002년은 그에게 가슴 아픈 한 해였다. 유방암 1기 판정을 받고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았다.<br/><br/>그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해 암에 걸리지 않은 유방도 함께 절제했다.<br/><br/>이후 3년 동안 문제없이 군 생활을 계속했으나 2005년 9월 상부에서 그의 병력을 문제 삼았다.<br/><br/>군 규정상 암에 걸리면 군복을 벗어야 한다는 것.<br/><br/>평생 가슴 때문에 차별받았던 그가 이젠 ‘가슴이 남성 군인과 똑같다’는 이유로 전역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br/><br/>결국 2006년 11월 강제 전역을 당한 피 처장은 복직을 위한 싸움에 나섰다.<br/><br/>피 처장은 두 차례의 행정소송 끝에 2년여 만에 복직할 수 있게 됐다.<br/><br/>어렵게 복직된 피 처장은 1년 후인 2009년 군 생활을 마무리했고,<br/><br/>최근까지도 여군 인권향상을 위한 ‘젊은여군포럼’ 대표로 활동해왔다.<br/><br/>“군은 전쟁을 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가장 인간적인 집단이어야 합니다. <br/><br/>전우를 대신해서, 상관을 대신해서 내가 죽을 수 있어야 하니까요” <br/><br/>신동아 2006년 12월 호 인터뷰에서<br/><br/>“<span class='quot0'>보훈 가족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보훈 정책을 펼 것</span>”<br/><br/>군 내부의 부조리에 눈 감지 않았던 피우진은 신임 보훈처장으로서 다시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언론사: 한국일보-2-388.txt

제목: [인물 360˚] “다시 태어나도 군인” 피우진 스토리  
날짜: 201705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520050209001  
ID: 01101101.20170520050209001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span class='quot0'>전날 두 시간 밖에 못 자면서 가사를 열심히 외웠어요.</span>” 18일 열린 37주년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피우진(61) 신임 국가보훈처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를 외우느라 밤을 지샜다며 소탈하게 웃었다. 박승훈 전 보훈처장의 반대로 제창되지 못했던 이 노래는 이날 예비역 중령 출신 신임 보훈처장의 씩씩한 목소리로 9년 만에 울려 퍼졌다.<br/>‘1세대 여군 헬기조종사’인 피 처장은 30년 7개월간의 군 복무 동안 여군의 역사를 새로 써 온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군 내부의 부조리에도 쉽게 눈 감지 않았던 그는 이제 신임 보훈처장으로서 또 다른 역사를 쓸 준비를 하고 있다. <br/> <br/> ‘계급 안에선 평등할 것이다’ 끊임없이 도전한 군인<br/><br/>피 처장은 1979년 육군 소위로 임관하면서 군 생활을 시작했다. 청주대 체육학과를 나와 교사로 일했던 그는 우연히 여군사관후보생도 모집 광고를 접했다. 광고에선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성은 우대하고 특기를 발휘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써 있었다. 글귀는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군대는 외모나 학벌ㆍ남녀차별 같은 것 없이 계급 아래에 평등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육군 대령으로 예편한 아버지의 대를 잇는다는 뿌듯함도 있었다. 그 길로 피 처장은 서울여군훈련소에 입소했다.<br/>군 생활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자’는 피 처장의 좌우명에 딱 맞았다. 헬기 조종술을 배운 것도 그 때문이었다. 복무기간 동안 1,300시간 넘게 비행한 그는 ‘생애 처음으로 육중한 기체를 공중으로 떠올리던 순간의 감격과 흥분’이 늘 생생하다고 말했다. 같은 목표를 위해 함께 고생하며 생기는 ‘일체감’ 역시 피 처장이 군 생활을 사랑한 이유였다. 그렇게 더 좋은 군인이 되고자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왔던 피 처장은 12항공단 205항공대대 중대장, 11항공단 본부 부단장, 항공학교 학생대장 등을 역임했다.<br/><br/><br/>하지만 당시 피 처장이 생각한 ‘계급 안의 평등’은 환상에 불과했다. 그가 군에 입대할 당시엔 ‘여군’ 훈련소가 따로 있는 것은 물론 여군단도 따로 있던 시절이다. 그가 입대한 뒤 10년 뒤인 1989년에야 기혼 여군의 출산이 허용됐고, 1985년까지는 여성 부사관의 결혼은 금지됐다. <br/>이런 상황에서 피 처장은 언제나 ‘군인’이 아닌 ‘여자’를 보는 시선에 맞서야 했다. 피 처장이 사관후보생에 지원해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치마 정장이 없어 바지를 입었다고 한다. 그런데 당시 면접관 장교들은 “왜 치마를 입지 않았냐”고 나무라며 바지를 걷어보게 해 그의 다리 흉터와 각선미를 체크했다. 이후 훈련생이 되어선 ‘파마머리를 하고 내무반 밖에서 꼭 화장을 하라’는 요구도 뒤따랐다. ‘여군 사관 후보생들은 우아하게 보여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br/> 임관 뒤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신체 검사를 받을 때면 남군들은 “<span class='quot1'>여군 조종사 중 누구 가슴이 더 크냐</span>”며 수군거렸다. 여군단이 해체되던 1989년, 육군본부의 인사참모가 여군단 주요 간부들을 소집해 ‘여군병과 해체 후 여군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전하며 “<span class='quot2'>앞으로는 치마 폭이나 눈물에 기대지 말고 초콜릿을 원하지 말라</span>”는 말을 했다. 피 처장은 이 자리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한다. 그 동안 여군의 능력이 아닌 ‘치마’만 요구한 것은 군이었기 때문이다. <br/> 피 처장이 1988년 대위 시절 ‘여군 하사관을 술자리에 보내라’는 군사령관의 접대 명령에 맞선 일화는 유명하다. 그는 도저히 부하를 술시중을 들게 하라는 명령을 따를 수 없었다. 예쁜 사복을 입혀 보내라는 요구도 용납하기 어려웠다. 피 처장은 고민 끝에 부하에게 전투복을 입게 한 뒤 ‘명령하신 병력을 준비했다’며 술자리에 보냈다. 그 일로 보직해임을 당했지만, 피 처장은 굴하지 않고 군에서 일어나는 성폭력과 차별에 맞섰다. <br/><br/><br/>“<span class='quot0'>남성 군인과 똑같이 가슴이 없다는 게 문제될 줄은 몰랐다</span>”<br/><br/>피 처장은 성차별은 물론 군 인권 전반에도 관심이 많았다. 그리고 상이군인의 권리와 명예에 큰 영향을 주는 변화도 일궈냈다. 유방암 병력을 이유로 강제전역 명령을 내린 군에 직접 맞서면서다.<br/>피 처장은 2002년 왼쪽 가슴에 유방암 선고를 받았다. 그는 병을 이겨내기 위해 수술을 받으면서 다른 한쪽 가슴까지 함께 절제했다. ‘여성의 상징’은 군인 피우진에게 늘 불편했기 때문이다. 늘 꽉 조이는 속옷을 입고 비행 전 가슴에 압박 붕대를 칭칭 감았던 걸 돌아보며, 그는 “<span class='quot0'>유방을 절제하고 홀가분하게 남은 군 생활을 열심히 하자</span>”고 생각했다. 병을 극복한 뒤 그는 후 4년간 항공학교 학생대장직을 무리 없이 수행했다. <br/>걸림돌은 2005년 부대장이 바뀌면서 또 다시 불거졌다. 새삼스럽게도 과거 수술 이력이 문제가 된 것. ‘암 병력 또는 유방절제술을 받으면 전역대상이 된다’는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전역기준’ 때문이었다. 체력검정결과 1급에 임무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의사 소견서까지 받은 상태였다. 그렇지만 군은 규정을 따를 것을 요구했다. 평생 가슴 때문에 차별 받았던 그가 이젠 ‘남성 군인과 똑같이 가슴이 있다’는 이유로 전역 당할 위기에 처한 셈이다.<br/>결국 2006년 11월 강제 전역을 당한 피 중령은 복직을 위한 싸움에 나섰다. 전투에서 점점 힘이 아닌 전술과 조직관리 등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신체 일부가 없다고 곧바로 전역해야 하는 규정도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피 처장은 두 차례의 행정소송 끝에 2년 여 만에 복직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씨가 유방 절제술을 받았으나 경과가 양호하고 정기 체력검정에서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아 현역 복무에 장애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렇게 2008년 군으로 돌아온 피 처장은 2009년 항공학교 교리발전처장을 끝으로 군 생활을 마무리했다.<br/><br/><br/><br/>2009년 피우진 처장 전역식. 미디어몽구 유튜브<br/><br/>“저는 여전히 군을 사랑하고, 우리 군대를 믿습니다”<br/><br/> 복직 판결이 내려진 뒤 피 처장은 “군대 내 인권침해를 고발하고, 여군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일들을 꾸준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복직을 위해 싸운 경험이 그에겐 군인 권리를 생각하는 큰 계기가 된 것이다. 여군 성차별 실태를 폭로하는 자전에세이 ‘여군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를 펴낸 것도, 복직 재판 중이던 2008년 진보신당에 입당해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것도 모두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br/>피 처장이 당시 출마를 결정한 것은 군생활 동안 군인의 의무는 강조해도 권리는 보장하지 않는 데 아쉬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때마침 그는 국정감사에서 복직 문제를 다뤄준 인연으로 알게 된 노회찬 의원의 제안으로 공천을 받았다. 피 처장은 선거운동 당시 비행 때 두르던 ‘빨간 마후라(스카프)’를 둘렀다고 한다. 그의 행보가 “군이 문제를 함께 극복하는 조직이 되길 바라는” 애정에서 나온 것임을 보여주는 일화다. 최근까지도 그는 여군 인권향상을 위한 예비역 여군 모임인 ‘젊은여군포럼’ 대표로 활동해왔다. <br/><br/><br/>이전 정부에서 국가보훈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주 논란이 됐다. 전 보훈처장은 ‘임을위한행진곡’ 제창에 반대한 것은 물론, 한국전쟁 기념 시가행진에 광주민주화운동 진압부대를 참여시키자는 제안을 했다. 2015년에는 ‘나라사랑 교육과 건전한 국가관 확립’에 집중하는 ‘나라사랑 정신 계승발전 예산’으로 100억원을 받기도 했다.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의 보호라는 본업보다 다른 곳에 더 신경을 쓴 것이다. <br/>그런 보훈처를 이어받는 피 처장의 어깨는 무거울 수 밖에 없다. 보훈처장으로 임명되면서 그는 “보훈이 곧 그 나라 안보의 과거이자 미래”라며 “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보훈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스스로 보훈 가족이자 누구보다도 군 인권에 힘써온 신임 보훈 처장에게 국민들은 주목하고 있다.<br/>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89.txt

제목: ‘슬롯머신 대부’ 정덕진, 암투병 끝에 지난달 사망  
날짜: 201705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519050945002  
ID: 01101101.20170519050945002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슬롯머신 업계 대부’로 불린 정덕진(76)씨가 지난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br/>19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암 투병 중이던 정씨는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지난달 사망해 같은 달 22일 발인했다. <br/>1970년대 초 서울 청량리에서 전자오락실을 운영하기며 재산을 모으기 시작했던 정씨는, 이후 정·관계는 물론 4년 전 사망한 서방파 두목 김태촌씨 등 조직폭력배 세력까지 등에 업고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br/>1993년 정씨는 당시 검사였던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진두지휘 한 일명 ‘슬롯머신 사건’ 때 수사를 받으면서 세상에 이름을 알렸다.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정·관계는 물론 법조계에도 금품을 뿌린 일이 드러나면서다. 당시 이 사건으로 '6공 황태자'로 군림한 박철언(75) 의원을 비롯해 엄삼탁(2008년 사망) 병무청장 등 10여명이 정씨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줄줄이 구속됐다.<br/>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정씨는 2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1996년 8·15 특사 때 사면됐다. 이후에도 원정도박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는 등 곡절이 많았다. <br/>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90.txt

제목: 가볍게 툭툭... 잽으로 인류의 욕망을 KO시키자  
날짜: 201705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519050959001  
ID: 01101101.20170519050959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span class='quot0'>밖으로는 모든 사회적 문제의 근원이 되는 인간의 탐욕을 식히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안으로는 <span class='quot0'>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살아내</span>기 위해 내 문학이 있다.</span>” 이 책 ‘여는 글’의 이 발언을 보는 순간, 내 서평은 굴러가기 시작했다. ‘탐욕’을 우리 시대 모든 문제의 근간으로 보는 시각과 “<span class='quot0'>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살아내</span>”고자 하는 그의 선한 의지에 나는 선뜻 물들었다. 그때 들여다보인 내 안의 하찮고 불순한 미망들은 잠시 접어두었다.<br/>더불어 이런 고려도 약간은 있었다. 그가 서울 어디가 아니라, 부산지역 출판사에서 책을 내었다는 살핌에 대한 내 나름의 존중. 지방에서 사는 작가가 지방에서 책을 낸다는 건 지역출판에 대한 애정의 표출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욕심을 버렸다는 뜻이기도 하다. 부산만 해도 출판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로는 변방이다. 그러니 그의 이 선택이 내게는 탐욕을 내치겠다는 실천적 메시지로 다가온 것이다. 어찌 고맙지 않을 것인가. <br/>이 책 ‘욕망의 인간화’라는 꼭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span class='quot0'>이제 인류 최고의 적은 과학도 아니고 자본도 아니고 자본의 결탁이 만들어낸 ‘탐욕’이라고.</span>” 맞다. 현대문명의 자본주의화와 함께 확장되어 온 인간의 ‘탐욕’이 현대사회 만악의 근원이다. 그는 이를 일러 심암(心癌)이라고 일컫는데, 그만큼 치유하기 어려운 심각한 병증이란 뜻일 터이다. 하지만, 나는 탐욕이 심암보다 더한 중독성을 갖고 있다고 여긴다. 암은 나만 소멸시킬 뿐이나, 탐욕은 나와 너, 우리 모두를 파멸로 이끌기 때문이다. <br/>그런데 나는 참 궁금했다. 내가 알건대 박두규는 그저 시인이자, 샌님 같은 교사였다. 그러던 그가 언제 이와 같은 깊은 사유에 눈떴을까. 무엇이 그를 이런 방향으로 이끌었을까. 나는 그의 생래적인 선함과 함께 지리산을 꼽는다. 지리산은 그에게 단순한 산이 아니라, 지리산이라는 이름의 영적인 스승이다. 그 지리산의 영험한 기운이 그를 어떤 깨인 자로 인도하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다. <br/>내가 생각하는 영험한 기운이 이 책에는 ‘내 맘의 영성’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그는 이 ‘영성’을 “<span class='quot0'>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엄청난 보물</span>”이라고 적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당부한다. “<span class='quot0'>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라도 틈틈이 그리고 한 순간 깊게, 스스로의 마음</span>”인 이 영성을 들여다보라고.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나 “개인의 탐욕을 절제하고 스스로 삶의 실상을 정확히” 꿰뚫어 보라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 그릇된 사회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려면 먼저 나 자신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내 맘의 영성’을 깨우쳐야 하는 것이다. <br/>그는 이와 같은 수신(修身)을 권투로 비유하는데, 발상이 상당히 흥미롭다. 그가 권투에서 중시하는 건 스트레이트나 훅 같은 펀치가 아니다. 바로 ‘쨉’이다. 사람들은 흔히 이 쨉을 무시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 쨉이야말로 순간순간을 깨어 있으려는 치열함이다. 평범하게 보이지만, 이 쨉의 치열함이 있어 한 방의 케이오가 가능한 것이다.<br/>생을 버티게 하는 문장들<br/>박두규 지음<br/>산지니 발행ㆍ220쪽ㆍ1만3,000원<br/><br/>그는 이 쨉과 같은 개인의 성찰과 반성 없이 탐욕의 자본주의는 결코 변하지 않을 거라 본다. 세상을 바꾸고 싶은 자는 누구라도 열심히 쨉을 날려야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현대문명은 전지구적이다. 혼자만의 쨉으로 거꾸러뜨리기에는 너무나도 방대하고 힘도 세다. 전세계의 영성체가 연대하지 않고서는 상대할 엄두조차 낼 수 없다. <br/>그리하여 탄생한 게 ‘생명평화’인데, 그는 열정적으로 이 ‘생명평화’에 매진하고 있다. “<span class='quot0'>지금으로서는 이것이 대안문화, 대안문명을 위한 실천적 운동이라고 할 수 있</span>”기 때문이다. “<span class='quot0'>21세기는 자본의 문명이 가질 수밖에 없는 반생명적이고 비인간적인 문제들을 극복해야 하는 전환기적 인식이 요구되는데,</span>” 그는 생명평화운동이 바로 그 중심화두라고 믿고 있다. <br/>아마도 그래서일 것이다. 그의 글 속에 등장하는 자연은 외경과 순리의 대상으로 그려진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내 눈과 귀를 잡아 끈 부분이 바로 여기이다. “가난이라는 것은 원래 없는 것이오. 자연에 어디 가난이 있습니까? (중략) 원래 사람은 자연인데 사람들이 스스로 구분하면서부터 가난도 생기고 욕심도 생긴 겁니다. 자연은 그 모두가 그 존재 스스로를 나누는 것들이어서 가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지요.” <br/>그래, 맞다. 우리도 잘 안다. 자연에는 가난도 없고 차별도 없다는 것을. 하지만 둘러보라. 자연마저도 자본가들의 소유인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 소유와 탐욕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생명평화’든 뭐든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밖에는 없다. ‘내 맘의 영성’을 먼저 깨우치라는 그의 곡진한 청유에로. 그 깨우친 눈으로 “눈부신 봄날 마른 가지를 비집고 올라오는 초록빛 새잎을 보면, 잃어버린 아름다운 내가 생각나 눈물이 나고, 온 세상을 초록바다로 만들어 출렁이는 봄산을 보면, 잃어버린 그대가 생각나 이 비루한 몸을 낮춰 수없이 절하고 싶어”질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게 삶이다.<br/>시인

언론사: 한국일보-2-391.txt

제목: 1세대 여성 헬기 조종사… ‘부당 전역조치’ 소송으로 뒤집기도  
날짜: 201705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517050819002  
ID: 01101101.20170517050819002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피우진 신임 보훈처장은 누구<br/><br/><br/>17일 보훈처장에 임명된 피우진 예비역 중령은 첫 여성 보훈처장인 데다 장성이 아닌 영관급 출신이라는 점에서 보수적인 군 문화를 감안하면 파격적인 인사로 꼽힌다. 대한민국 1세대 여성 헬기 조종사로서 유리천장을 깬 데 이어 소송을 통해 군 복무 중 심신장애를 얻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강제 전역되는 조치를 끊어낸 것으로 유명하다. <br/>피 처장은 1979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특전사 중대장을 지냈고 이후 육군 항공병과에 자원해 1981년 여성 헬기 조종사가 됐다. 그는 25년간 1,300여 시간 비행기록을 세웠다. 이후 2002년 유방암에 걸려 투병하다 병마를 이겨냈지만, 군 신체검사에서 장애 판정을 받고 2006년 11월 강제 전역됐다. 이에 항의해 행정소송을 진행한 끝에 승소해 2008년 복직했다. 피 처장의 이런 노력으로 암 병력 신체 상해 등으로 강제 전역시키는 군인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유방암으로 공상군경 3급 판정을 받은 그는 보훈가족이기도 해 보훈 대상자의 처지를 더욱 잘 이해할 것으로 기대된다. <br/>그는 2006년 펴낸 자서전에서 여군 내 성희롱 문제와 맞서 싸운 일화도 소개했다. 대위 시절 술자리에 부사관을 보내라는 4성 장군의 명령에 전투복을 입혀 내보냈다가 보직 해임을 당했고 2000년 사단장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 여군 장교를 돕기 위해 개인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언론 인터뷰에 응하기도 했다. <br/>그는 군 복직 판결이 나기 전 2008년 진보신당 제18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피 처장은 예비역 여군들이 결성한 젊은여군포럼 대표로 활동하며 군대 내 인권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고 2015년부터 올해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br/>피 처장의 임명으로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식은 성대하게 치러질 전망이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span class='quot0'>(5?18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것이냐</span>”는 질문에 “<span class='quot0'>저는 애국가도 씩씩하게 부르고 님을 위한 행진곡도 씩씩하게 부를 것</span>”이라고 밝혔다.<br/>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br/><br/>▦충북 충주(61) ▦청주여상, 청주대 체육학과 ▦ 202 항공대대 헬기 조종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전문위원, 젊은여군포럼 대표

언론사: 한국일보-2-392.txt

제목: 50대 이후 대장내시경… 너무 늦어요  
날짜: 201705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517050733001  
ID: 01101101.20170517050733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대장암 수술 환자 10명 중 1명은 4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후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게 되면 늦을 수 있다는 얘기다. <br/>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015년 의료기관 252곳의 대장암 수술 1만7,355건을 분석한 ‘대장암 5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17일 공개했다.<br/>연령별로 보면 18~39세에서는 2.3%에 불과했지만 40대엔 8,0%로 높아졌고 50대에는 22.4%로 껑충 뛰었다. 60대가 27.6%, 70대가 29.4%, 그리고 80대 이상이 10.3%였다. 40세 이후부터는 대장내시경 검사가 필수적인 것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59.2%로 여성보다 1.5배 가량 많았다. <br/>대장암은 육류 섭취가 많은 서양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암이었으나 국내에서도 서구식 식습관의 확산과 고령화 영향으로 급증해왔다. 2015년 대장암 사망자는 인구 10만명당 16.4명으로 폐암(34.1명), 간암(22.2명), 위암(16.7명) 다음으로 많았다. 남성은 위암·폐암 다음, 여성은 갑상선암·유방암 다음으로 대장암이 많아 남녀 모두 세 번째로 많은 암이다.<br/>이번 평가에서 252개 의료기관 중 전문인력, 수술 과정과 결과를 포함해 종합점수 산출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은 134개였으며 이 중 119곳(88.9%)이 1등급을 받았고 상급종합병원 43곳은 모두 1등급에 속했다. 2등급은 8곳(6%), 3등급은 5곳(3.7%), 4등급과 5등급이 각각 1곳(0.7%)이었다. 등급별 명단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병원평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br/>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93.txt

제목: 안동병원, 대장암 치료 1등급  
날짜: 201705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517050730001  
ID: 01101101.20170517050730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경북 안동시 안동병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대장암 5차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안동병원은 2011년부터 매년 1등급을 받고 있다.<br/>심평원은 2015년 1년간 원발성 대장암(대장에서 기원한 악성 종양) 수술을 한 전국 252개 의료기관 중 수술건수 등 종합점수 산출기준을 충족한 134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안동병원 등 119개(88.9%)기관이 1등급을 받았다고 발표했다.<br/>대장암은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1~4기로 구분되는데, 이번 평가결과 종양이 국소림프절을 침범한 3기에 발견되는 환자가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나 조기발견을 위한 내시경 검진 등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br/>대장암 환자 중 남성(59.2%)이 여성(40.8%)보다 약 1.5배 많았고, 연령층은 50대~70대가 79.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br/>대장암 적정성 평가는 수술 전 정확한 진단을 위한 정밀검사 여부와 치료와 예후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최소한의 임파절 절제 여부, 수술 후 항암제 투여 여부 등 총 21개 지표에 대해 평가했다.<br/><br/>심평원은 각 평가지표를 취합한 종합점수를 산출하고, 국민이 알기 쉽게 의료기관을 5등급으로 구분했으며 평가결과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확인할 수 있다.<br/>김익동 홍보팀장은 “<span class='quot0'>안동병원은 환자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최고의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span>”고 말했다.<br/>권정식기자 kwonjs57@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94.txt

제목: [애니꿀팁] 강아지 우울증, 최고의 명약은?  
날짜: 201705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517050728001  
ID: 01101101.20170517050728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br/><br/>현대인에게 마음의 감기라는 우울증, 항상 밝고 활발했던 반려견도 몸이 아프거나 오랜 시간 혼자 있는 것이 반복되면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 하지만 반려견의 우울증에 대해 잘 모르는 보호자들은 우울증으로 인한 변화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요즘 진료를 하다 보면 보호자들이 전하는 반려견의 증세가 우울증으로 진단될 때가 많다. <br/>다행히 일반적으로 개들은 항상 행복한 동물이며, 그들은 매 순간을 위해 산다. 그러므로 우울증이 건강상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조금만 노력하면 회복이 어렵지 않다. 하지만 만성 우울증은 강아지의 면역체계를 약화시켜서 질병에 쉽게 걸리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서게 만들기에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반려견이 우울한 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br/>임상적으로 개의 우울증은 ‘개가 가족과 어울리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보내고, 주변 환경에 무관심하며, 먹는 것에 거의 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행동’으로 정의된다. 개가 최근에 좋아하는 놀이에 관심이 없거나, 산책을 싫어하고 움직이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의 시간에 시무룩하고 무기력해 보일 경우, 그리고 식욕이 저하된 경우가 우울증에 해당할 수 있다. 급격한 체중 감소, 비정상적인 털 빠짐,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음, 숨기(혼자 있으려고 함), 평소보다 집안을 많이 어지럽힘, 신체부위를 과도하게 핥거나 깨무는 행동도 우울증 증상이다. 또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울증에 걸리면 불안 장애 증세를 보이는데 의미 없는 동작을 반복하거나 평소와 다른 습관을 보이는 지 세심하게 지켜봐야 한다.<br/><br/><br/>우울증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개는 습관성 동물로서, 반복되는 일상을 좋아하고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변 환경의 어떤 변화도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함께 사는 동물의 죽음, 주인의 우울한 상태, 새로운 가족 구성원의 추가, 나이 듦도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 .<br/>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도 우울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앞서 언급한 우울한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면 급성 감염, 저혈당증, 중독 등의 건강상 문제가 있는 지 의심해 볼 만 하다. 몇 주 동안 우울증을 보였다면 관절염, 췌장염, 신부전, 암 등의 만성 질환도 체크해봐야 한다. 따라서 우울증의 증상이 환경 변화로 인한 것 같지 않거나 1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에 내원해서 건강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br/>반려견이 우울증에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건강 이상으로 인한 것일 수 있기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 원인 질환을 해결해야 한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개도 호르몬 등 체내의 화학적 불균형으로 인해 만성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항우울제를 처방 받아야 한다.<br/>우울증이 환경 변화로 인한 것이라면,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함께 놀아주고, 긴 시간 산책을 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함께 살던 동물이 사망해서 외로움이나 슬픔으로 개가 우울해지면 공원이나 반려견 카페 등을 방문해 다른 개와 사귈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한다. <br/>우울증으로 고생하는 개에게 가족의 사랑이 듬뿍 담긴 스킨십은 최고의 치료법이다. 하지만 개가 스킨십을 거부하는 상황이면 무리하게 껴안기보다 개 옆에 가만히 앉아있거나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것도 좋다. 운동과 노즈워크(반려견이 코를 사용하는 모든 후각 활동)는 개의 기분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면역력 향상에도 좋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시중에 나온 반려견에게 진정 효과가 있는 음악도 도움이 된다. 특히, 분리불안으로 유발된 우울증의 경우 부드러운 음악은 개가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끼게 만들어 준다. <br/><br/><br/>반려인이 주의할 점도 있다. 개들은 반려인의 기분과 집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주인이 우울하다면 개도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된다. 집안 분위기가 긴장되면 개도 불안해 한다. 행복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지내는 게 사람에게도, 개에게도 좋다는 얘기다.<br/>영국의 한 일간지는 ‘집에 혼자 있는 반려견 4마리 중 1마리는 우울증을 앓고 있다’ 는 연구결과를 보도한 적이 있다.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긴 우리나라는 반려견이 집에서 혼자 외로움을 달래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도 높은 것 같다. 오늘 귀가하면 반려견에게 이상 징후는 없는지 세심히 관찰하고 우울증 예방과 해결을 위해 노력 해보자.<br/><br/><br/>문재봉 수의사(이리온 동물병원 대표원장) <br/> <br/><br/>▶ 동그람이 페이스북 바로가기<br/><br/>▶ 동그람이 카카오채널 바로가기

언론사: 한국일보-2-395.txt

제목: [사설] 대통령 측근들의 퇴장, 투명한 국정운영 초석 되길  
날짜: 201705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516050812002  
ID: 01101101.20170516050812002  
카테고리: 정치>청와대  
본문: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16일 퇴진을 선언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보낸 글에서 “그 분(문 대통령)과의 눈물 나는 지난 시간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이제 저는 퇴장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 당선 바로 다음 날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span class='quot0'>정권교체는 이루어졌고 제가 할 일은 다한 듯하다</span>”며 미국으로 출국했다.<br/>두 사람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문 대통령과 동고동락해 온 최측근이자, 온 몸을 던져 정권교체를 일궈낸 일등공신이다. 청와대 요직에 기용될 것이라는 예측이 파다했던 배경이다. 본인들도 문 대통령을 돕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을까. 하지만 이들은 아름다운 퇴장을 선택했다. 양 전 비서관은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 정권교체를 갈구했지 권력을 탐하지 않았다. 저의 퇴장을 끝으로, 패권이니 친문ㆍ친노 프레임이니 3철이니 하는 낡은 언어도 거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인재 영입을 주도했던 최재성 전 의원도 “<span class='quot1'>지금은 인재가 넘치니 비켜있겠다</span>”고 퇴진 의사를 밝혔다.<br/>문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한 이후 끊임없이 보수 세력의 친노ㆍ친문 프레임에 시달렸다. 심지어 진보 진영에서조차 패권주의 존재를 당연시했다.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18대 대선평가보고서’에서 패권주의를 패배 요인으로 지적하면서 “<span class='quot2'>박근혜 대통령처럼 문 대표도 비선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span>”며 친노를 멀리하라고 당부했을 정도다. 실체 여부를 떠나 친노ㆍ친문 패권주의 논란은 새 정부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br/>이런 가운데 정권 창출의 산파역을 했던 두 사람이 2선 후퇴를 결정함에 따라 문 대통령은 계파와 지역, 노선을 아우르는 대통합 인사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미 문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계파와 지역을 뛰어넘는 인사 방식을 선보였다. 호남 출신 총리와 비문(非文) 비서실장에 이어 경선 때 박원순, 안희정 후보를 도왔던 인사들을 요직에 앉혀 계파를 불문한 인사 의지를 드러냈다.<br/>문 대통령은 금주 중 총리 후보자와 장관 인선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내각 구성에서도 정파와 지역을 아우르는 탕평과 통합의 진용을 구축하길 기대한다. 문 대통령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이 터졌을 때 “<span class='quot3'>공적 시스템 밖에서 대통령의 권력 운용에 개입하는 비선의 존재는 정권을 병들게 하는 암적 요소</span>”라고 비판했다. 임기를 마칠 때까지 측근정치, 비선정치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국정을 투명하게 운영해주기 바란다.

언론사: 한국일보-2-396.txt

제목: 고아성 “내 경험 바탕 을의 아픔 전하고 싶었다"  
날짜: 201705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516050703002  
ID: 01101101.20170516050703002  
카테고리: 문화>영화  
본문: “<span class='quot0'>전 자아 자체가 ‘을’입니다.</span>”<br/>면접관들에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왔지, 인생을 걸긴 무슨 인생을 거냐”라며 외쳤던 신입사원 은호원(고아성)이 발랄한 20대로 다시 돌아왔다. 이 시대 “‘을’들을 위로”한 MBC 드라마 ‘자체발광 오피스’ 출연은 그에게 값진 경험이었다. 16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배우 고아성(25)은 “<span class='quot1'>나도 ‘을’의 부당함을 겪은 경험이 있어 감정이입을 했다</span>”고 말했다. <br/>고아성은 “<span class='quot2'>은호원 역할을 연구할 때 식탁 위까지 올라와서도 죽지 못하고 팔딱 뛰는 생선 이미지를 생각했다</span>”고 했다. “<span class='quot0'>직장에 갓 입사한 비정규직 신입사원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연기하면서 제가 겪었던 ‘을’의 경험을 떠올리며 누구나 지니고 있을 ‘을’의 아픔을 깨우고 싶었다</span>”고 덧붙였다.<br/>‘자체발광 오피스’는 계약직 신입사원이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난 후 ‘슈퍼 을’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렸다. 할 말을 못 하고 사는 수많은 ‘을’을 대변하는 ‘사이다 발언’으로 대리만족을 선사했다. “나도 고시원 살면서 알았다. 손바닥만한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값이 7만원쯤 한다는 거” 등의 대사는 유쾌하면서도 씁쓸한 공감을 자아냈다.<br/>고아성이 생각한 이 드라마의 최종 목표는 “세대 공감”이다. 사회초년생뿐만 아니라 “대리, 과장, 부장의 공감까지 얻었다면 성공”이라는 것이다. 그는 “시청자들이 현실적인 공감을 넘어 판타지를 원하는 것 같다. 속 시원한 대사를 어떻게 균형 있게 표현할 것인지 논의를 많이 했다”며 “사회초년생 친구들에게 잘 보고 있다는 연락이 많이 왔다”고 말했다. <br/> 고아성은 작품 안에서 유독 ‘을의 인생’을 살았다. ‘오피스’에서 인턴사원 이미례 역을 맡아 정직원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연기했고, SBS 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에서는 사회 부조리와 싸우는 10대 임산부 서봄 역을 연기했다. 고아성은 “‘을’은 주변에 많은 듯하지만 결코 연기에 반영할 기본 모델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역할은 아니다”며 “평소 주변 사람들의 특성을 관찰하고는 하는데, ‘아 저런 인물을 연기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br/>“<span class='quot0'>일주일에 3시간 분량을 만드는</span>”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면서도 “<span class='quot0'>개성 있는 역할로 숨겨왔던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어</span>” ‘자체발광 오피스’가 고아성에겐 소중한 경험이었다. 그는 시즌2 욕심까지 내비쳤다. “현장에서 배우들과 얘기했어요. 암에 걸린 도기택(이동휘)이 수술에 성공하고 다른 인물들이 직급이 올라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그림이요. 이런 얘기들을 시즌2에서 엮어나간다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br/>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언론사: 한국일보-2-397.txt

제목: [헬스 프리즘] 졸혼(卒婚), 정신건강의 적신호  
날짜: 201705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515050850001  
ID: 01101101.20170515050850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전홍진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br/><br/>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기다. 결혼을 안하고 마흔이 넘어서도 싱글 라이프를 유지하는 남자들의 이야기, 혼밥, 혼술을 즐기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TV에 달콤하게 그려진다. 일과 생활에 치이는 사람들에게는 자유롭고 간섭을 받지 않는 자신만의 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다. 여기에 더해서 졸혼(卒婚) 이라는 낯선 단어가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배우 백일섭씨가 졸혼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면서 널리 알려졌다.<br/>졸혼은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으로 일본이 원조이다. 일본어로는 ‘소츠콘’이이라고 한다.<br/>이혼과는 달리 결혼 계약은 유지한 채로 각자의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부부가 사이가 좋지 않아 따로 떨어져 사는 별거와 비슷한 형태이지만 별거에서 느껴지는 부정적인 의미를 희석하고 부부 각각의 독립적인 삶을 능동적으로 택했다는 의미를 더해서 만든 신조어이다.<br/>졸혼이란 단어가 먼저 만들어진 만큼 일본에서도 중년 이후 부부의 졸혼이 늘어나고 있다. 부부가 결혼을 하고 20년 정도가 지나면 50대 초반이 된다. 남편이 은퇴하고 아이들은 대학에 진학하면서 독립하게 된다. 부부간에 같이 지내야 하는 시간이 크게 늘어난다. <br/>하지만 부부간에 대화와 소통의 훈련을 해 본 적이 없는 부부에게 남아도는 시간은 큰 부담이 된다. 중년 이후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편이 집에서 삼시세끼를 먹는 ‘삼식이’라고 할 정도이다.<br/>혼자 지내는 생활이 처음에는 신선하고 젊을 때 못다한 즐거운 생활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이다. 하지만 옆에서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배우자가 있는 것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오래지 않아 느끼게 된다. <br/>혼자 지내는 경우에 대부분 간섭 받지 않고 술을 마시게 된다. 식사는 규칙적이지 않고 거르게 되기 일쑤이다. 국내외 여행을 다녀 보려고 하지만 예전 같지 않고 여기 저기 아프게 되고 기억력도 떨어지게 된다. <br/>건강이 안 좋아지면 의심이 많아지게 된다. '내가 큰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암에 걸리지 않았을까' 걱정을 하다 보면 잠이 잘 오지 않고 여기 저기 아프게 된다. 식사를 하기도 싫고 우울한 기분에 잠기게 된다. 그러다가 배우자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생각하다가 의심이 생기고 의부증이나 의처증에 빠지게 될 수 있다. 혼자 집에서 나오지 않고 지내다 결국 자신이 가족들로부터 고립되었다는 허탈감이 몰려오게 된다.<br/>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덮어 버리고 대화 없이 자신의 일에 매몰되어 살아간다면 은퇴 이후 자신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경제적으로 가족을 위해 봉사한 것 만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다. 부부간에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시작해 보면 어떨까?

언론사: 한국일보-2-398.txt

제목: 페경기 여성 위협하던 난소암 20~30대 환자 크게 늘어  
날짜: 201705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515050848002  
ID: 01101101.20170515050848002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20~30대 여성 발병 17% 차지<br/><br/>비혼(非婚) 여성과 만산(晩産) 여성이 늘면서 폐경기 이후 여성을 위협하던 난소암이 20~30대 젊은 여성에게도 증가하고 있다.<br/>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난소암으로 진료받은 20~30대 환자가 2,388명에서 3,145명으로 32%나 늘어났다. 2016년 기준 연령대로 보면 50~60대 폐경기 이후 여성이 49%로 가장 많았지만 20~30대 젊은 여성도 17%를 차지했다.<br/>기경도 강동경희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span class='quot0'>배란이 자주 일어날수록 난소암 발병 위험이 증가하는데 전보다 초경이 빨라진 점, 사회적으로 미혼 여성과 출산을 미루는 여성이 많아지면서 고령 임신이 늘어난 것 때문에 젊은 여성 환자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span>”고 했다.<br/>난소암은 초기 증상이 없어 대부분 전이된 상태로 발견되기 때문에 여성암 중 사망률이 가장 높은 고약한 암이다. 여성암 사망률 중 1위다. 특히 가임기 여성에서 난소암은 임신ㆍ출산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치료가 까다로워 예후가 나쁘다. 가족력이 상당히 높은 질환이기에 이에 해당하면 젊다고 방심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부인암 검진을 챙겨야 한다. <br/>기 교수는 “<span class='quot1'>증세가 있어 병원을 찾을 때면 대개 3기 이상인 경우가 많아 가임 능력을 보전하는 치료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 가임기 여성이라면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span>”고 했다.<br/>난소암은 조기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2%로 매우 양호하지만 전이됐다면 5년 생존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42%에 불과하다. 난소암으로 사망한 모친이나 자매가 있다면 난소암 발생률은 18배나 높아진다.<br/>출산 경험이 없거나 불임, 비만이고, 유방암이나 자궁내막암, 직장암의 병력이 있다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족력이 있다면 6개월마다 검진이 필요한데 질 초음파, 종양표지자 검사를 실시하며 암이 의심된다면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br/>기 교수는 “<span class='quot1'>난소암 환자 대부분이 전이된 상태로 내원해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수술과 항암치료를 해도 좋은 예후를 장담할 수 없어 안타까울 때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1'>가임기 때부터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진을 하기 바란다</span>”고 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한국일보-2-399.txt

제목: [헬스 파일]  
날짜: 201705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70515050848001  
ID: 01101101.20170515050848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건강관리협회, 자궁경부암 무료 접종<br/>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채종일)는 12~13세 여아에게 올해에도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 백신접종을 시행한다. 2004년 1월 1일~ 2005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여아가 대상자다. 보호자와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해 건강상담과 함께 1차 접종을 받고, 6개월 후에 다시 상담과 2차 접종을 마치면 된다. (02)2600-0163<br/><br/>서울대병원, 간이식 건강강좌<br/>서울대병원은 17일 오후 1시 암병원 2층 서성환홀에서 ‘간암환자의 치료-간이식’을 주제로 건강강좌를 연다. 이번 강좌에서는 ▦간이식 수술 소개 ▦혈액형 불일치 간이식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장기이식센터 윤경철 교수가 강의하며, 사전등록 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하다. (02)2072-3550<br/><br/>서울아산병원, COPD 강좌<br/>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이재승ㆍ흉부외과 최세훈 교수는 18일 오후 2시 병원 동관 6층 대강당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과 폐암의 치료’ 무료 건강강좌를 연다. 호흡곤란 증상을 일으키는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암 사망률 1위인 폐암은 흡연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는 폐질환이다. COPD와 폐암의 진단·치료, 예방법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02)3010-3051<br/><br/>서울성모병원, 위암 강좌<br/>서울성모병원 위암센터는 16일 오후 1시 위암강좌와 위암 환자를 위한 식단을 전시한다. 강좌는 ▦위암센터장 박조현 교수의 ‘서울성모병원 위암센터 소개 및 위암치료성적’, ▦외과 김지현 교수의 ‘위수술 후 관리 및 정기검진’, ▦외과 이한홍 교수의 ‘로봇수술을 비롯한 위암의 최신수술법’, ▦소화기내과 박재명 교수의 ‘서울성모병원의 내시경 위암치료’, ▦종양내과 김인호 교수의 ‘항암화학요법의 부작용 관리’ 등이다. 또한 위암환자를 위한 식단이 지하1층 대강당 앞에 전시된다. (02)2258-2677~8, 2041~3<br/><br/>김안과병원, 당뇨망막병증 강좌<br/>건양의대 김안과병원은 18일 오후 3시30분 김안과병원 명곡홀(망막병원 7층)에서 '당뇨망막병증'을 주제로 해피 eye 눈 건강 강좌를 개최한다. 강좌는 망막병원 김주연 교수가 강의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청중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577-2639<br/><br/>JW중외, A형 혈우병 치료제 국내 판권<br/>JW중외제약이 투약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A형 혈우병 치료제의 국내 판권을 획득했다. JW중외제약은 로슈그룹 산하 쥬가이제약과 A형 혈우병치료제인 '에미시주맙’ 국내 판매를 위한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에미시주맙은 혈액응고 제8인자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하는 A형 혈우병을 치료하는 유전자재조합 생물학적 제제다.<br/>이화의료원, 의료선교센터 개소<br/>이화의료원이 보구여관 설립 130주년을 맞아 의료원의 미션인 사랑의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의료선교센터를 열었다. 초대 센터장으로 김영주 산부인과 교수를 임명했다. 센터는 기존 해외 의료봉사 활동뿐만 아니라 비전 세미나, 교직원 기도회, 연세의료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선교의 달 행사 등 국내외 의료봉사와 자선사업을 통해 직원들의 사명감을 높이고 기독교 기관 역할을 강화한다.<br/><br/>국제성모병원, 소화기내시경검사 5만례<br/>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은 최근 소화기내시경검사 5만례를 돌파했다. 2014년 개원 이후 만 3년 만에 달성한 것으로 국제성모병원 소화기센터는 지난달 말까지 5만1,418건의 소화기내시경검사를 시행했다. 이 가운데 위내시경 검사가 3만6,7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점막하 종양 절제술 등의 치료내시경 시술이 1만3,137건이었다.<br/>분당서울대병원, 사우디 병원시스템 수출<br/>분당서울대병원-SK텔레콤-이지케어텍 컨소시엄이 사우디 왕립위원회 산하 주베일병원과 500만 달러 규모의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신규 수주ㆍ사업을 시작했다. 컨소시엄은 지난 2년 간 국가방위부 프로젝트의 6개 대형병원과 70개 1차 의료기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동지역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주베일병원은 사우디 동부 산업도시에 있는 260병상 규모 2차 병원으로 왕립위 임직원, 해당지역 외국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